

#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39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1. 8. 31

## < 大韓中國學會 >

고 문 : 성과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이재하(경성대)  
부 회 장 : 김세환(부산대) 서석홍(부경대) 이철리(경남대) 임수암(경남정보대)  
감 사 : 김태관(동의대) 진광호(부산외대)  
연구이사(겸 위원) : 김용운(동아대)  
연구윤리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창경(부경대) 박재진(동서대) 유병태(인제대)  
하영삼(경성대)  
총무이사 : 이화범(경성대)  
학술이사 : 강경구(동의대) 김윤경(신라대) 박노종(동아대) 정해용(신라대)  
최낙민(한국해양대)  
편집이사(겸 위원) : 김창경(부경대)  
편집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명구(명지대) 김태만(한국해양대) 문병순(경남대)  
오만중(전남대) 이규일(영동대) 이정남(고려대) 양만기(제주한라대)  
장호득(단국대)  
섭외이사 : 김태만(한국해양대) 이문혁(세명대) 이중희(부경대)  
기획이사 : 김언하(동서대) 김진영(부산외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이웅길(동서대)  
출판이사 : 신희철(동아대) 오창화(경성대) 정옥근(동의대)  
운영이사 : 김민정(부산정보대) 김소현(동아대) 김인호(동의대) 김종현(동아대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현태(경남대) 남덕현(부산대)  
류영표(경성대) 정원호(동의과학대) 박경송(영산대) 박기현(인제대)  
박부열(진주보건간호대) 박안수(마산창신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신석찬(부산여대) 왕옥지(동명대) 왕충의(부산외대)  
이경미(동서대) 이상도(울산대) 이치한(창원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정태업(부산외대, 중국어학부) 심형철(신라대) 정현철(경상대) 최세운  
(고신대) 한중호(동주대)  
연 락 처 : 총무: (051)663-4267(연구실), 010-7252-1887 whabum@ks.ac.kr  
편집: (051)629-5342(연구실), 011-579-1334 cgkim@pknu.ac.kr

[題字] : 성과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이 학술지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中國學

第39輯

2011年 8月

## 目 次

이길연 ·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중국어 학습자의 Tandem 학습능력에 관한 연구-학습자 변인을 중심으로-	1
崔泰勳 · 《漢韓大辭典》 ‘甚’字 誤謬研究	29
安性栽 · 鄭衆의 “草木鳥獸, 皆興辭” 考察 -《毛詩傳》、《鄭箋》과 《孔疏》를 中心으로-	51
韓相德 · 唐代 女訓書 《女論語》 研究	75
宋景愛 · 章学诚和古籍整理成就-以目录学为主-	97
卢相峰 ·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漢訓諺字皆從俗撰字旁之點亦依鄉語》 註釋	113
소원근 · 집단구성원의 기분이 집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연구 -중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의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149
王志立 · 李大钊、陈独秀民主政治思想之异同分析	181
陈楠 · 金昌庆 · 中国人自杀研究的现状及未来研究课题	199
이권호 · 중국 경진기(京津冀)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광역 거버넌스	219
정우성 · 조세윤리의식에 관한 국제간 비교 -한국·중국·일본 대학생을 중심으로-	267
<b>■ 부록</b>	
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외)	295

## CHINESE STUDIES

Volume 39

Aug.2011

- A Study about Chinese Learner's Tandem Learning Capability using  
Tandem--on Learner's Characteristic Factor / *Li, Ji-lian* ..... 1
- Error Analysis of the Usage of the Character Shen (甚)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 *Choi, Tae-hoon* ..... 29
- Examine the Genuineness of Zheng zhong's Theory / *Ahn, Sung-jae* ... 51
- A Study of 《Nǚhúnyǔ(女論語)》 / *Han, Sang-deok* ..... 75
- Zhang Xuecheng and Ancient Books Arranging Achievements  
--Focused on Bibliography / *Song, Kyung-ae* ..... 97
- Interpretation of the Introductory Remarks by  
“Translation 《Lao qi da piao tong shi(老乞大朴通事)》”  
/ *Lu, Xiang-feng* ..... 113
- The Effects of Moods on Group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ollectivistic Culture / *So, Won-geun* ..... 149
- Comparative Studies on Chen Duxiu and Li Dazhao's  
Democratic Ideas / *Wang, Zhi-li* ..... 181
-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Suicide Research and Future Issues  
/ *Chen, Nan & Kim, Chang-gyeong* ..... 199
- The Formation and the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in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g(京)-Jin(津)-Ji(冀)  
in China / *Lee, Kwon-ho* ..... 219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Tax Ethics  
--A Comparison wi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 *Jung, Woo-sung* ..... 267
- Appendix  
Editorial Rules of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 295



##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중국어 학습자의 Tandem 학습능력에 관한 연구 - 학습자 변인을 중심으로 -

이길연\*

— < 목 차 > —

- I. 서론
- II. Tandem 학습법이란?
- III. 이론적 배경
- IV. 연구 방법과 절차
- V. 연구 결과 및 논의
- VI. 결론 및 제언

### I. 서론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교수법”이라는 용어로부터 “교수-학습” 내지는 “학습법”이라는 용어로의 변화를 보더라도 강조하는 측면이 교사 중심에서부터 점차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 중심으로, 강의 중심의 수동적 학습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능동적 학습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로 교육과정과 정책 측면에서 연구된 논문이 많고, 교실에서 응용 가능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 창신대학 전임강사 lj122000@csc.ac.kr  
본고를 위해 매우 유익한 논평과 지적을 해 주신 세 분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가 몇 년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sup>. 이러한 환경 변화를 잘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국어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이를 중국어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중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목표어의 문화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어 교수-학습법 개발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Tandem 학습법<sup>2)</sup>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 사례분석을 통해 개인별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2008년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의 보쿰대학에서 개발한 Tandem 학습법을 도입하여 2009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5학기 제 실험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Tandem 학습법은 교수, 학생, 강의실 3자의 조합에 의한 기존의 일반적인 학습법을 전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강의실 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학습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상호 문화교류 학습이 가능하며, 교사가 하던 통제와 관리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목표와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의 개별화가 가능하며, 학습 목표어의 모국어 화자와의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 실제의 의사소통 체험을 할 수 있다.<sup>4)</sup>

1) 2010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수 113만 9천명의 7.1%인 80,646명이 외국인 유학생이고 그 중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학생이 63,452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78.7%를 차지한다.

2) Tandem 학습법은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 두 명이 상대방의 모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각자가 학습자인 동시에 교사가 되는 자율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이다. 현재까지 한국 내 Tandem 학습 관련 연구논문은 하수권(1999, 2002, 2008, 2009, 2010), 송향근(2004), 진광호(2010), 김세진(2010), 서상범(2011), 이효영(2011)이 있으며, Tandem 학습법 주제로 여러 언어 영역별 박사학위논문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진광호,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학 제36집, 2010), 33쪽.

4) 하수권, <한국에서의 상호자율학습 방법을 이용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가능성 연구>, (외대논총 제19집 2호, 1999.2), 94~99쪽.

Brammerts(2005)는 Tandem 학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자는 ‘상호성 원칙’과 ‘자기주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상호성 원칙’을 준수하려면 학습자의 협동학습능력이 필요하고, ‘자기주도성 원칙’에 입각하여 Tandem 수업<sup>6)</sup>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Tandem 학습 능력이라고 하고 학습자 변인에 따라 Tandem 학습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Tandem 학습법이란?

### 2.1 Tandem 학습법의 정의

Tandem 학습법은 국내에는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법이다. Tandem이란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래는 ‘둘이 타는 자전거’를 뜻하거나, 둘이 서로 협력하여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한다. 둘이 호흡을 맞추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명의 외국어 학습자가 한 조를 이루어 1:1을 기본 원칙으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를 파트너에게 가르쳐 주는 외국어 학습방법을 Tandem 학습법이라 칭한다.

하수권(2008)은 Tandem 학습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 두 명의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학습자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여야 한다.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도우며 학습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학습자 주도형 학습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

5) Brammerts, Helmut, Autonomes Sprachenlernen im Tandem:Entwicklung eines Konzepts. In:Brammerts & Kleppin(Hrsg.), (2005) 9-16쪽.

6) 본고에서 언급된 Tandem 수업은 교과과정 안에서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임을 명시한다.

또한 Tandem 학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표를 지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 ‘상호성 원칙’과 ‘자기주도성 원칙’인데 상호성 원칙에 의하면 Tandem 학습 참여자는 서로 상대방 학습자를 가르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각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학습 목표와 방법, 심지어 학습 자료까지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기주도성 원칙이다.

목표: 첫째, 학습 목표어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둘째, 직접 경험을 통한 이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셋째,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 2.2 Tandem 학습법의 유형 및 특징

Tandem 학습법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간 구성 조건’과 ‘수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sup>7)</sup>

<표 2-1> Tandem학습법의 유형

공간 구성 조건에 따른 유형 분류	면대면 Tandem
	원거리 Tandem 또는 온라인 Tandem(e-Tandem)
수업과의 연관성에 의한 분류	수업 연계 Tandem
	수업 무관 Tandem

7) 송향근(2004)은 학습자의 거주 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대면학습법’과 ‘원거리학습법’으로 구분하였고, 하수권(2008)은 송향근이 제시한 학습자의 거주 여건을 공간 구성 조건으로 구분하여 ‘공간 구성 조건’과 ‘수업과의 연관성’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Tandem 수업이 교과과정 안의 수업이기 때문에 하수권(2008)에 따르도록 한다.

면대면 Tandem은 일정한 장소에서 파트너들이 만나서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파트너들이 직접 만나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학습자를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반면 원거리 Tandem은 파트너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편지나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은 편지를 통한 Tandem보다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Tandem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원거리 Tandem을 온라인 Tandem 또는 e-Tandem 이라고도 한다. 면대면 Tandem과 원거리 Tandem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간 구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학습 효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면대면 Tandem은 직접 보고 학습을 하는 만큼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유용하다면, 원거리 Tandem은 채팅이나 메신저 또는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에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보다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이 먼저 고려되는 오늘날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면대면 Tandem의 필요성이 더 가중될 수 있다.<sup>8)</sup>

반면 수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류로는 '수업 연계 Tandem'과 '수업 무관 Tandem'으로 나뉘는데 수업 연계 Tandem은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수업 무관 Tandem은 수업과 무관하게 학습자들이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파트너를 구하고 학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수업 연계 Tandem과 수업 무관 Tandem의 가장 큰 차이는 학습자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연계 Tandem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반면에 수업 무관 Tandem은 학습자의 자율성이 우선시 되다 보니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Tandem 학습법이 전통적 외국어 학습법과 구별되는 특징과 장점을 다음과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송향근, <Tandem 언어 학습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헬싱키대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제7집, 2004), 58쪽.

〈표 2-2〉 Tandem 수업과 전통적 외국어 수업의 특성 비교<sup>9)</sup>

항목	일반적 외국어 교수법	Tandem 학습법
학습목표	학습자 스스로 결정 함.	교사 주도로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
수업 및 학습활동	학습자 주도로 파트너와의 협동학습,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해결.	교사의 통제에 따르며 교사주도의 학습 활동. 학습자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들.
교사 역할	학습활동의 촉진자·조력자·상담자로서 수업 계획, 내용, 방법 등에 제한적으로 관여함.	학습 활동을 통제하고 수업 내용이나 방법을 계획하거나 선택하며 평가의 주체임.
이문화간 의사소통 체험	파트너와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적인 이문화간 의사소통 체험 가능.	교사의 설명이나 사례 제시 등으로 이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직접 체험 기회 적음.
의사소통	수업 시간 대부분을 학습목표어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함.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빈도가 높고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기회 적음.
학습자료	교사가 제공하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선택 폭이 넓고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개별 자료 활용 가능.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재나 자료 사용.
학습수준	다양한 수준을 동시 적용 가능하여 학습자 개인에 적합한 학습 수준 적용.	교사가 전제하는 단일의 학습 수준 모두에게 적용.
학습전략 선택	학습자 각자가 선호하는 학습 전략 적용 가능함.	교사가 효율적이라 간주하는 학습전략을 다수 또는 모두에게 적용 요구함.
수업시간 외	파트너와 수시로 학습 목표어로 의사소통 가능.	극히 제한적인 학습 목표어로 의사소통 기회.
교수 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자기주도학습 이론의 상당부분 적용 가능.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자기주도학습 이론의 제한적 적용.

9) 하수권(2008, 2009), 이효영(2011) 참고.

## 2.3 한국 내 Tandem 학습법의 적용현황

독일의 보쿰대학에서 Tandem 학습법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유럽에 보급하여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여러 교수가 협력하여 교내에 Tandem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이를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2009년도 1학기부터 현재까지 5학기 째 실험운명을 하고 있다.<sup>10)</sup>

### 가. 강의 개설 현황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 과목<sup>11)</sup>과 ‘다국어 Tandem 학습’ 과목으로 나누어 2학년 전공선택 과목에 배정하였고, 외국 학생은 한국어 교육원에서 각자의 전공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1, 2학기에 걸쳐 매학기 주당 2시간에 2학점 체제<sup>12)</sup>로 운영하며, 특성상 동시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40~50명 수용의 강의실에서 약 10개조 20명을 기준으로 하나의 반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어학부의 경우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많은 관계로 두 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고 Tandem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강인원이 점차 늘어나 2010년도 1학기에는 한반 당 24명씩 총 48명이, 2011년도 1학기에는 한반 당 26명씩 총 52명이 수강하였다.<sup>13)</sup>

---

10) 한국 내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처음으로 Tandem 학습법을 도입하였고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한 유일한 대학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물론 많은 대학에서 일종의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학생이 사회봉사 학점으로 이수하는 등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Tandem 학습이 아니다.

11) 필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한국어 Tandem 수업을 3학기 운영한 바 있고, 재직교인 창신대학에 Tandem 학습법을 도입하여 아직 정식 교과과정에는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2011년도 1학기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 2011년도 1학기부터 3시간 3학점 체제 즉 2시간은 강의실 수업, 1시간은 체험수업으로 운영하는데 체험수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매주 1시간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학기 중 15시간의 체험수업 시간을 3-4 번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13) 실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였지만 운영 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강인원수를 제한하였다.

‘다국어-한국어 Tandem 학습’ 과목은 해당 외국어의 유학생 수가 중국 학생만큼 많지 않은 관계로 독립적으로 개설하기는 하지만 과에 따라 학생 수의 편차가 있는 편이다. Tandem 학습 교과목 개설학과로는 중국어학부, 러시아어과, EU지역통상학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중앙아시아어과가 있다.

나. 운영방법<sup>14)</sup>

Tandem 학습법은 외국어 교육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라 수업 첫 시간에 Tandem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으로 Tandem학습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주로 ‘자기주도원칙’과 ‘상호원칙’을 많이 강조한다. 또한 사전 상담을 통해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2인1조의 학습팀을 구성한다.<sup>15)</sup>

이렇게 학습팀이 구성되면 파트너와 함께 한 학기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고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수업에 관련된 전반 과정을 학습자가 파트너와 함께 결정한다. 이러한 계획과 목표설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교사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한 학기 동안 학습할 대부분의 주제<sup>16)</sup>를 미리 정해주고 제시한 주제의 틀 안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운영해 나간다.

수업은 강의실 내와 강의실 밖의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강의실 내 수업 2시간 중 1시간은 학습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발음교정, 작문, 독해, 숙제 도와주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시간은 주어진 주제에 따라 각자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과 질의를 한다. 매주 수업 후에 소정양식의 학습보고서(평가일

14) 각 학과의 운영방법이 대동소이하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어학부의 예를 중심으로 소개하겠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진광호(2010), 이효영(2011)에서 소개된 바 있다.

15) Tandem 수업 시행초기에는 무작위로 파트너를 정해주기도 하고 교사의 판단으로 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보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습자로 구성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음으로 확인되어 2010년 2학기부터 주로 상담을 통한 파트너 선정을 하였다.

16) 보강주 수업에는 자유주제로 선정한다.



지)를 제출해야 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팀별 발표를 통해 각자의 학습경험 및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강의실 밖의 수업은 체험학습으로 한 학기 4번에 걸쳐 파트너와 문화체험하고 체험결과를 목표어로 작문을 써서 파트너에게 메일로 보내 상호 오류수정을 한 다음 수정된 파일을 다시 돌려받는다.

#### 다) 평가

Tandem 학습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평가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이론적 기저로 한 Tandem 수업이 획일적이고 일괄적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평가보다는 포트폴리오평가 등 여러 가지 수행평가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치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단순한 특정 시스템으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향후 Tandem 학습법에서 합리적인 평가방식 개발 역시 큰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로는 출석(30%)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각이나 결석은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25%, 과제물<sup>17)</sup> 20%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 Ⅲ. 이론적 배경

#### 3.1 자기주도학습과 Tandem 학습법

Tandem 학습 참가자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자기 스스로 정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학습 파트너와 협의하여 이러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상대방 파트너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관심에 대해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함께 맞추어야 하고 공동 학습의 모든 질문들은 늘 파트너와 함께

---

17) Tandem 수업 카페에 매회 수업에 대한 평가일지, 수업준비 자료, 녹음파일 등을 탑재한다.

결정해야 한다.<sup>18)</sup>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Tandem 학습법은 자기주도학습법의 구체화된 외국어 교육의 적용으로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적 방안으로 추천되고 있다.<sup>19)</sup>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며 이끄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자기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 자기계획학습(self-planned learning), 독립학습(independent study), 자기교수(self-teaching), 독학(autodidaxy), 개별학습(individual learning), 자기-탐색 학습(self-exploration learning), 자율학습(autonomous learning),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타인의 조력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다.”

Knowles는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해 교사주도학습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20)</sup>

<표 3-1> 교사주도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비교

항목·요소		교사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학습
가 정	학습자 개념	의존적 개인	자기주도적 유기체
	학습자	그 이상의 것을 기대	풍부한 학습의 자원

18) 수업 연계 Tandem 학습에서는 제3의 요소인 교사와 학습 상담을 하여 교사의 의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19) 하수권(2010), 송향근(2004), 진광호(2010), 김세진(2010), 서상범(2011), 이효영(2011)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20) 배영주,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원미사, 2009), 15쪽. 재인용.

	경험의 역할		
	학습 준비도	성숙수준에 의한 변화	삶의 과업, 문제로부터 발달
	학습 지향성	교과내용중심	과업 혹은 문제중심
	동기	외적 보상과 벌	내적 자극, 호기심
과정 요소	학습 분위기	형식적/권위지향적/경쟁적/판단적	비형식적/상호존중적/협력적/지지적
	계획	주로 교사에 의해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해
	학습요구 진단	주로 교사에 의해	상호 평가에 의해
	목표설정	주로 교사에 의해	상호 평가에 의해
	학습계획의 설계	교과내용단위/교수요목/논리적 계열	학습 프로젝트/학습계약/준비도에 따른 계열
	학습활동	진달기술/할당된 것 읽기	탐구 프로젝트/독립적 연구/경험적 기술
	평가	주로 교사에 의해	자신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상호 평가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발휘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 통제에 관한 능력, 태도, 가치 및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에서 교사의 역할도 전통적인 학습에서와 아주 다르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주어진 교육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게 되지만 자기주도학습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자기주도성은 원초적

으로 학습자 안에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자에게 특정한 학습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를 활용하는 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 누구나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변화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이란 특정한 학습환경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자기주도학습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는 학습자와 상호 인간적이고 촉진적인 관계수립을 통하여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상호 안락하고 협동적이며, 공개적이고 상호 신뢰가 있는 물리적 심리적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훌륭한 관찰자, 진단자, 기록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sup>21)</sup>

이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의 여러 특성은 Tandem 학습법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다.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중국어-한국어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습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파트너와 같이 한학기의 학습목표를 정하여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게 된다. 학습자들의 외국어 구사 수준과 문화적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목표는 학습자 개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발음 교정, 말하기 능력 향상, 쓰기 능력 향상,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을 학습목표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기 초에 교사와의 상담과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 또한 수업 진행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과 어려움은 학습자가 1차적으로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해결하며, 필요 시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학기 초에 제시한 강의계획서 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파트너와 세부적인 수업내용을 정하고, 수업 계획 및 수업 진행 방법, 학습전략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또는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매주 수업을 위해 학습자는 스스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주로 인터넷으로 사진과 그림 같은 자료들을 다운 받아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평소 궁금해 하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개의 질문형태로 준비하여 수업시간에 파트너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고

21) 서상범, <한국어-러시아어 Tandem학습법을 이용한 수업모델 연구>, (러시아문학연구논문집 제36집, 2011), 367쪽

취되고 책무감이 점차 강화된다. 또한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친숙해지면서 학습효과를 증대시킨다. 매주 수업 후, 수업에 대한 평가 일지를 작성하는데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기술하고, 학습자 자신에 대한 평가, 파트너에 대한 평가,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설정, 과제의 선정, 관리, 감독, 조정, 평가를 담당하며, 수업에서의 교수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 3.2 협동학습과 Tandem 학습법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는 협동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협동학습과정을 통해서 두 배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협동학습은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수업방법을 말하며, 특히 협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적 측면을 해소해 주고 바람직한 정서적, 지적 상호작용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점에서 협동학습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sup>23)</sup>

협동학습은 학습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활동함으로써 학급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sup>24)</sup>

또한 Doolittle(1995)은 소집단 학습이 진정한 의미의 협동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sup>25)</sup>

22)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1986)

23) 최보금, <협동학습 기본요소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양식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쪽.

24) Cohen, E. G.. Restructuring the classroom: conditions for productive small groups. Review for Educational Research. 64. (1994). 1-35.

25) 조형정, <협동학습의 효과 및 내적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방법연구, 15(1), 2003), 105~126쪽. 재인용.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이다. 이것은 집단구성원이 개인의 목표, 집단 내 다른 성원의 목표, 전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단의 협동이 필요하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긍정적 상호의존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이 다른 집단구성원의 참여에 달려 있을 때, 학생들은 더 많이 협동으로 학습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다. 이것은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개인적 책임성(Individual accountability)이다. 이것은 관련된 자료를 숙달하기 위해 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

넷째, 집단 자기평가(Group self-evaluation)이다. 집단 자기평가의 목표는 모든 집단구성원들이 집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적 노력을 하여 이루어낸 산출물을 분명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목표 성취와 집단 목표 성취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습자들에게는 동기 부여가 되고 학습자들은 학습내용을 더욱 오래 기억하게 된다.

대학에서의 협동학습은 수업의 중심적 교수-학습의 방법이라기보다는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 수업마다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의 형태가 차이는 있지만 기본과정은 거의 일치한다. 대부분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해당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 중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같은 주제나 같은 학습목표, 혹은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파트너와 팀을 구성하며,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각 구성원이 분담할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각 구성원의 분담과제는 협의를 통해 최종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결과물은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전시, 연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표될 수 있다.

하지만 협동학습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

편 학습자들은 함께 학습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서로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불신하기도 한다. 어떤 학습자들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 개인으로써 평가받고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의 노력에 편승하여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잘 관찰해야 하고 구성원들의 개별적 상담과 집단적 상담을 병행하면서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갈 수 있게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

Tandem 학습에서의 1:1 수업은 소집단 형식의 협동학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협동학습 구성은 상대방에 대한 강한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 왜냐 하면 각 구성원의 개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학습자가 원만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과제 해결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별 학습 목표와 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Tandem수업에서의 1:1 구성은 협동학습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무임승차’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 학습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학기 초 학습자들에 대해 간단한 목표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여러 학습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하면서 서먹함을 줄이고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파트너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3주차에 파트너가 최종 결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학기 내내 유지하게 된다. Tandem 수업에서의 모든 학습자들은 학습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화 상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Tandem 수업에서 파트너는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언어교육에서의 능숙한 언어사용자가 되며 이 두 가지 역할이 하나의 수업 속에서 뒤섞이게 된다. Tandem 수업에서의 학습자는 자기 파트너와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의 언어적 오류를 수정해 주거나 이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범례가 될 언어적 표현을 제시하고, 정확한 이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등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1:1 면대면의 Tandem 수업은 파트너십 즉 상호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철저히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4.1 연구대상과 연구도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2011학년도 1학기 한-중 Tandem II(02) 수업에 참여한 중국어과 재학생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총 26팀 52명으로, 26명의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26명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52명에게 전부 배부하였고 회수율은 100%였다.

학습자 변인으로 성별, 중국어 수준, 이문화 이해 수준을 기록하고, 각 변인에 따라 Tandem학습능력, 즉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협동학습능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Tandem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도 같이 알아보려고 한다. 설문지 내용 구성<sup>26)</sup>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물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협동학습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영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Guglielmino(1997)가 제작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up>27)</sup>를 유귀옥(1997)이 다시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만들었는데<sup>28)</sup> 본고에서는 유귀옥(1997)이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6) 설문지 구성 내용은 본고에서 언급한 문항 외에 Tandem 학습에서 사용하는 학습전략, 목표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정도, Tandem 학습을 통해 향상된 목표어의 기능 등 여러 가지 설문문항들로 구성되었지만 본 논문의 연구 범위가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27)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척도는 Guglielmino가 1977년 개발한 이래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도구이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여덟 요인 58개 문항으로 구성된 SDLRS의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음과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West와 Bentley(1990)는 요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여섯 요인 32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Likert 방식에 의한 5단계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28) 유귀옥,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



설문지는 학습에 대한 애착 요인 8문항,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요인 8문항, 도전에 대한 개방성 요인 8문항, 학습에 대한 호기심 요인 4문항, 자기이해 요인 2문항,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요인 2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협동학습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Doolittle(1995)가 제시한 소집단 학습의 기본 요소<sup>29)</sup>를 이론적 근간으로, 최보금(2006)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 기본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설문지를 토대로 Tandem 학습에 맞게 변형하여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필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셋째, Tandem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1개의 문항으로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넷째, 학습자들과의 두 차례 면담과 수업시간 학습관찰, 녹음·녹화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고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4.2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설문지를 수업시간 전에 발부하여 다음 수업시간 전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여 총 52부 배부하여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분석프로그램인 SPSSWIN 15을 활용하였고 SILL 설문지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sup>30)</sup>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은 독립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 요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alpha=.05$ 의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고,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3-1>과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9) 협동학습의 기본 요소에 대한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데 Johnson & Johnson(1992)은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별적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협동적 기술', '집단과정' 등 5가지 협동학습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하였고; Slavin(1995)는 '집단목표', '개별적 책무성', '균등한 성공기회', '집단경쟁', '과제 세분화', '개별적 적용'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Doolittle(1995)의 분류방법을 채택하였음을 명시한다.

30) 신뢰도 분석은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 협동학습능력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53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신뢰계수가 .855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서 .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측정변수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협동학습능력	.853	10
자기주도학습능력	.855	32

## V. 연구결과 및 논의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성별조합 분포는 ‘남-남’그룹이 3.8%, ‘남-여’그룹이 11.5%, ‘여-남’그룹이 30.8%, ‘여-여’그룹이 53.8%로서 한국인 중국어 여성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여성 학습자 그룹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어 수준별 조합을 보면 ‘상-상’그룹이 3.8%, ‘상-하’그룹이 11.5%, ‘하-상’그룹이 50%, ‘하-하’그룹이 34.6%이다. 목표어 수준의 평가기준은 학기 초 중국어 테스트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를 2년 이상 학습하고 신HSK 5급 이상 수준의 학습자를 ‘상’으로 선정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해서도 역시 학기초 한국어 테스트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를 2년 이상 학습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수준의 학습자를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문화 이해수준은 목표어 국가 거주기간 1년 이상 되고, 목표어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sup>31)</sup>라고 응답한 학습자를 ‘상’으로 선정하였다.

31) 목표어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자 변인		빈도	백분율 (%)	비고
성별	남-남	1	3.8	
	남-여	3	11.5	
	여-남	8	30.8	
	여-여	14	53.8	
	계	26	100.0	
목표어 수준	상-상	1	3.8	중국어 “상” : 학기 초 중국어 테스트 2년 이상 학습 및 신HSK 5급 이상 한국어 “상” : 학기 초 한국어 테스트 2년 이상 학습 및 TOPIK 4급이상
	상-하	3	11.5	
	하-상	13	50.0	
	하-하	9	34.6	
	계	26	100.0	
이문화 이해 수준	상-상	4	11.5	상: 현지 체류 1년 이상 설문지 응답내용 반영 하: 현지 체류 1년 이하 설문지 응답내용 반영
	상-하	1	3.8	
	하-상	15	57.7	
	하-하	7	26.9	
	계	26	100.0	

### 5.1 성별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 분석

성별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 즉 협동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 <표 5-2>와 <표 5-3>과 같다.

〈표 5-2〉 성별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협동 학습 능력	남-남	1	42.00	.	1.985	.146
	남-여	3	41.33	3.512		
	여-남	8	38.00	6.256		
	여-여	14	43.21	4.061		
	합계	26	41.35	5.106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여성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인 여성 학습자인 경우가 43.21점으로 나타나, 협동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남성인 경우가 42.00점, 남성-여성인 경우가 41.33점, 여성-남성인 경우가 38.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985$ ,  $p>.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주도 학습능력	남-남	1	119.04	.	.141	.934
	남-여	3	111.04	14.758		
	여-남	8	116.28	12.731		
	여-여	14	116.25	14.554		
	합계	26	115.77	13.277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남성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남성 학습자인 경우가 119.04점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남성인 경우가 116.28점, 여성-여성인 경

우가 116.25점, 남성-여성인 경우가 111.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41, p>.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2 목표어 수준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 분석

목표어 수준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자기주도 학습능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 <표 5-4>, <표 5-5>와 같다.

<표 5-4> 목표어 수준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협동학습 능력	상-상	1	44.00	.	1.854	.167
	상-하	3	41.67	8.386		
	하-상	13	43.15	4.652		
	하-하	9	38.33	3.873		
	합계	26	41.35	5.106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어 수준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가 44.00점으로 나타나, 협동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상인 경우가 43.15점, 상-하인 경우가 41.67점, 하-하인 경우가 38.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854, p>.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목표어 수준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주도 학습능력	상-상	1	128.00	.	.287	.834
	상-하	3	113.60	13.655		
	하-상	13	115.66	17.075		
	하-하	9	115.27	6.795		
	합계	26	115.77	13.277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어 수준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가 128.00점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하인 경우가 115.27점, 하-상인 경우가 115.66점, 상-하인 경우가 113.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287$ ,  $p>.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3 이문화 이해수준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 분석

이문화 이해수준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5-6〉, 〈표 5-7〉과 같다.

〈표 5-6〉 이문화 이해수준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협동학습 능력	상상	3	39.00	6.245	1.667	.203
	상하	1	46.00	.		
	하상	15	40.13	4.969		
	하하	7	44.29	4.231		
	합계	26	41.35	5.106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문화 수준에 따른 협동학습능력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하인 경우가 46.00점으로 나타나, 협동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하인 경우가 44.29, 하-상인 경우가 40.13점, 상-상인 경우가 39.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667$ ,  $p>.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이문화 수준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주도 학습능력	상상	3	111.68	15.203	.278	.841
	상하	1	.	.		
	하상	15	117.12	10.928		
	하하	7	113.60	18.760		
	합계	26	115.77	13.277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문화 수준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하인 경우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가 117.12점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하인 경우가 113.60점, 상-상인 경우가 111.6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278$ ,  $p>.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4 Tandem 수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

학습자 변인에 따른 Tandem 학습법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시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표 5-8〉 학습자 변인 따른 Tandem 학습법 만족도 차이

	학습자 변인	유의확률	표준편차	평균
만족도	성별	.309	.881	4.15
	목표어 수준	.058		
	이문화 이해수준	.131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 변인 즉 성별, 목표어 수준, 이문화 이해수준에 따른 Tandem 학습법 만족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각 변인별  $p > .05$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이 4.15로서 Tandem 학습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성별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을 비교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동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한국인 중국어 여성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여성 학습자인 경우(여-여)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중국어 남성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남성 학습자인 경우(남-남)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목표어 수준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을 분석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상-상)가 협동학습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즉 Tandem 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문화 이해수준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을 비교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하인 경우(상-하)가 협동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하인 경우와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가 상인 경우(하-상)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습자 변인 즉 학습자의 성별, 목표어 수준, 이문화 이해수준에 따라 Tandem 학습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Tandem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으며, 목표어의 의사소통능력 특히 문화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고 수집한 데이터 양이 많지 않으며, 중국어 학습자 구성이 비교적 단일화한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11학년도 1학기 중국어-한국어 탄뎀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데이터 양이 부족하고 더 정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기의 수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고 학습자 구성을 다양하게 할 것이다.

둘째, Tandem 학습법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Tandem 수업모형 설계에 참고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Tandem 학습능력 측정도구와 설문지 문항들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어 교육에서 Tandem 학습법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소개와 연구를 통해 점차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논문의 대부분이 Tandem 학습법을 소개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경험을 위주로 쓴 보고서 형식의 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학습자 변인에 따른 Tandem 학습능력 외에 학습자의 학습평가, 학습자료 선정, 학습전략 선택 등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김두연, <성인학습자의 특성별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 L 그룹 경계발원 학습프로그램 참가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세진, 「Tandem 학습법을 적용한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부

- 산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중국, <성인초기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관련변인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현정, <전략적 협동학습이 대학생의 영어 어휘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노미애,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높은 대학생의 내외 동기와 대인관계기술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배영주,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원미사, 2009)
- 서상범, <한국어-러시아어 Tandem학습법을 이용한 수업모델 연구>, 《러시아문학연구논문집》 제36집. (2011)
- 송향근, <Tandem 언어 학습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 헬싱키대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어교과연구》 제7집, (2004)
- 유귀옥,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유귀옥 외,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방안>, 《사회교육학연구》 제2권 제1호. (1996)
- 이효영,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 《중국언어연구》, 제35집. (2011)
- 정지웅·김기자 역, 《자기주도학습의 길잡이》, (교육과학사, 1995)
- 조형정, <협동학습의 효과 및 내적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방법연구》, 제15권 1호. (2003)
- 진광호,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학》 제36집. (2008)
- 최보금, <협동학습 기본요소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양식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하수권, <한국에서의 상호자율학습 방법을 이용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 가능성 연구>, 《외대논총》 제19집 2호. (1999)
- 하수권,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3집, (2008)
- 하수권, <이중언어학습법의 교육과정 및 수업 적용 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5집, (2009)

하수권,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27집. (2010)

孙育红, <Tandem学习法在中国德语学习者中的应用研究>, 西北工业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Brammerts, Helmut, Autonomes Sprachenlernen im Tandem : Entwicklung eines Konzepts. In : Brammerts & Kleppin(Hrsg.). (2005)

Cohen, E. G.. Restructuring the classroom: conditions for productive small groups. Review for Educational Research. (1994)

Doolittle, P.E, Understanding cooperative learning through Vygotsky's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LillyNational conference on Excellence in College Teaching. colombia, SC. (1995)

Knowles, M. 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t Pub. Co. (1975)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1986)

인터넷 검색 사이트

<http://www.slf.ruhr-uni-bochum.de/tandem/inh01-eng.html>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8248&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 <中文提要>

Tandem是一种外语学习方法,这种方法建立在两个不同母语者合作的基础上,目的是相互学习对方的语言,或者更多了解语言伙伴的民族文化。对于外语学习者个人而言, Tandem学习法使得学习者足不出户,在一个实际的语言环境中学习外语变得简单了,因为它提供了与一个母语者进行交际的机会。它不仅提高了学习者的自主学习能力和团队协作能力,也使得跨文化的学习过程成为可能,扩展了语言的判断能力。

在欧洲, Tandem学习法从八十年代后期受到大家喜爱并得到广泛推广,目前在德国已经制度化地固定下来。在德语地区最有名的当然是波鸿-鲁尔大学。在中国,目前只有一篇关于Tandem学习法应用的硕士论文。在

韩国，釜山外国语大学首次引进了该学习法，应用于汉语、韩国语、泰国语、越南语、俄语等外语教学，自2009年第一学期到现在共进行了5个学期。因为该学习法尚处于引进试用阶段，期间出现了许多关于应用Tandem学习法的具体研究，大部分研究都集中在学习法的介绍和在课堂应用时出现的一些问题的提出等，没有更深层次的、用具体数据来进的行研究。

本文试图用比较客观的数据来分析在汉语课堂中Tandem学习法适用的情况。根据每个学习者的特点即性别组合、外语水平组合，对跨国文化的理解程度的组合，测量汉语学习者的Tandem学习能力。根据本文统计出来的数据结果将继续调整和完善Tandem学习法在汉语课堂中的应用，并且将结合外语习得理论进行更深层次的研究。

**關鍵詞**： Tandem学习法 互助学习能力 自主学习能力  
学习者特性 外语教学

투 고 일 : 2011.6.25
심 사 일 : 2011.6.29~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漢韓大辭典》 ‘甚’ 字 誤謬研究

崔泰勳\*

### < 목 차 >

- I. 序 言
  - 1) 研究目的
  - 2) 研究方法
- II. ‘甚’字의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의 問題分析
  - 1) 《漢韓大辭典》 ‘甚’字 2번째 項目 誤謬分析
  - 2) 《漢韓大辭典》 ‘甚’字 9번째 項目 誤謬分析
  - 3) 《漢韓大辭典》 ‘甚’字 語彙項目 誤謬分析 出典例文의 問題分析
- III. 結 言

### I. 序 言

#### 1) 研究目的

몇 해 전에檀國大學에서 完刊된 《漢韓大辭典》(전체 15권)은 여러 연구자의 장기간에 걸친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다. 내용의 충실함과 그 분량은 다른 사전을 압도함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大型辭典(예: 《大漢和辭典》《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이 그러하듯 《漢韓大辭典》도 시기적으로 앞서 완성된 사전의 장점과 연구 성과를 기초 삼아 진전된 결과를 이루어 냈다. 단연 東洋 最大의 사전임을 자부할

\* 漢陽大學校 人文科學大學 修行人文學部 助教授(woojin0923@hanmail.net)

만하며, 그 이름만으로도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漢韓大辭典》에도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과연 《漢韓大辭典》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사용해도 무방할까? 그 내용을 傳達하거나 학술적 根據로 삼아도 무방할까? 《漢韓大辭典》의 細部로 들어가면 작지만 심각한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은 일반적으로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漢韓大辭典》의 여러 곳에서 불합리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소논문이라는 제한된 지면위에 낱낱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定石대로 한다면 사전의 1권 1페이지부터 차례로 모든 문제를 찾아내어 수정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이것은 당초 一個人이 해결할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필자는 그 가운데 《漢韓大辭典》의 ‘甚’字와 그 밑의 어휘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글자의 意味項目, 意味解釋과 出典例文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나름의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려한다.

종합하면 기본적인 오류의 유형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앞날의 《漢韓大辭典》의 수정작업에 微力하나마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오류의 전달이 여러 학문 분야와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 2) 研究方法

필자는 《漢韓大辭典》의 ‘甚’字와 그 밑의 어휘 항목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몇 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漢韓大辭典》 ‘甚’字와 그 밑의 어휘 항목의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 가운데서 보이는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분석대상을 이것으로 한정한다는 요지이다.

둘째, 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필자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합당한 논증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出典의 性格 및 先後排列 誤謬”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漢韓大辭典

》의 편찬 원칙을 찾아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설정한 기준으로만 문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관련된 기타 오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 첫 번째 “의미해석의 오류”를 언급할 때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들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설정한 형식에 역매이지 않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각도로 오류를 분석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康熙字典》·《辭源》·《辭海》·《漢語大字典》·《漢語大詞典》, 일본의《大漢和辭典》, 대만의《中文大辭典》을《漢韓大辭典》과 비교 분석 하도록 하겠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온 이러한 사전과 사전이 동일 의미항목에 대하여 의미해석과 출전예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漢韓大辭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漢韓大辭典》은 前代의 사전을 상당 부분 참고한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에서 ‘제작된’《漢語大詞典》과 ‘13경’의 컴퓨터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에서 타자를 쳐서 만든 것으로 인물이나 어휘 검색에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얻기 어렵겠지만《漢韓大辭典》이《漢語大詞典》의 내용을 借用한 부분이 있고, 經典의 내용을 출전예문으로 많이 사용한 관계로《漢語大詞典》과 ‘13경’의 한글 판은 필자의 연구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四庫全書》 컴퓨터판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四庫全書》가 청대 이후의 문헌 조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휘가 최초로 사용된 문헌을 조사하는 목적이라면《四庫全書》 컴퓨터판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풍부한 문헌 자료가 보강 된다면, 본 의 논문을 통해 언급할《漢韓大辭典》의 ‘甚’字的 오류는 좀 더 구체적인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II. ‘甚’字의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의 問題分析

### 1) 《漢韓大辭典》 ‘甚’字 2번째 項目 誤謬分析

#### (1) 出典의 性格 및 先後排列의 誤謬

한 글자나 어휘에 여러 가지 文獻을 통해 그 出典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漢韓大辭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재》안에 “출전과 예문”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한 글자나 어휘에 둘 이상의 예문을 수록할 때에는 字書, 韻書와 經典의 出典을 가장 앞에 싣고 나머지는 편찬 시대 순으로 싣었다.”<sup>2)</sup> 이러한 편찬원칙에 입각하여 《漢韓大辭典》 ‘甚’字 2번째 意味解釋의 出典을 살펴보겠다.

㊸ 정도가 지나치다. 《廣雅, 釋言》甚, 勳也. 《詩, 大雅, 雲漢》旱既大甚, 蘊隆蟲蟲. 《莊子, 至樂》死不哭亦足矣, 又鼓盆而歌, 不亦甚乎. 宋, 王謙. 《唐語林, 補遺2》陛下睿聖, 留意於未萌, 若欲去泰去甚, 臣願遵聖算.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廣雅》가 가지고 있는 책의 성격이다. 《四庫全書總目》을 보면 小學을 訓詁, 字書, 韻書로 구분하고 있다. 즉 《爾雅》類 그 이후 서적은 訓詁 관련 서적이고, 《說文解字》類 그 이후의 서적은 字書이며, 《廣韻》類 그 이후의 서적은 韻書임을 밝히고 있다. 이 3종류의 서적은 각각 치중하는 바가 다르다. 訓詁書는 字義를 설명하고, 사물의 이름을 해석하며, 字書는 字形을 근거로 부수를 나누고 字의 音義를 설명하며, 韻書는 字音을 구분하고, 韻에 따라 字를 나열하고, 字義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廣雅》는 훈고서적인 것이다.

《中國大百科全書, 言語文字》를 살펴보아도 《廣雅》는 訓詁類 서적

2) 《〈漢韓大辭典〉 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이며, 三國時代 魏나라 사람 張揖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sup> 바로 이 집에서 출발하여 ‘甚’字 2번째 意味解釋의 出典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廣雅》는 “字書, 韻書와 經典”에 해당하지 않은 훈고서이며, 그 편찬 시기는 《詩》·《莊子》보다 훨씬 뒤쳐진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훈고서인 《廣雅》 뒤에 《詩》와 《莊子》가 나열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다음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漢韓大辭典》‘甚’字 5번째 意味解釋의 出典을 살펴보겠다.

㉔ 초과하다. 능가하다. 《廣韻, 寢韻》甚, 劇過也. 《論語, 衛靈公》民之於仁也, 甚於水火. <皇侃義疏> 甚猶勝也. 《國語, 周語上》防民之口, 甚於防川. 《史記, 遊俠傳》專趨人之急, 甚己之私.

《廣韻》은 北宋時代의 韻書이다. 만들어진 시기로 《論語》·《國語》·《史記》보다 앞서 있지 않지만 韻書라는 이유로 경전인 《論語》보다 앞서 배치해 놓았다. 이것은 적절한 나열로 《〈漢韓大辭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제》안의 “출전과 예문”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원칙을 알고 지키려 애쓴 흔적인 것이다. 그러나 《漢韓大辭典》은 같은 ‘甚’字 意味解釋의 出典에 한곳은 훈고서인 《廣雅》를 첫 번째 출전으로 제시하고, 다른 한곳은 운서인 《廣韻》을 첫 번째 출전으로 적어 놓았다. ‘甚’字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기본원칙에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 것은 《廣雅》라는 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작은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규칙과 고증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3) 梅益 等, 《中國大百科全書, 言語文字》(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年), 115쪽. 張揖은 《上廣雅表》라는 글에서, 《爾雅》에 채집되어 있는 훈고는 그다지 완벽한 것이 못 되므로 여러 가지 서적들에 쓰인 문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과 음이 변화되어 잘못 발음하는 것, 여러 가지 방언어휘, 여러 가지 물건들의 명칭, 《爾雅》에 상세하게 소개되지 아니한 것들을 모아서 새로이 책을 엮어보고자 하였노라고 밝혀 놓았다.

## (2) 意味解釋의 誤謬

앞의 내용을 이어 한 가지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 위의 ‘甚’字 2번과 5번의 출전예문을 보면 “《廣雅, 釋言》甚, 勳也.”, “《廣韻, 寢韻》甚, 劇過也.”라고 각각 적고 있다. “勳(힘쓸 거)”와 “劇(심할 극)”은 글자가 다른 것이다. 또한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을 살펴보면 모두 똑같은 출전예문에 “《廣雅, 釋言》甚, 劇也.”로 기재하고 있다. 이것은 《漢韓大辭典》이 잘못 적어놓은 것이다. 물론 《漢韓大辭典》 2권 721페이지를 살펴보면 “勳”자 첫 번째 의미해석 끝에 “(勳는) 劇과 같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힘쓰다, 바쁘다, 번거롭다, 어렵다”의 뜻으로 ‘甚’字 2번의 “정도가 지나치다”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의미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漢韓大辭典》 ‘甚’字 3번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㊸심각하다. 또는 심하다. 《穀梁傳, 文公3年》 雨螽於宋. 外災不志, 此何以志也. 曰, 災甚也. 其甚奈何. 茅茨盡矣. / 漢, 桓寬《鹽鐵論, 申韓》 衣缺不補則日以甚, 防漏不塞則日以滋. 《紅樓夢, 25回》 他叔嫂二人, 一發糊塗, 不省人事, 身熱如火, 在牀上亂說, 到夜裏更甚.

앞서 기재한 의미해석 2번과 바로 위의 3번을 보면 각각 “정도가 지나치다”, “심각하다. 또는 심하다”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있어서 “정도가 지나치다”와 “심하다”가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인가? 물론 “정도가 지나치다”와 “심각하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것은 “심하다”와 같은 뜻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품고 각각의 출전예문을 살펴보겠다.

오늘날 중국어를 살펴보면 “你太過分”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의 행동이나 말이 지나침”을 나타낼 때 이러한 말을 한다. 이때 “상대”는 사람이거나 살아있는 생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토대로 ‘甚’字 의미해석 2번의 출전 예문을 살펴보면 《莊子, 至樂》과 《唐語林, 補遺2》의 예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각 아래와 같이 해석해 보겠다.

《莊子, 至樂》: (그 아내가) 죽었는데 곡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정이 없는 것으로) 죽하다 하겠는데, 게다가 질그릇을 두들기고 노래를 하다니, 이거 지나치지(심하지) 않소.

《唐語林, 補遺2》: 폐하께서는 뛰어나고 현명하여, 일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뜻을 남기시니(뜻한바가 있으실 것이니), 만약 어질게(편안하게) 하시거나 지나치게(심하게) 하시거나 어느 쪽을 하려하시든, 신하는 폐하의 현명한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예문은 “정도가 지나친” 사람의 행위에 대해 ‘甚’字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오류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詩, 大雅, 雲漢》을 사용한 첫 번째 예문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가뭄이 너무도 심하여, 열기가 가득 쌓이며 성하다(旱既大甚, 蘊隆蟲蟲).” 이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의 행동이나 말이 지나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출전예문은 오히려 ‘甚’字 3번 항목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라 생각된다(중국어로 표현한다면 “厲害”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는 왜 발생한 것인가?

《漢語大詞典》‘甚’字 첫째 의미해석 “過分”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過分. 《詩·小雅·巷伯》: “彼譖人者, 亦已大甚.” 《莊子·至樂》: “死不哭亦足矣, 又鼓盆而歌, 不亦甚乎.” 《漢書·東方朔傳》: “臣聞樂太甚則陽溢, 哀太甚則陰損.” 宋王謙《唐語林·補遺二》: “陛下睿聖, 留意於未萌, 若欲去泰去甚, 臣願遵聖算.”

《漢韓大辭典》과 《漢語大詞典》의 ‘甚’字 “정도가 지나치다(過分)” 항목을 서로 비교하면 《漢韓大辭典》이 《漢書, 東方朔傳》의 예문을 생략하고 《詩, 小雅, 巷伯》의 내용을 《詩, 大雅, 雲漢》으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있다. 《漢韓大辭典》과 다른 출전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 남을 참조하는 자여, 또한 너무 정도가 지나치도다(彼譖人者, 亦已大甚), “신이 듣건데 (사람의) 즐거움이 너무 지나치면 양기가 흘러넘치고, (사람의) 슬픔이 지나치면 음기가 손상됩니다(臣聞樂太甚則陽溢, 哀太甚則陰損).” 이처럼 예외 없이 “정도가 지나친(過分)” 사람의 행

위에 대해 예문으로 모두 적절한 것이다. 즉 《漢語大詞典》의 4가지 예문은 문제가 없다.

《漢韓大辭典》은 《漢語大詞典》을 똑같이 차용하지 않으려고 《漢書, 東方朔傳》의 예문을 생략하고 《詩, 小雅, 巷伯》의 내용을 《詩, 大雅, 雲漢》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문제는 “過分”과 “厲害”의 중국어 표현을 “정도가 지나치다”와 “심하다”로 각각 번역했을 때, 그 한국어 상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출전예문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甚’字 2번째 意味解釋은 반드시 “상대의 행동이나 말이 정도가 지나치다”로 기재해 주고, 더불어 《詩, 大雅, 雲漢》의 예문을 삭제해 주어야 하며, ‘甚’字 3번째 “상황이나 상태가 심각하거나, 심하다”로 적어야 올바른 해석이라 생각된다.

중국어에 “盜聽”이란 어휘가 있다. 이를 한국어로 바꾸면 “도청하다”, “남의 말을 몰래 엿듣다”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도청”이라 함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남의 말을 엿듣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핸드폰 도청”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남의 말을 몰래 엿듣다”의 의미는 옆자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행위로 간주된다. 중국어의 “盜聽”을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의 2가지 의미는 그 뉘앙스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漢韓大辭典》도 한국어로 그 의미해석을 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2) 《漢韓大辭典》 ‘甚’字 9번째 項目 誤謬分析

### (1) 出典例文 分析

《漢韓大辭典》 ‘甚’字 9번째 義項을 살펴보면 “책망하다”라는 의미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㉞ 책망하다. 《穀梁傳, 隱公元年》賤段而甚鄭伯也. 何甚乎鄭伯. 甚鄭伯之處心積慮, 成於殺也. 唐, 柳宗元《非語語, 上, 荀息》枉許止以懲不子之禍, 進荀息以甚荀免之惡, 忍之也.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잘못된 의미해석이다. 우선 출전예문이 적

절치 못함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다. 《春秋穀梁傳》앞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克者何? 能也. 何能也? 能殺也. 何以不言殺? 見段之有徒衆也. 段, 鄭伯弟也. 何以知其爲弟也? 殺世子, 母弟曰君, 以其曰君, 知其爲弟也. 段弟也, 而弗謂弟; 公子也, 而弗謂公子, 貶之也. 段失子弟之道矣. 賤段而甚鄭伯也. 何甚乎鄭伯? 甚鄭伯之處心積慮, 成於殺也.(밑줄 친 부분이 첫 번째 출전의 내용이다)

위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克’은 무슨 뜻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段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 ‘殺’자를 쓰지 않았는가? 단의 門徒가 많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단은 鄭伯의 동생이다. 어떻게 그가 동생인지 아는가? 태자(鄭伯)를 죽이고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 군왕의 자리를 탐하여, 그로써 군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하니 그가 동생이 됨을 알 수 있다. 段이 동생이지만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公子이지만 공자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그를 폄하한 것이다. 段은 동생으로의 도리를 잃었다. (그래서) 段을 천하다 여기나 (또한) 鄭伯을 정도가 지나치다(過分)고 여긴 것이다. 鄭伯이 무슨 일로 정도가 지나친(過分) 것인가? 그가 오랫동안 계획하여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정도가 지나친(過分)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4)

이 구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 “殺”자를 쓰지 않고 “克”자를 썼는가? 둘째, 段은 鄭伯의 동생임을 나타냈다. 셋째, 군왕의 자리를 탐한 동생에게 “公子”나 “弟”라는 호칭을 피하고 직접 이름을 불렀다. 이렇듯 段을 폄하했지만 형인 鄭伯도 줄곧 段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상 형 노릇을 한 것이 아닌(지나친 행동) 셈이다. 따라서 《春秋穀梁傳今註今譯》은 3번의 ‘甚’자에 대한 해석을 “정도가 지나치다(過分)”라고 적은 것이다. 따라서 “책망하다”의 해석은 재고해 보아야

4) 薛安勤 註譯,《春秋穀梁傳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年), 5-6 쪽. “克是什麼意思? 是能的意思. 能幹什麼? 能殺死段. 爲什麼不用殺字? 是爲了表現段有徒衆. 段是鄭伯的弟弟. □怎麼知道他是弟弟? 殺太子, 一般都是同母弟想奪君位, 他眼睛盯著君王的寶座, 以此知道他是弟弟. 段是弟弟, 卻不稱他爲弟. 段是公子, 卻不稱他公子, 這是貶斥他. 因爲失掉了‘弟恭’之道. 輕視段, 而且認爲鄭伯太過分了. 鄭伯怎麼過分了? 他處心積慮置弟弟於死地.”

할 항목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문법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하자. 《古代漢語語法の基礎》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意動用法이란 동사가 ‘賓語가 어떠하다고 생각 한다’는 뜻을 지니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意動用法은 형용사나 명사의 활용에 국한되고 동사에는 意動用法이 없다. 意動用法은 빈어가 어떠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sup>5)</sup> 이러한 意動用法에 관한 예를 《戰國策》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吾妻之美我者, 私我也, 妾之美我者, 畏我也, 客之美我者, 欲有求於我也.<sup>6)</sup>

위 예문을 해석하면, “나의 부인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사로이 여기는 때문이고, 첩이 나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여기서의 “美我”는 意動用法으로 활용되어 “以我爲美”가 되는데 “나를 아름답다고 여기다”로 번역된다. 이와 동일한 사용법으로 “賤段而甚鄭伯”이 구절을 살펴보면 “賤段”은 段을 비열하게(천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甚鄭伯”은 “以鄭伯爲甚”으로 즉 정백이 너무 지나치게 일을 처리하여 “지나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구절 속에서 “賤”과 “甚”은 對句의 위치에 있으며, 또한 형용사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 《戰國策》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문장 안에 앞쪽의 문법적 사용 용례가 意動用法이라면 뒤의 사례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賤段”의 賤이 意動用法의 해석으로 설득력이 있었다면, 뒷부분의 “甚鄭伯” 또한 意動用法으로 해석함이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而”가 중간에 끼어든 對句의 구조라 한다면 意動用法의 해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책망하다”의 해석은 걸맞지 않다.

5) 安炳國, 《古代漢語 語法の 基礎》,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년), 275쪽.

6) 劉向, 《戰國策》, 卷八, 齊一, 鄒忌脩八尺有餘》, (臺北: 裏仁書局, 1991년), 325쪽.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公羊傳》의 원문과 선대학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克之者何? 殺之也. 殺之則曷爲謂之克? 大鄭伯之惡也.

주지하다시피《公羊傳》은 春秋三傳의 하나이다. 따라서 鄭伯과 段의 내용을 언급한 같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克’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를(段) 죽였다는 것이다. 그(공숙단)를 죽였다고 하는데 왜 ‘克’이라 했나? 鄭伯의 죄과를 드높여 알리기 위해서다.”<sup>7)</sup> 《穀梁傳》과 《公羊傳》 兩書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甚鄭伯”과 “大鄭伯之惡”의 대체적인 의미는 상통하며 적어도 “大”자에 대한 해석은 “책망하다”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은 《漢韓大辭典》 ‘甚’字 9번 “책망하다” 義項의 두 번째 출전 예문 《非語上·荀息》(枉許止以懲不子之禍, 進荀息以甚荀免之惡, 忍之也.)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晉獻公이 죽고 나서 晉獻公의 寵妃인 驪姬의 아들 奚齊가 군주로 옹립되었다. 그러나 奚齊는 晉나라 大夫인 裏克·丕鄭에게 살해당하게 된다. 당시 海祭의 스승인 荀息은 자결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때마침 申食은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海祭의 동생(卓子)을 새로이 옹립하여 그를 보필하려하였다. 그러나 그 동생마저도 裏克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마침내 申食은 그 자신의 말대로 죽는다. 이에 대하여 《國語》에서는 “不食其言”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柳宗元은 《非國語, 荀息》에서 《國語》의 이런 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長子가 이미 있는데 장자를 배척하고 嫡子가 아닌 자를 옹립했는데 이는 中正<sup>8)</sup>에서 멀어진 것이다”

7) 李宗侗, 葉慶炳 訂, 《春秋公羊傳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年), 4쪽. “爲什麼叫做克呢? 就是把他殺了. 殺爲什麼叫做克呢? 這是擴大鄭伯的壞處.”

雪克 註譯, 周鳳五 校閱, 《新譯公羊傳》, (臺北: 三民書局, 1994年), 3-5쪽.  
“叫做克是爲什麼呢? 是把共叔段殺掉了. 殺掉他爲什麼叫做克呢?  
是爲了張揚鄭莊公的罪過.”

8) 柳宗元, 《非國語, 荀息》(台北: 華正書局, 民國79年), 1070쪽. “忠之爲言, 中也 貞之爲言, 正也”

(排長嗣而擁非正, 其於中正也遠矣)라는 주장이다. 즉, 어떤 말을 식언하지 않고 지켰다고 할지언정 원칙(中正)에서 벗어난 것은 “亂”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國語》는 논지의 핵심을 “식언하지 않았다”는 데 두고 荀息을 칭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柳宗元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사람을 격려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충성을 이끌어내려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 것이다.”(以激不能死者耳.)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나는 그의 지금의 진보를 칭찬하는 것이 그의 과거의 행위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다.”(孔子曰: 與其進不保其往也.)라고 말한다. 따라서 “進荀息以甚荀免之惡”의 해석은 “순식이 나아짐을 칭찬하여 구차하게 생명을 이어가려하는 죄악이 지나침을 들어내려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앞에서 살펴본 “太鄭伯之惡”의 “정백의 죄악이 크다”의 구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책망하다”라고 해석하면 번역상의 유창함만을 앞세운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필자는 위에서 《漢韓大辭典》 ‘甚’字 9번의 2가지 출전에 대해 선대 학자의 해석, 문법적인 검증, 다른 서적과의 비교, 시대적 배경의 이해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의미해석인 “책망하다”가 타당치 못함을 증명하였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漢韓大辭典》 ‘甚’字 9번 項目은 전체가 삭제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8개 字典 및 辭典의 비교를 통한 오류 원인 파악

《漢語大詞典》 ‘甚’字를 살펴보면 역시 9번 의항에 “責備”라 적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 뜻은 《漢韓大辭典》의 “책망하다”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대의 또 다른 대형사전인 일본의 《大漢和辭典》과 대만의 《中文大辭典》 등에서는 이러한 의미해석은 기재되어있지 않다. 더구나 漢, 唐 이전의 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책망하다”의 해석을 언급하지 않았고, 비교적 권위 있는 사전과 자전에도 “책망하다”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는 여러 사전과 사전의 ‘甚’자의 뜻을 정리해본 것이다.



《8개 字典 및 辭典의 ‘甚’자 意味項目 比較》

康熙字典	辭源	辭海	漢語大字典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	漢韓大辭典
《唐韻》,《集韻》,《韻會》,《正韻》時切,音任. 《說文》:“尤安樂也.” 《廣韻》:“劇過也.” 《韻會》:“尤也,深也.”	一.厲害,過分	一.(shen4聲) 1. 很;極	1.異常安樂	一. はなはだ. はなはだしい. もと甚に作る.	一.極也.也.尤大也.(shen4聲) 或作甚.	(shen4聲) 1.過分	1. 지나치게 안락하다
	二.超過,勝於	2.超過;勝過	2.表示程度深	1. 尤も甘い. はなはだ 楽しい	1.尤安樂也,尤甘也	2.厲害; 嚴重	2. 정도가 지나치다
	三. 很	二.(shen2聲) 什麼, 怎麼	3.密集;濃	2. はげしい	2.劇也.極也	3.盛, 大	3. 심각하다, 또는 심하다
	四. 誠, 眞		4.勝;超過	3. もっとも, どりわけ	3.殊也.尤也	4. 很, 極	4. 세차다. 성하다. 크다
	五.什麼, 怎麼		5.正好(是);果眞(是)	4. 大きい	4.大也	5.深厚	5. 초과하다. 능가하다
《唐韻》常枕切,《集韻》,《韻會》食在切,《正韻》食枕切,音忍.義同.			6.代詞. 二.表示疑問,相當於“何”,“什麼”	5. 重い	5.重也	6.多	6. 두뎁다. 심후하다
			二.詢問原因,相當於“怎”,“怎麼”	6. 厚い	6.厚也	7.重要	7. 많다
			7.副詞. 一.表示程度,相當於已於“很”	7. 深い	7.深也	8.超過; 勝過	8. 중요하다
			二.表示情態,相當於“誠”. 眞; 實在	8. 度に過ぎる	8.過度也	9.實備	9. 책망하다
			9. 誠に	9.勝也	10.眞是; 的確	10.참으로. 정말	
			二.なに,いつれ,疑問の語.甚事,甚を見よ.	10.多也	11.連詞. 甚至	11.너무. 매우	
			三. 湛に通ず	11.誠也	(shen2聲) 1.何, 什麼	12. 심지어	
			四. (現) 恐ろしい,物すごい	二. 什那個疑問之語	2. 爲什麼	(태)1. 무엇. 무슨	
				三.是也,正也,也.		2. 어찌. 왜	
				四. 與湛通			

이렇듯 《漢韓大辭典》과 《漢語大詞典》의 義項 9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전이나 사전에서도 “책망하다”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漢韓大辭典》이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를 통해 《漢韓大辭典》은 1차 자료에 대한 조사는 고사하고 기존의 日本과 臺灣의 대형사전과의 비교, 대조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漢韓大辭典》의 설명을 살펴보면 《中文大辭典》과 《大漢和辭典》 등 前代의 사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고 언급

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다른 사전과의 비교, 대조를 통한 검증 절차도 없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것은 언젠가 《漢韓大辭典》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 3) 《漢韓大辭典》‘甚’字 語彙項目 誤謬分析

《漢韓大辭典》 ‘甚’字 어휘항목의 오류를 논해보도록 하겠다. 그 가운데 첫째, “甚硬”의 의미해석과 출전예문을 살펴보겠다.

甚硬: 음식물 따위가 매우 단단함./ 朝鮮《漢清文鑑 12, 食物, 輓硬》  
甚硬, 믹이 세다.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甚硬”을 “매우 단단함”이라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해석은 “음식물 따위가 매우 단단함”이라 적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물 따위”에서만 그 단단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대상이 단단하면 이 어휘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사용해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단단함의 대상이 대부분 음식물과 약재였다. 그러나 《普濟方》(明代, 15세기 초)이란 의학서적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若按之堅硬而痛, 此是結胃如胃有水, 須用大黃甘遂輩下之陷胃湯之類是也. 若按之不甚硬亦不甚痛, 此名痞氣上虛氣熱膨脹……

“若按之不甚硬亦不甚痛”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적어도 “음식물 따위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즉 신체부위가 단단해질 때에도 “甚硬”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甚硬”의 의미해석은 “음식물 따위와 신체부위가 매우 단단함”이라 고쳐주던지, 단순히 “매우 단단함”이라 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漢清文鑑》은 朝鮮 正祖 3(1779)년쯤

9)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에 만들어진 중국어과 만주어 辭典이다. 그런데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살펴보면, 15, 16세기에 만들어진 서적이 상당히 많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漢韓大辭典》 “甚硬” 항목에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지도 않은 조선의 서적을 출전예문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좀 더 원천적인 문제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甚硬” 항목은 다른 나라의 大型辭典에서 선택되어진 어휘가 아니다. 다시 말해 “甚硬”이 《漢韓大辭典》에 기재될만한 대상의 어휘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이것을 어휘항목으로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유의 어휘들은 《漢韓大辭典》에 상당수 빠져있다. 다음은 일본, 대만, 중국, 한국의 대표적 大型辭典의 ‘甚’자 語彙項目을 비교해 보겠다. 만들어진 시대 순으로 나열하였다.

《4개 辭典의 ‘甚’자 語彙項目 比較》

사전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	《漢韓大辭典》
1				甚硬
2		甚口	甚口	甚口
3	甚緊		甚緊	甚緊
4			甚娘	甚娘
5	甚德堂	甚德堂		甚德堂
6	甚都	甚都	甚都	甚都
7	甚遼	甚遼		甚遼
8	甚麼	甚麼	甚麼	甚麼
9			甚莫	甚莫
10			甚末	甚末
11			甚沒	甚沒
12	甚美必有甚惡	甚美必有甚惡		甚美必有甚惡
13		甚般	甚般	甚般
14	甚病		甚病 (두 가지로 구분)	甚病
15			甚備	甚備
16		甚生	甚生 (두 가지로 구분)	甚生
17		甚暑		甚暑

18		甚設	甚設	甚設
19	甚是	甚是	甚是	甚是
20		甚時		甚時
21	甚實	甚實	甚實	甚實
22			甚言	甚言
23	甚雨	甚雨	甚雨	甚雨
24			甚意兒	甚意兒
25			甚而至於	甚而至於
26			甚者	甚者
27		甚底	甚底	甚底
28		甚的	甚的	甚的
29	甚至	甚至	甚至	甚至
30	甚至於		甚至於	甚至於
31			甚迭	甚迭
32			甚且	甚且
33			甚泰	甚泰
34			甚嚮	甚嚮
35	甚嚮塵上		甚嚮塵上	甚嚮塵上
36		甚休	甚休	甚休
37			甚且至於	
38		甚而	甚而	
39			甚或至於	
40	甚人	甚人		
41	甚大	甚大		
42	甚小	甚小		
43	甚日	甚日		
44	甚好	甚好		
45	甚困	甚困		
46	甚事	甚事		
47	甚易	甚易		
48	甚恨	甚恨		
49	甚美	甚美		
50	甚急	甚急		
51	甚速	甚速		

52	甚習	甚習		
53	甚寒	甚寒		
54	甚疎	甚疎		
55	甚愛	甚愛		
56	甚適	甚適		
57	甚醉	甚醉		
58	甚儉	甚儉		
59	甚親	甚親		
60	甚鮮	甚鮮		
61	甚霧之朝	甚霧之朝		
62	甚有文理	甚有文理		
63		甚深		
64		甚處		
65		甚然		
66		甚恁底		
67	甚遠			
68	甚焉			
69	甚句			
70	甚齊			
71	甚探			
72	甚風			
73	甚麼的			
74	甚麼都			
75	不求甚解			
총계	45	46	33	36

이처럼 네 개의 사전에서 모두 쓰인 어휘도 있고 세 개 혹은 두 개, 또는 한 개의 사전에서만 언급한 어휘들이 있다. “甚硬”이 《漢韓大辭典》에서 ‘甚’자 관련 어휘로 선택되었다면 “甚大”, “甚好”, “甚美” 등등 “매우 어떠한다”의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조의 어휘는 모두 기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漢韓大辭典》이 선택한 어휘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기준에서 어휘가 선별되었는지 분명치가 않은 것이다.

전체의 기타항목을 살펴보아도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大漢和辭典》의 ‘甚’자 관련 어휘는 45개이며, 《中文大辭典》은 46개, 《漢語大詞典》은 33개, 《漢韓大辭典》36이다. 《漢韓大辭典》이 동양최대의 사전임을 자부하는 어휘량이라 하기에는 부족한감이 있다. 마땅히 다른 대형사전의 어휘를 전부 포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위 표의 3번 “甚緊” 항목의 의미해석을 살펴보겠다. 《漢語大詞典》과 《漢韓大辭典》에서는 “무엇이 그리 요긴한가?”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大漢和辭典》에서는 “대단히 긴박한”으로 기재하였다. 이것은 모두 가능한 해석으로 두 가지를 전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살펴보면 《舊唐書》에서 “甚緊”을 사용한 예를 볼 수 있다: “召對之夕, 擘出東方, 長三尺, 光耀甚緊.”

《〈漢韓大辭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제》안에 “출전과 예문”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출전의 선정은 고문헌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전적으로 하되,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歷代文人들의 詩文 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sup>10)</sup> 이러한 원칙을 고려한다면 《漢韓大辭典》에 正史類인 《舊唐書》를 출전예문으로 추가 기재해 주어 “대단히 긴박한”이란 의미해석의 예증으로 사용해야 한다.

셋째, 6번 “甚都” 항목의 경우는 그 의미해석에 사실상 큰 불만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예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단순히 “매우 아름답다”라고만 말하기보다는 《中文大辭典》의 해석을 받아들여 “풍채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해석을 부가해 주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기한 예문 대부분은 아름답다는 대상이 남자인 경우였다. 남자를 단순히 “매우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풍채가 매우 아름답다” 혹은 “풍채가 매우 좋다”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 가지 부언하자면 “甚都”와 관련되어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에서 사용한 출전예문은 《漢書, 司馬相如傳》이 아니라 《史記, 司馬相如傳》으로 적어야 한다. 《史記》와 《漢書》는 모두 “司馬相如傳”이 있으며 “甚都” 관련 예문 또한 일치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기

10) 《〈漢韓大辭典〉 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적으로 앞선 《史記》를 출전예문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漢韓大辭典》‘甚’字 語彙項目에는 어휘 선택의 기준 문제, 선택된 어휘의 분량 문제, 부족한 의미해석 문제, 한글 해석의 미흡함 등 다양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漢韓大辭典》수정판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인 것이다.

### III. 結 言

본 논문은 《漢韓大辭典》의 ‘甚’字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 의미항목, 의미해석, 출전예증에 보이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필자는 본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漢韓大辭典》‘甚’字 2번째 項目 誤謬分析. 둘째, 《漢韓大辭典》‘甚’字 9번째 項目 誤謬分析. 셋째, 《漢韓大辭典》‘甚’字 語彙項目 誤謬分析이다. 대강의 내용은 出典의 性格 및 先後排列 誤謬分析, 意味解釋의 誤謬分析, 出典例文 分析, 8개 字典 및 辭典의 비교를 통한 오류 원인 파악 등이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는 어떤 것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정확한 규칙과 원칙의 부재로 말미암은 문제가 있었으며, 문헌의 성격을 이해 못한 경우도 있었고, 1차 자료와 前代의 여러 사전을 비교 검토함에 부주의한 경우도 있었다. “結言”에서는 지면의 제한과 논증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복하여 그 내용의 요약은 피하겠다.

세상의 어떠한 사전도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漢韓大辭典》의 ‘甚’字 역시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甚’字 하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漢韓大辭典》의 다른 항목에서 다수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후학들의 의무이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인 것이다. 이에 위에서 살펴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유명한 사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며 그 결과물을 쉽게 믿는다. 대부분의 경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전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두 암묵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태도는 어쩌면 문제를 알고 있어도 외면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의 태도만을 문제 삼고 사전의 오류를 수수방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연구의 작은 범위를 설정하여 《漢韓大辭典》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보도록 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甚’字 오류 분석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낱글자의 오류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어휘의 오류분석, 古典 속의 어휘와 《漢韓大辭典》 용례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漢韓大辭典》의 出典例文에 나타난 誤謬 研究”(중국학, 38집)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사전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렇듯 《漢韓大辭典》의 오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문제를 규명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一個人이 사전의 오류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사전의 문제를 수정하는 일은 文化史, 文學史, 文獻學, 文字學, 言語學 등 모든 학문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즉 여러 전공분야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지속적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協業은 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漢韓大辭典》의 수정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를 통해 여타 학문의 학술적 진전과 학문적 영역 확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1. 薛安勤註譯, 《春秋穀梁傳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年)
2. 安炳國, 《古代漢語 語法の 基礎》,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년)
3. 李宗侗, 葉慶炳 訂, 《春秋公羊傳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年)
4. 雪克 註譯, 周鳳五 校閱, 《新譯公羊傳》, (臺北: 三民書局, 1994年)



5. 柳宗元, 《非國語, 荀息》, (台北: 華正書局, 民國79年)
6. 成百曉 譯註, 《古文真寶》,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7年)
7. 程樹德 撰,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8. 劉向, 《戰國策》, (臺北: 裏仁書局, 1991年)
9.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년)

### <辭典>

-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4年
- 《漢語大詞典》, 羅竹風,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年
- 《中文大辭典》, 林尹高明,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82年
- 《大漢和辭典》, 諸橋轍次,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59年
- 《漢語大字典》,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著,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5年
-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3年
- 《辭源》,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82年
- 《康熙字典》,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6年
- 《中國大百科全書, 言語文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年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age of the character Shen (甚)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lies in pointing out the appropriate usage of a Chinese character Shen (甚) in relation to the items, meanings, and example sentences. The items in the dictionary include meanings, interpretations, and subsequent example sentences. It is essential to present items correctly when compiling a dictionary. If the items, meanings, and example sentences of any letter are not accurate, the influence of the

dictionary will be reduced by half.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to exemplify a Chinese character Shen (甚) by comparing its usage in eight dictionaries and to analyze the inappropriate usage of the character with respect to sources, sequence order, meaning interpretation, and example sentences in the refer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volve identifying the basic types of errors and suggesting appropriate changes for the future revision of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herefore, not only the scholars in the academic field but also the next generation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per usage of the character Shen (甚) and use the character without errors mistakenly transmitted from the dictionary.

**주제어** : 《漢韓大辭典》 《漢語大詞典》 《中文大辭典》  
《大漢和辭典》 意味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 誤謬研究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鄭衆의 “草木鳥獸, 皆興辭” 考察\*  
- 《毛詩傳》、《鄭箋》과 《孔疏》를 中心으로 -

安性栽\*\*

<目 次>

- I. 서 론
- II. 본 론
  - 2-1. 《毛詩傳》에서 論한 “興”과 “興象”의 關係
  - 2-2. 《鄭箋》에서 論한 “興”과 “興象”의 關係
  - 2-3. 《孔疏》에서 論한 “興”과 “興象”의 關係
- III. 결 론
- 參考文獻
- 中文摘要

I. 서 론

“興”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周禮·春官·大師》에서 찾아볼 수 있다.

“掌六律六同，以合陰陽之聲。……教六詩：曰風，曰賦，曰比，曰興，曰雅，曰頌。”  
六律과 六同의 소리를 관장함으로써, 음성조와 양성조를 조율한다

\* 본 논문은 2010년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해 완성되었음.

\*\* 仁川大學校 基礎教育院 助教授(kaixin@freechal.com)

.……대사는 맹인악공들에게 六詩를 가르치는데, 이를 風, 賦, 比, 興, 雅, 頌이라 일컫는다.

이렇듯 《周禮》에서 “흥”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이는 문예이론방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논하려는 문학적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적 차원에서의 “흥”에 대한 개념은 《詩大序》에서 언급한 내용에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故詩有六義焉：一曰風，二曰賦，三曰比，四曰興，五曰雅，六曰頌。”

따라서 시에는 六義가 있으니: 첫째는 풍이라 하고, 둘째는 부라고 하며, 셋째는 비라고 하고, 넷째는 흥이라 하며, 다섯째는 아라고 하고, 여섯째는 송이라 일컫는다.

東漢의 鄭玄은 《周禮注》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아 풀이하었다.

“興，見今之美，嫌于媚諛，取善事以喻勸之。”

興이란, 오늘날의 미덕을 보고, 아부라 오해받을까봐 꺼리어, 미덕으로써 이를 비유하여 장려하는 것이다.

그는 이 주해를 달 때, 또 鄭司農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興者，托事于物也。”

흥이란 일을 사물에 기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흥”이라는 것은 작가가 창작에 임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이나 감흥을 어떠한 사물이나 일에 기탁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詩經》의 “興”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즉 첫 번째는 “詩歌작

품의 작가적 관점(또는 창작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이고, 두 번째는 “독자적 관점(또는 응용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毛詩傳》에서 《孔疏》까지 《시경》 작품들의 “흥”에 대해 언급할 때는 모두 하나같이 각 작품들의 작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를 표방하였지만, 당시의 시대 및 사유의 한계성 다시 말해서 漢代 이전에 이미 시작된 《시경》 각 작품들에 대한 정치화 작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연구결과가 하나같이 “독자적 관점 또는 응용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sup>1)</sup>

鄭衆은 漢代의 經學家로서, “시가 작품에서 풀, 나무, 새, 동물들을 들어 뜻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가 ‘흥’을 나타내는 단어이다(詩文諸舉草、木、鳥、獸以見意者, 皆興辭也)”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 역시 시기적으로 당시 論壇을 장악했던 《시경》의 정치화 작업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보편적 개념 즉 “독자적 관점 또는 응용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의 사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에, 필자는 《毛詩傳》과 《鄭箋》 그리고 《孔疏》에서 “흥”으로 표기한 詩句들 중에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와 鄭衆이 제기한 주장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논리적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고찰해보려 한다.

## II. 본 론

鄭衆이 주장한 내용의 眞僞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興” 개념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興”은 중국의 詩歌藝術 발전에 있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의 실천 과정에서 부단한 인식과 사고를 통해 얻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興”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후 객관적인 사물과

1) <“賦詩, 引詩”를 통한 先秦時代의 《三百》 認識 再考> 安性栽 중국학 제34집 참조.

주관적인 情感이 한 데 어우러지게 되어 주관적인 정감을 표현함에 있어, 먼저 객관적인 사물을 언급함으로써 과거 간단한 가사를 반복하여 노래하는 원시노동가요의 표현기법을 탈피할 수 있었다.

“興”의 개념이 제기된 이후, 漢代로부터 약 2천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들을 쏟아냈지만, “흥”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설명부분에 있어서는 줄곧 의견이 분분하여 좀처럼 통일된 견해를 내놓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를 “흥”의 글자 本義로부터 시작하여 다시금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흥”의 원시적 면모를 마침 《詩經》 작품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흥”이라는 글자는 《시경》의 총 15수에서 16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衛風·氓》“夙興夜寐，…” (=起) ; 《鄭風·女曰鷄鳴》：“子與視夜，…” (=起) ; 《秦風·小戎》“載寢載興。” (=起) ; 《秦風·無衣》“王于興師，…” (=起) ; 《小雅·天保》：“以莫不興。” (=興盛) ; 《小雅·沔水》：我友敬矣，讒言其興。(=興起) ; 《小雅·斯干》：“乃寢乃興，…” (=起) ; 《小雅·小宛》：“夙興夜寐，…” (=起) ; 《小雅·小明》：“興言出宿。” (=起) ; 《小雅·大田》：“興雨祁祁。” (=盛) ; 《大雅·大明》：“維予侯興。” (=興起) ; 《大雅·綿》：“百堵皆興，…” (=起) ; 《大雅·生民》：“以興嗣歲。” (=興起、興旺) ; 《大雅·蕩》：“女興是力。” (=起、興起) ; 《大雅·抑》：“興迷亂于政。” (=尙) / “夙興夜寐，…” (=起)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小雅·天保》·《小雅·大田》·《大雅·抑》 이 세 작품을 제외하고는 《시경》 작품들 중에 나오는 “흥”의 문자적 의미는 모두 기본적으로 “起” 즉 “일어나다, 시작하다”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 현재까지도 뚜렷한 개념을 제시할 수 없는 《시경》의 “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흥”은 분명 문학작품 속에서 나오는 “흥”의 문자적 의미로,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론개념이 지극히 다분한 “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詩大序》의 “흥”에 대한 기록이 문학이론에서의 “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故詩有六義焉：一曰風，二曰賦，三曰比，四曰興，五曰雅，六曰頌。”

따라서 시에는 六義가 있다: 첫째는 풍이라 하고, 둘째는 부라고 하며, 셋째는 비라고 하고, 넷째는 흥이라 하며, 다섯째는 아라고 하고, 여섯째는 송이라 일컫는다.

《孔疏》는 이러한 《詩大序》의 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았다.

“……然則風、雅、頌者，《詩》篇之異體；賦、比、興者，《詩》文之異辭耳。大小不同，而得并爲六義者。賦、比、興是《詩》之所用，風、雅、頌是《詩》之成形，用彼三事，成此三事，是故同稱爲義，非別有篇卷也。……”

……그러므로 곧 풍, 아, 송은 시의 서로 다른 체제요; 부, 비, 흥은 시문의 서로 다른 표현기법이다. 크고 작음은 서로 다르나, 함께 어울려서 六義라고 한다. 부, 비, 흥은 시의 쓰임이요, 풍, 아, 송은 시의 형태이니, 부, 비, 흥의 세 가지 기법으로 풍, 아, 송 세 가지를 이룬다고 하여 함께 義라고 칭하니, 풍, 아, 송 이외에 별도의 편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孔疏》에서의 “흥”에 대한 정의는 “異辭”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異辭”는 바로 《詩》의 쓰임이다. 《詩》의 쓰임이라 함은 시가창작에 있어서의 “예술표현기법”을 뜻하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詩大序》와 《孔疏》의 “흥”에 대한 논술은 지나치게 간략하여 “微言大義”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예술표현기법”으로서의 “흥”은 바로 《毛詩傳》의 저자가 116개의 “흥”을 표기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만약 《모시전》의 116개의 “흥”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詩大序》의 “六義” 중의 “흥”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축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

2) 비록 《周禮》에도 “比, 興”이 나타나지만, 문예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오히려 음악적 측면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毛詩傳》의 “흥”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먼저 《周禮》와 《禮記》에 나오는 “흥”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大師掌六律六同，以合陰陽之聲。……教六詩：曰風，曰賦，曰比，曰興，曰雅，曰頌。”《周禮·春官》  
대師는 六律과 六同의 소리를 관장함으로써, 음성조와 양성조를 조율한다.……대사는 맹인악공들에게 六詩를 가르치는데, 이를 風, 賦, 比, 興, 雅, 頌이라 일컫는다.

《주례》에서는 大師가 六詩를 가르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鄭玄은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아 풀이하였다.

“教，教瞽蒙也。……比，見今之失，不敢斥言，取比類以言之。興，見今之美，嫌于媚諛，取善事以喻勸之。”  
가르침이라 함은 맹인악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比는 오늘날의 과오를 보고 감히 책망하는 말을 하지 못하여, 비유를 들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興은 오늘날의 미덕을 보고, 아부라 오해받을까봐 꺼리어, 미덕으로서 비유하여 장려하는 것이다.

이제 《주례》의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자.

“瞽蒙掌播鼗、……掌九德六詩之歌，以役大師。”《周禮·春官》  
瞽蒙은 흔들북 연주를 책임지고……九德과 부, 비, 흥, 풍, 아, 송을 부르는 것을 책임지고 大師의 지휘에 따른다.

“九德六詩之歌”는 宗廟大司樂을 가리키는 것으로, “掌”은 “장악하다, 배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以役大師”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大師가 “六詩”를 가르치는 목적은 瞽蒙이 “九德六詩之歌”를 배움으로써 大師를 돕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흥”은 노래와 연주의 기능을 가리킨 것으로, 당시에는 “詩”와 “음악”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詩를 노래하고 연주하



는 여섯 가지 기교를 “六詩”라고 지칭한 것이다. 《주례》에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掌成均之法，以治建國之學政，而合國之子弟焉。凡有道者有德者使教焉，死則以爲樂祖，祭于瞽宗。以樂德教國子：中、和、祗、庸、孝、友。以樂語教國子：興、道、諷、誦、言、語。”《周禮·春官·大司樂》 대학의 관련 법규와 국가통치의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왕실 및 공경 대부 자제들의 교육을 책임진다. 무릇, 조예가 있거나 인덕이 높은 이로 하여금 학생교육을 맡게 하니, 그들이 죽은 후에는 음악계의 先師로 삼아, 교육관 서쪽의 건축물에서 제사를 지낸다. 시가의 德으로 학생에게 충성, 융화, 정중함, 인내심, 효순, 우애를 가르치고, 시가의 언어로 학생들에게 비유, 인용, 암송, 읊조림, 서술, 답변을 파악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樂語”는 “詩”를 가리키는 것으로, “興、道、諷、誦、言、語”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이다<sup>3)</sup>. 이 때문에 鄭玄은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아 풀이했다.

“興者，以善物喻善事；道詩曰導，異者，言古以割今也；倍文曰諷，以聲節之曰誦；發端曰言；答述曰語。”

흥이란, 선한 사물로서 선한 일을 비유하는 것이다; 道詩는 導를 일컫는 것이니, 導란 옛 것으로 오늘날을 알맞게 하는 것이다; 문장 암기를 諷이라고 하고, 소리로 조율하는 것을 誦이라 한다;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것을 言이라 하고; 답변하는 것을 語라고 일컫는다.

《毛詩傳》에서 116개의 “興”字를 주해한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분명히 “작품의 창작방면에서 바라보는 흥” 즉 “작가적 관점에서의 흥”을 연구 분석한 것인데<sup>4)</sup>, 《周禮·春官·大師》에서의 “흥”은 시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기능을 지칭하다가, 《周禮·春官·大司樂》에서는 “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뜻이 바뀌게 된다. 즉 문자 자체는 변함

3) [清] 孫詒讓撰 《周禮正義》 참조.

4) 사실 《毛詩傳》에서 注를 한 “興”은 마땅히 “用詩之法”으로 봐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이 없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완전히 전환되는데, 이러한 의미의 전환은 詩歌理論 발전에 있어서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禮記·王制》의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자.

“樂正崇四術，立四教，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春秋教以《禮》、《樂》，冬夏教以《詩》、《書》。王太子，王子，群后之太子，卿、大夫、元士之適子，國之俊選，皆造焉。”  
 국학의 總敎官은 四術을 제창하여, 네 과목을 설립하니, 선왕께서 전해주시는 시, 서, 예, 악으로서 인재를 양성한다. 봄과 가을에는 예와 악으로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에는 시와 서로 가르치니, 왕태자와 왕자 제후들의 태자들, 공경대부와 원사의 적자, 나라 안의 俊士와 選士를 모두 양성한다.

周代 太學의 교육 목적은 “造士” 즉 관료를 키우는데 있었다. “어차피 학습의 목적이 관료를 양성하는데 있는 것이지 시인을 배출하거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樂語’ 중의 ‘興’은 바로 詩의 예술적 특징이 아니라, ‘興’의 또 다른 意義 즉 시의 활용법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시의 활용법’이라 함은 주로 정치나 외교방면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樂語’를 가르치는 여섯 가지 내용 역시 詩의 활용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위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시경》에 있어서의 “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詩歌작품의 작가적 관점 또는 창작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이고, 두 번째는 “독자적 관점 또는 응용방면에서 바라보는 흥”<sup>6)</sup>이다. 전자는 주로 작가의 연상 및 상상력을 말하는데 반해, 후자는 독자의 작품에 대한 연상 상상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작가의 객관적 사물에 대한 주관적 관념을 뜻하는데 반

5) 袁長江 《先秦兩漢詩經研究論稿》 240頁 學苑出版社 1999年 8月. 원문: “既然學是爲將來做官, 不是去做詩人, 也不是去做‘教授’, 那么‘樂語’中的‘興’便不是講詩的藝術特征, 而是學習‘興’的另一种意義, 即用詩之法。当然, 這里所說的‘用詩之法’主要針對政治、外交方面而言, 而所教‘樂語’的六項內容似乎也是指用詩之法。”

6) 여기에서 언급하는 “用詩”와 상술한 교육에서의 “用詩”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應用”之“用”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使用”의 “用”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교육도구 혹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해, 후자는 독자가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주관적 관념으로 작가의 주관적 관념을 재해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는 “2차적 연상 및 상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경》에 있어서의 “흥”은 과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시경》에 대한 4대 연구서로 《毛詩傳》과 《鄭箋》, 《孔疏》 그리고 宋代 朱熹의 《詩集傳》을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 朱熹의 《詩集傳》은 앞의 세 연구서와 그 출현시기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거니와 각 작품의 주제 및 “흥”에 대한 다른 견해가 보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는 앞의 세 연구서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즉 《毛詩傳》과 《鄭箋》 및 《孔疏》의 “흥”에 대한 연구는 본래 “詩歌작품의 작가적 관점 또는 창작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에 접근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경》 각 작품에 대한 주제와 詩句 해석은 종종 당시의 중앙 집권층이 선양하던 봉건윤리도덕 가치관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었을 뿐더러, 급기야 작가의 창작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는 《毛詩傳》 이래로 비록 그 처음의 의도가 “작가적 관점 또는 창작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을 연구하려고 한 것이지만, 당시의 《시경》이 이미 정치 및 외교석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후 즉 《시경》에 대한 정치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의 것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경》의 활용법인 “독자적 관점 또는 응용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독자적 관점 또는 응용방면에서 바라보는 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흥”이 지닌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치와 외교방면에서 활용되는 기능인데, 이것이 바로 《모시전》의 《시경》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sup>9)</sup>

이렇듯 상술한 사유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우리는 《모시전》과 《정전》 그리고 《공소》에 표기된 “흥”이 왜 공통적으로 모두 《國風

7) <應用方面的 “比, 興”> 安性栽 韓中言語文化研究 제10집 참조.

8) <從賦、比、興產生的時代背景看其本義> 魯洪生(中國社會科學 1993年 3期)에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9) 사실, 《詩經》中的 일부 작품은 “達政”의 目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小雅·節南山》의 “家父作誦, 以究王誅. 式訛爾心, 以畜萬邦.”句는 그 작품 창작의도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다.

》과 《小雅》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경》은 《國風》 《大雅》 《小雅》 《頌詩》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시전》과 《정전》 그리고 《공소》에서 “흥”이라고 표기한 작품들은 대부분이 《國風》과 《小雅》에만 집중되어있고, 《대아》와 《소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첫째 《大雅》와 《頌詩》가 대부분이 王朝를 대신해 그들의 功績과 恩德을 찬양하고 또한 당시가 태평성세인 것처럼 허세를 부려가면서 꾸며낸 작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은근하고도 완곡한 표현기법으로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있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흥”이라는 기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두 번째, 《국풍》 및 《소아》에 수록된 작품들은 이와 달리, 당시의 정치와 사회현실 및 계급 불평등 비판, 패륜적 행위 등을 위주로 담았는데, 당시 《국풍》과 《소아》의 이러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은 쓴 작가들은 결국 봉건 윤리도덕 사회라는 현실에서 사회 비판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당시의 君臣關係 등의 예의에 위배되거나 권력층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흥”이라는 은근하고도 완곡한 표현기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sup>10)</sup>.

오늘날 학술계는 일반적으로 《모시전》의 《시경》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심지어 牽強附會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시전》과 《정전》 그리고 《공소》의 “흥”이 《국풍》과 《소아》에 집중된 원인이 위에서 서술한 추측과는 물론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조건을 연계하여 함께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춘추시대에는 어쩌면 순수한 문학적 측면에서 《시경》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을 지도 모르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조건상 《시경》의 창작 본연의 의도를 소홀이 여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봉건통치 사상이념으로 《시경》을 재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朱自淸 역시 《毛詩傳》의 “興”은 《左傳》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sup>11)</sup>.

10) 이러한 논리는 《毛詩傳》의 작품 해석관점에 착안한 것이다.

11) 朱自淸 《詩言志辨》 69頁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年 11月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毛詩傳》의 작가 1인에게 모두 덮어씌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상술한 “흥”의 변천과정과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鄭衆이 주장한 “草木鳥獸, 皆興辭”의 眞僞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2.1 《毛詩傳》에서 論한 “興”과 “興象<sup>12)</sup>”의 關係

孔穎達은 《毛詩正義》에서 다음과 같이 “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司農又云：興者，托事于物則興者起也。取譬引類，起發己心。詩文諸舉草、木、鳥、獸以見意者，皆興辭也。”

鄭衆이 또 이르기를; 興이란 사물에 일을 기탁하는 것이니 곧 흥이란 起이다. 비유를 취하여 유사한 것을 인용하여,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詩文중의 수많은 풀, 나무, 새, 짐승으로 뜻을 보이는 것은 모두 興辭이다.

孔穎達이 인용한 鄭司農(즉 鄭衆)의 말에 따르면 《詩經》 작품들 중에 나타난 “草木鳥獸魚蟲類”는 모두 “興”과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鄭衆이 제기한 주장은 孔子의 影響을 받았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子曰：‘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于鳥獸草木之名。’”《論語·陽貨》

공자가 이르기를: 학생들이 어째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想象력을 배양할 수 있고, 觀察력을 높일 수 있으며, 어울림을 연마할 수 있거니와, 풍자법을 배울 수 있다.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고, 멀게는 군주를 섬기며, 조수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

---

12) 본문중의 “興象”은 주로 “草木鳥獸魚蟲類”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邇之事父，遠之事君”은 《詩經》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완곡하게나마 말해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詩經》 작품에 대한 정치화 작업이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鄭衆은 “多識于鳥獸草木之名”이라는 구절에서 힌트를 얻어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의 관계를 천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毛詩傳》에서 “興”이라고 표기한 부분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하자. 《毛詩傳》에서 “興”으로 표기한 116개의 詩句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나타나는 작품은 모두 88수가 있다.

《周南·關雎》雎鳩, 《葛覃》葛, 《卷耳》卷耳, 《樛木》樛木、葛藟, 《桃夭》桃, 《漢廣》喬木, 《麟之趾》麟, 《召南·鵲巢》鵲、鳩, 《草虫》草虫, 《標有梅》梅, 《何彼禮矣》唐棣, 《邶風·凱風》棘, 《雄雉》雄雉, 《匏有苦叶》匏, 《旄丘》葛, 《鄘風·墻有茨》茨, 《衛風·淇奧》綠竹, 《芄蘭》芄蘭, 《有狐》狐, 《王風·中谷有蓷》蓷, 《兔爰》兔, 《葛藟》葛藟, 《采葛》葛, 《鄭風·山有扶蘇》扶蘇、荷華, 《蓀兮》蓀, 《風雨》鷄, 《野有蔓草》蔓草, 《齊風·南山》雄狐, 《甫田》莠, 《敝笱》魴、鰈, 《魏風·園有桃》桃, 《唐風·山有樞》樞、榆, 《椒聊》椒聊, 《杕杜》杜, 《鵲羽》鵲、栩、棘、桑, 《有杕之杜》杜, 《葛生》葛、楚、薺, 《采芣》芣, 《秦風·車鄰》漆、栗, 《蒹葭》蒹葭, 《終南》條、梅, 《黃鳥》黃鳥、棘, 《晨風》晨風, 《陳風·東門之池》麻, 《東門之楊》楊, 《墓門》棘, 《防有鵲巢》鵲、苕, 《澤陂》蒲、荷, 《檜風·隰有萋楚》萋楚, 《曹風·蜉蝣》蜉蝣, 《鳴鳩》鳴鳩, 《下泉》稂, 《邠風·鴟鴞》鴟鴞, 《九罭》鱒、魴, 《狼跋》狼, 《小雅·鹿鳴》鹿、苹, 《常棣》常棣, 《伐木》木、鳥, 《杕杜》杜, 《南有嘉魚》樛木、瓠, 《南山有台》菜, 《蓼蕭》蕭, 《菁菁者莪》莪, 《采芑》芑, 《鴻雁》鴻雁, 《鶴鳴》鶴, 《黃鳥》黃鳥、谷, 《小宛》鳩, 《

小弁》鷺, 《蓼莪》莪、蒿, 《大東》棘, 《裳裳者華》華, 《桑扈》  
 桑扈, 《鴛鴦》鴛鴦, 《青蠅》青蠅, 《采菽》菽, 《苑柳》柳, 《采  
 綠》綠, 《黍苗》黍苗, 《隰桑》桑, 《白華》菅、白茅, 《綿蛮》黃  
 鳥, 《苕之華》苕, 《大雅·綿》飴, 《棫朴》棫、朴, 《桑柔》桑,  
 《周頌·振鷺》鷺, 《魯頌·有駟》駟、鷺。

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鄭衆이 말한 것과 같이 《詩經》 作品 중  
 에 나타난 草木鳥獸魚蟲類와 “興” 사이에는 확실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  
 는 하지만, 《毛詩傳》의 116개의 “興”에는 草木鳥獸魚蟲類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품들도 적잖이 있다. 이제 다음의 작품들을 살펴보자.

《召南·行露》, 《江有汜》, 《邶風·柏舟》, 《綠衣》, 《終風》  
 》, 《谷風》, 《泉水》, 《北門》, 《北風》, 《鄘風·柏舟》, 《  
 衛風·竹竿》<sup>13)</sup>, 《王風·揚之水》, 《齊風·東方之日》, 《唐風·揚之  
 水》, 《綢繆》, 《秦風·无衣》, 《陳風·月出》, 《小雅·湛露》, 《  
 沔水》, 《斯干》, 《節南山》, 《巷伯》, 《谷風》, 《瞻彼洛矣》  
 》, 《頍弁》, 《車轄》, 《角弓》, 《卷阿》

위에 열거한 28首의 작품 역시 《모시전》에서는 “흥”이라고 표기하  
 였는데, 그 詩句들을 살펴보면 “山”、“水”、“風”、“天”、“露” 등의 자  
 연풍광들과 “舟”、“衣”、“竿” 등의 생활용품만이 등장할 뿐, 어떠한  
 “草木鳥獸魚蟲類”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또 아래의 작품들과 그 작품  
 들에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들을 살펴보자.

《周南·螽斯》螽斯, 《汝墳》魴魚, 《召南·甘棠》甘棠, 《駘虞》  
 葭, 《邶風·燕燕》燕, 《小雅·四牡》騅, 《我行其野》樛, 《正月》  
 烏, 《大雅·旱麓》榛、楛, 《大雅·文王有聲》芑

13) 비록 이 작품에도 “竹”이 나타나지만, 이는 “草木鳥獸魚蟲類”名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竿”의 주재료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통계수치에서 배제하였  
 다. 《鄭箋》과 《孔疏》역시 동일한 이유로 통계수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위의 작품들 중에는 모두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지만, 《毛詩傳》에서는 의외로 어느 하나조차 “興”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비록 《毛詩傳》의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鄭衆의 주장을 완전하게 뒷받침해주지는 못한다. 여기서 필자는 “《毛詩傳》의 통계수치가 鄭衆의 주장에 부합되지 않는데, 鄭衆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였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鄭衆은 東漢시대의 經學家로서 그 활동연대가 漢代의 經學集大成者인 鄭玄보다 앞서고, 그의 학문적 견해는 後世에 一定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孔穎達의 《毛詩正義》는 심지어 그의 주장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지금으로써는 아직 鄭衆의 이러한 주장이 단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야기된 착오인지, 아니면 《毛詩傳》의 《詩經》注解內容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견해를 내세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鄭箋》과 《孔疏》 부분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자.

## 2.2 《鄭箋》에서 論한 “興”과 “興象”의 關係

주지하다시피, 鄭玄은 經學家 鄭衆보다 늦게 활동한 인물로 “後鄭”이라고도 불린다. 필자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鄭玄의 著書인 《鄭箋》이 과연 鄭衆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鄭箋》이 “興”이라고 표기한 작품은 모두 92首인데, 이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와 관련된 작품은 총 70首이다.

《周南·葛覃》葛、黃鳥, 《卷耳》卷耳, 《樛木》樛木、葛藟, 《桃夭》桃, 《漢廣》喬木, 《麟之趾》麟, 《召南·鵲巢》鵲、鳩, 《草虫》草虫, 《標有梅》梅, 《何彼禮矣》唐棣、桃李, 《邶風·凱風》棘、黃鳥, 《雄雉》雄雉, 《旄丘》葛, 《鄘風·墻有茨》茨, 《衛風·芄蘭》芄蘭, 《王風·中谷有蓫》蓫, 《葛藟》葛藟, 《采葛》葛, 《鄭風·山有扶蘇》扶蘇、荷華, 《蓀兮》蓀, 《風雨》鷄, 《齊風·南山》雄狐, 《甫田》莠,



《敝笱》魴、鰈, 《唐風·椒聊》椒聊, 《鴛羽》鴛、羽, 《有杕之杜》杜, 《秦風·車鄰》漆、栗, 《終南》條、梅, 《黃鳥》黃鳥、棘, 《陳風·東門之池》麻, 《東門之楊》楊, 《墓門》棘, 《防有鵲巢》鵲、苕, 《澤陂》蒲、荷, 《檜風·隰有萋楚》萋楚, 《曹風·蜉蝣》蜉蝣, 《鳴鳩》鳴鳩, 《下泉》稂, 《豳風·鸛鳴》鸛鳴, 《九罭》鱒、魴, 《狼跋》狼, 《小雅·常棣》常棣, 《采芣》芣, 《出車》草虫, 《南有嘉魚》樛木、瓠, 《南山有台》菜, 《蓼蕭》蕭, 《采芣》芣, 《鴻雁》鴻雁, 《鶴鳴》鶴, 《小雅·黃鳥》黃鳥, 《小弁》鸛, 《蓼莪》莪、蒿, 《大東》棘, 《四月》百卉, 《裳裳者華》華, 《桑扈》桑扈, 《鴛鴦》鴛鴦、馬, 《青蠅》青蠅, 《采芣》柞, 《苑柳》柳, 《黍苗》黍苗, 《隰桑》桑, 《白華》菅、白茅、鴛、鶴, 《綿蛮》黃鳥, 《苕之華》苕, 《大雅·綿》黓, 《桑柔》桑, 《周頌·振鷺》鷺。

위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鄭箋》 역시 《毛詩傳》과 마찬가지로 作品들 중에 “興”으로 표기한 詩句들 속에는 상당히 많은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두 통계 결과만으로는 명확한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毛詩傳》과 《鄭箋》에서 “興”으로 표기한 작품명과 작품수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毛詩傳》과 《鄭箋》에서 “興”으로 표기한 작품들 중에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毛詩傳》에서만 “興”으로 표기한 부분에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보면, 《周南·關雎》、《邶風·匏有苦葉》、《衛風·淇奥》、《有狐》、《王豳風·兔爰》、《鄭風·野有蔓草》、《魏風·園有桃》、《唐風·山有樞》、《唐風·杕杜》、《葛生》、《采芣》、《秦風·蒹葭》、《晨風》、《小雅·鹿鳴》、《伐木》、《杕杜》、《菁菁者莪》、《小宛》、《采芣》、《大雅·棫朴》、《魯頌·有駟》 등이 있고, 반면에 《鄭箋》에서만 “興”으로 표기한 부분에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小雅·出車》、《四月》이 있다. 이 밖에도, 《毛詩傳》과 《鄭箋》에서는 모두 “興”으로 표기했지만, “興”의 표기위치가 바뀐에 따라 출현하는 “草木鳥獸魚蟲類” 역시 달라지는 작품으로는 《小雅·采芣》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鄭箋》에서만 “興”으로 표기한 부분에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은 단지 2首에 불과한데, 《毛詩傳》의 그것은 무려 21首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鄭箋》의 “興” 표기가 결코 “草木鳥獸魚蟲類”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 만약 鄭玄이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면, 《鄭箋》중에서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작품 수는 증가하여야 할 것이지, 오히려 이처럼 감소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서, 필자는 鄭衆이 아마도 객관적인 분석이나 유력한 근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 《詩經》 작품들 중에 “興”으로 표기된 詩句에 적잖은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개인적 견해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 다시 말해서, 鄭衆의 주장은 학술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鄭箋》의 “興”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鄭箋》에서의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의 관계 고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작품들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周南·葛覃》：《毛詩傳》葛，  
《鄭箋》葛、黃鳥、灌木。  
《召南·何彼禕矣》：《毛詩傳》唐棣，  
《鄭箋》唐棣、桃李。  
《邶風·凱風》：《毛詩傳》棘，  
《鄭箋》棘、黃鳥。  
《小雅·鴛鴦》：《毛詩傳》鴛鴦，  
《鄭箋》鴛鴦、馬。  
《小雅·白華》：《毛詩傳》菅、白茅，  
《鄭箋》菅、白茅、鴛、鶴。

위의 작품들과 그 옆에 병기한 “草木鳥獸魚蟲類”는 《毛詩傳》과 《鄭箋》의 “興”으로 표기된 부분에서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를 비교한 것인데, 바로 《鄭箋》의 “草木鳥獸魚蟲類”가 《毛詩傳》의 기초에서 증가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흥”으로 표기된 시구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근거로 하여 《鄭箋》이 《毛詩傳

》과 다른 부분에 “興”을 표기한 이유가 “草木鳥獸魚蟲類”에 의존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大雅·棫朴》의 경우 《毛詩傳》에서 “興”으로 표기한 詩句에는 “棫”、“朴”등이 등장하지만, 《鄭箋》에서 “興”으로 표기한 三章의 첫 句인 “溇彼涇舟, 烝徒楫之”에는 어떠한 “草木鳥獸魚蟲類”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 2.3 《孔疏》에서論한 “興”과 “興象”의 關係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毛詩傳》의 116개 “興”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한 작품은 모두 88首이었고, 《鄭箋》에서 “興”을 표기한 92首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은 모두 70首로서, 이러한 통계수치는 비록 鄭衆의 주장에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지만 완전한 규율로서 받아들여지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孔疏》에서 “興”으로 표기한 부분은 “草木鳥獸魚蟲類”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까? 《孔疏》에서는 직접적으로 鄭衆의 이러한 주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어쩌면 《孔疏》의 “興”은 鄭衆의 주장과 매우 밀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아래에서 《孔疏》에서의 “興”과 “草木鳥獸魚蟲類”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孔疏》에서 “興”으로 표기한 작품은 모두 131首인데, 그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총 105首<sup>14)</sup>가 있다.

《周南·關雎》雎鳩, 《葛覃》葛、黃鳥、灌木, 《卷耳》卷耳, 《樛木》樛木、葛藟, 《螽斯》螽斯, 《桃夭》桃, 《漢廣》喬木、《汝墳》魴魚, 《麟之趾》麟, 《召南·鵲巢》鵲、鳩, 《草虫》草虫、蕨, 《標有梅

14) 105首의 작품들 외에도 “草木鳥獸魚蟲類”名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생명이 있는 자연물이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사물의 재료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唐風·羔裘》중의 “羔裘豹袂”句에는 “羔”나 “豹”라는 동물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裘나 “袂”와 함께 결합됨으로써 그 특징에 이미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는 동물의 자연적 본성에서 사회에서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사물로 전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梅, 《何彼禮矣》唐棣、桃李, 《邶風·凱風》棘、黃鳥, 《雄雉》雄雉, 《匏有苦叶》匏、鶉雉, 《谷風》葑、菲, 《旄丘》葛、流离, 《簡兮》榛、苓, 《鄘風·墻有茨》茨, 《桑中》唐、桑, 《衛風·淇奧》綠竹, 《氓》桑、鳩, 《芄蘭》芄蘭, 《有狐》狐, 《王風·葛藟》葛藟, 《采葛》葛, 《鄭風·山有扶蘇》扶蘇、荷華, 《蓀兮》蓀, 《東門之墀》茹芦、栗, 《揚之水》楚, 《野有蔓草》蔓草, 《齊風·南山》雄狐、麻, 《魏風·園有桃》桃, 《唐風·椒聊》椒聊, 《杕杜》杜, 《鴝羽》鴝、栩、稷、黍, 《有杕之杜》杜, 《葛生》葛、楚、薺, 《采芣》芣, 《秦風·車鄰》漆、栗, 《蒹葭》蒹葭, 《終南》條、梅, 《黃鳥》黃鳥、棘, 《晨風》晨風, 《陳風·東門之池》麻, 《東門之楊》楊, 《墓門》棘、梅、鴉, 《防有鵲巢》鵲、苕, 《澤陂》蒲、荷, 《檜風·隰有萋楚》萋楚、夭, 《匪風》魚, 《曹風·蜉蝣》蜉蝣, 《候人》鸛, 《鳴鳩》鳴鳩、梅, 《下泉》稂、黍, 《豳風·鴟鴞》鴟鴞、桑, 《東山》倉庚、馬, 《九罭》鱒、魴, 《小雅·鹿鳴》鹿、苹, 《常棣》常棣, 《伐木》木、鳥、喬木, 《出車》草虫, 《南有嘉魚》魚、樛木、瓠, 《南山有台》菜, 《蓼蕭》蕭, 《湛露》草、杞、棘、桐、椅, 《菁菁者莪》莪, 《采芣》芣、騏、隼, 《鴻雁》鴻雁, 《沔水》隼, 《鶴鳴》鶴、魚、檀, 《我行其野》樛, 《斯干》竹、松, 《正月》烏、蒸、魚, 《小宛》鳩、螟蛉、蜾蠃、脊令、桑扈、栗, 《小弁》鸛, 《谷風》草、木, 《蓼莪》莪、蒿, 《大東》棘, 《四月》百卉、嘉卉、栗、梅、鶉、鳶、鱸、鮪、蕨、薇、杞、楨, 《北山》杞, 《裳裳者華》華, 《桑扈》桑扈, 《鴛鴦》鴛鴦、馬, 《頍弁》葛、女蘿、松柏, 《車轄》柞, 《青蠅》青蠅, 《采芣》菽、芹、馬、柞, 《角弓》豸、木, 《菀柳》柳, 《采芣》綠、藍、魴、鱖, 《黍苗》黍苗, 《隰桑》桑, 《白華》菅、白茅、桑、鶩、鶴、鴛鴦, 《綿蛮》黃鳥, 《漸漸之石》豕, 《苕之華》苕、牂羊, 《大雅·棫朴》棫、朴, 《旱麓》柞、棫、葛藟, 《鳧鷖》鳧、鷖, 《卷阿》鳳皇、梧桐, 《桑柔》桑, 《周頌·振鷖》鷖, 《魯頌·有駟》駟、鷖。

상술한 자료를 보면, 《孔疏》에서는 “興”으로 표기한 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 역시 증가함을 쉬이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 105首의 작품들을 그 특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오직 《孔疏》에서만 “興”이라고 표기한 26首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17首가 있다.

《周南·螽斯》、《汝墳》、《邶風·簡兮》、《鄘風·桑中》、《衛風·淇輿》、《氓》、《鄭風·東門之墀》、《揚之水》、《檜風·匪風》、《曹風·候人》、《豳風·東山》、《小雅·我行其野》、《正月》、《北山》、《漸漸之石》、《大雅·旱麓》、《鳧鷖》。

이 밖에도, 《孔疏》와 《毛詩傳》 그리고 《鄭箋》 모두 “興”으로 표기한 작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시 몇 가지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 역시 증가하거나 또는 새로이 출현하는 작품들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유형을 살펴볼 때 《孔疏》의 “興”은 《毛詩傳》의 “興”이 詩句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章을 기준으로 나뉘는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章이 바뀔 때,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sup>15)</sup>.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로는 《召南·草蟲》、《邶風·匏有苦葉》、《旄丘》、《陳風·墓門》、《檜風·隰有萋楚》、《曹風·鴟鳴》、《下泉》、《豳風·鴟鳴》、《小雅·南有嘉魚》、《小雅·湛露》、《小雅·采芣》、《小雅·沔水》、《小雅·小宛》、《小雅·谷風》、《大雅·卷阿》 등이 있는데, 위의 작품 분석 결과로만 말하자면 《孔疏》는 鄭衆이 제기한 주장에 따라 의식적으로 “興”을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齊風·南山》、《小雅·四月》、《采芣》、《角弓》、《白華》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작품들의 공통점이 바로 어떠한

15) 예를 들어 《周南·漢廣》의 첫 장 第二句 말미에 대해, 《毛詩傳》과 《鄭箋》에서는 모두 “興”이라고 표기했으나 《孔疏》에서는 첫 장의 맨 마지막에 “興”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孔疏》에서 표기한 “興”의 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에는 오히려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孔疏》의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까닭은, 《孔疏》의 “興”은 분명 《毛詩傳》과 《鄭箋》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詩章이 바뀔 때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연구해야 만이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章에는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지만, 또 어떠한 장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小雅·四月》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孔疏》에서는 각각 1, 2, 4, 6, 7, 8장의 끝에 “興”을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首章과 第8章에는 어떠한 “草木鳥獸魚蟲類”도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작품들은 “흥”의 범위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草木鳥獸魚蟲類”에는 오히려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로는 《周南·漢廣》, 《召南·何彼禱矣》, 《邶風·谷風》, 《魏風·園有桃》, 《小雅·菁菁者莪》, 《蓼莪》, 《大東》, 《頍弁》, 《大雅·棫朴》 등이 있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孔疏》의 “興” 역시 鄭衆의 주장을 철저하게 따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우선 《孔疏》의 “興”이 기본적으로 모두 작품의 章 말미에 놓였기 때문에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興”의 표기위치 변화는 《孔疏》의 “흥” 관점이 더 이상 작품의 어떠한 단어(객관적 사물)이나 詩句에 국한되지 않고,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를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孔疏》의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태도는 결코 《공소》만의 창의적 태도가 아니라, 《鄭箋》의 기초에서 계승 및 발전한 결과일 것이다.<sup>16)</sup> 《孔疏》에서 鄭衆의 주장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孔穎達이 특별히 鄭衆의 관점을 중시했다기보다는, 孔穎達이 당시 존재했던 선배 학자들의 “興”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중 하나를 소개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 Ⅲ. 결 론

이제 본론에서 서술한 《毛詩傳》과 《鄭箋》, 그리고 《孔疏》의 “흥”과 草木鳥獸魚蟲類와의 관계를 통계수치로 정리해보자. 우선 《毛詩傳》에서 “興”으로 표기한 116개의 詩句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나타나는 작품을 살펴보면 모두 88수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16) <論《孔疏》之“興”> 安性栽 湛江海洋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25卷 第2期 참조.

75.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鄭衆이 제기한 이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반면에 《毛詩傳》의 116개의 “興” 중에 “草木鳥獸魚蟲類”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품들 다시 말해서 116首 중 28首의 “흥”句인 나머지 24.14%에는 어떠한 草木鳥獸魚蟲類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통계수치는 《毛詩傳》의 “興”과 草木鳥獸魚蟲類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鄭衆의 주장을 완전하게 뒷받침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어서 鄭玄의 著書인 《鄭箋》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 본론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鄭玄은 經學家 鄭衆보다 늦게 활동한 인물로, “後鄭”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어쩌면 《毛詩傳》보다 더 鄭衆의 이론에 충실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鄭箋》이 “興”이라고 표기한 작품 92首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와 관련된 작품은 70首로 76.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毛詩傳》의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鄭箋》에서만 “興”으로 표기한 부분에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은 2首에 불과한데 반해, 《毛詩傳》의 그것은 오히려 21首에 이른다는 사실은 《鄭箋》의 “興”이 결코 “草木鳥獸魚蟲類”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계 수치상으로 미루어보아, 鄭玄은 鄭衆에게서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孔疏》에서는 직접적으로 鄭衆의 주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毛詩傳》의 75.86%나 《鄭箋》의 76.08%보다는 훨씬 더 鄭衆의 이론에 충실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興”으로 표기한 작품 131首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은 총 105首로 80.15%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물론 《毛詩傳》이나 《鄭箋》의 수치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역시 鄭衆의 이론에 충실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더구나, 《孔疏》에서만 “興”이라고 표기한 26首 중에서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하는 작품은 17首 즉 65.38%만이 鄭衆의 이론에 따르고 있을 뿐이므로, 《孔疏》의 “興” 역시 鄭衆의 주장을 철저하게 따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鄭衆의 주장이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나온 정확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鄭衆의 주장이 정

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가지의 가설을 내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鄭衆이 당시 이미 보편화된 “홍”에 대한 관점인 2차 응용 즉 독자의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1차 작가적 관점으로 돌아가 “홍”의 본질에 접근하려했기 때문에 2차 응용 즉 독자적 관점으로 “홍”에 접근한 《毛詩傳》과 《鄭箋》《孔疏》의 통계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鄭衆이 당시 이미 정착된 “홍”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별도의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서술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가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찾기가 용이치 않다는 점과, 鄭衆이 살던 시대에는 “홍”에 대한 2차 응용 즉 독자적 관점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했다시피 《모시전》과 《정전》 그리고 《공소》의 “홍”이 《국풍》과 《소아》에 집중된 주된 원인을 당시 학자들이 2차 응용 즉 독자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으로 풀이한 바 있는데, 鄭衆 역시 당시의 관점에 대해 다른 어떠한 견해도 내놓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詩文諸學草、木、鳥、獸以見意者, 皆興辭也.”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홍”의 1차 작가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鄭衆의 주장은 본문에서 언급한 《論語·陽貨》의 “多識于鳥獸草木之名”이라는 孔子의 이론에서 먼저 이론적인 영감을 받고, 상당수의 “홍”에 “草木鳥獸魚蟲類”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별다른 의구심 없이 당시에 流轉되던 보편적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李學勤主編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12  
 李學勤主編 《周禮注疏》 北京大學出版社 1999.12  
 李學勤主編 《禮記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12  
 李學勤主編 《論語注疏》 北京大學出版社 1999.12  
 朱自清 《詩言志辨》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11  
 袁長江 《先秦兩漢詩經研究論稿》 學苑出版社 1999.08  
 魯洪生 <從賦、比、興產生的時代背景看其本義> 中國社會科學 1993年



3期

安性栽 <論《孔疏》之“興”> 湛江海洋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5年 第25卷 第2期

安性栽 <應用方面的 “比, 興”> 韓中言語文化研究 제10집 2006.03

安性栽 <“賦詩, 引詩”를 통한 先秦時代의 《三百》 認識 再考> 中國學 제34집 2009.12

### <ABSTRACT>

《诗经》之“兴”有两方面的意义。一方面是“作诗方面”的“兴”，另一方面是“用诗方面”的“兴”。自《毛诗传》至《孔疏》，虽然它们都是从“作诗方面”的“兴”观点开始接近于《诗经》作品，但时代和思维界限的关系，其研究的结果却无不归于“用诗方面”的“兴”观点。郑众，身为汉代经学家，他提出了“诗义诸举草、木、鸟、兽以见意者，皆兴辞也”的说法。而他的这些说法也是在“用诗方面”的“兴”观点支配当时《诗经》论坛的情况之下出现的。本文章通过《毛诗传》、《郑笺》以及《孔疏》标“兴”的诗句中所出现的草木鸟兽鱼虫类与郑众观点之间的比较、分析，考察一下它们之间有何逻辑关系。

**主題語** : 興 興象 鄭衆 《毛詩傳》 《鄭箋》 《孔疏》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唐代 女訓書《女論語》研究

韓相德\*

〈목 차〉

- I. 들어가며
- II. 《女論語》저술 배경 및 목적
- III. 《女論語》의 내용 및 중심사상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유교문화를 통치수단과 사회윤리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나라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上下라는 계급성과 男女라는 性別 관계에서 뚜렷한 이원적 사회구조와 통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로 서민들과 여성들은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고 思考를 하는데 상당한 구속을 받아 왔다. 특히 관습화된 유교의 위계질서와 인간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전통적인 규범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는 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권 내지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봐야 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서민계급의 여성들이었다.

국가 통치자는 물론이고 사회 지배계급이나 가정의 家長들이 모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남성들이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각종 권력을 행사해 오던 중국 역사 환경에서 서민계층의 여성들은 그들의 존엄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hansd58@hanmail.net)

성이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은 도외시되었고 쉽게 인권이 유린되고 폄하되어 왔음에도 이런 현상들을 특별히 쟁점화 하거나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순응하는 경향으로 흘러 왔던 듯하다. 그러다가 중국 唐代에 와서 다소 분위기가 일신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풍기가 개방되고 이에 따라 중국 고대 부녀자들 중 일부는 “비교적 운이 좋은 一群”<sup>1)</sup>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唐代 여성들이 일부 개방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 및 지위향상에 다소 활기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명실상부한 여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여성 교육이 강화되었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女訓書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 唐代 여성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 중의 하나였다.

唐代 女訓書의 출현은 당시 여성들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위향상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교재들을 통하여 여성의 도덕적 행위 규범이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三從四德을 더 중시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에 활발했던 여훈서 저작과 여성교육에 따른 功過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평가를 해 볼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대상을 하나 거론해 본다면 《女論語》를 꼽을 수 있다.

《女論語》는 唐代 宋若莘(?~820)이 편찬한 책으로, 唐代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여성의 덕성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교훈서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이 책은 그동안 明代 陶宗儀(1329~약1412)의 《說郛》와 秦淮寓客의 《綠窓女史》 閨閣部 懿範에 수록되어 전해져오다가, 명말 청초에 와서 王相이 중국의 대표적인 역대 여성교육용 도서 네 권을 묶어 《女四書》<sup>3)</sup>로 편찬할 때 《女論語》를 그 속에 포함시켜 보급을

1) 高世瑜, 《唐代婦女》(西安: 三秦出版社, 1988). 樊文杰, 〈唐代婦女地位探析〉, 《史志鑒研究》10쪽 재인용.

2) 劉燕飛, 王宏海, 〈《女論語》의著述與傳播特點〉, 《河北學刊》28:3(2008) 47쪽 참고. “신구 《당서》〈經籍志〉 및 〈藝文志〉의 기록에 의하면, 唐代에 집필된 女訓書로 10여 종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후대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저작은 곧 《女論語》였다.”

3) 《女四書》에는 東漢의 《女誡》, 唐代 《女論語》, 明代의 《內訓》과 《女

시키면서 더 큰 가치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女四書》는 주변국까지 전파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윤리교육용 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해 1736년 英祖가 왕명을 내려 언해본을 간행하도록 하였으니 李德壽의 《御製女四書諺解》가 곧 이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는 《女四書》에 대한 연구 가치를 인식하고 일찍부터 몇 권의 번역본과 소량의 연구논문은 내놓기도 하였다.<sup>4)</sup> 그러나《女論語》를 단독 연구 대상으로 놓고, 이것이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나왔으며, 어떤 체제 및 내용으로 무슨 사상을 강조하고자 하였는지, 나아가 이 책이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등등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던 듯하다.<sup>5)</sup>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소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 II. 《女論語》저술 배경 및 목적

고대 중국 여성들이 교육용 도서로 읽을 수 있는 서적은 많지 않았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도덕적 언행을 전문적으로 다룬 교훈서

《範捷錄》이 수록되어 있다.

- 4) 이계순(문학세계사, 1983), 김종권(명문당, 1987), 이숙인(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3)이 번역 소개한 단행본이 있고, 《여사서》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남광우의 〈《여사서》 연구〉(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77), 김옥희의 〈朝鮮朝社會의 女四書를 中心한 女性敎訓書의 內容分析에 관한 研究〉(동아대 박사논문, 1986), 이을환의 〈《女四書》의 言語規範 研究〉(아시아여성연구, 1988), 박용식의 〈18세기 《女四書》의 助詞 研究〉(동국대 석사논문, 1998), 조선영의 〈계녀가류 가사와 《여사서》〉(한국문학연구, 2000), 최전승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 몇 가지에 대한 대조적 고찰-중간본 《여사서 언해》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2002), 이근영의 〈여사서 언해의 음운론적 연구〉(한말연구, 2004), 이선경의 〈유가의 근본적 사고와 전통적 여성상의 재조명〉(유학사상연구, 2006), 박찬기의 〈《女四書芸文圖繪》의 變각과 《여훈물》연구〉(일본어문학, 2008) 등이 있다.
- 5) 《女論語》에 대한 단독 연구로는 1971년 尹芳烈의 〈《女論語》의 現代的 考察〉(《아시아여성연구》 제10권)이 한 편 있을 뿐이다. 尹芳烈은 논문에서 “현대서구문화의 무비판적인 유입으로 인한 道義面에서의 퇴폐적 풍조가 彌漫한 오늘날 一考의 가치가 있어” “《女論語》 全文을 통해 唐代 여성교육의 자료서 소개하는데 그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는 西漢 때 劉向이 지은 《列女傳》이다. 이는 유가의 도덕적 기준에서 출발하여 내용을 母儀·賢明·仁智·貞慎·節義·變通·孽孽 일곱 항목으로 구분하여 堯舜 이래의 대표적인 여성 105명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劉向이《列女傳》을 짓게 된 동기는 漢나라 成帝 때 趙飛燕 자매가 임금의 총애를 받고 권세를 남용함으로써 나라의 기장이 해이해지고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자, 이에 여성의 덕과 선악이 국가의 안정과 혼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 《列女傳》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前漢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유향은 천자의 교화란 안에서 밖으로,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詩經》과 《書經》에 기록된 賢妃와 貞婦들을 摘錄하여 나라를 흥하게 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웠던 효과적인 실례들을 제공하고, 寵妾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망한 내용들을 차례로 취하여 《列女傳》 총8편을 만들었고, 이로써 천자를 경계하였다.<sup>6)</sup>

즉, 《列女傳》은 고대 여성의 모범적인 사례나 또는 국가에 혼란을 초래했던 역사적 교훈들을 통해 천자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지만, 역시 여성들에게 가정교육과 도덕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東漢 때 班昭가 이전의 《列女傳》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 《女誡》를 편찬해 내었는데 이 역시 내용을 卑弱·夫婦·敬慎·婦行·專心·曲從·叔妹 일곱 항목으로 나누어, 여성이 三從四德에 충실하여 순종의 미덕을 갖추어 줄 수 있기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列女傳》과 《女誡》와 같은 중국 여성교육의 전통에 맥을 이어 나오게 된 女訓書가 곧 唐代的 《女論語》라고 할 수 있다.

《女論語》는 원래 唐代 女性 學士 宋若莘이 《論語》의 문답형식을 모방하여 10편의 내용으로 편찬한 책이다. 그런데 뒤에 그의 누이동생

6) 班固, 《前漢書》卷三十六〈楚元王傳〉第六,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88쪽. “向以爲王教由內及外, 自近者始. 故採取《詩》、《書》所載賢妃貞婦, 興國顯家可法則, 及孽嬖亂亡者, 序次爲《列女傳》, 凡八篇, 以戒天子.”

宋若昭가 원작에 注釋과 訂正을 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2편을 더 보충하여 총 12편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이 목전의 《女論語》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는 현전하는 12편 《女論語》를 注解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작가에 의해 2편이 더 첨가된 共著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었다.<sup>7)</sup> 실제로 여러 문헌상에서도 일관성이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작자 문제를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sup>8)</sup> 하지만, 宋若昭에 의해 첨가된 2편은 宋若莘이 지은 원작 10편의 주요 내용을 좀 더 강조하거나 종합한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宋若莘과 宋若昭의 공저라고 하기보다는 “宋若莘著, 宋若昭注解”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宋若莘 자매와 《女論語》의 저술에 관한 기록은 《舊唐書》卷五二〈后妃傳〉과 《新唐書》卷七七〈后妃傳〉에 보인다. 먼저 《舊唐書》의 기록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女學士요 尙宮이었던 宋氏는 이름이 若昭로 貝州 淸陽 사람이다. 부친은 庭芬으로, …… 딸 다섯을 낳았는데, …… 장녀는 若莘였고, 그 아래로는 若昭若倫若憲若荀이었다. …… 若莘은 네 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마치 엄격한 스승처럼 하였다. 《女論語》 10편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論語》를 모방한 것으로, …… 책 속의 문답 내용은 모두 婦道家 숭상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若昭가 풀이를 하

7) 劉燕飛, 〈宋若莘姐妹與《女論語》研究〉,《河北大學學報》(2008)에서 劉燕飛는 마지막 부분에 첨가된 2편 속에는 “송약소의 사상이 들어 있고, 또 그 녀에 의해 뜻이 부여된 점이 있다는 시각에서 공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8) 劉燕飛, 〈宋若莘姐妹與《女論語》研究〉,《河北大學學報》(2008)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舊唐書》(〈后妃傳〉) : “作者是若莘”. 《新唐書》(〈后妃傳〉) : “若莘著書若昭‘又爲傳申述之’”. 《新唐書》(〈藝文志〉) : “尙宮宋氏’即若昭爲著者”. 《女四書》(王相) : “若莘原著, 若昭注釋本”(일부 판본 : “作者是若昭”). 《四庫全書》卷五十五 : “作者是‘尙宮宋氏’”, “若莘著, 若昭又爲傳申述之”. 《四庫全書》卷四十四과 《御定淵件類函》卷五十八 : “若莘著, 若昭申述”. 《御定子史精華》卷一百三十四 : “作者是‘女學士尙宮宋氏’”. 《御定內則衍義》卷十六 : “唐尙宮宋若莘”. 《香祖筆記》(王士禎) : “作者是宋若莘”. 《少寶山房筆叢正集》(胡應麟) : “作者是‘宋尙宮’. 《歷代婦女著作考》(胡文楷) : “作者應是若莘”. 《辭海》: “作者是若莘, 若昭注釋, 明王相箋注”(“懷疑今本恐非宋氏原著”).

었는데 모두가 이치에 합당하였다. 貞元 四年에 昭義의 절도사 李抱眞이 表를 올려 추천을 하였다. …… 德宗은 시를 잘 지었는데, 侍臣들과 화창을 할 때, 또 若莘 자매들도 응하여 시를 짓도록 하였다. …… 그들의 절개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宮妾으로 대우하지 않고 學士先生이라고 불렀다. …… 元和 말에 若莘이 세상을 떠나자, 河內郡君을 追贈하였다. 貞元 七年 이후부터, 궁중에서 簿籍을 기록하는 일은 若莘이 관장해 왔었는데, 穆宗은 다시 若昭에게 이 일을 대신 관장하게 하고, 그에게 尙宮職을 除授하였다. 동생들 중에서 若昭가 가장 人事에 통달하여 憲宗·穆宗·敬宗 세 황제가 다 그들을 先生이라고 불렀고, 六宮의 嬪媛이나 諸王·公主·駙馬들은 모두 그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녀를 공경하였다. 梁國夫人으로 冊封되었다. …… 9)

宋氏 자매들이 깊은 학문적 수양을 가지고 입궁하여, 황제와 詩文으로 화답하고 “學士先生”으로 존경 받으며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부친 宋庭芬이 자녀교육을 중시했던 것에 기인한다. 즉, 宋庭芬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유가경전을 가르치고 또 詩賦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 위에서 특히 송씨 자매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재예와 학식으로 이름을 날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겠다.”<sup>10)</sup>는 확고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꿈의 실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新唐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貞元 연간에, 昭義의 절도사 李抱眞이 그 재능을 황제에게 表를 올려 알리자, 德宗이 궁궐로 불러들여 문장을 시험해 보고 아울러 經史의 大誼도 물어보았다. 황제도 그의 훌륭함에 감탄하여 그녀들을 모두

9) 劉昫,《舊唐書》卷五二 〈后妃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263쪽. “女學士、尙宮宋氏者, 名若昭, 貝州清陽人. 父庭芬, …… 生五女, …… 長曰若莘, 次曰若昭、若倫、若憲、若荀. 若莘、若昭 …… 若莘教誨四妹, 有如嚴師. 著《女論語》十篇, 其言模仿《論語》, …… 其間問答, 悉以婦道所尙. 若昭注解, 皆有理致. 貞元四年, 昭義節度使李抱眞表薦以聞. …… 德宗能詩, 與侍臣唱和相屬, 亦令若莘姊妹應制. …… 嘉其節概不群, 不以宮妾遇之, 呼爲學士先生. …… 元和末, 若莘卒, 贈河內郡君. 自貞元七年已後, 宮中記注簿籍, 若莘掌其事. 穆宗復令若昭代司其職, 拜尙宮. 姊妹中, 若昭尤通曉人事, 自憲、穆、敬三帝, 皆呼爲先生, 六宮嬪媛、諸王、公主、駙馬皆師之, 爲之致敬. 進封梁國夫人.”

10) 劉昫,《舊唐書》卷五二 〈后妃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263쪽. “嘗白父母, 誓不從人, 願以藝學揚名顯親.”



궁중에 머물게 하였다. 황제는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매번 신하들과 화장을 할 때, 다섯 자매들도 모두 자리를 함께 하여 글을 바쳤고, 이에 칭찬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또 그 높은 지조가 고상하였으므로, 궁녀로 대하는 것이 부당하여 學士라고 불렀다. 그들 아버지를 饒州의 司馬와 習藝館內敎로 발탁하고, 집을 한 채 하사함과 동시에 양식과 비단을 내려주었다.<sup>11)</sup>

《女論語》는 송씨 자매들이 입궁하기 전에 완성했던 것이며,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여성이 현명한 아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훈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저술 목적은 《女論語》前面的 〈序傳〉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大家는 말하기를, “나는 어진 사람의 아내요, 名家의 딸로, 四德도 그런대로 갖추었고, 또 經書와 史書도 통달하였다. 여자로서의 할 일이 끝나면 여가에 책을 보았는데, 九烈이 가히 아름답고 三貞이 가히 부러웠으나, 후인들이 그 뒤를 따를 수 없음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이에 책 한 권을 짓고, 그 이름을 《論語》라고 하였다.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서로 계승하여 여자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만약에 이 말을 따르면, 현명한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12)</sup>

여기서의 태고[大家]란 漢代의 조태고[曹大家]를 가리킨다. “이 책은 宋氏가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女孝經》이 唐代 鄭氏가 지은 것이었지만, 감히 자신의 이름을 자처하지 못하고 조태고를 거론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글은 책머리에서 책을

11) 宋祁歐陽修, 《新唐書》卷七七〈后妃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351쪽. “貞元中, 昭義節度使李抱眞表其才, 德宗召入禁中, 試文章, 并問經史大誼, 帝咨美, 悉留宮中. 帝能詩, 每與侍臣廣和, 五人者皆預, 凡進御, 未嘗不蒙賞. 又高其風操, 不以妾侍命之, 呼學士. 擢其父饒州司馬, 習藝館內敎, 賜第一區, 加穀帛.”

12) 宋若莘, 《女論語》, 《蒙養書集成(二)》(甘肅: 三秦出版社, 1990), 11쪽. “大家曰, 妾乃賢人之妻, 名家之女. 四德粗全, 亦通書史. 因輟女工, 閑觀文字, 九烈可嘉, 三貞可慕, 懼乎後人, 不能追步, 乃撰一書, 名爲論語. 敬戒相承, 敎訓女子. 若依斯言, 是爲賢婦 ……” 이하 《女論語》내용은 本書에서 인용하도록 한다.

쓰게 된 그 의도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태고의 말로 무게를 두고자 한 것이다. 나는 명문가의 딸이요, 賢士의 아내로, 婦德·婦容·婦言·婦工을 그런대로 갖추었고, 經·傳·子·史에 관한 여러 책들을 두루두루 섭렵하였다는 말이다.”<sup>13)</sup>

唐代 시기, 여성에 대한 편견과 대우가 이전 시기보다는 다소 관대해 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전통을 중시하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男尊女卑 사상이 뚜렷하게 존재해 있었고, 따라서 가정에서 남성의 지위와 교육의 기회는 여성들보다 우선이었다. 宋庭芬 역시 다섯 명의 딸 외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역사에서는 송씨 자매들의 학문 성취와 사회진출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아들에 대한 사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宋庭芬이 重男사상의 전통을 무시하고 딸들만을 잘 교육시킨 결과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해 볼 수도 있지만, “아들은 애초부터 교육을 받아 立身揚名할 수 있는 재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평민으로 살아갔다.”<sup>14)</sup>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니, 송씨 자매들이 남자 同氣보다 훨씬 더 높은 학문성취를 이루고 출세가 가능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겠다.

후대까지 송씨 자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로 《女論語》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唐代 때에도 그 명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唐代 王建(767~약830)<sup>15)</sup>이 지은 시 〈宋氏五女〉<sup>16)</sup> 한 편만을 보아도 그 일면을 엿볼 수가 있고, 또 唐代 竇常

13) 《女論語》11쪽에서 王相이 주를 달 때, “大家, 漢曹大家也. 此書, 宋氏所作, 而云大家者, 猶女孝經, 出自唐鄭氏, 不敢自居其名, 而託云曹大家也. 此篇, 首敘著書之意, 故稱大家之言, 吾名門女, 賢士妻, 德容言工四者, 粗備, 經傳子史群書, 遍覽也.”라고 하였다.

14) 宋祁·歐陽修, 《新唐書》卷七七〈后妃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351쪽. “庭芬男獨愚不可教, 爲民終身.”

15) 王建은 唐代 때 시인으로 字는 仲初이고, 潁川(지금의 河南 許昌) 사람이다.

16) 이 시의 내용은 “다섯 딸 평생토록 봉양을 맹세하고, 정절과 효도를 잘 지켜나갔네. …… 兔絲를 스스로 두르고, 청송지에 오르지 않았네. 조석으로 부모 곁에 머물면서, 틈나는 대로 詩書를 공부하였네. 성인의 마음 스스로 익혔을 뿐, 유생이 알아줄 것을 원한 것 아니었네. …… 동시에 황궁으로 들어가, 그림자 나란히 옥계를 걸었네. 고향에서는 그 모습 중히 여기어, 새롭게 초가집을 단장하였네. 당대 조정의 훌륭한 사관이, 그들을 여자들의 스승으로 삼았네. (五女誓終養, 貞孝內自持. …… 兔絲自縈紆, 不上青松枝. 晨昏在親傍, 閑則讀書詩. 自得聖人心, 不因儒者知. …… 同時入皇宮, 聯影步玉墀. 鄉中尙其風,

(746-825)<sup>17)</sup>의 〈過宋氏五女舊居〉<sup>18)</sup>를 보아도 宋氏 다섯 자매의 才華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女論語》의 출현은 당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다소 호의적 변화와 송씨 자매의 가정교육 및 재능 등이 뒷받침 되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더 《女論語》가 세인의 주목받게 된 것은 王相<sup>19)</sup>의 《女四書》 편찬이라 할 수 있다. 즉 朱熹가 이전에 유학경전들 중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생각되는 《大學》·《中庸》·《論語》·《孟子》를 묶어 《四書》라 칭함으로써 이들 각 권의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각인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王相 역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女訓書 네 편을 모아 각각 주를 달고 이를 《女四書》라고 題名함으로써, 급기야 《女論語》는 대표적인 여성 교육 전문서로 인정받아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王相은 주로 《千家詩》나 《三字經》 등과 같은 계몽서 註釋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三字經訓話》1卷·《尺牘嚶鳴集》12卷·《百家姓考略》 등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女四書》 속에 포함시킨 《女範捷錄》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친 劉氏가 쓴 책이기도 하다.

王相의 《女四書》 편찬과 광범한 보급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명말 이후부터 봉건예교는 여성의 속박을 더 엄하게 요구하였던 바, 이는 禮와 法을 결합시켜,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閨門의 禮를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널리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대시켜 백성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즉, 각 지방정부에서는 수절을

重爲修茅茨。聖朝有良史，將此爲女師。”라고 되어 있다.

17) 竇常의 자는 中行으로, 平陵(지금의 陝西 咸陽 西北) 사람이다. 그의 시는 《竇氏聯珠集》과 《全唐詩》에 26首가 실려있다.

18) 〈過宋氏五女舊居〉는 “謝氏 집안의 우아함과 婕妤의 재능 같음이며, 하늘이 내린 고아함도 떠나고 나니 오질 못하는구나. 집안 가득 벼들개지 오늘도 눈송이처럼 날리는데, 고향 사람들이 望仙臺를 본떠서 만들어 놓았구나.(謝庭風韻婕妤才，天縱斯文去不回。一宅柳花今似雪，鄉人擬築望仙臺.)”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謝氏”는 東晉의 謝道韞을 가리키고, “婕妤”는 西漢의 班婕妤를 가리킨다. 곧 竇常은 唐代 宋氏 자매들의 才華를 이전 시대의 사도온과 반첩여가 가졌던 그 자태와 재능으로 비견하면서 찬양한 것이다.

19) 王相은 字가 晉升이며 江西 臨川 사람으로, 清代 康熙 연간에 활동했던 학자다. 그의 事迹은 자세하지 않다.

높이 평가하여 그 대상자를 수절열녀라 칭하여 정신적으로 그들을 크게 칭송하고 牌坊을 세워 가족들까지도 널리 표창하였으며, 재물로 상을 주고 조세 및 부역을 감면 내지는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사회적 배경 아래서 여자 교육 교재들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곧 《女四書》의 편찬 배경과 광범한 보급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여사서》 중 《女論語》는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입으로 읽기가 쉬워 단행본 형식으로 가장 널리 유전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청대를 거쳐民国 초까지 계속되었다.”<sup>20)</sup>

### Ⅲ. 《女論語》의 내용 및 중심사상

《女論語》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맨 처음은 王相의 〈唐書列傳〉으로, 이는 《女論語》 작자에 대한 “傳記”에 해당한다.

《女論語》의 원저자는 宋若莘임에도 여기 列傳에서는 그에 대한 소개보다는 注釋한 宋若昭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舊·新 《唐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요약하고 있지만, 다만 다섯 자매들 중에 “오직 若昭만이 궁중에서 獨居하기를 원하면서, 황제의 총애는 바라지 않았고, 늘 曹大家와 같은 사람으로 자처하였다.”는 내용이 보충되어 있다.

그 다음은 〈序傳〉으로, 저자가 《女論語》를 쓰게 된 연유와 그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짙막한 〈序傳〉이지만 王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부연설명을 해 놓고 있다. 즉, 원문에서는 “九烈이 가히 아름답고, 三貞이 가히 부러웠다.”<sup>21)</sup>라고만 간단하게 말한 것을 王相은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烈”이란 “빛남”을 말한다. “九烈”이란 여자가 완벽할 정도로 정숙하고 덕을 겸비하였음을 말한다. 남편에게 그 “빛남”이 있게 되면 위로는 高祖에 이르기까지 영광이요, 아래로는 玄孫에 이르기까지 그 은

20) 劉燕飛, 〈宋若莘姐妹與《女論語》研究〉, 《河北大學學報》33:2(2008). 40쪽 참조

21) 《女論語》, 11쪽. “九烈可嘉, 三貞可慕, 深惜後人不能追步.”

택을 미치게 되니, 그 빛이 九族을 밝혀주는 것이 된다. “貞”이란 그 지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三貞”이라고 말한 것은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집을 가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남편을 공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에게서 모두 정숙하고 순수한 덕을 극진하게 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여자가 할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옛날 사람들의 준칙이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땅히 힘써 이를 본받아야 하는데, 후대 여자들이 이전의 그녀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행하지 못할까봐 걱정한 것이다.<sup>22)</sup>

이상과 같은 王相의 자세한 설명은, 문화적 소양이 낮았던 당시 서민 여성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이처럼 王相이 《女四書》를 편집하고, 또 《女論語》를 포함한 각 권의 細節에서 상세하게 주를 달아 놓은 그의 노력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의의와 가치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구성은 《女論語》의 본문으로,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立身〉章으로부터 시작하여 〈學作〉·〈學禮〉·〈早起〉·〈事父母〉·〈事舅姑〉·〈事夫〉·〈訓男女〉·〈管家〉·〈待客〉·〈和柔〉·〈守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장의 분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열두 장 전체 내용을 다 합쳐도 총 2,217개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광범하고 구체적이다.

본문은 주로 대비 형식의 표현기법을 통한 강조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正과 反, 긍정과 부정의 대비 형식의 표현기법을 통한 강조법이다. 예를 들자면, 먼저 여성이 본받고 배워야 할 모범적인 행동 양식을 제시하고 나서, “~을 배우지 말라”는 “莫學~”의 형식을 통하여, 본이 되지 않는 “他人”·“懶婦”·“愚婦”·“蠢婦”·“潑婦” 등, 일반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되는 군상들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해 가면서 강조하려는 요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른바 反倫 현상 내지는 바르지

22) 《女論語》, 11쪽. “烈, 光也. 九烈, 言女子全貞完德, 有光於夫子, 上榮高祖, 下蔭玄孫, 光烈昭於九族也. 貞, 純一其志操而不二也. 三貞云者, 女子在家孝於父母, 出嫁孝於舅姑, 敬於夫子. 三者之間, 皆克盡其貞純之德, 斯爲女子之全行. 然此乃古人所常, 今人宜勉而法之, 恐後之女子不能追其步跡而履其行也.”

못한 각종 여성 군상들의 행태를 反面教師식으로 풀어나감으로써, 唐代 여성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자극·감동시키는데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수법은 전체 내용 중 제9장과 제12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

예컨대 제6장과 같은 경우는, 남의 집 新婦가 된 여성이 어떻게 賢婦가 되고 惡婦가 되는지를 설명한 장이다. 다음은 내용 중의 일단이다.

밤이 깊어져 곧 잠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마련해 드리고, 인사를 드린 후에 방으로 돌아온다. 매일 변함없이 하여 아침마다 비슷하게 하면 그 가르침이 온 집안에 전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어진 며느리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sup>23)</sup>

이처럼 시부모를 모실 때 며느리는 조신한 언행과 부지런한 행동으로 그들을 친부모처럼 공손하게 모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정도로 빗나가고,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고생한다고 지껄이고, (시부모가) 불러도 오지 않고 추워하고 배가 고파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은 배우지 말라. 이 같은 사람을 나쁜 며느리라고 부르는데, 천지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녀성과 번개가 진노하게 될 것이다. 질책하는 벌이 몸에 닥쳐야 후회를 하겠지만 그 때는 이미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sup>24)</sup>

이와 같이 賢婦와 惡婦의 대비 수법 속에서 新婦로서의 행동규범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天地不容”이나 “雷霆震怒” “責罰加身”과 같이 다소 협박성이 강조된 듯한 언사는 당시 작가가 얼마나 女德 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도 하다.

제7장과 같은 비교수법은 앞의 예와는 조금 다르지만, 구체적인 권면

23) 《女論語》，20쪽. “夜晩更深，將歸睡處。安置相辭，方回房戶。日日一般，朝朝相似。傳教庭幃，人稱賢婦。”

24) 《女論語》，20쪽. “莫學他人，跳梁可惡。咆哮尊長，說辛道苦。呼喚不來，饑寒不顧。如此之人，號爲惡婦。天地不容，雷霆震怒。責罰加身，悔之無路。”

사항을 먼저 제시한 후에, 뒷글에서 간단하게 “어리석고” “게으르고” “사나운” 아내들이 하는 행태처럼 하지 말라고 각성을 시켜주는 “莫學~” 형식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집에 있을 때는 잘 대하여 손님처럼 공경하고 존중하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남편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권하고 간하기를 지성으로 하며, 어리석은 아내가 재앙을 자기 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배우지 말라.<sup>25)</sup>

남편이 만약에 외출을 하면 반드시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다가, 황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관망과 함께 곱곰이 생각을 하면서, 등불은 끄지 말고 그대로 걸어놓고 밥은 따뜻하게 해놓고서 노크하기를 기다린다. 게으른 아내처럼 먼저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지 말라.<sup>26)</sup>

또 집안에서 부인이 옷감을 짜고 양말을 만들며 수를 놓고 수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이 《女論語》의 충고를 잘 따를 수만 있다면, “추위에도 아무 걱정이 없고, 옷이 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집안이 가난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서,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게으른 여자는 어려서부터 어리석고 게으른 습관을 쌓아 여자가 해야 할 소임에 힘도 쓰지 않고, 봄이나 겨울에 해야 할 일을 준비도 하지 않으며, 바느질이 꼼꼼하지 못하고 경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평을 당하고, 출가하여 남의 부인이 되어서는 그 가문의 좋은 풍습을 육보이게 하며, 옷이 해지면 이쪽 것을 끌어와 저쪽 것을 막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을에 웃음거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배우지 말아야 한다. 여자에게 간곡히 권하는 바이니, 이 말을 평생토록 취하여 듣도록 하라.<sup>27)</sup>

25) 《女論語》, 21쪽. “居家相待, 敬重如賓. 夫有言語, 側耳詳聽. 夫有惡事, 勸諫諄諄. 莫學愚婦, 惹禍臨身.”

26) 《女論語》, 21쪽. “夫若外出, 須記途程. 黃昏未返, 瞻望思尋. 停燈溫飯, 等候敲門. 莫若懶婦, 先自安身.”

27) 《女論語》, 14쪽. “莫學懶婦, 積小癡慵, 不貪女務, 不計春冬, 針線, 粗率, 爲人所攻, 嫁爲人婦, 恥辱門風, 衣裳破損, 牽西遮東, 遭人指點, 恥笑鄉中, 奉勸

이처럼《女論語》에서 밝히고 있는 행동지침은 주로 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모범적인 여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이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거지 등으로, 王相은 이러한 원문 내용 중에서 자신의 부연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글을 끊어가며 자신의 보충설명을 덧붙여놓았다. 王相이 구분지어 놓은 곳을 기준으로 삼아 《女論語》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章	主要 內容
立身	①先學立身 ②清貞重視 ③行語坐立 態度端正 ④男女有別 露出自制 ⑤通名慎重 立身端正
學作	①婦工具備 紡織勤勉 ②養蠶周到 織布完遂 ③織造裁縫 能力發揮 ④勤勞最善 恥辱防備
學禮	①禮節熟知 女客待接 ②接見態度 鄭重萬全 ③他家訪問 厚待謝絕 ④滿醉禁物 酒邪操心 ⑤外出節制 外人回避 ⑥行動操身 羞辱防止
早起	①五更起床 炊事萬全 ②飲食料理 適切準備 ③懶怠根絕 時間嚴守 ④食貪私藏 絕對嚴禁
事父母	①父母恭敬 安否關心 ②父母叱責 改過遷善 ③父母指示 履行徹底 ④父母侍奉 極盡奉養 ⑤父母臥病 看護徹底 ⑥父母別世 盡心哀悼 ⑦葬禮萬全 遺品禁慾
事舅姑	①舅姑侍奉 盡力恭敬 ②舅姑敬事 言行慎重 ③媪母秀拔 清掃洗面 ④老人考慮 飲食準備 ⑤寢席準備 周到綿密 ⑥自讚禁止 飢寒關心
事夫	①出嫁從夫 柔順服從 ②恭敬尊重 惡事勸諫 ③外出未歸 關心等候 ④有病不便 治療萬全 ⑤震怒傾聽 讓步忍耐 ⑥衣食具備 同苦同樂 ⑦教訓嚴守 賢德傳承
訓男女	①子女教育 母親責任 ②男兒入校 尊師謝禮 ③女兒教育 順從強調 ④朝夕訓戒 家事教育(女) ⑤行動舉止 慎重勸勉(女) ⑥禮儀讓步 恭敬教育
營家	①儉素勤勉 奢侈禁物 ②舊習打破 計劃徹底 ③衛生萬全

女子, 聽取言終.”



	環境清潔 ④耕作勤勞 飲食調達 ⑤家畜飼育 管理徹底 ⑥ 財物管理 有益追求 ⑦貯蓄對備 萬福享有
待客	①來客接待 準備徹底 ②飲食商議 豐儉調節 ③寢席按配 送別極盡 ④來客配慮 不滿自制 ⑤來客把握 適切對處
和柔	①和睦重視 孝順實踐 ②近隣友好 是非分揀 ③言辭慎重 遠慮習慣
守節	①九烈三貞 重視履行 ②守節清貞 嚴守實踐 ③出入操身 行實注意 ④夫葬極盡 後代保育 ⑤女訓實踐 福祿享受

이상의 내용을 다시 크게 대별하면, 여성 개인의 수양문제, 가족 및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 및 역할, 가정에서의 가사와 책무,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여성 개인의 수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女論語》에서는 여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修養 문제를 가장 중시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맨 첫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수양은 책에서 “立身”이란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여성이 제대로 여성다운 구실을 하려면 “입신을 단정히 해야 한다”<sup>28)</sup>는 것이며, 이 立身을 단정하게 하는 방법이란 곧 “清”과 “貞”, 즉 도덕적으로 맑고 곧은 여성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라 하였다. 王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단정하고 청결하며 차분한 것을 ‘清’이라 하고, 순수함이 한결같고 바른 언행을 지키는 것을 ‘貞’이라”<sup>29)</sup>고 하였다. 그리고 “清”과 “貞”이 잘 지켜지면, 여성은 자연히 “潔”과 “榮”, 즉 청결함과 영광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문의 설명이다. 이는 여성의 貞節觀念을 강조한 것이다. 작자는 그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두상·입술·무릎·치마·웃음·목소리 등을 조심할 것”<sup>30)</sup> “부부를 포함하여 남녀가 유별할 것,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삼가고, 남자의 호명을 삼가며 선량하고 현숙하지 못한 자와는 교제를 회피할 것”<sup>31)</sup>이라 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행위 규범에 대하여

28) 《女論語》, 12쪽. “立身端正, 方可爲人.”

29) 《女論語》, 12쪽. “端潔安靜之謂清, 純一守正之謂貞.”

30) 《女論語》, 12쪽. “行莫回頭, 語莫掀唇, 坐莫動膝, 立莫搖裙, 喜莫大笑, 怒莫高聲.”

31) 《女論語》, 12쪽. “內外各處, 男女異群, 莫窺外壁, 莫出外庭, 出必掩面, 窺

“남자의 심미안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남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것”<sup>32)</sup>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1장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볼 때 그 목적이 남자의 요구와는 별개 문제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수신의 實例를 여성에 맞춰 언급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이상의 細目들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禮”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論語》에서 君子가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sup>33)</sup>고 하였다. 즉, “知禮”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女論語》첫 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淸”과 “貞”은 물론 남성 중심 사상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성이 이를 무절제하게 파괴시켜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첫 장은 여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 수양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대인 관계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女論語》에는 여성의 대인관계에 관한 행동 규율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양가 부모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행해야 할 역할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이어서 가정 외부의 친인척 및 이웃과 접촉할 때의 처신 방법 내지는 그 행동요령이 잘 설명되어 있다.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여성은 먼저 부모의 安否에 신경을 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평소 건강을 잘 보살피며, 아플 때는 간호와 치료에 최선을 다 하고, 별세 후에는 장례와 제사에 효심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딸 자식으로서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도록 경계하여 말하기를, “忤逆”하는 여자는 “부모가 겨우 한 마디 말을 하면 성질을 크게 부리고, 시집갈 때 가져갈 물건이나 챙기며, 경쟁이나 하듯 옷단장을 한다. 부모가 불행을 당하면 잘잘못을 따지고, 재물과 비단을 뒤지고 찾느라 상을 당한 슬픔도 아랑곳하지도 않는데, 이런

必藏形, 男非眷屬, 莫與通名, 女非善淑, 莫與相親.”

32) 張經, 〈一部女子訓戒全書 —《女論語》及其作者〉, 《華夏文化》(天津: 天津社科院, 1998), 35쪽 참조.

33) 成百曉譯註《論語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0), 289쪽. “不知禮, 無以立也.”

점은 배우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여자는 개돼지·승냥이·이리와 같은 것”<sup>34)</sup>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집을 가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친부모와 같이 하되, 헌신적인 “供承看養”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강조하고 있다. 즉 공손한 태도로 시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보살피고 봉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면양치 수발로부터 음식봉양 및 잠자리 준비에 이르기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다 하는 “敬事”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만약에 가정에서 며느리의 이 “敬事” 습관이 생활화 되면 “그 가르침이 온 집안에 전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어진 며느리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孝婦 역할을 제대로 행한 자의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女論語》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이다. “남편은 하늘처럼” 받들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손님처럼 공경하고 존중하며, 남편의 말을 경청하고, 못마땅한 부분은 至誠으로 권면하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라고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내는 양보와 인내라는 미덕을 통해서 남편과 동고동락을 만들어 갈 때, 그 결과는 아름다운 금슬과 화락함으로 귀결되어 그 명성이 크게 떨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다. 고대 중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강력히 요구되었던 수절문제 역시 《女論語》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와 연결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賢婦”의 척도가 되는 “九烈”과 “三貞”은 곧 여성 자신의 수양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편에 대한 윤리적 의무 사항이었기에, 남편이 살아 있든 아니면 사별을 하였든 여성이 고수해야 할 守節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덕목이었다.

다음은 손님이나 이웃·친척 등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 및 응대에 관한 태도다. 손님 대접은 남편의 지시에 따르되, 평상시에 손님 접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물을 잘 준비해 놓았다가, 공경한 마음으로 예의를 다 해야 하며, 손님이 溜하게 되었을 때도 침석과 음식 제공에 미흡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녀자가 예의를 바탕으로 화목함을 만들어갈 때, 가정 내의 평화는 물론이고 밖으로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관

34) 《女論語》, 19쪽. “纔出一語, 使氣昂昂, 需索陪送, 爭競衣粧, 父母不幸, 說短論長, 搜求財帛, 不顧哀喪, 如此婦人, 狗彘豺狼.”

계도 원만하게 되어 가정 및 사회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다. 《女論語》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쪽의 이웃이든 서쪽의 집이든 그 어디나 예의를 두루 온전하게 하며, 왕래를 할 때는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떤 것에나 아주 정답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 차 한 잔과 물 한 잔으로도 즐겁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마땅히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행하며, 쓸데없는 시빗거리는 자기집 문안에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sup>35)</sup>

고대 중국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초능력 및 무한책임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여성의 가사 및 책무에 대한 책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성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가정 살림과 자녀교육이다. 따라서 《女論語》에서도 이 점에 대한 강조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 즉, 여성은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향상되도록 하며, 부지런하고 철저한 위생관념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學作〉·〈早起〉·〈營家〉·〈訓男女〉 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는 농사 중 양잠이 가정경제에 유익한 수단이었기에 저자는 이를 여성의 가사 중에서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여 양잠에 대한 자세한 관리요령을 설명해 놓고 있으며, 四德 중의 “婦功”에 해당하는 길쌈·바느질·음식 등도 여성의 중요한 구비요건이었기에 이것에 능하지 못함으로 인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여성의 가사노동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위생에서도 “潔淨”과 “幽淸”을 유지하여 “爽利”와 “光明”이 가능하도록 힘쓸 것을 적고 있다. 부인의 근검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부지런하면 가정이 일어나고 게으르면 가정이 기울게 되며, 검소하면 가정이 부유하게 되고 사치를 하면 가정이 가난해 진다.”<sup>36)</sup>고 하여 가정 흥망의 요인을 부인에게 돌려놓고

35) 《女論語》, 27~28쪽. “東隣西舍, 禮數週全, 往來動問, 款曲盤旋, 一茶一水, 笑語忻然, 當說則說, 當行則行, 閒是閒非, 不入我門.”

36) 《女論語》, 24쪽. “營家之女, 惟儉惟勤, 勤則家起, 懶則家傾, 儉則家富, 奢則家貧.”

있다. 또 자녀 교육의 중임도 여성에게 돌려, 자녀가 성장하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 권한이 실제로 온전히 어머니에게 있다.”<sup>37)</sup>고 하였다. 《女論語》가 “여성 전문서”라는 성격에 따라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딸자식에 대한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육의 細節도 아주 구체적이다.

멋대로 맵시를 내는데 열중하지 못하게 하고, …… 멋대로 조심성 없이 날뛰어 다니지 못하게 하고, …… 멋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 멋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sup>38)</sup>

이렇게 단속했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경시하거나”, “음란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 여기거나”, “나쁜 짓을 할까” 염려한 까닭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이 고대시기에 남성 중심의 봉건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던 “모범”적 규율들이다. 여기에는 여성이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의적으로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賢婦”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인이 갖추어야 할 “萬能”적인 婦功과 근면성, 후대양성 및 가정 흥성에 대한 부담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당시 서민계층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속박하고 있던 올라가는 사회의 여성 경시 관념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이 가정에서 여성이 담당해야 했던 과중한 책임도 큰 몫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女論語》는 지은이가 여성이고, 또 그 여성은 객관적 입장에 서서 여성들을 바람직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여성 전용 교과서”를 지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책이 창작 될 당시의 사회상과, 또 당시에 여성 스스로 인식하고 있던 “여성의 전통적 가치관”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37) 《女論語》, 22~23쪽. “訓誨之權, 實專于母.”

38) 《女論語》, 23쪽. “莫縱嬌癡……莫縱跳梁……莫縱歌詞……莫縱遊行.”

#### 4. 나오기

중국 唐代 사회는 전반적으로 문화교육이 신속하게 보급되면서 계층의 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문화교육을 접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시대였다. 따라서 여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역시 호의적일 수 있었다.

당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사회적 신분과 처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었지만, 일반 서민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곧 가정교육이었으며, 이런 목적에서 여러 종류의 여성교육 전문서적들이 편찬되었으니, 본고에서 살핀 《女論語》가 그 중의 대표적인 저작이었다. 이《女論語》는 고대 여성들을 賢婦로 교육시키기 위해 편찬한 책이었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책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나치게 여성의 인권이나 기본적인 행복권은 도외시하고 극도로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강조한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가정에서 賢婦가 될 것을 강조한 작가 본인은 정작 이런 賢婦와는 관계가 먼 독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작가 宋若莘은 평범한 여성들처럼 가정에서 시부모와 남편을 모시고 자식을 낳아 양육시키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 미혼의 신분으로 가정을 떠나 사회제도 속에서의 立身을 추구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宋若莘이 주동적으로 나서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여성윤리와 가정생활의 바른 행동거지를 운운한 《女論語》를 교육용 도서로 제공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사회적 존엄성과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칭송받을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대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 또 이 책이 후대까지 오랫동안 유용한 閨訓書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자가 성별이나 결혼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중국 봉건사회의 전통적인 인식과 문화 등을 근간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바로 그 중심사상에 乾剛坤柔나 男陽女陰과 같은 전통적인 우주관이나, 여자를 인격적인 면에서 소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던 유학사상<sup>39)</sup>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요, 또 여

39) 공자는《論語》에서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하게 굴고, 멀리하면 원망하느니라.(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近之則不孫，遠之則

자는 본래 인격이 없이 단지 남자에 부속되어 인격을 가질 뿐이라는 전통 관념<sup>40)</sup> 등이 작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자 宋若莘은 여성의 입장에서 당시 일반 여성들이 구속을 당하고 살던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의 전통사상과 당시의 일반적 사회현상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같은 책을 편찬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唐代 女訓書 《女論語》에 대한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는, 지위나 성별의 구분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자유로운 생활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상당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班 固, 《漢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劉 昫, 《舊唐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宋 祁·歐陽修, 《新唐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宋若莘, 《女論語》, 《蒙養書集成(二)》(甘肅: 三秦出版社, 1990)  
 高世瑜, 《唐代婦女》(西安: 三秦出版社, 1988)  
 班 固, 《白虎通》(<http://www.douban.com/group/topic/4610304>)  
 劉燕飛·王宏海, <《女論語》的著述與傳播特點>, 《河北學刊》28:3 (2008)  
 劉燕飛, <宋若莘姐妹與《女論語》研究>, 《河北大學學報》33:2(2008)  
 張 經, <一部女子訓誡全書 —《女論語》及其作者>, 《華夏文化》(天津: 天津社科院, 1998)  
 成百曉譯註, 《論語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0)  
 김중권 역주, 《女四書》(서울: 명문당, 1987)  
 이숙인 역주, 《여사서》(서울: 여이연, 2003)  
 尹芳烈, <《女論語》의 現代的 考察>, 《아시아여성연구》제10권

怨.)”라고 하였고, 朱熹는 주에서, “이 소인은 또 僕隸 下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여성을 군자와 반대되는 개념인 소인과 동급으로 놓아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40) 班固,《白虎通》〈嫁娶篇〉. “陰, 不得自專, 隨陽而成之.”([http:// www. douban. com/ group/topic/4610304/](http://www.douban.com/group/topic/4610304/))

### <中文提要>

《女论语》是由唐代宋若莘和宋若昭姐妹所纂的一部女性训诫书籍。宋若莘根据儒教经典《论语》来作了《女论语》十章，后来宋若昭注解订正了十二章，这就是现存的《女论语》。

作者宋氏姐妹是独身女性。根据《旧唐书》卷五二《后妃传》和《新唐书》卷七七《后妃传》，她们是书香门第，从小受到父亲良好的教育之后，为了扬名显父，不结婚入宫作为学士先生。她们入宫之前写成《女论语》。到了明末清初，王相把中国封建社会四种历代代表性女性教育书（东汉的《女诫》，唐代的《女论语》，明代的《内训》，《女范捷录》）编辑在一本，起名为《女四书》。

《女论语》全书共12章：〈立身〉、〈学作〉、〈学礼〉、〈早起〉、〈事父母〉、〈事舅姑〉、〈事夫〉、〈训男女〉、〈管家〉、〈待客〉、〈和柔〉、〈守节〉，其核心内容主要包括：女性自身的修养，跟家人亲戚邻居之间的人际关系和处世，家庭里的家事和责任。

全书的内容主要通过对比形式来强调著妇女要坚持的态度，这种表现手法除了第九章和第十二章以外，大部份都适用这种对比方式。还有书的特征之一是先提示妇女们该遵守的贤妇的事项，然后告诉我们妇女“莫学”的内容。特别把懒妇、愚妇、蠢妇、泼妇等的特征来，提醒著中国古代贤妇女性的生活态度。

这种女性教导教材的出现，跟中国悠久的封建社会的传统认识和文化有密切的关系。其核心有像“乾刚坤柔”、“男阳女阴”的传统宇宙观和把女子不太重视的儒学思想。向后对《女论语》的多样的研究结果，让我们提醒男女平等的意义和价值。

주제어 : 여논어(女論語) 여사서(女四書) 여훈서(女訓書)  
송약신(宋若莘) 왕상(王相)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章学诚和古籍整理成就 - 以目录学为主 -

宋景爱\*

### — <目 錄> —

- 一、序 言
- 二、创立传统目录学理论而提示实践方法
- 三、强调“互著与别裁”目录学使用方法
- 四、其它在目录方面的成就
- 五、结 语

### 1、序 言

古文献研究范围是研究文献的形态，文献的整理方法，文献的鉴别，文献的分类与编目，文献的收藏，文献形成发展的历史，各种文献的特点与用途，文献检索。目的在于全面认识文献，学会在浩如烟海的文献中，用较少的时间，找到自己所需要的文献资料，同时还要有能力对这些资料的不同版本进行鉴别，确定较早的，较全的，较可靠的版本。而且有能力对原始文献作整理加工，除了自己使用以外，还可以供更多的使用。

清末以来成为显学之一的章学诚的文史校讎之学，在中国近代有关文献的研究上具有重要的地位，而在古文献整理工作上提供了一个重要的理论根据<sup>1)</sup>。章学诚的《与钱献之书》说：

\* 그리스도대학교 외국어학부 전임강사(gonzummi@kcu.ac.kr)

1)“自汉氏后二千馀年，儒林文苑相望而起纵其间，递兴递衰，莫不有一时好尚以成

“足下渊邃精密，由训诂文字，疏通名物象数，而达于古人之精微；其诣甚深。而学诚粗通大义，不能研究文字，自以意之所至，而侈谈班、刘述业，欲以疏别著述渊源，究未知于古人之志，有当与否？<sup>2)</sup>”

从此段话可以推想章学诚在研究、整理古文献工作上，通过班固、刘向、刘歆的治学方法来进行文献考辨工作。

章学诚起初从事校雠之工作，与当时学术环境有密切关系。就是说，是针对着戴震等当时所谓汉学家以经学为研究对象、训诂为治学方法而做起的。章学诚由校雠入手，也是为了辨文史中的“义理”。他的义理观始终都是与文献整理的实际工作相结合的。他与当时考证家最不同之处主要在于他所整理的文献是历史，而一般考证家的研究对象则是经学<sup>3)</sup>。

章学诚之校雠学的内容具有相当于目录、辑佚、校勘、治书与藏书等，今天所谓古籍整理工作的核心内容。但实际上，章学诚的校雠学主要表现于目录学研究成就。因此本稿主要将探讨章学诚在目录学研究方面的具体成就。

## 二、创立传统目录学理论而提示实践方法

以校雠为代表的章学诚的文献整理工作上，目录工作可说是成就最深刻，被人评为最核心所在。其主要原因在于因为他把中国传统目录理论“辨章学术，考镜源流”最初明确而系统的总结，进一步体现于实际文献整理工作上。章学诚在《校雠通义》自序说：

“校雠之义，盖自刘向父子部次条别；将以辨章学术，考镜源流<sup>4)</sup>”，

又说：

---

其所学之盛。然学术流别，茫乎未闻。惟近儒章氏、龚氏崛起浙西，由汉志之微言，上窥官守师儒之成法，较之郑、焦，盖有进矣。”《国粹学报·发刊辞》1905年（转引余英时著《论戴震与章学诚》，（北京，三联书店，2000年）页161。

2) 章学诚撰，《章学诚遗书》（北京，文物出版社，1985年），页64。

3) 余英时著，《论戴震与章学诚》（北京，三联书店，2000年），页164。

4) 章学诚，《校雠通义》（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页1。

“盖部次流别，申明大道，叙列九流百氏之学，使之绳贯珠联，无少缺逸，欲人即类求书，因书究学<sup>5)</sup>”。

从这几句话，我们可以看到章学诚对目录学的认识比当时学者较广泛。<sup>6)</sup>章学诚还说：

“校雠之义，盖自刘向父子部次条别；将以辨章学术，考镜源流；非深明于道术精微，群言得失之故者，不足与此。后世部次甲乙，纪录经史者，代有其人，而求能推阐大义，条别学术异同，使人由委溯源，以想见于坟籍之初者，千百之中不十一焉。<sup>7)</sup>”

提出了“辨章学术，考镜源流”的背景和目的。我们从此可知章学诚目录思想的核心是“辨章学术，考镜源流”。他认为图书资料目录的主要功能是“辨章学术，考镜源流”，即分清学术流别，考究学术渊源。就是说要在学术史上和学科分类上赋予目录的内容之中，以便使目录学更好地为学术研究服务。章学诚不仅明确地揭示了传统目录学的核心理论，还指出贯彻这一理论的基本途径。他认为要完成目录学“辨章学术，考镜源流”的根本任务，就必须主要通过序文、类例（分类）、叙录来实现。

### ① 序文

序文，就是今日分类目录中所说的各类序言。<sup>8)</sup>章学诚为了达到目录学“辨章学术，考镜源流”的重要作用，往往利用了序文这种形式。他在论述刘歆《七略》时，就曾充分地肯定刘氏序文的重要意义。他认为‘辑略’（总

5)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页15。

6) 比如清代王鸣盛说：“目录之学，学中第一紧要事，必从此问途，方能得其门而入。然此事非苦学精究，质之良师，未易明也。自宋之晁公武，下迄明之焦弱后一辈人，皆学识未高，未足剖断古书之真伪是非，辨其本之佳恶，校其讹谬” 王鸣盛著《十七史商榷》卷一，页1。

7) 章学诚，《校雠通义·自序》（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页1。

8) 就《汉书·艺文志》而言，应包括总序、部序和类序。序文不仅是区分书目类型的依据之一，而且是书目中的一个重要组成成分。以序文为依据可划分为三种书目：第一种是部类之下有小序，书名之下有解题，第二种是有小序而无解题，第三种是解题、小序皆无。

序)是刘歆“讨论群书之旨<sup>9)</sup>”,“最为明道之要,惜乎其文不传。今可见者,唯总计部目之后,条辨流别数语耳<sup>10)</sup>”,而即使就此“数语”窥之,亦可使人得泽其间,大受教益。

“必云某家者流,盖出古者某官之掌,其流而为某氏之学,失而为某氏之弊。其云某官之掌,即法具于官,官守其书之义也;其云流而为某家之学,即官司失职,而师弟传业之义也;其云失而为某氏之弊,即孟子所谓‘生心发政,作政害事’,辨而别之,盖欲庶几于知言之学者也<sup>11)</sup>”

从此可见,章学诚认为虽然叙录、类例在不同程度上反映某些问题,但是二者毕竟都有一定的局限。叙录仅仅作用于具体款目,类例也只能反映表面的上下级关系。如果要充分揭示类目间的相互联系,特别是要从总体上系统地“辨章学术,考镜源流”,就得通过序文的文字说明。

## ② 类例(分类)

类例是今日所说之分类,它是根据书籍形式和内容特色,按照一定体系区分与组织文献的一种最常用的方法。西汉刘向、刘歆父子重视分类原则,在他们的《别录》和《七略》中已有明确的反应。至宋代郑樵,比前代更加重视图书分类功能,他甚至强调“书籍之亡者,由类例之法不分也。类例分,则百家九流,各有条理,虽亡而不能亡也<sup>12)</sup>”。章学诚关于郑樵类例的理论十分赞赏的。他认为“郑樵论《书有名亡而实不亡》,其见甚卓<sup>13)</sup>”。章学诚所论,他的类例学说主要集中以下两个方面:第一,分类时,应注重在义类,不重名目,“欲人即类求书<sup>14)</sup>”。就是应当重学术,重源流,而不重形式。所以章学诚主张对诸家著述,一定要弄清家法和师承关系,反对随意定其归属。第二,在组织类目和教目时要体现出一定的逻辑关系。在章学诚看来,无论是大类之间的排列,还是小类乃至款目之间的编排,都决不可允许随意性,而应该反映出事物间内在的特定关系。章氏所说的‘特定关系’,按

9) 章学诚,《校雠通义·原道第一》(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页4。

10) 上同。

11) 章学诚,《校雠通义·原道第一》(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页4。

12) 郑樵,《通志·校雠略·编次必谨类例论》,(北京,中华书局,1987)

13) 章学诚,《校雠通义·补郑第六》,页32。

14) 章学诚,《校雠通义·补校汉艺文志第十》,页52。

他的理解,可以说明三个原则。其一是道器关系,其二是人次关系,其三是时次关系。所谓道器关系是一般理论和应用技术的关系。就是说它们的次序应当是先‘道’而‘器’<sup>15)</sup>。所谓人次关系是指编排组织的顺序应当符合社会名分<sup>16)</sup>。所谓时次关系是编排组织的顺序应当符合事物递相演进的客观实际。<sup>17)</sup>这样章学诚在类例上强调“道器”、“人次”和“时次”,可知章学诚的类例思想已经比郑樵大大地向前迈进了一步。

### ③ 叙录

叙录是中国古代三种解题形式(叙录、辑录、传录)中最基本最主要的一种,就是今日所谓提要。一般人认为叙录始于刘向《别录》。章学诚以为叙录可溯源于古史之学者列传:“刘氏(向)之业,其部次之法本乎官《礼》;至若叙录之文,则于太史列传,微得其裁<sup>18)</sup>”。并郑樵尝以王尧臣《崇文总目》中每书皆有叙录,认为是“强为之说,使人意怠<sup>19)</sup>”,全面否定了叙录。章学诚则极力反驳其说,强调没有叙录的书目,不过是“甲乙簿注<sup>20)</sup>”,无法讨论流别,难于“辨章学术”。章学诚认为叙录的作用,一是可以介绍作者生平,担负人物传记职能;二是可以考镜家法,揭示要点,在具体款目中起到序文的重要作用。章氏认为,叙录可以“条别源流,治百家之纷纷,欲通之于大道,此本旨也<sup>21)</sup>”。叙录的这一功能,至今仍然深受学界欢迎,其意义之重大。尤其电子计算机日益普及的今天,叙录仍在书目领域继续发挥着重要的作用。作为古代目录学家的章学诚,还在十八世纪为了叙录的推广大声疾呼,实在是一种远见卓识,难能可贵。

15)例如章学诚认为《汉志》中的六略中,六艺、诸子、诗赋三种属于‘道’,故放在前面,而兵术、数术、方技三略属于‘器’,故放在后面。

16)例如章学诚认为《汉志·诗赋略》,以《淮南王赋》列第一,而以军群之作附于其下。

17)例如《汉志·诗赋略》中,《秦时杂赋》列于《荀卿赋》后,《孝景皇帝颂》前。

18)章学诚,《文史通义校注·和州志艺文书序例》(中华书局,1985),页653。

19)郑樵,《通志·校讎略校注·泛释无义论》(中华书局,1985)

20)章学诚,《校讎通义·宗刘第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年),页14。

21)章学诚,《文史通义校注·和州志艺文书序例》(中华书局,1985),页653。

### 三、强调“互著与别裁”目录学使用方法

互著与别裁是目录学领域的重要方法。互著另称互注、互见，就是把同一本书在相关的类目中重复著录，等于章学诚所说的“一书两裁”。别裁与互著类似，都是在相关的类目中重复著录。别裁与互著不同点在于将书中的个别篇章在相关的类目中重复著录的。<sup>22)</sup>在中国目录学史上没有人提及互著与别裁的使用时期，但章学诚通过班固的《汉书·艺文志》指出了其使用开始于刘歆的《七略》。章学诚说：

“刘歆《七略》亡矣。其义例之可见者，班固《艺文志》注而已。《七略》于兵书权谋家有伊尹、太公、管子、荀卿子、鶡冠子、苏子、蒯通、陆贾、淮南王九家之书，而儒家复有荀卿子、陆贾二家之书，道家复有伊尹、太公、管子、鶡冠子四家之书，纵横家复有苏子、蒯通二家之书，杂家复有淮南王一家之书；兵书技巧家有墨子，而墨家复有墨子之书。惜此外之重复互见者，不尽见于著录，容有散逸失传之文。然即此之十家一书两裁，则古人之申明流别，独重家学，而不避重复著录明矣。<sup>23)</sup>”

又说：

“今观刘《略》重复之书仅止十家，皆出兵略，他部绝无其例，是则互注之法，刘氏具未能深究，仅因任宏而稍存其意耳。<sup>24)</sup>”

章学诚还说：

“《管子》道家之言也，刘歆裁其《弟子职》篇入小学；七十子所记百三十一篇，礼经所部也，刘歆裁其《三朝记》篇入《论语》。<sup>25)</sup>”

22)章学诚在《校雠通义·别裁》中说：“至其全书，篇次具存，无所更易，隶于本类，亦自两不相妨”

23)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三之二，页16~17。

24) 章学诚，《校雠通义·补校汉艺文志》十之一，页52。

对章学诚的这种说法,有人说《艺文志》里实在已使用过互著与别裁方法,也有人说否定《七略》中有互著的。<sup>26)</sup>但是在整个目录学的发展过程来看,互著与别裁已广泛地运用,而系统地又从理论上专门加以讨论,的确是清代章学诚开始的。章学诚阐明“辨章学术,考镜源流”的重要意义,进一步指出了互著与别裁的实际性的作用和使用原则。章学诚论证了互著在工作上的意义和作用。他说:

“至理有互通,书有两用者,未尝不兼收并载,初不以重复为嫌,其于甲乙部次之下,但加互注,以便稽检而已。古人最重家学,叙列一家之书,凡有涉此一家之学者,无不穷源至委,竟其流别,所谓著作之标准,群言之折衷也。<sup>27)</sup>”

章学诚将互著使用的意义找到图书的活用价值上,比如《诗·外传》因为杂记春秋时期的事件,故认为当使《春秋》与《诗》相为表里<sup>28)</sup>,并认为通过它可以“即类求书,因书究学”。章学诚进一步指出“互著”的作用说:

“著录之创为《金石》、《图谱》二略,与《艺文》并列而为三,自郑樵始也。就三略而论之,如《艺文》经部有《三字石经》、《一字石经》、《今字石经易篆》、《石经郑玄尚书》之属,凡若干种,而《金石略》中无石经。岂可特著《金石》一略而无石经呼?<sup>29)</sup>”

又说:

“如《艺文传记》中之祥异一条,所有《地动图》、《瑞应翎毛图》之类;名士一条之《文翁学堂图》……;俱详载《艺文》而不入《图谱》,此何说也?盖不知重复互注之法,则遇两歧牵掣之处,自不觉其抵牾错杂,百弊丛生。<sup>30)</sup>”

25) 章学诚,《校雠通义·别裁第四》四之一,页24。

26) 姚名达在《中国目录学史》中对它表示怀疑,说:“《七略》是否原有此例,尚为疑问。或因校仇者既非一人,无意中致有复见二类而不及删正,亦未可知。”接着说:“《七略》是否原有此例,亦为疑问。”

27)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页15。

28) 章学诚,《校雠通义·汉志六艺第十三》(北京,中华书局,1985),页82。

29)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页20。

从这些章学诚批评郑樵的说法，可见互著在编目工作上的重要作用。另外，章学诚还指出如何使用“互著”的使用原则。著录什么样的文献需要互著的问题上，他认为涉及如下两种情况下，就应该考虑这种办法。第一所谓“书之易淆者<sup>31)</sup>”，指是遇到那些内容跨类又不易定其归属的书时候，例如经部易家与子部之五行阴阳家相混，小学家之书法与金石之法帖相混，史部之职官与故事相混，谱牒与传记相混，故事与集部之诏诰奏议相混，集部之词曲与史部之小说相混，子部之儒家与经部之经解相混，史部之食货与子部之农家相混，等等。第二所谓“书之相资者<sup>32)</sup>”，是指遇到那些集若干主题于一身，在若干类目中可以彼此呼应的时候，例如《尔雅》与《本草》可以相资为用，地理书与兵家书可以相资为用，谱牒书与历律也可以相资为用。有这样的情况的书，章学诚主张采用互著法，所以他说：

“书之易混者，非重复互著之法，无以免后学之牴牾；书之相资者，非重复互注之法，无以究古人之源委<sup>33)</sup>”。

章学诚甚至还强调互著之法必须运用得当。如果不当用而用之，当用而不当用的话，会造成“牴牾错杂”或“门类疑似，一书两人”“一书两名，误认二家<sup>34)</sup>”。章学诚提示了能够克服这种问题的解决方法。前者的解决方法是“先作长编，取著书之人与书之标名，按韵编之，详注一书源委于其韵下。至分部别类之时，但需按韵稽之，虽百人共事，千卷雷同，可使疑似之书一无犯复矣。<sup>35)</sup>”，后者的解决方法是“深究载籍，详考史传；并当历究著录之家，求其所以同异两称之故，而笔之于书。<sup>36)</sup>”

章学诚还对于别裁指出了许多深刻的见解。关于别裁，当时人各持所见，甚至有人反对使用别裁，说是“裁篇别出之法行，则一书之内，取裁甚多，纷然割裂，恐其破碎支离而无当也。<sup>37)</sup>”，章学诚对这种说法进行了驳

30) 上同。

31)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页21。

32) 上同。

33)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页21。

34) 章学诚，《校雠通义·辨嫌名第五》，页29。

35) 上同。

36) 上同。



斥,他说:

“学贵专家,旨存统要。显著专篇,明标义类者,专门之要,学所必究,乃掇取于全书之中焉。<sup>37)</sup>”

还以韩非的<五蠹>、<说林>和董仲舒的《玉环》、《竹林》为例,说明“古人著书,或离或合,校讎编次,本无一定之规”,“裁篇别出之法,何为而不可以著录乎”,认为别裁与纂辑类书的意义迥然不同,就是一个根据各家学术源流,显示出学术研究的途径,另一个是根据议定的题目,取材于各书。

另外,在什么情况下才使用别裁的著录方法上,章学诚在《校讎通义·别裁第四》中说到:

“古人著书,有采取成说,袭用故事者,其所采之书,别有本旨,或历时已久,不知所出。又或所著之篇,于全书之内自为一类者,并得裁其篇章,补苴部次,别出门类,以辨著述源流。至其全书,篇次具存,无所更易,隶于本类,亦自两不相妨。盖权于宾主重轻之间,知其无庸互见者,而始有裁篇别出之法耳。<sup>38)</sup>”

又说:

“叙地理之书,当取《禹贡》《职方》《管子·地园》《淮南·墜形》,诸史地志诸篇,裁列地理部首,而后专门地理之书以次列为类焉,则后人求其学术源流,皆可无遗憾矣。<sup>40)</sup>”

他指出了两种书的情况时的著录方法,其一“采取成说,袭用故事者”,像《管子》的《弟子职》篇与《吕氏春秋》的《月令》篇等,虽然是从别的地方取来编入自己书中的,也就可以编入其它的有关类目,其二,“所著之

37) 章学诚,《校讎通义·焦竑误校汉志》,页68。

38) 章学诚,《校讎通义·焦竑误校汉志》,页68~69。

39) 章学诚,《校讎通义·焦竑误校汉志》,页68~69。

40) 上同。

篇，于全书之内自为一类者”，就是说所著录之篇，在全书之内自己可以成为一个主题的，便可以裁出别行，编入其它的类目中。这样做不但对原书所在的类目没有妨碍，而且为裁出别行部分所编入的类目增加了新的资料。从上述的内容来看，可知章学诚编纂《史籍考》时不仅把大量的史学图书收集了，同时把其它部类中的有关史学的图书也收进来，这就是运用互著与别裁编修专科目录的长处。

#### 四、其它在目录方面的成就

章学诚在目录方面，除了图书的编目以外，还有关于图书的分类，撰写叙录，索引，专科目录，治书和校书，典藏等方面都指出了自己突出的意见。首先，他主张图书分类的目的在于为便于学者即类求书，因书究学。他在《校雠通义·互著》说“部次流别，申明大道，叙列九流百氏之学，使之绳贯珠联，无少缺逸，欲人即类求书，因书究学<sup>41)</sup>”，明确指出图书分类的目的在于“即类求书，因书究学”。他在这样的基础上，还批评了传统图书分类的错误。他说：

“大抵《汉志》之疏，由于以人类书，不能以书类人也<sup>42)</sup>”

又说：

“《刘向所叙》六十七篇，部于儒家，则《世说》、《新序》、《说苑》、《列女传颂图》四种书也。此刘歆《七略》所收，全无伦类<sup>43)</sup>”

再进一步提出所谓“以书类人”的实践方法，认为刘向、刘歆的错误的根本原因就是采用以人类书而不采用以书类人。另外，他在图书分类上提出了非常突出的理论而证明了图书分类法要伴随着学术与时代的发展。他在《校雠通义·原道》中说：

41) 章学诚，《校雠通义·互著第三》，页15。

42) 章学诚，《校雠通义·汉志兵书第十六》，页95。

43) 章学诚，《校雠通义·汉志诸子第十四》，页95。

“私门无著述文字，则官守之分职，即群书之部次，不更别有著录之法也。<sup>44)</sup>”

指出春秋以前的图书分别由官保管，因官职不同，图书也就随之分类了。<sup>45)</sup>章学诚在这样的基础上，纠正了前人的分类错误。他从十二个方面指出了《汉志》分类缺点，再进一步纠正了前人像郑樵和焦竑纠正《汉志》的分类错误。章学诚认为《汉志》在分类方面的错误主要在于类例不精；书类不全，勉强依附；儒杂两家，类附率多索混；名家之书，当叙于法家之前；三种之赋不能尽归一类，等等。接着《汉志》把《周书》归入尚书类，对此焦竑认为错的，应改入杂史类。但章学诚指出《汉志》分类妥当，焦竑纠正“错”为错，并认为其原因是焦竑不通古人类例。<sup>46)</sup>其次，章学诚关于叙录在图书目录中的作用也指出了突出的意见。他在《校雠通义·原道》中评价《七略》的叙略时说：

“《辑略》……此最为明道之要。……其叙六艺而后，次及诸子百家，必云某家者流，盖出古者某官之掌，某流而为某氏之学，失而为某氏之弊。……由刘氏之旨以博求古今之载籍，则著录部次，辨章流别，将以折衷六艺，宣明大道，不徒为甲乙纪数之需，不亦明矣。<sup>47)</sup>”

认为叙录的作用主要有记述学术源流，说明群书之旨，解释类目意义，注明类目之间的关系，发挥作者之旨等五个作用。再次，章学诚为了提高校勘速度和质量，积极倡导编制索引，以书刊资料更好地为学术服务。他在《校雠通义·校雠条理第七》中说：

“窃以典籍浩繁，闻见有限，在博雅者且不能悉究无遗，况且下乎？以谓校雠之先，宜尽取四库之藏，中外之籍，择其中之人名地号、官阶书目，

44) 章学诚，《校雠通义·原道第一》，页1。

45) 章学诚在《校雠通义·宗刘第二》中说：“七略之流而为四部，如篆隶之流而为行楷，皆势之所不容已者也。”认为从《七略》到四分，就像篆书流为楷书，皆不可避免的趋势。

46) 叶树声，〈论章学诚对目录学的贡献〉，《四川图书馆学报》第2期，页81。

47) 章学诚，《校雠通义·原道第一》，页4。

凡一切有名可治，有数可稽者，略仿《佩文韵府》之例，悉编为韵；乃至本韵之下，注明原书出处及先后篇第，自一见再见以至数千百，皆详注之，藏于馆中，以为群书之总类。至校书之时，遇有疑似之处，即名而求其编韵，因韵而检其本书，参互错综，即可得其至是。<sup>48)</sup>

很清楚地论述编制索引以及其方法，并进一步指出了这样做在校讎和治学方面都有好处。最后值得提及章学诚在目录学方面的成就，就是建设专科目录。他所撰的有关历史史籍的《史籍考》是在中国目录学上占有重要地位。所谓专科目录，是指专收某一特定知识门类图书资料的目录。中国专科目录的发展始于佛经目录，其后随着学术的发展，逐渐出现了文学、哲学、经史等方面的专科目录。后来又出现了医药、农业等的专科目录。<sup>49)</sup>关于史籍专科目录，章学诚认为“史之部次后于经，而史之原起实先于经。《周官》外史掌三皇五帝之书，仓颉尝为黄帝之史，则经名未立而先有史矣。”<sup>50)</sup>因此他主张“今作《史考》，宜具源委，凡《六经》、《左》、《国》、周秦诸子所引古史逸文，如《左传》所称《军志》、《周志》，《大戴》所称《丹书》、《青史》之类，略仿《玉海·艺文》之意，首标古逸一门，以讨其原。<sup>51)</sup>他指出史籍专科目录是以综合目录中的史部做基础，再加上经部、子部、集部中与史部相同的书籍，才能成为完整、系统的史籍专科目录。接着他关注史籍分类的方法，认为为了正确地规定史籍的归属，首先要弄清楚史籍的不同家法。他说：

“校讎之学与著录相为表里；校讎类例不清，著录终无源委。<sup>52)</sup>”

章学诚进一步试图打破旧的分类思想，对正史进行再分类，分为通史、断代史、分国史、数代史、集众官修史五类。他说：

48) 章学诚，《校讎通义·校讎条理第七》，页38。

49) 叶树声，〈论章学诚对目录学的贡献〉，《四川图书馆学报》，第2期，页85。

50) 章学诚，《论修史籍考要略》第一条，《校讎通义通解》，（上海古籍出版社，1987），页159。

51) 章学诚，《论修史籍考要略》第一条，《校讎通义通解》，页159。

52) 章学诚，《论修史籍考要略》第二条，《校讎通义通解》，页159。

“旧例以二十一家之言同列正史，其实类例不清。马迁乃通史也，梁武《通史》、郑樵《通志》之类属之；班固断代专门之书也，华、谢、范、沈诸家属之；陈《志》分国之书也，《十六国春秋》、《九国志》之类属之；《南北史》断取数代之书也，欧、薛《五代》诸史属之；《晋书》、《唐书》，集众官修之书也，《宋》、《辽》、《金》、《元》诸史属之。家法分明，庶几条理可贯，而究史学者可以溯源流矣。<sup>53)</sup>”

通过以上论述，可见章学诚对史籍专科目录与经部、子部、集部的关系，以及对修史籍专科目录如何分类、著录等问题，都有系统的卓越见解。

## 五、结 语

清代乾嘉时期的目录学之所以成为显学，除了经济条件和相关文化条件以外，极为重要的一个原因是，在目录学领域里涌现出了以章学诚为代表的一批杰出的学者们。章学诚的目录学思想，可以说是对中国古代目录学的系统总结。由于时代和阶级的局限，虽然他的思想中还存在着一些保守的观点，但他对中国古代目录学的优良传统“辨章学术、考镜源流”，则作出了极大的贡献，对后世影响较深。他不仅对普通目录学的发展和方法上有突出的见解，而且对专科目录学的发展以及对索引工作的推广，也作出了突出的贡献。他非常注意图书目录的分类和著录方法的改进，他所强调的“互著与别裁”的著录方法和统一的编排原则，至今仍有借鉴意义。章学诚编修史籍专科目录，反映了他对中国传统综合目录的革新精神。总之可说章学诚对中国目录学的发展有重要贡献。

## 〈参考文献〉

- 班 固撰 《汉书》（北京：中华书局，2002）  
郑 樵著 《通志》（北京：中华书局，1987）  
章学诚撰，《章学诚遗书》（北京：文物出版社，1985）

53) 章学诚，《论修史籍考要略》第二条，《校雠通义通解》，（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页159。

- 章学诚著, 《校讎通义通解》(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7)
- 章学诚著, 《文史通义校注》(北京:中华书局, 1985)
- 王鸣盛撰, 《十七史商榷》(北京:商务印书馆, 1959)
- 余英时著, 《论戴震与章学诚》(北京:三联书店, 2000年)
- 姚名达著, 《中国目录学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 叶树声, 〈论章学诚对目录学的贡献〉, 《四川图书馆学报》第2期
- 钟庆华著, 〈论章学诚目录学体系建构之缘由及内在之理〉, 《贵阳师专学报(社科版)》, 2001年, 第1期
- 薛新力著, 〈章学诚对郑樵校讎理论的发展〉, 《湖北民族学院学报(哲科版)》, 2002年第3期
- 陈亚敏著, 〈清代目录学领域的卓越代表人物-章学诚〉, 《图书馆论坛》, 2003年6月
- 傅荣贤著, 〈传统目录学的核心理论〉, 《图书馆》, 1996年第6期

### <한글제요>

장학성은 청대 중기의 역사학자로 고문헌연구와 정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학성은 고문헌학 영역 중 특히 목록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방법과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校讎通義》에서 중국 전통 목록학의 핵심 이론인 “辨章學術, 考鏡源流”를 체계화 시키고, 이를 위해 序文, 類例, 敍錄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실천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학성은 목록 편찬에 있어 “互著”와 “別裁”의 사용방법과 원칙들을 내세워 목록학 연구에 있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밖에도 장학성은 도서의 분류와 색인, 교감, 서록 편찬, 전문분야 목록 편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여 이전 학자들이 목록 분류와 기록에 서 범했던 오류들을 바로잡았다. 중국 목록학 이론과 실천방법들은 장학성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그가 강조한 “互著”와 “別裁”의 실천방법과 통일된 목록분류 원칙들은 이후 중국 목록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장학성의 목록학 이론들은 중국 고대 목록학 이론의 총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학성 목록학 청대학술 문헌학 고적정리

Key-word : 章学诚 目录学 清代学术 文献学 古籍整理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Research on 3-syllables  
Chinese Word in 21st Century

Research method of 3-syllables chinese word in 21st century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the comprehensive description and in-depth explanations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the same-time and along-time study are mutually permitt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are combined research thought of these changes breaks new ground for theoretical and applicational research on 3-syllables word.

**Key words** : 3-syllables Chinese word same time study  
along time study qualitative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注释\*

卢相峰\*\*

— <목 차> —

- 一、序 言
- 二、《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注释
  - 第一条 国音
  - 第二条 汉音
  - 第三条 谚音
  - 第四条 旁点(汉字下 谚音之点)
  - 第五条 非 ㄴ 奉 ㄹ 微 ㅍ 三母
  - 第六条 清浊声势之辩
  - 第七条 ㅁ ㅂ 为终声
  - 第八条 正俗音
  - 第九条 支 纸 置 三韵内 齿音诸字
- 三、结 末

### 一、序 言

1、本文将朝鲜中宗时代的汉学家，汉语教授崔世珍(1465?~1542)约写作於1515年的《翻译老乞大》和《翻译朴通事》>(以下简称《翻老朴》)以

\* 原文为庆星大学硕士学位论文(2011)的附录部份，有修改。

\*\* 济州大学研究生院中文系博士课程，曾任东北师范大学中文系教师(nsb0418@hanmail.net)

及載於他的《四声通解》(1517)附录部份的《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 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以下简称《凡例》)根据其时代背景进行了句读,注释和翻译 企图对今後的《翻老朴》研究有所帮助。

2、《翻老朴》作为汉语教材的最大特点是,每个汉字下垂两个谚音。根据位置,崔世珍称它为“在左者”和“在右者”。“在左者”来自于《四声通考》<sup>1)</sup>的俗音,是用谚音注音的汉音,以下简称“汉音谚字”;“在右者”是《凡例》题目所标示的“汉训谚字”,《凡例》题目告诉我们“汉训谚字”“皆从俗撰”,其“字旁之点,亦依乡语”。也就是说“在右者”既不是汉语也不是韩语而是崔世珍自己根据教学的需要,“依俗”,转换生成的第二语言教学的汉韩中介语<sup>2)</sup>。

《翻老朴》虽然是六百年前的汉语教材,但是,它与现代汉语教材有惊人的相似之处,它以口语会话为教学基本内容,分节设课,突出会话,设置情境,从实用主义哲学思想出发,利用“从已知到未知”的心理学,以培养语言的社会交际能力为中心,注重教学的主体和客体研究。《翻老朴》“在朝鲜半岛常用不衰。编写原则暗合现代第二语言的教学理论。无论在实用性,科学性,趣味性等方面都让人叹为观止。它是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历史上的一块瑰宝,具有划时代的里程碑意义”<sup>3)</sup>

《翻老朴》不是孤立的一本教材,它配有教学辅导书和学习用辞书,自成体系<sup>4)</sup>不由得让人感到,朝鲜时代的汉语教学水平提前六百年实现了现代化。

这本教材,从她问世到日帝侵占之前的四百多年里从未间断使用,期间虽然根据汉语的语音变化,相应的做过四次修订,但是其教学体系未曾改变。四次修订本分别是1670年的《老乞大谚解》、1745年的《老乞大谚解》

(平安蓝营本)、1761年的《老乞大新解》和1795年的《重刊老乞大谚解》。

1) 《四声通考》是《洪武正韵译训》的节略本。

2) 卢相峰,《反译汉语教法的中介语特性研究--以朝鲜传统汉语教科书〈原本翻译老乞大·朴通事〉为例》庆星大学校硕士学位论文(2011)

3) 鲁宝元,《从汉语作为第二语言在朝鲜半岛教学的历史看〈老乞大〉的地位、性质和特点》,《国外汉语教学动态》2004年第1期

4) 林升圭,《朝鲜〈四声通解〉在对外汉语语音教学上的价值》,《西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8·2 (2009·4)

### 3、《翻老朴》诞生的历史背景

在历史上,朝鲜半岛的各国与中国统治者的外交往来,全是使用地道的汉文,可是,历史进入高丽末期,朝鲜初期以来,由於中国汉语北音化的影响,使得新生的朝鲜王与明天子的所谓“事大”的外交关系,陷入了“语音不通 必赖传译”<sup>5)</sup>的困境,让世宗大王发出了“我国事大 莫重译学 上曰译学 实国家重事”的感叹<sup>6)</sup>。朝鲜王朝为了解决这个侍奉天子中的“语音不通”问题,从太祖李成桂开始,直至世宗李祹历经了百馀年的奋斗和探索。

朝鲜李朝开国伊始,就注意到了学习汉音的重要性,於是太祖二年“置司译院,肆习华音”<sup>7)</sup> 然而,“在司译院习华语者,学十年不如到中国奉使数月”<sup>8)</sup>

这让世宗大王再一次深深地感到“汉音有关事大,不可不虑”<sup>9)</sup>,於是他企图把司译院的学生派往北京留学,以补司译院之不足,可是这一个计划又遭到了明朝的拒绝<sup>10)</sup>,最後,在无奈之下,只得借出使明朝之机,选派司译院的学生以随从的身份,去北京偷学汉音,即所谓“到中国奉使数月”就连申叔舟被奉旨考察汉语也只能派至辽东而已,这种深度的窘境,迫使世宗大王不得不下定决心,寻求自立更生的有效途径—创制《训民正音》,彻底解决“汉音”问题。那麼 世宗大王是怎样做的呢?让我们看一看如下的历史记录。

1443.12 (李祹25) 世宗实录 卷百二 42页 训民正音 原案 创制

5) 《洪武正韵译训·序》:吾东国世事中华 而语音不通 必赖传译

6) <世宗实录> 11年(1429) 9月条“我国事大 莫重译学 上曰译学 实国家重事”

7) 1393 (李成桂2) <李朝实录>卷4太祖二年9月 辛酉条 置司译院,肆习华音. 日本,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昭和31年(1965年)版

8) 1443 (李祹24) 世宗实录 卷95 世宗 二月己巳条“在司译院习华语者,学十年不如到中国奉使数月”

9) 1433 (李祹15) 世宗实录 卷62 世宗 十二月壬戌条“然汉音有关事大,不可不虑,予欲遣子弟於义州使之往来辽东传习汉语”

10) “明朝给世宗的敕书中拒绝朝鲜司译院派生徒到北京学习汉语的请求,世宗招集大臣商议,提出派生徒到辽东学习汉语,大臣回禀世宗‘辽东乃中国一方,语音不正’认为让所选生徒仍然在司译院学汉语,等使臣出使明朝时在将他们送到北京学习汉语,这条循环往复,自然能通晓汉音” 乌云高娃 《朝鲜司译院汉学研究》元史及民族史研究集刊 16辑 南方出版社 2003 慎懋赏 《四夷广记》,收于《玄览堂丛书续集》第88册

1444. 2 (李洵26) 世宗实录 卷百三 19页 韵会 谚解  
1445.春 (李洵27) 世宗实录 卷百七 42页 为洪武正韵译训 申叔舟  
等奉派至辽东。  
1446. 9 (李洵28) 世宗实录 卷百十三 36页 训民正音 完成 颁布  
1447.9 (李洵29) 世宗实录 卷百十七 22页 东国正韵 完成  
1448.11 (李洵30) 世宗实录 卷百二十二 5页 东国正韵 颁布  
1455. 仲春 (瑞宗李弘伟3年) 申叔舟 洪武正韵译训·序 洪武正韵译  
训 完成  
1456. (世祖李瑈2年) 世宗实录卷三世祖二年四月戊申条规定的司译  
院生徒“所习汉音字样请以增进谚文洪武正韵为宗肄习，从之”。

根据世宗的语言政策所做的工作是一揽子事业，《洪武正韵译训》（以下简称《译训》）和《东国正韵》与《训民正音》是不可分割的整体，他包括三套语音系统。即《凡例》中所说的“国、俗言语”系列文字，和“谚音形式的汉语拼音”，《训民正音》代表了“俗言语”系列文字；《东国正韵》代表了“国言语”系列文字；《译训》代表了谚音形式的“汉语拼音”，而《训民正音》和《东国正韵》都是为《译训》的出笼所做的前期准备工作。可想而知，三代君王，数十年的努力，最後的目标，就是为了把《洪武正韵》中的反切音转换成为韩国人熟悉的，谚音形式的汉语拼音，就是为司译院提供“所习汉音字样”，就是要自力更生，彻底解决“语音不通”问题。

既然付出了如此巨大的努力，按理问题应该得到解决了。可是，作为社会意识形态的语言，有其自身的独立性，往往不以人的意志为转移，特别是不以君王的意志为转移。人们在学习第二语言时，为了书写的便利和快捷，为了容易学习和理解，总是在有意识无意识中用自己熟识的文字符号去进行记录，乃至形成自己的语言系统，这种历史在韩国与汉字输入的同时，已有上千年的历史，崔世珍将其集大成於“汉训谚音”并且运用於汉语教学。

谚音形式的汉语拼音，在教学中遇到了“初学虽资师授 率多疑碍”<sup>11)</sup>的难题，让老师教都教不明白，好一个“率多疑碍”，将三代君王，几十年的努力，化为泡影，使朝鲜王朝陷入了更加深度的窘境。在这种危难时刻，崔世珍的《翻老朴》应运而生。最後就是这个《翻老朴》为朝鲜王朝彻底解决了

11) 《翻譯老乞大樸通事凡例》諺音條。

那个困扰一个多世纪的“语音不通”的难题。赢得了，“老乞大、朴通事等书，至今学译者如指诸掌，不烦寻师。”<sup>12)</sup>的美誉。

#### 4、《凡例》

崔世珍为什么置国家创制的谚音形式的汉语拼音於不顾，而另行转换成“汉训谚字”呢？《凡例》说明的理由有三：

1)作为汉语学习主体的韩国习得者，对“俗语”系列文字比较熟悉，但是他们对“国言语”系列文字却较为陌生。

2)如果说他们对《东国正韵》式的“国言语”系列文字较为陌生，那么，他们对《洪武正韵译训》式的“汉语拼音”，就更加陌生，而且特别难学，甚至有教师教，也学不明白。

3)“汉音谚字”虽然是国定的“所习汉音字样”但是它作为目的语的化身，是在当局的“然不敢轻有变更”思想指导下，最终“使七音四声一经一纬 竟归於正”<sup>13)</sup>落入了《洪武正韵》音系的产物。为了使其担负起目的语的职责，需要指出并剔除“古今南北杂糅的”<sup>14)</sup>的内容。以适应汉语教学的需要，指出部份即是《凡例》；而被剔除部份即是“汉训谚字”。

《凡例》还介绍了如何将“汉音谚字”转换成“汉训谚字”的具体过程。崔世珍称这一个过程为“反译”。“反译”不同於翻译<sup>15)</sup>，他们之间既有相同之处，又有不同之处。相同之处是他们都是“将一种相对陌生的表达方式，转换成相对熟悉的表达方式的过程。”不同之处是“翻译”所转换成的相对熟悉的表达方式是独立的表达方式；而“反译”所转换成的相对熟悉的表达方式是而非独立的表达方式，即语言处於中韩两国语言的中间阶段，表达停留在过渡时期，它还有待於被反译的“在左者”与之相辅相成才能够共同完成表达的整个过程，实现语言的目的化。因此我们说“汉训谚字”同时兼有中国语言和韩国语言的特点，但又不是其中的任何一个，是第二语言教学理论所说的中介语<sup>16)</sup>。

12) 小倉進平《朝鮮語學史》586頁

13) 参见《洪武正韵译训·序》

14) 1996年王力的《中国语言学史》也写道：“《洪武正韵》……是古今南北杂糅的一部韵书。

15)有的学者把“反译”这个术语，直接视为翻译，疑是不够准确，参见 郑光《译学书研究》(2002) 251页和259页。

16) 20世纪70年代初，对比分析语言教学原理，因无法有效指导实际教学与学习，

当前,中韩两国学术界对《凡例》的注释只有李敦柱先生的〈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考”〉(以下简称《凡例考》)一家<sup>17)</sup>,可是在这一家的注释中,对“汉训谚字”这样的重要内容居然只字未提,我们不免有些费解。还是朱星一先生看得比较准确。他认为当前学术界的研究存在“不足之处”<sup>18)</sup>。於是笔者怀疑李敦柱先生的《凡例考》是否也存在“不足之处”呢?

#### 5、《凡例考》中,存在的“不足之处”

《凡例考》中的大量取证和注释为我们理解《凡例》起到了引领的作用,实在是难能可贵的。不过它也确实存在一些“不足之处”,笔者认为主要存在以下四个方面的不足:

1)《凡例考》存在遗漏。大到遗漏了《凡例》标题,即“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小到遗漏了对关键术语的解释,“反译”这个术语在不足千言的《凡例》中先後引用了十三次之多,可是《凡例考》居然未予解释,不能不说是一种不足。

2)仅凭推测任意修改原著,修改处达四处之多。

A. 将国音条的“去国入声”任意修改为“去声入声”

B. 将“今之反译汉字下在左谚音”修改为“今之反译汉字下在右”

C. 将“今之反译 书正音於右 书俗音于左”修改为“今之反译 书正音於左 书俗音于右”

D. 将“今书正音加 △ 之字於右”修改为“今书正音加 △ 之字於左”

3)句读不够恰当。例如:将“今之反译汉字下在左谚音, ...”,句读为“今之反译汉字下在右, 谚音...”,还有句读不到位的现象,例如:“国、俗

---

受到了众多语言学家的批判。在这个背景下,以学习的主体和客体作为研究重点的中介语理论出现了,为第二语言习得研究带来了新的曙光。参见盛炎著《语言教学原理·第五章·第四节对比分析在语言教学中的作用及局限性》(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1998)

17)李敦柱,〈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考”(1)〉(《语文论丛》10·11,1989)和李敦柱,〈翻译老乞大·朴通事 凡例“考”(2)〉(《湖南文化研究》18,1988)

18)朱星一,〈朝鲜早期韩中译音资料中出现的中国语音的标记形式研究〉《中语中文》第38辑(2006)中文提要:“关于朝鲜时代的汉语译音资料,已经有很多学者进行了研究,并取得了巨大成果。但是,迄今为止,这方面的研究仍存在著一些不足之处,主要表现在:一是研究不够深入,大部份的研究是从语音体系的外部进行的,往往不能体现出实际语言的全貌;二是有些研究直接接受了他人未经验证的论点作为定论,这种做法非常危险,因为这样得出的结果会违背历史事实。”

言语”因句读不到位，理解为“国之俗言语”等等。

4)翻译不到位。例如：“凡本国语音”的“凡”字和“庶合时音矣”的“庶”字，这些虚词翻译不到位。

《凡例考》产生不足的原因，笔者认为有二：

1)拘泥于学术界某些成见。例如，把“在左者”视为“正音”；把“在右者”视为“俗音”。

2)李先生没能体会申叔舟把韵书音称为“正音”的真实内情，盲目地将其与《翻老朴》中的“正音”概念机械地等同起来。

以上的不足，遮掩了把“所习汉音字样”反译成为“汉训谚字”的真实原因。

那么，崔世珍为什么这样做呢？那自然是为了突出以学生为中心的原则，用学生“已知”的谚音，给汉字训音，让学生通过“已知”去感知“未知”，同时还配备了教学参考书和辞书，崔世珍的教学方法不亚于现代意义上的教学方法<sup>19)</sup>，从这个角度去认识，崔世珍不但很好的履行了其“译官”和教授的职责，而且，为我们留下了丰富而宝贵的第二语言教学研究的资料。下面，就让我们走进《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注释。

## 二、《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注释

### 第一条 国音<sup>20)</sup>

#### ① 句读和注释：

19)鲁宝元，〈从汉语作为第二语言在朝鲜半岛教学的历史看〈老乞大〉的地位，性质和特点〉，《国外汉语教学动态》2004年第1期

20)“国音”，李敦柱认为指韩国的汉字音，即“在左谚音”，参考(李敦柱，〈翻译老乞大·朴通事 凡例考(1)〉，《语文论丛》10·11，1989)；郑光则认为是指“在右”谚音，参考(〈译学书研究〉254页)。笔者根据国音条的内容则认为，“国音”指韩国言语之音，包括“国、俗言语”的语音，“国言语”是以《东国正韵》为代表的官方语言，“俗言语”则是以《训民正音》为代表的民用语言。

“凡本国语音<sup>21)</sup> 有平有仄<sup>22)</sup> 平音哀而安 仄音有二焉 有历而举<sup>23)</sup> 如齿字之呼者 有直而高<sup>24)</sup> 如位字之呼者 哀而安者为平声 历而举者<sup>25)</sup> 直而高者 为去声为入声 故国 俗言语<sup>26)</sup> 平声无点 上声两点 去国入声<sup>27)</sup>一点。今之反译<sup>28)</sup> 汉字下在左 谚音 并依国语<sup>29)</sup> 高低 而加点焉 但通考<sup>30)</sup>内 汉音

21) 本国语音即当时的韩国语音，包括国言语音和俗言语音，故言“凡本国语音”。与下文的“故国俗言语”相呼应。

22) “有平有仄”犹言有声调。平仄的起源，据陈寅恪的说法，四声是按印度三声说发展而来，由周颙、沈约等用完全归纳法归纳出四声，后经王融、刘焯、元兢等用不完全归纳法完成四声二元化，就此诞生平仄。元·周德清《中原音韵》(1324)序：“夫声分平仄者 谓无入声 以入声派入平上去三声也”

23) 历尔举，如齿字之呼者：发音势强而高，为上声。

24) 直而高，如位字之呼者：发音平直而高。为去声、为入声。

25) 李敦柱先生中认为“历而举者”之后应有“为上声”三字，被漏落。其漏落的原因，金完镇(1973:7)认为是“校正者，因不熟悉内容而被毁损。对此，李敦柱先生也表示认同。参见《凡例考1》319页。笔者认为既不是“漏落”也不是“毁损”而是互文的修辞方式，历尔举者的者字与上文的“有历而举 如齿字之呼者”的者字，两者互文。

作为一向以治学严谨而著名的汉学家崔世珍，何以在这千馀字的篇幅中，产生了漏落呢？如果说是把这“凡例”的校正之事，交与了对其内容不熟悉的人，而未经过崔世珍本人去验收。又何言其治学严谨呢？

26) “国俗言语”即国语言与俗语言的缩略语，呼应於上文的“凡本国语音”的“凡”字。此处李敦柱先生在《凡例考1》中，翻译为“我国的俗化语言(우리나라의 속된 언어)”疑是不够准确。

27) “去国入声”李敦柱先生在《凡例考1》中认为是“去声入声”之误字。笔者则认为这是互文的修辞方式，“去国入声”与上文的“直而高者为去声为入声”二者互文。应理解为“国俗言语的去声和国言语的入声”犹言俗言语中本无入声，强调只有国言语才有入声。

28) 反译：即将“汉语”用韩国的“习熟俗韵”，转换为“汉训谚字”的过程。崔世珍把这个过程称其为“反译”。“反译”与“翻译”既有相同之处，又有不同之处。相同之处是他们都是“将一种相对陌生的表达方式，转换成相对熟悉的表达方式的过程。”不同之处是“翻译”所转换成的相对熟悉的表达方式是独立的表达方式；而“反译”所转换成的相对熟悉的表达方式是非独立的表达方式，即语言处于中韩两国语言的中间阶段，表达停留在过渡时期，它还有待於被翻译的“汉语”与之相辅相成才能够共同完成表达的全过程，语言的目的化。因此，反译汉语作为崔世珍的汉语教学法，它所反映出来的语言，我们说她具有中韩两国语言之间的过渡语言性质，即仲介语性质。

29) 国语，指韩国语，当时指“国、俗言语”。

30) “通考”是《四声通考》的缩略语，由申叔舟根据《洪武正韵译训》(1455)简约而成。



字旁之点 虽与此同 而其声之高低 则乡汉<sup>31)</sup>有不同焉 祥见旁点条。”

② 翻译：

凡是韩国语音，不论是国言语，还是俗言语，都有平仄声调。平声调似哀而安；仄声调有两种发音方法，一是像“齿”字那样，发音“历而举”的，二是像“位”字那样，发音“直而高”。“哀而安”的是平声调；“历而举”的是上声调；“直而高”的有去声调和入声调两种声调，在俗言语是去声调，在国言语，有的是去声调，也有的是入声调。因此“国言语和俗言语”的平声声调，在谚字旁边点零个圆点做标记，上声声调，在谚字旁边点两个圆点做标记，去声和国言语的入声调，在谚字旁边都点一个圆点做标记。这一次反译汉字下面左侧的谚音，并且依照国、俗言语的声调，在谚音旁边加点。可是，《四声通考》内的汉音谚字旁边，虽然也加了同样的点，但是它所表示的语音高低的调号却不同，这是由于韩国语言和中国汉音的声调有差异的缘故，详情参见旁点条。

③ 说明：

“国音”是相对于“汉音”的概念。古代韩国的“国音”有两种体系，即国言语体系和俗言语体系，国言语体系是汉字音体系，俗言语体系是谚音体系。本条要点如下：

1、“凡本国语音”的“凡”字，与下文的“故国 俗言语”的“故”字相呼应，“语音”与“言语”相互文。这样就好理解了：“凡本国语音”犹言本国语音不论是俗言语语音，还是国言语语音，均都如何如何。

“故国 俗言语”有些学者将其理解为“国之俗言语”。笔者以为，之所以产生这样的理解是因为，从文章内容上，忽略了“凡”与“故”的前后呼应的上下结构关系，以及“语音”与“言语”相互文的写作技巧。进而从历史上忽略了中世纪朝鲜时代的语言现实”。笔者理解“国俗言语”为“国 俗言语”“国”与“俗”之间有一个句读，即理解为国语言和俗言语的简化书写形式，这样就能将“凡”与“故”以及“语音”与“言语”相互文在文章中的作用体现出来，使文章浑然一体，不至於支离破碎。

31)乡汉，乡是韩国语音，汉是中国汉音。当时朝鲜对明朝实行“事大主义外交”，为了抬高汉音，将本国语音，谦称为“乡音”。例如：“谚音及字旁之点皆从乡语乡音祥见反译凡例”（《老朴集揽·凡例1》）。

2、“哀而安者为平声 历而举者 直而高者 为去声为入声”有些学者认为这个句子应当理解为“哀而安者为平声 历而举者(为上声) 直而高者 为去声为入声”初看,似乎合理,再一看,是“…者,为…”的句式排比,独中间者有“疏漏”,三看,上文有“有历而举如齿字之呼者”,“齿字之呼者”为上声是大家周知的事情。此时想到古文有一种修辞方法叫做互文也叫做互辞,古文对他的解释是“参互成文含而见义”<sup>32)</sup>。於是乎笔者认为这里不是“独中间者有‘疏漏’”,而是上下互文,“有历而举如齿字之呼者”和“历而举者”的两个“者”字互文。

3、“故国 俗言语 平声无点 上声两点 去国入声一点”中的“去国入声”李敦柱先生在《凡例考1》中认为是“去声入声”的“国”与“声”字之误。笔者则有不同的看法。

首先,从文脉上看,可以是“去 国入声”,是去声和国入声的的缩略书写形式。那麼,“国”是什麼意思呢?

再从历史上看,《训民正音·和字解》:“‘谚之入声无定。或似平声。如갸为柱。뉘为肋。或似上声。如:난为谷。:갸为绘。或似去声。如·ㅁ为钉。·ㅁ为口之类。其加点则与平上去同”这证明中世纪朝鲜时代,俗言语体系没有入声,入声只存在於国言语。

於是乎我们可以说,“去 国入声”,是俗言语的去声和国语言的入声的缩略书写形式。这样理解似乎符合文脉,也符合历史。

4、“今之反译汉字下在左谚音并依国语高低而加点焉”这句话不应该句读为“今之反译汉字下在左 谚音并依国语高低而加点焉”而应该句读为“今之反译汉字下在左谚音 并依国语高低而加点焉”。

把握了以上四点,就不至於曲解作者的原意。

## 第二条 汉音

32)互文也叫做互辞,古文对他的解释是“参互成文含而见义”。具体地说,它是这样一种形式:上下两句或一句话中的两部份,看似说两件事,实则互相呼应,互相阐发,互相补充,说的是一件事。例如“秦时明月汉时关”句子中的秦、汉、关、月四字是交错使用的。“秦时明月汉时关”从字面上看是秦时明月照耀汉时关塞之意,但不能理解成“月亮还是秦时的月亮,边关还是汉时的边关”应理解为“秦汉时的月亮照耀秦汉时的关塞”。即“月亮依旧,关塞依旧,却物是人非”更让人感受到战争的残酷和悲怆。

① 句读和注释：

“平声<sup>33</sup>全清<sup>34</sup>次清<sup>35</sup>之音 轻呼而稍举， 如国音去声之呼 全浊<sup>36</sup>及不清不浊<sup>37</sup>之音 先低 而中按 後历 而且缓 如国音上声之呼 上声之音 低而安 如国音平声之呼 去声之音 直而高 与同国音去声之呼 入声之音 如平声浊音之呼 而促急 其间 亦有数音 随其呼势<sup>38</sup> 而字音亦变焉 如 入声轴声本音 :지ㅓ 呼如平声浊音 而或呼如去声为 ·지ㅓ 角字 呼如平声浊音为 ㅓ 而或가ㅓ 如去声为가ㅓ 或呼如上声为가ㅓ 又从本韵거之类。

② 翻译：

阴平声在发音时，“轻呼而稍举”，如同韩国语音去声的发音。

阳平声在发音时，“先低 而中按 後历 而且缓”，如同韩国语音上声的发音。

上声发音时，“低而安”，如同韩国语音平声的发音。

去声发音时，“直而高”，和韩国语音去声的发音一样。

入声发音时，“先低 而中按 後历 而且缓”，如平声浊音的发音，有一个“先、中、後、且、而促急”的过程，在这个过程中声调有一个由“低、按，到历、缓”的变化。同时随著这种声调的变化字音也发生了数个变化。

33) 平声，中古汉语音平·上·去·入中的平声，在近代以後的北方话中分化为阳平声和阴平声。分化的主要条件是声母的清浊。凡是浊声母的字分化为阳平声，凡是清声母的字分化为阴平声。

34) 全清，清音中的一类，指不送气不带音的塞音、擦音和塞擦音。如：“三十六字母”中的帮、非、端、知、精、心、照、审、见、影、晓诸母。现代声母b、f、d、z、s、j、x、g、h，古代属於全清。

35) 次清，清音中的一类，指送气不带音的塞音，塞擦音，如：“三十六字母”中的滂、敷、透、彻、清、穿、溪诸母。现代声母p、t、c、q、k，古代属於次清。

36) 全浊，浊音中的一类，指带音的塞音，擦音和塞擦音，如：“三十六字母”中的并、奉、定、澄、从、邪、床、禅、群、匣诸母。现代汉语普通话中已没有全浊声母，方言中的[b]、[d]等，古代属於全浊。

37) 不清不浊，也叫次浊，浊音中的一类，指带音的鼻音，边音和半母音，如：“三十六字母”中的明、微、泥、娘、疑、喻、来、日诸母。现代声母n、y、l，古代属於次浊。

38) 呼势，即下文所说的“声势”。“声势者，韵也”。见 章炳麟《国故论衡·音理论》：“韵纽音，慧琳《一切经音义》称梵文阿等十二字为声势，迦等三十五字为体文。声势者，韵；体文者，纽也。”转引自（吴欣欣，《多功能汉语拼音词典》书海出版社（2001）182页

例如：入声“轴”字，本音“：지ㄷ”发音像平声浊音，或者发音像去声“·지ㄷ”入声“角”字，本韵“거”发音像平声浊音为“교”、“가ㄴ”又像去声为“가ㄴ”还像上声为“가ㄴ”。

### ③ 说明

本条结合中古汉音在近代以来北方话平分阴阳和入派三声等的变化，说明了汉音调值与国音调值的对应关系，含蓄地指出了“在左者”，“汉音谚字”没有反映汉音在近代以来所发生的重大变化。

中古汉语音，平、上、去、入声中的平声，在近代以后的北方话中分化为阳平声和阴平声。分化的主要条件是声母的清浊。凡是浊声母的字分化为阳平声，凡是清声母的字分化为阴平声。

阴平声无点，近似于国音去声一点；阳平声也无点，近似于国音上声两点；入声一点，近似于国音无点或一点；唯有去声国汉音皆一点。

总之，作者通过汉音与国音的比较，引出了中古汉音在近代以后的北方话中发生的诸多变化，含蓄地指出了“汉音谚字”需要跟上这些变化。

## 第三条 谚音

### ① 句读和注释：

“在左者 即通考所制之字<sup>39)</sup> 在右者 今以汉音 依国 俗撰字之法 而作字者也<sup>40)</sup> 通考字体 多与国 俗撰字之法不同 其用双字为初声<sup>41)</sup>及 ㄹ ㄴ 为终声<sup>42)</sup>者 初学虽资师授 率多疑碍 故今依俗撰字体而作字 如左云 如通考内 齐찌 其끼 皮뵈 调따 愁쓰 艾호 着짜 今书 찌为치 끼为키 뵈为피 따为타 쓰为츠 호为하 짜为조 为자之类 ㄱ

39) “通考所制之字”即《训民正音》系列，汉音《洪武正韵译训》体系文字。

40) 国 俗撰字之法：是国音撰字之法和俗音撰字之法的合称。‘前者是国言语《东国正韵》体系文字；后者是俗言语《训民正音》体系文字。

41) “双字”汉音谚字31母，有9个浊音皆用双字标音。例如：群ㄱ、定ㄷ、并ㅃ、非ㅆ、从ㅈ、床ㅉ、匣ㅊ、邪ㅅ、禅ㅆ。反译为汉训谚字16个半母，用次清音溪、透、旁、清、晓 和全清音“心”以及轻唇浊音“非”和半个次浊音“奉”所谓半个是因为教材中只保留了“无、文、万、尾”四个音。

42) 初声指韩国语声母；中声指韩国语韵母的韵头和韵腹部分，终声指韩国语韵母的韵尾部分。

ㅈ ㅊ ㅌ ㅎ 乃通考所用次清之音 而全浊初声之呼 亦是之 故 今之反译全浊初声 皆用次清为初声 旁加二点 以存浊音之呼势 而明其为全浊之声”

② 翻译：

如前所说在左侧的谚音，就是当局编撰《洪武正韵译训》及其简本《四声通考》时，所制的汉音谚字，它是当局规定的司译院生徒“所习汉音字样”。在右侧的谚音，是崔世珍依据汉音，依俗撰字之法，反义的“汉训谚字”。汉音谚字与汉训谚字是不同的。例如：汉音谚字，用复辅音做声母；用新造的符号“ㅈㅊ”做辅音韵尾。因此初学者，即使有老师传授也仍然有许多疑难和障碍，所以，现在依据俗撰字体，反义了“汉训谚字”。

例如《四声通考》里的，齐ㅈㅊ、其ㅈㅊ、皮ㅈㅊ、调ㅈㅊ、愁ㅈㅊ、艾ㅈㅊㅈㅊ、着ㅈㅊ等字，现在反译 ㅈㅊ为ㅈ、改写ㅈㅊ为ㅈ、改写ㅈㅊ为ㅈ、改写ㅈㅊ为ㅈㅊ、改写ㅈㅊ为ㅈㅊ、反译ㅈㅊㅈㅊ为ㅈㅊ、改写ㅈㅊ为ㅈㅊ，为ㅈㅊ等等。

这是因为这些ㅈ、ㅈㅊ、ㅌ、ㅌ、ㅎ汉音谚字所用的次清音与全浊声母的发音一样的缘故。所以我们反译全浊声母，全部改用次清音作声母，同时在它的旁边加上二点，用以保存浊音的韵调，知道它原是全浊声母。

③ 说明

如前所说《四声通考》的前身是《译训》，而《译训》作为《训民正音》的一部份，它所创制的文字是世界上较早的汉语注音文字。它以注音准确的特点，成功地在朝鲜取代了用汉字切音的时代，无疑是历史的巨大进步。然而，遗憾的是它如同《洪武正韵》在大明并没有得到很好地贯彻执行一样，在韩国也没有得到很好地贯彻执行。这是因为人们为了书写的便利和快捷，为了容易学习和理解，人们总是在有意识无意识中用自己熟识的文字符号去进行记录，乃至形成自己的语言系统的缘故。韩国人学习汉语的这套语言系统，与《译训》的注音系统比起来，虽然没有它精确，然而在韩国的历史上，人们选择了前者。

在以上的历史背景之下，崔世珍在他的汉语教材中根据国策将《译训》式的“字样”尊置于左侧，权切当做目的语样本，教学实践证明由于“字样”使用了“双字”声母以及“ㅈㅊ”式的复杂符号充当韵尾等原因，教学效果极差，对于初学者即便是有教师教授也仍然是存在明显的疑难。因此崔世珍果断地

改用了韩国人自己的固有语言,以简练的文字符号反译了“在左者”即“字样”例如:

齐 ㄷ → 치  
其 ㄱ → 키  
皮 ㅍ → 피  
调 ㅌ → 타  
愁 ㅈ → 초  
爻 ㅎ → 하  
着 ㅈ → 초, 차

崔世珍称其为反义的“汉训谚字”。

#### 第四条 旁点 (汉字下 谚音之点)

##### ① 句读和注释 :

在左字旁之点 则字用通考所制之字 故点亦从通考所点 而去声入声一点 上声二点 平声无点 在右字旁之点 则字从国俗编撰之法 而作字 故点亦从国语平仄之呼 而加之 汉音去声之呼 与国音去声相同故乡汉皆一点 汉音平声 全清次清 通考则无点 而其呼 与国音去声相似 故反译则亦一点 汉人之呼亦相近焉 汉音上声 通考则二点 而其呼势 同国音平声之呼 故反译则无点 汉人呼平声,或有同上声字音者焉。汉音平声,全浊及不清不浊之音,通考则无点。而其声势,同国音上声之呼,故反译则亦二点。汉音入声有二音 通考则皆一点 而反译则其声直而高 呼如去声者一点 先低後历 而促急 少似平声浊音之呼者 两点。但连两字 皆上声 而势难俱依本声之呼者 则呼上字 如平声浊音之势 然後呼下字 可存本音 故上字二点 若下字为虚 或两字 皆语助 则下字呼为去声

##### ② 翻译 :

汉字下方,左侧谚字字旁的声调,因为采用了“汉音谚字”,所以其声调也采用了汉音谚字旁点法。即去声入声一点 上声二点 平声无点。

汉字下方,右侧谚字字旁的声调,因为采用了“汉训谚字”,所以其声调也采用了国语声调的旁点法。

“中国汉语语音的去声声调，与韩国语音去声调相同，所以都用了一点。”

“中国汉语语音的阴平声调在“汉音谚字”，虽然标为平声没有点，可是它的发音却与韩国语音的去声调相似，所以反译为“汉训谚字”的时候用一点标注了声调。这样的发音与中国人的发音非常接近。

中国汉语语音的上声声调在“汉音谚字”，虽然标为上声（两点），可是它的发音却与韩国的平声调一样，所以反译为“汉训谚字”的时候无点。”

“中国人发音平声声调的时候，还有一部份与上声声调一样的情况。中国汉语语音的阳平声浊音在“汉音谚字”，虽然标为平声（无点），可是它的发音却与韩国语音的上声调一样，所以反译为“汉训谚字”的时候用二点。”

“中国汉语入声调有两种语音，在“汉音谚字”里未加区别，都点了一点。但是，反译为“汉训谚字”的时候却给予了区分。当汉音“直而高”发音与“汉训谚音”的去声一样的时候，一点；当汉音“先低後厉 而促急”发音有一些像阳平声的时候，二点。”

但是，如果遇到接连两个字都是上声调，其发音很难发出本音的时候，上字的发音发成阳平调，然後再发下字的音，便可以保存本音。所以上字两点。如果下字为虚字，或上下两字都是语助字，那麼，下字就发去声调。

### ③ 说明

本条将汉语中古声调与当时的韩国语十六世纪前後的声调进行了比较，真实地再现了两国语音声调的特点。文中“在左者”的声调代表了汉语声调，“汉训谚字”的声调即反映了十六世纪前後的韩国语的声调。

中古阴平声（全清次清）近似于韩国语的去声；

中古上声近似于韩国语的平声；

中古阳平声（全浊，不清不浊）近似于韩国语的上声；

中古入声“直而高”者近似于韩国语的去声；

“历而举”者（先低後厉而促急）近似于上声；

唯有去声汉韩一致。

以上是汉韩语声调的比较，那麼中古汉语的声调与当时明官话的比较又如何呢？

中古汉语音与明官话音声调对应关系表

中古音	明官話平聲	明官話上聲	明官話去聲	明官話入聲
-----	-------	-------	-------	-------

全清次清	陰平	上	去	陰平、陽平上、去
不清不濁	陽平	上	去	去
全濁	陽平	去	去	陽平、去

以上通过中古汉语声调与当时明官话声调的比较，说明了在左者“汉音谚字”与教学目的语存在差距，需要调整。

### 第五条 非 奉 微 三母

#### ① 句读和注释：

合唇作声为日<sup>43)</sup>，而曰唇重音<sup>44)</sup> 为日之时将合勿合 吹气出声为<sup>45)</sup> 而曰唇轻音<sup>46)</sup> 制字加空圈於日下者 即虚唇出声之义也<sup>47)</sup> 非 奉 二母亦同 但今反译 平声全浊群定并从床匣 六母诸字初声 皆借次清为字<sup>48)</sup> 邪禅二母亦借全清为字<sup>49)</sup> 而此三母 则无可借用之音 故直书本母为字 唯奉母易以非母<sup>50)</sup>。而平声 则势从全浊之呼作声 稍近於<sup>51)</sup> 而至其出声 则为轻 故亦似乎轻母唯其呼势 则自成浊音 而不变焉<sup>52)</sup> 上去入三声 亦皆逼似乎非母而引声之势 则各依本声之等 而呼之 唯上声则呼为去声<sup>53)</sup>。微母则作声近

43)合唇作声为[p]，在现代汉语中，辅音[p]的发音方法是：上下唇紧紧贴住，然後突然放开，一股较弱的气流从中爆发出来，声带不颤动。

44)唇重音，唇重音在现代汉语中叫做重唇音，是唇音中的一类，即双唇塞音和双唇鼻音。如：三十一母中的帮、滂、并、明。现代声母中 /b/、/p/、/m/古代屬於重唇音。

45)为日之时将合勿合 吹气出声为<sup>45)</sup> [f]，在现代汉语中，辅音“<sup>45)</sup> [f]”的发音方法是：上唇触著下齿，紧紧贴住，气流从中摩擦出来，声带不颤动。

46)唇轻音，唇轻音在现代汉语中叫做轻唇音，是唇音中的一类，即唇齿塞音和唇齿鼻音。如：三十一母中的非、奉、微。现代声母中 /f/ 古代屬於轻唇音。

47)汉语分轻重唇音，而“国俗言语”却不分。《东国正韵·序》“如舌头舌上 唇轻唇重 齿头正齿之类 於我国字音 未可分辨”

48)借次清为字，在实际反译中“清、穿”二母合为《东国正韵》的“侵”。例如：象 左音 ㄨㄊㄛ 右音 상, 席 左音 ㄨㄌㄛ 右音 시。

49)邪禅二母 亦借全清为字，在实际反译中“心、审”二母合为《东国正韵》的“戍”。例如：谁 左音 ㄨㄍㄨㄣ 右音 :쉬, 时 左音 `ㄨㄣ 右音 `ㄨㄣ。

50)这一段说明了反译汉音的3个问题。一是唇分轻重；二是浊音清化（全浊平声近於次清，仄声近於全清）；三是奉母归入非母（无、文、万、尾四字除外）。

51)作声…而至於出声：理解为发音时从作口型到出声。

52)不变，指“平声全浊音”“如国音上声”不变。



似於喻母 而四声皆同 如惟字 本微母 而洪武韵亦自分收於二母 ㄹ 或 ㄱ 今之呼 ㄹ 亦归於 ㄱ 此微母 近喻母之验也 今之呼微 或从喻母亦通 汉俗定呼为喻母者 今亦从喻母书之<sup>54)</sup>。

② 翻译：

“ㄹ[p]”是通过“合唇”的办法来发音，发出来的“ㄹ[p]”声，叫做“唇重音”，“ㄹ[f]”是在发音“ㄹ[p]”的基础上，再将双唇“将合勿合，送气为声”，叫做“唇轻音”。造字的时候，在“ㄹ”字的下面“加空圈”就是“虚唇作声”的意思，“ㅁ”、“ㅂ”两个字也是同样的意思。现在，我们把这些“反译”成为“汉训谚字”把“群、定、并、从、床、匣”六个平声全浊音的声母全部用次清音（溪、透、旁、清、穿、晓）代替，“邪、禅”两个全浊音因为没有对应的次清音，所以用全清音（心、审）代替，只剩下“非、奉、微”三个平声全浊音，没有可以代替的音，只好直接使用了，其中奉母并入非母，所以直接使用的只有“非 ㅍ 微 ㅍ”两个声母。（澄诸母）

浊音“非 ㅍ[f]”的发音为平声时，发音像次清音“ㅍ[pʰ]”而实际发音是全清声母帮“ㄹ[p]”。所以汉训谚字为“ㅍ[f]”，只是声调保持浊音不变。

浊音“非 ㅍ[f]”的发音为仄声时，上、去、入三声也都很像“非 ㅍ[f]”母，其声调各依本声之调发音，只有上声调变为去声调。

微母的发音，声调虽然都保持不变，可是声母却发生了“近似於喻母”的变化。例如：“惟”字，本来是微母，可是在《洪武正韵》里，它的发音是“ㄹ ㄴ”或“ㄱ ㄴ”二音，现今（16世纪）发音“ㄹ ㄴ”是“微母近喻母”的验证，现在的微母发音有时候，像喻母也是通行的。在中国的北方话里，凡是原来规定为俗音的喻母字，现在都返俗为正“从喻母书之”

③ 说明

本条论述了“汉音谚字”中的 非母、奉母、微三母反译为“汉训谚字”过程中遇到的唇音分轻重；浊音清化；影、喻、疑母合并等情况。

53) 浊上归去，中古平、上、去、入中的上声，在近代以後的北方话中，有一部份归到了去声之中。其条件是中古上声的全浊声母字。如：蟹、骸、旱、厚、杜、户、柱、父中古是全浊声母的上声字，後来变成了去声。而董、讲、纸、旨、海、軫、淮、隱中古是清声母的上声字，尾、姥、吻、阮、武、有、女、五中古是次浊声母的上声字，都不变成去声，而仍然是上声。

54) 李思敬在《音韵》44页写到：“[v]声母消失，变[ϕ]声母。这个变化不晚於清初。”看来明初就已经有了。

汉语的唇音声母,《切韵》时期只有一套,唐末以後分化为相互对立的两套。合口的三等字变为轻唇音,其余的仍读重唇音。《洪武正韵》的声母中有非、奉、微三个轻唇音,《译训》以此为据也立了三个轻唇音,於是这三个轻唇音也出现于“在左者”上。崔世珍以当时的汉语口语为依据 指出全浊音“奉”母实际已经并入“非”母,换言之“非、奉、微”已经开始合并。而周德清的《中原音韵》(1324)早已把“非、奉、微”完全并为一类。而崔世珍则以当时的口语为依据,在实际反译过程中保留了“无、文、万、尾”四个“微”母字。如果说,汉语“微”母的演变经历了  $m \rightarrow v \rightarrow w \rightarrow u$  的过程。那么,十五、十六世纪北京话“微”母的音值是什麼呢?王力先生认为在当时的北京话中“微”读为  $v$ ,并指出:“这个  $v$  从十四世纪《中原音韵》时代起,一直保持到十七世纪。然後才变为半元音  $w$ ,最後成为元音  $u$  (韵头或全韵)”<sup>55)</sup> 然而,从本条看来,北京话中“微”读为半元音  $w$ ,进而读为元音  $v$  的时间应该提前一个世纪。崔世珍指出:“微母则作声近似於喻母”,又说“今之呼  $\text{ㄅ}$  亦归於  $\text{ㄨ}$ ”,这對於说明北京话中“微”母的发展变化过程,是很重要的历史资料。崔世珍精通汉语音韵,又曾几次到过北京,研讨声韵问题,考察口语实况,他发现当时民众的口语中“微”和“喻”已经不能分辨了。

## 第六条 清浊声势<sup>56)</sup>之辩

### ① 句读和注释 :

全清 见端帮非精照审心影九母 平声 初呼之声 单洁不岐<sup>57)</sup> 而引声之势<sup>58)</sup> 孤直不按 上去入三声 初呼之声 亦单洁不岐 而引声之势 各依三声高低之等 而呼之。次清 溪透清滂穿晓六母 平声 初呼之声 岐出双声 而引声之势 孤直不按 上去入三声 初呼之声 亦岐出双声<sup>59)</sup> 而引声之势 各依三声

55) 参见《汉语史稿》第122页。

56) 章炳麟,《国故论衡·音理论》:“韵纽音,慧琳《一切经音义》称梵文阿等十二字为声势,迦等三十五字为体文。声势者,韵;体文者,纽也”。转引自(吴欣欣,《多功能汉语拼音词典》书海出版社(2001)182页)

57) 单洁不岐即不送气音,岐出双声即送气音。(陈植藩)

58) 引声之势,即声势。

59) 岐出双声,陈植藩先生认为,朝鲜语中,辅音  $p$ 、 $t$ 、 $k$ 、 $ts$  和  $h$  连接时,两者互相结合读为  $ph$ 、 $th$ 、 $kh$ 、 $tsh$ 。崔世珍把送气辅音说成“岐出双声”

之等 而呼之。全浊 群定并奉从邪床禅八母 平声 初呼之声 亦歧出双声 而引声之势 中按後历 上去入三声 初呼之声 逼同全清 而引声之势 各依三声之等 而呼之 故与全清难辨 唯上声 则呼为去声 而又与全清去声难辨矣。不清不浊 疑泥明微喻来日七母 平声 初呼之声 单洁不岐 而引声之势 中按後历 初呼则似全清 而声终 则似全浊 故谓之不清不浊 上去入三声 各依三声之等 而呼之 唯来母初呼 弹舌作声可也 初学与泥母 混呼者有之 误矣。匣母四声 初呼之声 歧出双声 与晓母同 而唯平声 则有浊音之呼势而已 上去入三声 各依三声之等 而呼之 大抵 呼清浊声势之分 在平声 则分明可辨 馀三声 则故难辨明矣。

② 翻译：

全清声母的“见、端、帮、非、精、照、审、心、影”等九个平声字，发为不送气音，读阴平，即高平调。上声、去声、入声也发不送气音，并分别按照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

次清声母的“溪、透、清、滂、穿、晓”等六个平声字为送气音，读阴平，即高平调。上声、去声、入声也发送气音，并分别按照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

全浊声母“群、定、并、奉、从、邪、床、禅”等八个平声字，发为送气音，读阳平，即高升调。上声、去声、入声也发送气音，和全清声母相同，并分别按照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只有浊上变去，和全清的去声字没法分辨。

不清不浊声母“疑、泥、明、微、喻、来、日”等七个平声字，发不送气音，读阳平，即高升调。上声、去声、入声字也分别按照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只有“来”母发音时发作弹音，可是，有些初学的人，往往与“泥母”相混绕，这是不对的。

全浊声母“匣”母和全清声母“晓”母相同，都是送气音。只是“匣”母平声字读阳平，保留浊音的特点，上声、去声、入声字分别按照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大体上，清浊音的发音，根据平声来分辨，比较容易，根据上去入声来分辨，却很难分辨清楚。

③ 说明

本条内容是声母发音时的浊音清化问题。《广韵》三十六母中有十个全浊声母。《洪武正韵》“澄”并于“床”，还剩九个全浊音，申叔舟全部用于

《译训》，可是在《译训》序中却说到：“全浊之声，平声近於次清，上、去、入近於全清，世之所用如此”。还在《四声通考凡例》中指出：“全浊上、去、入三声之字，今汉人所用初声与轻声相近，而亦各有清浊之别，独平声之字，初声与次清相近”既然当时的汉语北京话已经没有全浊音，为什麼《译训》还要保留全浊声母呢？因为《洪武正韵》是明太祖朱元璋下令编撰的，是官方认定的韵书，所以《通考》把它当作正音的依据。申叔舟的《译训》属於《训民正音》的范畴，也是官定的韵书，官对官不可“轻有变更”，但是，崔世珍编撰的是教材，从学习的角度，突破了《洪武正韵》的框框，依俗归正，大胆地反映了汉语口语的实际语音。

全清声母平声字发为不送气音（单洁不岐）读阴平，即高平调。上、去、入声字也发不送气音，并分别按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

次清声母平声字发为送气音（歧出双声）读阴平，即高平调。上、去、入声字也发送气音，并分别按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

全浊声母平声字发为送气音，读阳平，即高升调。上、去、入声字发不送气音，和全清声母相同。并分别按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浊上变去，和全清的去声字没有分辨。

不清不浊声母平声字发为不送气音，读阳平，即高升调。上、去、入声字分别按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来”母发音时弹舌作声。

全浊声母“匣”和全清声母“晓”相同，都是送气音。但“匣”母平声字读阳平，保留浊音特点。上、去、入声字也发不送气音，并分别按各自的调类和调值发音。

总之，全浊声母消失了。这样的汉语口语的实际语音，崔世珍将它如实地反映在“在右者”的“汉训谚字”上，并且作为教学的“正音”，加以运用，而对於来自《译训》的所谓“字样”从形式上将它作为教学的目的语，尊置于“在左者”，而在实际教学中仅仅是将其视为“俗音”而已。这不能不说是崔世珍的一个创举。

## 第七条 ㄹ 为终声

### ① 句读和注释：

蒙古韵<sup>60)</sup>内 萧爻尤等 平上去三声 各韵及药韵 皆用 ㄹ 为终声 故通考



尾，所以“汉音谚字”也按照蒙韵把“萧、爻、尤”等韵的平、上、去三声各韵的，都用“ㄹ”作为韵尾。只有“药”韵是以“ㄹ”作为韵尾的，16世纪汉语的现实语音，“药”韵诸字均与“萧、爻”韵相同，蒙韵制字也没什么差错。可是，不知道为什么申叔舟却改用“ㄹ”作韵尾。崔世珍还发现，韵尾“ㄹㄹ”的读音与“ㄷㄷ”和“ㄱㄱ”近似，于是在反译过程中把韵尾“ㄹㄹ”简化为“ㄷㄷ”和“ㄱㄱ”，从而进一步简化了用字。

## 第八条 正俗音<sup>61)</sup>

### ① 句读和注释：

凡字有正音 而又有俗音者 故通考 先著正音<sup>62)</sup>於上 次著俗音<sup>63)</sup>於下 今见汉人之呼 以一字而或从俗音或从正音 或一字之呼 有两三俗音 而通考所不录者多焉 今之反译书正音於右 书俗音于左<sup>64)</sup> 俗音之有两三呼者 则或书一音於前 又书一音於後 而两存之。大抵天地生人 自有声音 五方殊习 人人不同 鲜有能一之者 故切韵<sup>65)</sup>指南<sup>66)</sup>云 吴楚伤於轻浮 燕蓟失於重浊

61) 正俗音，即反译的正、俗音。正音，“今按本国《四声通考》概以正音为本”即“五方之人皆能通解者 斯为正音也”是为汉训谚字之音；俗音，指《洪武正韵译训》中的俗音，是为汉音谚字之音。

62) 《四声通考》的正音，“以图韵诸书及中国人所用 定其字音。”者为正音。

63) 《四声通考》的俗音，“又以中国之广用 而不合图韵者 逐字书俗音於反切之下。”者为俗音。

64) 今之反译 书正音於右 书俗音于左，反义的正音不同於《四声通考》的正音，前者以“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为正音也”，後者“以图韵诸书及中国人所用 定其字音。”者为正音。李先生对此未加区别，认为原著左右颠倒，产生了“误字”。（今之反译 书正音於右（左의 误：笔者） 书俗音于左（右의 误：笔者）《凡例考2》12页）

65) 《切韵》：陆法言著，五卷。原书已失传。近几十年来，得见几种唐写本韵书，如敦煌《切韵》残卷、王仁昫《刊谬补缺切韵》等，因而考定《切韵》体例是以平、上、去、入四声分卷，平声因字多而分作两卷，故共为五卷，辖一百九十三韵。每韵之中，同音字列在一起，加反切注明读音，并注明同音字数，每字下或有训释，这样的同音字组叫“小韵”。本书以当时洛阳音为主，酌收古音及其他方言。为唐宋韵书的鼻祖。它是研究汉语汉音发展承前启後的一部重要著作。

66) 《切韵指南》元刘鉴撰。全称《经史正音切韵指南》。本书是以《四声等子》为蓝本加以改革而成的。分十六摄二十四图，比《四声等子》多四图。纵列二十三行，以统括“三十六字母”，又与《韵镜》相同。本书是研究宋元间语言变化的重要资料。

秦陇去声为入 梁益平声似去江东河北 取韵尤远 欲知何者为正声 五方之人皆能通解者 斯为正音也 今按本国通考 概以正音为本 而俗音之或著或否者 盖多有之 学者毋为拘泥焉。

② 翻译：

汉字的音，有正音，也有俗音。《四声通考》把凡是既有正音又有俗音的，先把正音写在上面，然后再把俗音写在下面。

而现如今我们看到，汉人说话发音用同一个字，有时候发俗音，有时候发正音，还有的时候一个字音有两三个俗音。这些现实语音《四声通考》有很多都没有收录。

所以现今的反译把这些现实语音作为正音书写在汉字下面的右侧，把那些《四声通考》的俗音书写在汉字下面的左侧。而一个字有两三个俗音的，有的写在前面，有的写在后面，分别进行了收录。

人一出生大都会发声音。可是很多地方的人，说话习惯却都不一样，很少有人都能听得懂。因此《切韵指南》说：吴楚伤於轻浮、燕蓟失於重浊、秦陇去声为入、梁益平声似去江东河北，取韵尤远。那么哪个声音才是“正声”呢？多数地方的人都能听得懂的语言，它才是“正音”。现今按照本国《四声通考》，一律以“正音”为根本，而俗音虽然有收录，但是没有收录的也有很多。初学的人不要受到他的局限。

③ 说明

《凡例》先後用了“如”、“如同”、“相似”、“相近”、“少似”、“稍近、似乎、逼似乎”、“逼同”等十来个表达近似的概念，一而再，再而三的强调“在右者”，近似于“时音”。那麼，它到底近似到什麼程度呢？在本条做出了交代，即“欲知何者为正声 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为正音也”原来近似的标准是是否能够进行正常的语言交际为标准的。进而，崔世珍还进一步认为凡是够正常的进行社会交际的语言，都可以被看做是“正音”。这不仅让我们想起了，唐末诗人胡曾的《戏妻族语不正》诗：“呼‘十’却为‘石’，唤‘针’将作‘真’。忽然云雨至，总道是天‘因’。”唐代“十”收音/b/，“针”、“阴”收音是/m/；“石”收/g/“针”、“因”收/n/。“针”、“因”以/n/收尾正是北方方言的特点，这在当时是被嘲笑的。可是历史作弄人，昔日被嘲笑的发音，在现代却成了

标准的“正音”，而昔日的“正音”，今天却成了被纠正的对象。崔世珍的依俗归正，不正是这样的“作弄”吗？这就是历史。

针对“正音”的概念，一般学者几乎都认为，《翻老朴》的“正音”与《洪武正韵译训》及《四声通考》里的“正音”是同一个概念。唯有朱星一先生提出了中肯的意见：“他利用同一个术语表现了两个不同的概念。”至於是怎样不同呢？他接著说：“崔世珍的“正音观”问题有待於进一步考核。”那麼，我们就来考核一下，这两个不同的概念。

逻辑学理论认为概念是反映客观物件的本质属性的思维形式。每一个概念都有一定的外延和内涵。概念的外延就是适合这个概念的一切物件的范围，而概念的内涵就是这个概念所反映的物件的本质属性的总和。

当我们研究崔世珍的正音观的时候，也必须正确把握正音这个概念的确切涵义和所指的物件范围。

如果说正音的内涵是标准音。那麼，外延是什麼呢？

外延往往因时因地因对象的不同而不同。

当年编撰《洪武正韵》之际，正音的外延是，以“五方之人皆能通解者斯为正音也<sup>67)</sup>”。而申叔舟，崔世珍等人编撰《洪武正韵译训》，《四声通考》，《四声通解》等韵书的时候，正音的外延就发生了变化，选择正音的标准却是《洪武正韵》的反切音。因为翻译是以《洪武正韵》为蓝本，所以“字之取舍，音之正俗 专以洪武正韵为准<sup>68)</sup>”，“不敢轻有变更<sup>69)</sup>”。可见同样是“正音”，其外延因时因地因对象的不同而不同。例如，同是崔世珍一人，到了编撰汉语教材《翻老朴》的时候，正音的外延就又一次发生了变化。崔世珍的教学目的是，培养习得者的社会语言交际能力，所以他把正音的外延确定在“五方之人皆能通解者斯为正音也”上，这个外延虽然不同於他编撰《四声通解》时候的外延，却传承了《洪武正韵》关于正音的基本精神。对于以习得汉语为目标的汉语教科书来说，这无疑是正确的选择。可见同一个内涵，即便由同一个人运用，其概念的外延也同样因时因地因对象的

67) 《洪武正韻·凡例》“人居異區五方殊習而聲之所發乃有剽疾重遲之別，故有字音之呼萬有不同也 欲之何者爲正聲 五方之人皆能通曉者斯爲正音也。”

68) 參見《四聲通解·凡例》第二條。

69) 申叔舟，《洪武正韻·序文》：“夫洪武韻 用韻併析 悉就於正 而獨七音 先後不由其序 然不敢輕有變更”（1445）



不同而不同。申叔舟等编撰韵书时以韵书音为“正音”，崔世珍在编撰教材时以现实语音为“正音”。这正是朱星一先生所说的“他利用同一个术语表现两个不同的概念”

现在我们来阅读“今之反译书正音於右 书俗音于左”，也就不难理解了。书於右的正音是崔世珍教学用的现实语音，书於左的俗音是来自于《译训》的所谓“字样”崔世珍为了维护当局的颜面，为了维护与天子国的“事大主义外交”，为了教学用标准语音的需要把所谓的“字样”，崔世珍一面从形式上将它作为教学的目的语，尊置于“在左者”，而在实际教学中仅仅是将其视为“俗音”，一面在《凡例》中将其与现实语言的不合之处一一道明。

## 第九条 支 纸 置 三韵内 齿音诸字

### ① 句读和注释：

通考贄字音ㄗ 注云俗音ㄗ △ 韵内齿音字 口舌不变 故以△为终声 然后可<sup>70</sup>尽其妙 今按齿音诸字 若从通考加△为字 则恐初学难於作音 故今之反译皆去△声 而又恐其直从去△之声 则必不合於时音 今书正音加△之字於右 庶使学者 必从正音用△作声然后 可合於时音矣。通考凡例云 一、一、之间 今见汉俗於齿音着一诸字例 皆长於用、为声 故今之反译 亦皆用、作字 然亦要参用 一、一、之间读之 庶<sup>71</sup>合时音矣。

### ② 翻译：

《四声通考》“贄”字，先著正音“ㄗ”，次注俗音“ㄗ△”。支、纸、置三韵以内的齿音诸字，发音时口舌不变，因此以“△”为韵尾，然后才可能发音准确。

这次反译齿音诸字，如果按照《四声通考》的汉字谚音加“△”作字，就恐怕初学时，发音困难，因此这次反译时把“△”声都去掉，这样又恐怕初学时直接按照去掉“△”声的字发音，那么发音就与现实语音不同。因此这次

70) ‘然后可尽其妙’与下文的‘然后可合於时音矣’都是未然形态，不是肯定的判断句。

71) 庶：幸得，幸而。“庶几哉！积逾淮弗为积矣。明，徐光启《甘薯疏序》”。“庶合”才幸好符合之义，因为上文有两个的推量型“可”，所以有“才”。

把正音加“△”之字写在右边，务必使初学的人按照正音，用“△”发音，然后才可能符合现实语音。

与此同时我们注意到《四声通考·凡例》：“一、一、之间”，最近我们还看到“汉俗於齿音着一诸字例”都善於使用“、”作声，所以这次反译，也都使用“、”作字。然而仍然要参考，“一、”之间来发音，这样才幸好符合现实语音。

### ③ 说明

本条论述了在左者“俗音”汉音谚字，如何反译成为在右者“正音”汉训谚字的过程。

整段文字的论述采用了“可尽其妙”、“可合时音矣”、“庶合时音矣”比较递进的论述方式，

首先论述在左者“俗音”汉音谚字的“△”在“支 纸 置 三韵内 齿音诸字”之中的韵尾作用是“可尽其妙”，在肯定其作用的同时，又虑到用“△”字反译“则恐初学难於作音”，不用吧，“则必不合于时音”，无奈之下，只有“今书正音加△之字於右 庶使学者 必从正音用△作声然后 可合於时音矣”这是崔世珍不情愿的无奈之策。后来在无奈之中“今见汉俗於齿音着一诸字例 皆长於用、为声”，於是乎，“故今之反译 亦皆用、作字”只“要参用 一、之间读之”就能够幸运地“合时音矣”。

如果这样理解，需要把握以下三项内容：

1、整段文字是完整统一的内容，不宜将其人为地划分为两段内容去理解。朴敦柱先生的两段理解法破坏了文章完整性，致使歧义产生，不得不削足适履，任意修改原著。

2、“可合时音矣”是不情愿的无奈之策，动作处於未然状态，仅仅是“可”的范畴。可是慎镛权先生居然认为这段文字的内容与《翻老朴》内容的实际不符<sup>72)</sup>。先生的理解不免让人产生断章取义之嫌。

3、“庶合时音矣”的“庶”是副词，在此处有幸而，幸得之意。是对无奈时，违心地认可“可合时音矣”有了称心的解决方法之後，对欣慰情感自然流露的生动写照。

72) 参见：慎镛权，〈《翻译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中国文学》第42辑（2004）

### 三、结 末

以上我们对《凡例》进行了句读、注释和翻译。对《凡例考》的遗漏进行了补充，和修订。从而揭示了更接近的历史原貌的《凡例》。

《凡例》反映了中古汉音近代以来，北方话所发生的诸多变化。可是“汉音谚字”不包含这诸多变化，作为汉语教材的内容它不够理想，从培养汉语翻译人才的目的出发，它也有问题。然而，它确实是来自于《洪武正韵》的国定“所习汉音字样”，崔世珍对其不敢轻有变更，为了协调“汉音字样”与现实语音之间的矛盾，崔世珍采取了一个汉字下垂二音的办法。一面把所谓的“字样”拿过来尊置于相应汉字下面的左侧，顺应韩国当局“所习汉音字样”要求，从形式上将其作为标准音，而在实际教学中则视其为“俗音”；一面以韩国人民的习熟俗韵反译汉音，使之成为“汉训谚字”并将其置于相应汉字下面的右侧，顺应了汉语现实语音的发展变化，并且大胆地摆脱“所习汉音字样”的束缚，将它作为“五方之人皆能通晓”的“正音”。

然而所谓的正音并非标准音，而是仅限于社会语言交际的“通晓”功能。它就像《切韵指南》所说的“吴楚伤於轻浮 燕蓟失於重浊 秦陇去声为入 梁益平声似去 江东北 取韵尤远”那样有它自身的特点。例如“正音”的声调，阴平声像韩国语音的去声；阳平声像韩国语音的上声；上声像韩国语音的平声。另外还有齿头音和正齿音不分的现象<sup>73)</sup>。尽管有这些语音差异，但是，仍然能够维持交际的功能。这就是崔世珍教学语音的特点，所学的虽然是汉语，但是，这个汉语有韩国味，如同标题所说，汉训谚字皆从俗撰 字旁之点亦依乡语。总之，《凡例》强调了三件事情。

第一件事情：“在左者”是形式上的目的语，而在实际教学中则是“俗音”。这是因为它来自于《洪武正韵》，《洪武正韵》是朱元璋定都南京时钦定的韵书，无疑是代表了大明帝国的国音。然而《洪武正韵》在大明国

73)关于齿头音和正齿音部份的现象，康信沅和胡明扬二人认为崔世珍的原文在‘右音’里“ㄷ”组与“ㄸ”组本来分别得很清楚，后来传写人不理解“ㄷ”组与“ㄸ”组的区别而造成混而不分的现象。因此他们将齿音仍然依‘左音’或北方音/ts/组与/tʃ/组的系统分别逐字订为“ㄷ”组或“ㄸ”组。对这种看法康寔镇先生认为是错的，笔者赞同康先生的意见。详见：康寔镇著《〈老乞大·朴通事〉研究》第77页，（台湾学生书局，（1985））

内，并没有得到很好地贯彻执行，特别是在1421年朱棣迁都北京之後，俗音在社会上进一步流行，甚至於影响到官话的形成<sup>74</sup>。因此，在《洪武正韵译训》时期，大明的国音，虽然在形式上仍然是《洪武正韵》，而实际上是由俗音充当的。世宗大王不可能不知道这一现实，但是大王岂能干涉天子的内政，在确定明朝国音的问题上只能就正避俗，非《洪武正韵》莫属了。在语音的正俗问题上虽然采取了补救措施，但是，最终还是没能摆脱《洪武正韵》音系的框架束缚，这正是所谓“字样”却“古今南北杂糅的”的真正原因。崔世珍虽然深谙此情，但是为形势所迫，不得不利用所谓的“字样”充当目的语。从另外一个角度，也需要有一个目的语，不然，中介语焉存？

第二件事情：“在右者”是近似的“时音”。《凡例》先後用了“如”、“如同”、“相似”、“相近”、“少似”、“稍近、似乎、逼似乎”、“逼同”等十来个表达近似概念，一而再，再而三的强调“在右者”，近似于“时音”。

第三件事情：崔世珍提出了不同於《四声通考》的“正音”概念<sup>75</sup>，“欲知何者为正声 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为正音也”<sup>75</sup>，据此他认定“在右者”是可以用以交际的现实语言，是“正音”。

“汉训谚字”是韩国字，它训解的是“汉音”，文字书写的具体内容是韩汉中介语。

现代汉语教学研究从西方教育学理论之中，引进了“习得”、“迁移”、“中介语”等概念，以交际为目标的第二语言习得研究，把重点投放在习得的主体和客体之上；首先确认主体的认知度，再把主体认知与客体目标进行比较分析，然後，在主体认知的基础上，有针对性的像客体目标迁移。这样的一种分阶段教学的理论，应该说，是与中介语理论相通的。中介语理论认为中介语是目的语与习得者母语之间的语言系统。与目的语相比它并非十全十美，但其却也非是习得者母语的直接翻译。学习者的语言系统总是处在一个不断变化的动态过程中，即不是由低级层面向高级层面进化，或者相反的石化；然而，中介语作为第二语言习得的工具，为了书写的便利和快捷，为了容易学习和理解，人们总是在有意识无意识中用自己熟识的文字符号去进行

74) “实际上俗音才是当时汉语官话音” (叶宝奎《明官话音系》，厦门大学出版社，2001.3)

75) 参见卢相峰的庆星大学校硕士学位论文 (2011)《反译汉语教法的中介语特性研究--以朝鲜传统汉语教科书〈原本翻译老乞大·朴通事〉为例》中的“關於原著正音观的认识”部份。

记录,乃至形成自己的语言系统。这个过程,在韩国几乎是与汉字的输入同时,已经经历了一千多年。《翻老朴》这本汉语教材之中的这一个语言系统,已经不是某个单个人的语言系统,而是全体韩国人民共同约定俗成的语言系统。因此,我们认为“汉训谚字”这一个韩中中介语已经不是初始阶段的中介语,而是经历了千余年的发展,不是趋向,而是完全成熟阶段的高级形态的中介语。所以,《翻老朴》虽然只是区区一本汉语教材,算不上什麼鸿篇巨著,但是从他的价值和作用上来考察,堪称韩国国宝。他对韩国人今後学得汉语将具有重大的现实意义。可是,如此高级的中介语,却因为日本帝国主义的入侵,中断了汉语学习,而被埋没至今。不免令人遗憾。不过我们可以这样说,中介语的源头不是20世纪70年代的欧洲,而是16世纪初叶的朝鲜王朝。

《翻老朴》反映了韩国朝鲜时代的司译院,实际学习汉语的真实状况。因此,对该书所承载的内容和教学形式的研究具有重要意义:通过对该书所承载的汉字注音形式和教学法的研究,可以为韩国朝鲜时代汉字注音的实际状况和汉语教学的实际情况的研究提供具体的依据和支持,以推动韩国汉语教育史的研究,同时为中国对外汉语教学史研究提供重要的资料。通过韩国朝鲜时代的教学用书和教学法的研究,可以发现对外汉语教课书的源头及其国别教学特色,可以深入探讨汉语学习的主体和客体的自身发展的历史规律。对於汉字文化圈内的汉语教法研究和汉语教科书建设方面同样具有重要的意义。

最后,笔者强调,通过对《凡例》的研究,没有贬低学术界既存的研究成果的意思,不过是,从学生的角度,在学习过程中,对所见所感,发表一己之见而已。对论述中因学识不足而产生不当之处,敬请批评指正。

### <参考文献>

(韩国文献)

姜信沆,〈翻译老乞大·朴通事的音系〉,《진단학보》(1974)

慎镛权,〈《翻译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中国文学》第42辑(2004)

- 安奇燮, <朝鮮时代对汉语译音书的正音, 俗音性质的再考>, 《中语中文学》第10辑 (1988)
- 朴兴洙, <韩国的汉字文化>, 경성대학교 한국한자 연구소 《数字时代汉字的传播应用研究国际研讨会论文集》 (2009)
- 柳在元 <正俗音和左右音之关系及其性质问题>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2008.1.4
- 李敦柱, <翻译老乞大·朴通事 凡例"考 (1)>, 《语文论丛》10·11, 1989
- 李敦柱, <翻译老乞大·朴通事 凡例"考 (2)>, 《湖南文化研究》18, 1988
- 李崇宁, <崔世珍研究>, 《亚细亚学报》第一辑 (1965)
- 이돈주,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 속음과 정운옥편한자음의비교고> 한글학회 (2001)
- 이종구 <《翻译老乞大朴通事》中国音의 성격> (한국중국언어학회 2009)
- 李准焕, <韩国汉字音 复数音字的 "传承 样相과 그意味(1)> 《大东文化研究》48 (2004)
- 王 平, <201标准部首与HSK2905汉字认知关系研究> 《中国学》 第31辑 (2008)
- 郑卿一, <화동정음东音의 특성과 운모체계> 박이정 (1997)
- 정미경, <한중 양국의 기본상용 한자 비교 연구 한국의 중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와 HSK 갑급자를 중심으로>. (2001) 한신대 석사학위 논문
- 郑 光, <崔世珍研究>, 《덕성여대논문집》5,6 (1977)
- 张卫东, <华音正俗变异>, 《国际中国学研究》第3辑 (2000)
- 朱星一, <朝鮮早期韩中译音资料中出现的中国语音的标记形式研究>, 《中语中文学》第38辑(2006)
- 卢相峰, 김정주, <中国语圈学习者 对象으로 한 发音教育>, (서울대학교 韩国语教育센터外国人 韩国语教师 养成课程 第2회 워크숍 2005)
- 노상봉, <한중 현대90音韵 对应 规则 研究>, 대한중국학회 2009학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
- 노상봉, <《翻译老乞大朴通事凡例--汉训谚字皆从俗撰字旁之点亦依乡语》注释>,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인문학회, 대한중국학회 2011年 春季联合学术大会 发表论文集

- 姜信沆, 《四声通解研究》新雅社 (1980)
- 姜信沆, 《韩汉音韵史研究》太学社 (2003)
- 姜信沆, 《国语学散稿》图书出版 (2007)
- 金善阳, 《教育学》萤雪出版社 (1982)
- 金在万, 《教育史 教育의 历史·哲学的基础》教育科学社 (1984)
- 金根洙, 《训蒙字会研究》청록출판사 (1998)
- 金正泰, 《国语 过渡音 研究》박이정 (1996)
- 金完镇, 《中世国语声调의 研究》탑출판사 (1994) 金武林, 《洪武正韵译训研究》(图书出版月印, 1999)
- 김근, 《새 중국어 문법》계명대학교출판부 (1988)
- 김지형,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교》도서출판 (2001) 南丰铉, 《吏读研究》대학사 (2002)
- 裴锡圭, 李鸿镇(译), 《중국문자학》도서출판 (2001)
- 朴性原, 《华东正音通释韵考》. 국립중앙도서관 (1747)
- 辞书部, 《标准 新教育汉字辞典》(教学社 2000. 1. )
- 申叔舟, 《원본 동국정운》大提阁 (1885)
- 安秉禧, 《崔世珍研究》国语学会 国语学丛书6 (2009)
- 이기문, 《国语音韵论》학연사 (1997)
- 이진호, 《国语音韵论讲义》삼경문화사 (2006)
- 李敦柱, 《韩中汉字音研究》太学社 (2004)
- 李哲洙, 《韩国语史》开文社 (1992)
- 任光爱, 《리더스汉字辞典》(韩中文化院 2003)
- 郑寅承, 成元庆, 《东国正韵 解题》建国大学 (1972)
- 郑光译, 《原本老乞大》김영사 (2004)
- 郑光, 《译学书研究》(2002)
- 曹喜武, 《中国言语学》조선대학교출판부 (2001)
- 陈阿宝, 吴中伟, 김난미, 김정은(편역) 《현대중국어개론》다락원 (2005)
- 崔玲爱, 《中国语音韵学》, 통나무 (2000)
- 崔玲爱, 《중국어란 무엇인가》, 통나무 (1998)
- 최세진, 《훈몽자회》奎章阁本 弘文阁 (1885)
- 崔世珍, 《四声通解》(1517) 弘文阁 影印本 (1988)

- 胡奇光著, 李宰硕译《中国小学史》东文选 (1997)  
《老乞大新释 重刊老乞大 重刊老乞大谚解》, 首尔大学奎章阁 (2003)  
原本国语国文学丛林(二次配本12) 原本《老乞大, 朴通事》大提阁 (1985)  
原本国语国文学丛林(三次配本23) 原本《老乞大》下卷 大提阁 (1986)

(中国文献)

- 葛承雍,《唐韵胡音与外来文明》 中华书局 (2006)  
甘瑞瑗,《韩国学生汉语习得的仲介语现象初探》外国专家论坛 (2004.3)  
金基石,〈朝鲜对音文献浅论〉,《民族语文》, (1999)  
达世平,《新概念语文汉字识字字典》 学林出版社 (2000)  
唐作藩,《汉语音韵学常识》 上海教育出版社 (1979.2)  
《第一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集》北京言语大学校 出版社 (1986)  
罗常培,《汉语音韵学导论》 中华书局 (1962)  
林升圭,〈朝鲜《四声通解》在对外汉语语音教学上的价值〉,《西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9)  
鲁宝元,〈从汉语作为第二语言在朝鲜半岛教学的历史看〈老乞大〉的地位, 性质和特点〉,《国外汉语教学同态》2004年第1期  
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0)  
吕必松,《对外汉语教学概论》 国家教委对外汉语教师资格审查委员会 办公室 (1996)  
北京语言大学 汉语水准考试中心编制 《中国汉语水准考试大纲》 现代出版社 (2003)  
北京语言大学 汉语水准考试中心编制.《中国汉语水准考试大纲》北京言语文化学院出版社, (1993)  
史存直,《汉语语言史纲要》. 北京 商务印书馆 (1981)  
盛 炎,《语言教学原理》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98)  
苏培成,《现代汉字学纲要》 北京大学出版社 (2001)  
安炳浩, 尚玉河,《韩国语发展史》 北京大学出版社 (2009)  
王 平,《常用汉字字源手册》 南方日报出版社 (2002)  
王 力,《汉语音韵》(中华书局 1991.10)  
汪维辉,《朝鲜时代汉语教科书丛刊》(1-4)卷 中华书局 (2005)



- 吴欣欣,《多功能汉语拼音词典》书海出版社 (2001)
- 姚晓波,《中介语与对外汉语教学》学林出版社 (2009.7)
- 远藤光晓,《〈翻译老乞大朴通事〉里的汉语声调》,《言语学论丛》13,商务印书馆 (1984)
- 李思敬,《音韵》北京 商务印书馆 (2001)
- 李成茂著 张琏瑰译《高丽朝鲜两朝的科举制度》北京大学出版社 (1993)
- 张鑫友,《语言学教程》湖北人民出版社 (2002.8)
- 岑麒祥,《语言学史概要》北京大学出版社, (1988)
- 郑光,《〈朝鲜时代的汉语教育与教材——以〈老乞大〉为例〉》,《外国人汉语学习研究》(2004)
- 程裕祯,《中国文化要略》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1998)
- 赵现奇,《〈老乞大〉和《朴通事》在第二语言教学方面的特色》,《现代语文》(2009)
- 赵现奇,《建国以来对〈释名〉的研究》,《枣庄师专学报》(2003.1)
- 陈植藩,《论崔世珍在朝鲜语文和汉语研究反方面的贡献》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1)
- 朱星一,《15, 16世纪朝汉对音研究》,北京大学 博士论文, (2000)
- 朱志平,《汉语第二语言的教学理论概要》(北京大学出版社 2008)
- 최희수,《朝鲜汉字音研究》民族文化出版社 (1999)
- 何九盈,《中国古代语言学史》广东教育出版社, (2006)
- 黄伯荣 廖序东,《现代汉语》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2)
- 黄贞姬,《〈HSK汉字等级大纲〉中的汉字与韩国教育汉字的字形比较》,《汉语学习》(1989)
- 胡明扬,《老乞大谚解》和《朴通事谚解》中所见到的汉语、朝鲜语对音 (中国语文 1963.3)
- (日本文献)
- 潘树广著,松冈荣志译《中国学レファレンス事典》凯风社
- 小仓进平,《增订补注朝鲜语学史》刀江书院刊 (1964)
- 远藤光晓,《〈翻译老乞大·朴通事〉汉字注音索引》好文出版 (1990)

(港台文献)

康寔镇,《〈老乞大·朴通事〉研究》,台湾学生书局,(1985)

朴相岭,〈关于韩国语的汉字词与汉语的渊源关系〉《信息网络时代中日韩语文现代化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香港文化教育出版社,(2000)

张德鑫:〈〈老乞大〉和〈朴通事〉--在华语文教材史上的历史定位及现实意义〉《台湾师大学报》(2006.5·1)

### <中文提要>

关于朝鲜时代(1392~1896年)的汉语教科书《翻译老乞大朴通事》,已经有很多学者进行了研究,并且取得了巨大的成果。但是,迄今为止,这方面的研究仍存在一些不足之处:一是研究不够深入,有些研究是脱离历史的主观研究,往往不能把历史文献置于具体的历史环境之中;二是有些研究直接接受了他人未经验证的论点作为定论,为了维护既有定论,不惜断章取义,削足适履,以至于任意修改原著。以《翻译老乞大朴通事》为例,很多人的研究都以在右侧的注音为主,这是因为有些学者认为右音反映了当时(16世纪初)的现实语音,左侧音是来自于《洪武正韵译训》之音,它与现实音有较大差异。这一观点本可以商榷,但却已为许多学者所接受,似乎成为定论。

《翻译老乞大朴通事》中每个汉字下垂两个注音:一是申叔舟(1417~1475年)等人为司译院生徒奉编的“所习汉音字样”即“增进谚文洪武正韵”崔世珍为了维护“事大主义”当局的外交国策,将其尊置于左侧,权切当作所谓的标准音;一是崔世珍(1468~1542年)创制的“汉训谚字”即右侧的可以用以交际的汉语近似音,也就是中韩中介语。

崔世珍一面揭示了所谓的“所习汉音字样”、“与时音”所存在的差距,一面又将其反译为“汉训谚字”即中韩中介语,前者表现为《凡例》,后者则是《翻译老乞大朴通事》中的“汉训谚字”。

### <國文要約>

朝鮮時代(1392~1896年)의 漢語 教科書인 《翻譯老乞大朴通事》를 대상으로 이미 허다한 學者들이 研究를 하였다. 게다가 巨大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研究가 不足한 면이 存在한다. 첫째는 研究가 表面的이고 主觀적이라서 어떤 歷史적 文獻의 研究는 歷史와 一致하지 않는다. 둘째는 어떤 研究는 他人의 檢證하지 못한 論點을 定論으로 여겼다. 既存의 定論을 유지하기 위해서 文獻 가운데 자기 구미에 맞는 개별적 구절만 따내고 심지어 억지로 들여 맞추기 위해서 文獻의 原文을 任意로 修改하기도 한다. 《翻譯老乞大朴通事》를 예로 들면 許多한 사람들의 研究는 오른쪽 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학자가 오른쪽 음이 當時(16世紀初)의 現實語音을 반영했고 왼쪽 음은 《洪武正韻譯訓》에 음이라서 現實音하고 매우 큰 差異가 있다는 定論을 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觀點을 檢討할 必要가 있는데, 學界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觀點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론삼아 여기고 있는 것이다.

《翻譯老乞大朴通事》中에는 漢字마다 아래에 두 개 음을 달았다. 그 중에 左側音은 申叔舟(1417~1475年) 등이 司譯院에 학생들을 위해서 王命에 따라서 編纂된 중국어를 배우는 見本이다. (“所習漢音字樣”即“增進諺文洪武正韻”) 崔世珍은 當局에 “事大主義” 외교적 國策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존경스럽게 左側에 모시고 임시로 目的語로 여겼다. 그 중에 右側音은 崔世珍(1468~1542年)이 創製한 “漢訓諺字”이며 意思疏通이 可能하지만 그 음은 中國音과 유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中 中間言語를 創製한 것이다.

崔世珍은 당분간 中國語를 배우는 見本으로 여긴 左側音에 實際로 存在하는 非現實音을 揭示하고 그를 “漢訓諺字”로 反譯했다. 前者는 《凡例》이고, 後者는 《翻譯老乞大朴通事》中에 “漢訓諺字”이다.

**主題語** : 字樣 標準音 漢音諺字 中介語 近似漢語 漢訓諺字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집단구성원의 기분이 집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연구  
- 중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의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

소원근\*

< 목 차 >

- 요 약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가설
- IV. 연구방법
- V. 연구결과
- VI. 결 론

요 약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업무는 개인 혼자만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타인들과 팀을 이루어 달성할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기분이 조직 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 정서 상태가 직장 내 주요한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 서강대학교 교양학부 강사(s76412@hotmail.com)

기분이 위협선호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토론 이후의 극화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이 되었으며, 총 184명의 대학생들이 3명씩 62개의 집단을 이루어 실험에 참가하였다. 기분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긍정적, 부정적, 중성적인 기분 중 한 가지를 가지도록 특징기분의 유도과정을 거친 후 토론 이전과 이후의 의사결정을 각각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들의 의사결정은 서로 다른 3가지 기분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정립한 3가지 가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첫째, 중성적인 기분을 가진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둘째, 행복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극화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셋째, 우울한 기분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중성적이거나 행복한 기분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도의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동기적 기분모형들이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이론적 기제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의사결정의 연구들이 개인의 특질에 중점을 둔 반면, 다소 상황 의존적이며 약한 지속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경시되어 온 기분 변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차원의 의사결정을 넘어서 집단상황 속에서 개인의 기분이 의사결정의 극화를 나타내는 정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중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기분 집단극화 집단토론 의사결정 집단주의 문화

## I. 서론

본 연구는 기분이 집단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수행되었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분이 개인 수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을 분석하는데 치중한 반면에 본 연구자는 기

분이 개인의 집합체인 집단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기분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아직까지 개인차원의 의사결정 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분과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노력은 미약한 실정이다(Bless, Schwarz, & Strack, 1990, 1992; Forgas & Molyan, 1987). 현대사회에 많은 중차대한 의사결정들은 기업이나 교육기관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집단 등, 집단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토론 중의 개인의 기분이 토론 후 개인 및 집단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팀 의사결정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주요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협동적인 집단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관계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Triandis, 1994,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기분이 집단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집단주의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문화는 유교사상의 순응의 미를 중요시 하며 집단 전체의 의견에 복종하려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Triandis, 1994). 이러한 집단에 대한 복종은 집단의 성립과 존속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더욱 강조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집단 의사결정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른 개인 고유의 의사를 피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추구하는 바에 반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 대한 순응으로 인한 개인의사의 부재는 집단주의 문화의 폐해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분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집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그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기분과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의 회소성에 반하여, 집단 의사결정의 특성들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집단순응(Asch, 1956), 집단극화(Moscovici & Zavalloni, 1969),

사회적태만(Karau & Williams, 1993), 집단결합(Zaccaro & McCoy, 1988), 집단의 크기(Kerr, 1989), 그리고 집단 내의 리더십 유형(Eagly & Johnson, 1990) 등에 대한 분석들은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다루어 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의 여러 분야 중 집단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분이 집단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분이 집단 내에서의 양극화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과제가 설정되었다. 집단극화현상이 집단구성원들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기분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기분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에서 기분이 인지과정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현존하는 연구들을 집약적으로 요약정리, 기술하였다. 또한 집단극화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정리하며, 본 연구의 중점 과제인 기분이 집단의사결정의 집단 극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기분

기분은 감정적인 행동실행의 전단계로서의 정서적인 행동준비상태이며 특정한 대상 없이 전반적인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정서적인 성향을 일컫는다(Frijida, 1988). 기분은 여러 행동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기인한 개념인 만큼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정의내린 것에서 드러나듯이 다소 전문적이며 기능적인 면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ayer(1989)는 기분이란 정서적인 기운의 확산에 휩싸이는 상태로 외부상황에 대한 평가나, 운동기관이나 지적능력을 수반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잠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Thayer의 정의이후에 대체적으로 일관적인 방향으로 연구자들의 기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정의들은 기분이란 정서적 상태가 발산되어 특정 정서의 영향에 휩싸이는 것으로 규정한다(Reisenzein & Schonpflugs, 1992). 본 연구에서도 Reisenzein 등의 기분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흔히 혼용되는 기분과 정서는 사실상 차이가 있는 구성개념으로서 기분이란 특정한 대상을 향하지 않은 정서적 상태인 반면 정서는 기분보다 좀 더 감정적이고 집중된 목표대상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특정 대상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Reisenzein & Schonpflugs, 1992).

지난 반세기동안 기쁨이나 슬픔 등의 정서적 상태가 다양한 행동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많은 연구들에 의해 분석되어졌다(Forgas, 1990). 이와 함께 기분이 인지과정과 사회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많은 이론적인 체계들을 만들어왔다(Forgas, 1991).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기분이 사회적 판단력과 개인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기분-인지모형들이 제시되었다. 다음에서 총 6개의 각각의 모형들을 기술하고 이 모델들의 이론적인 기제를 설명하였다.

## 2.2. 기분과 사회적 판단력, 인지과정 간의 관계 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섯 개의 기분 모형이 개인의 사회적 판단력과 인지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Bower, 1981), 인지적 조직모형(Isen, 1984), 기분정보처리 모형(Schwarz & Clore, 1988), 인지적 효율성 이론(Wyer & Srull, 1986), 기분행동 연속성 모형(Salovey & Rodin, 198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화가능성 모형(Petty & Cacioppo, 1986)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모형들은 상호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들의 지지를 받는 정도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 2.2.1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

Bower(1981)의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은 기억이 상호 연합된 일련의 사건들의 결합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일단 기억을 구성하는 신경체들이 활성화되면 다른 모든 신경세포들이 함께 자극을 받아 기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서 또한 활성화될 것이며 한번 활성화되었던 정서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결국 정서를 경험했던 당시의 상황적인 기억과 연합된다는 것이다.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은 한번 저장된 기억을 상기시키는 정도는 기억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한 학습의 정도와 기억과 연합된 기분을 함께 상기시킬 때 좀 더 향상될 것이며, 따라서 기분은 뇌에 저장된 정보와 연합된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기억과 기분에 대한 이론적 제안은 Snyder등의 학자들이 1982년에 실행하였던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실험 참가자들이 기분과 연합된 기억을 더욱 잘 상기시킴을 밝혔다(Snyder & White, 1982). 또한 후속연구로서 Weger등은 행복한 기분을 가지도록 실험적인 조작을 거친 연구참가자들이 이전에 선택하였던 행복한 기분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다시 선택하는 비율이 부정적인 또는 중성적인 기분을 가진 참가자들의 같은 음악 선택 정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선택을 하게 하는 인지과정과 기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또는 중성적인 기분을 가지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기분을 가짐으로써 의사결정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Wegner & Petty, 1994).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은 기분과 선택의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판단력과 개인의 인지과정에 이르는 기분의 영향력을 지지한다. 개인의 동기는 특수한 정서적 상태와 연합하며, 개인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는 기분과 연합된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강하게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화된다는 것이다(Bower, 1991). Bower(1981)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실험 참가자들에게 최근에 행복함을 느꼈던 경험이나 또는 반대의 경험을 기술하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기분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으며,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웃는 장면이나 또는 우는 슬픈 장면은 담은 슬라이드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행복한 기분을 가진 참가자들은 행

복한 장면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마찬가지로 슬픈 기분을 가지도록 조작된 참가자들은 슬픈 장면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기분에 따라서 기분과 상관이 높은 사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분과 인지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Forgas 등은 긍정적인 기분을 가진 연구참가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보여 지는 타인의 긍정적인 면에 좀 더 집중하여 시청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슬픈 기분을 가진 참가자들은 컴퓨터 속의 타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을 밝혀냈다.

결론적으로,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특정한 정서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개개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경우, 이들 개인 구성원들의 기분에 따라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 자신의 기분과 연합된 정보에 국한하여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할 것을 함께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 2.2.2 인지적 조직 모형

Isen(1984)이 제안한 인지적 조직 모형은 부정적인 기분의 독립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제한 채 긍정적인 기분 변인만 고려하여 기분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긍정적인 기분은 개인의 생각이 인지적으로 요약, 정리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행복한 기분의 개인들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는 정보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않은 중성적인 정보까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보다 폭 넓게 정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한다(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인지적 조직 모형은 행복한 기분이 긍정적인 기억과 정보에 대한 주의집중을 좀 더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인지적 네트워크 모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인지적 네트워크 모형이 주장하는 긍정적 기분과 긍정적 정보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넘어서, 행복함에 대한 기억들은 사고가 뇌에서 정렬되고 요약 정리되어 저장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단지 긍정적인 결론을 함축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정보에 대한

주의와 조직적인 정리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Isen, 1987).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들이 긍정적인 기분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상 관련된 가능한 많은 해결책에 대해 고려를 하도록 촉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Isen & Daubman, 1984; Isen, Daubman, & Nowicki, 1987). 행복함을 느끼는 연구참가자들은 여섯 개의 예시된 자동차 중 가장 만족스러운 차를 선택하라는 등의 복잡한 사고과정을 일으키는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특정한 기분을 느끼도록 조작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개인들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들 참가자들은 직감에 의존하여 선택에 대한 상황을 단순화시켰다(Isen & Patrick, 1983).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Isen 등은 참가자들이 그들이 소유한 상품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기분을 가진 참가자들이 중성적인 기분의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임을 밝혔다(Isen, Shalke, Clark, & Karp, 1978). Isen(1993)은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 기저하는 이론으로서의 메커니즘으로써 행복한 기분이 정보탐색시에 좀 더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고 제안한다.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정보처리의 여유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은 업무에 대해 고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적 조직 모형은 또한 이러한 행복한 기분의 정보탐색효과는 긍정적인 결론을 함축하는 정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기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의 탐색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행복한 개인들은 자신들이 잃을 것이 없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잃거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탐지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신중한 의사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한 기분을 지속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것이 예측되면 위험감수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지적 조직 모형은 행복한 기분이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탐색의 촉진을 유도한다. 이를 토대로 행복한 기분을 가지는 집단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의 행복한 기분의 지속됨이 위협 받을 경우에는 즉 자신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예측되는 위험을 수반하

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회피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단 인지적 조진 모형은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인지과정의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형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2.3 기분의 정보처리 모형

세번째로 주목할 이론적 토대인 Shwarz와 Clore(1983)가 제안한 기분의 정보처리 모형에 따르면 기분이라는 정서적 상태는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기분 그 자체로서 정보처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자신의 기분을 일종의 정보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맑은 날씨의 대낮에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 받은 사람들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 질문 받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더욱 큰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낀다(Shwarz & Clore, 1983). 사람들은 자신들의 날씨에 의해 유도된 기분으로서의 행복감이나 슬픔을 전반적인 생활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잘못 귀인한다. 즉 자신의 기분을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특정한 사물이나 개체에 대한 판단에 연합시키는 귀인의 오류를 보인다. 일단 정서적 상태가 가지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분명해지면, 예컨대 "당신이 지금 기분이 좋은 것은 날씨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특정개체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특정한 정서와의 연합의 효과는 사라진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 자신의 주관적 복지감(well-being)과 인생의 목표에 일종의 위협으로 작용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 주의 깊게 평가하고자 동기화된다. 한편, 행복감을 가지는 개인들은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을 위협의 부재와 같은 정보로 처리하여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인지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에 정서적인 상태는 개인들에게 주변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경우에 이 모형을 적용했을 때, 본 연구자는 행복함을 느끼는 개인들의 집단은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

하고자 동기화될 것이며,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부정적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추론한다. 이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정 과업에 보다 높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 2.2.4 인지적 효율성 모형

다음으로 주목할 이론적 측면은 Srull과 Wyer(1986)의 인지적 효율성 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목표지향적이며 사고와 인지의 처리과정은 자신이 세운 목표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지향이 방해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것이며, 반면에 목표가 달성된다면 긍정적인 기분을 가질 것이다(Wyer & Srull, 1986). 이러한 특정 기분은 다시 사고와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지과정의 결과로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이 모형의 이론적인 전제이다. 개인들이 부정적인 기분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화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생각과 주의, 행동이 구체적인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 진다는 것이다. 한편 긍정적인 기분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사고나 행동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분은 부정적인 기분보다 낮은 수준의 인지처리과정을 유도한다(Wyer & Srull, 1981).

이와 같은 인지적 효율성 모형의 이론적 가정을 토대로 슬픔 등의 부정적인 기분을 가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목표를 이루어 부정적인 기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고, 반면에 행복감을 느끼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행복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되므로 이들은 강한 목표지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인지적인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적다. 따라서 인지적 효율성 모형은 기분이 업무에 대한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분이 목표로 세운 업무에 있어서의 인지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안한다.

### 2.2.5 정서행동 연속성 모형

다음으로 기술할 정서행동 연속성 모형 역시 이전의 모형들과 비슷한 이론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은 개인의 정서적 상태가 자신의 특정한 개인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또한 기분이 제공하는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는 이후 본인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기분이 사회적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Slaovey와 Rodin(1985)은 기분이 개인들의 인지적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첫째, 기분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게끔 이끌어 계속해서 이를 수정하게끔 유도한다. 둘째, 기분에 의해 유도된 사회적 행동은 행복감을 느끼는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슬픈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개선하도록 이끌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상태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감정의 상태를 경험한 개인들은 중성적인 기분을 가지는 개인들보다 더욱 자기 자신에 중점을 둔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사람들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을 하게끔 동기화시킬 것이며, 결국 개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업무를 즐기거나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한 가지 경향을 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서행동 연속성 모형은 개인의 기분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여 더욱 현재의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게 만들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 것이며, 연달아 개인이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 그 기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동기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 2.2.6 정교화가능성 모형

정교화가능성 모형은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이 모형은 설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Bless(1991)은 기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세화된 부연설명으로

더욱 정교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정보의 정교화란 개인이 설명하고 이해하는 정보의 내용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과정의 심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Craik & Lockhart, 1972). 정보처리과정의 심화정도란 처리과정 중에 있는 정보의 의미를 정교화 시키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교화 된 정보를 상기시키는 데 있어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Craik & Lockhart, 1972). 정보처리의 심화정도를 분석한 실험연구들의 결과는 실험참가자들의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기분에 따라 정보처리 과정의 심화정도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가 지니는 내용의 질이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Petty & Wegner, 1991; Worth & Mackie, 1987; Wyer & Frey, 1983; Bless et al., 1990). 구체적으로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정서가 정보처리의 심화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의 과정에 있어서 직무 몰입도 나 직무 만족도 등의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나, 또는 정보가 함축하는 내용의 질적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한다. 높은 수준의 정교화는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으며 또한 정보의 내용이 이해하기 용이할 때, 그리고 업무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업무를 실행하는 동안 몰입에 방해를 받지 않을 때 일어난다(Petty & Cacioppo, 1981).

정교화가능성 모형은 정보화 모형의 이론을 차용하여 정서가 정보처리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정교화의 수준이 높을 때, 정서가 정보처리의 심화정도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된 방향으로 인지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왜곡된 정보처리란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고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편향시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Petty & Cacioppo, 1986). 이와 관련하여 정서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으로 하여금 사고의 왜곡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설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설득과정에 있어서 감정이 편향된 사고체계를 유도한다면 정보처리의 정교화는 심화될 수 없을 것이다(Bower, 1981). 정교화 가능성이 낮을 때, 즉 정보가 흥미롭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아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화를 시키지 못할 때, 정서는 핵심적인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주변적 정보로 강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Petty & Cacioppo, 1986).

정교화가능성 모형은 기분과 설득력 있는 논쟁들이 정보처리의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는 정보의 정교화를 향상시키며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는 개인들의 주변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정보처리의 정교화를 감소시킨다. Bless(1990)등이 실행한 연구에 의하면 슬픈 기분을 느끼는 실험 참가자들이 행복한 기분의 참가자들보다 지능테스트에서 읽은 지문을 좀 더 잘 기억해내는,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정보의 정교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슬픈 기분을 가진 실험 참가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적 활동과 심화된 정보처리 과정이 일어남을 밝혔다(Wyer & Frey, 1983).

결론적으로 정교화가능성 모형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보처리의 심화가 일어나는 반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정보처리의 심화 정도가 감소함을 가정한다.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처한 상황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로운 결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며, 반면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한편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효율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실패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 2.2.7 기분과 인지과정 모델들의 요약적 정리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과 인지적 조직 모형은 기분이 기억과 인지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모형들은 기분이 기분의 상태와 일치하는 기억을 상기시킨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두 모형은 긍정적인 기분이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분과 일치하는 긍정적인 정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제안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모형 모두 행복한 기분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성이 적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수반하는 결정을 피함으로써 자신들의 긍정적인 기분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분의 정보처리 모형은 기분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적인 기분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며, 이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주의력을 요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분을 더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지적 효율성 모형은 부정적인 기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지향적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노력을 소모하게끔 하는 반면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소모하는 경향을 보임을 가정한다.

정서행동 연속성 모형은 부정적인 기분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켜,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자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노력을 들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제안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형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위험성을 수반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정교화가능성 모형은 기분이 정보정교화를 다루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Petty & Cacioppo, 1986; Mackie & Worth, 1989). 행복한 기분은 주요정보의 정교화 과정을 감소시키고 대신 주요정보의 핵심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주변정보에 집중하게 한다. 행복한 기분은 이와 연합된 행복한 기억과 사고를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정보처리능력의 심화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에 슬픈 기분은 핵심정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주요정보의 정교화 과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에 언급된 모형들은 기분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로 적용될 수 있다. 동기와 인지의 측면이 사실상 쉽게 분리되어 고려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섯 개의 모든 모형이 동기와 인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분의 영향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동시에 기분의 특성과 정보처리의 심화에 대한 양적측정을 가능케 하는 정교화가능성 모형을 집단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3 집단의사결정

대부분의 많은 중요한 결정이 집단의 동의하게 이루어진다. 기분이 의사결정과 인지처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Bless et al., 1990; Forgas, 1989; Forgas & Moylan, 1987; Isen & Patrick, 1983) 기분이 집단의사결정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이 추정된다. 아직까지 기분이 집단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바, 본 연구는 기분이 개인의 의사결정을 넘어서 집단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희소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집단 의사처리 중 구체적으로 집단극화 현상에 초점을 두어 기분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집단극화는 집단을 이루는 개인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토의를 거친 후, 토론 이전에 집단이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사결정의 방향을 더욱 심화시켜 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극화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Myers, 1975). 즉, 집단의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의 초기에 가졌던 사고방식이 집단내의 토론이후에는 더욱더 초기에 가졌던 사고의 방향으로 강조가 되는 것이다(Brehm & Kassir, 1993).

전형적인 집단극화 연구는 시나리오 읽기를 통한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 집단극화 현상을 실험실 상황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예컨대, 연구참가자들에게 이분법적인 상황, 즉 두 가지의 결론 중 반드시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게 하여 시나리오 속 인물이 특정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답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참가자들은 1부터 10까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가장 낮은 가능성에 1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가능성에 10을 기록하도록 지시받았다. 시

나리오읽기와 항목체크를 개별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참가자들은 3-6명씩 집단을 이루어 A씨가 처해있는 선택의 딜레마를 토론하고 만장일치에 이르는 선택으로 결정을 내린다. 집단토론 이후에 참가자들은 다시 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최종결론을 기록한다. 참가자들 개개의 집단토론전후의 의사결정을 비교했을 때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집단토론 이후에 더욱 위험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위험선호성향이라고 한다(Wallach, Koga, & Bem, 1962). 이와 같이 집단극화의 초기연구는 위험선호 성향의 증가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Myers와 Arenson(1972)의 후속연구는 집단토론 이후에 집단의 결정이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Myers는 집단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토론 이전의 초기의 의사결정방향과 일치함을 증명하였다. 즉, 만약 개인의 초기선택이 보수적인 방향이었다면, 집단토론은 이러한 개인의 보수적 선호도를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옮겨놓는다는 것이다. 또는 다른 한편으로 만약 개인의 초기선호가 위험성을 선호하는 성향을 띠었다면, 집단토론이후에는 더욱 더 위험도가 증가하는 방향의 결정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의사결정에 있어 토론 전후에 개인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극화되는 성향을 집단극화라고 한다(Myers & Lamm, 1975).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된 요인으로는 사회적 비교(Brown, 1965)와 설득적 논쟁(Bishop & Myers, 1974)을 들 수 있다(Isenberg, 1986). 다음에서 개인을 집단극화에 이르게 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사회적 비교와 설득적 논쟁을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 2.4 사회적 비교

Leon Festinger(1954)가 제안한 사회적비교 이론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타인들과 비교하는 경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개인들의 이러한 자신과 타인의 비교성향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택이 불확실할 때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Brown, 1965) 사회적 비교의 관점에 따르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위

협성은 선호될 것이며, 업무가 신중함을 요구하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개인들은 보수성향을 띠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출하려고 하며, 이러한 개개인의 사회적 기대에의 순응은 타인들의 사회적 순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된다. 즉, 개개인은 자신을 타인보다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하려고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험을 수반해야 할 때, 개인은 자신을 보편적인 타인들에 비해 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보수성이 선호될 때에는 타인들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자신을 표출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여 더욱 신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집단상황하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적 기대에의 순응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의 순응으로 이어진다. 즉,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같은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집단의 평균 성향을 일종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잣대로 받아들여 타인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평균적인 성향에 보다 부합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출하고자 한다.

## 2.5 설득적 논쟁

설득적 논쟁의 관점에 의하면, 집단을 이루어 회의를 할 때 개인들은 토의의 논점을 타인이 자신들이 회의를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초기 선향과 가능한 일치하는 측면(어느 정도는 타인들의 성향에 부합해서)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개인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논점들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할 때, 즉 집단토론에 의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집단의 초기 선호성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집단토론을 통한 설득적 논쟁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선호성향이 집단의 선호성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Vinokur & Burnstein, 1978). 설득적 논쟁 이론은 위험선호성향과 보수선호성향의 비율이 토론 이후의 선호성향의 변화의 정도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2.6 기분과 집단극화

Stoner의 집단극화현상이 정의된 1961년 이후로 수많은 집단극화연구가 이루어져온 반면 기분과 집단극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또한 기분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반면, 기분이 집단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Forgas, 1990).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과 개인들이 상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다(Cialdini, 1988; Asch, 1956). 따라서, 만약 기분이 개인의 인지과정을 중개하는 중재변인의 역할을 한다면(Bless et al., 1990; Mackie & Worth, 1989), 특정 기분을 느끼는 개인들은 집단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Forgas(1991)는 기분이 집단이 내리는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기분이 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집단 전체의 관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기분은 실험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3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배정되어 9개의 항목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긍정적인 기분의 참가자들은 극화된 집단결정을 내렸으며,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보다 더욱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슬픈 기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집단토론 이후에도 그들의 개인 의견이 극화되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이들이 집단을 이루었을 때에는 집단토론 이후에 더욱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Forgas는 행복한 기분의 집단에서 보이는 집단극화의 현상은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이는 선택적 주의와 선택적 기억회상에 의해 이끌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Bower의 연합적 네트워크 모형과 Isen의 계층적 모형에 부합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집단토론이 함께 작용하여 극화된 판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슬픈 기분을 가질 때 개인차원에서 극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슬픈 기분이 좀 더 주의력을 요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슬픈 기분을 가진 개인들이 집단을 이

루어 토론을 할 때에는 역시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극화현상이 일어났다.

Forgas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기분이 집단의 의사결정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기분이 집단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분이 위험선호성향의 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가 예측하는 결론은 슬픈 느낌을 가지는 개인들은 행복한 느낌을 가지는 개인들보다 주요정보를 핵심적으로 파악하여 수행할 것이며 좀 더 위험성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행복한 개인들은 업무에 핵심적인 정보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또는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는 개인들보다 극화현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는 개인들은 위험선호 성향을 보일 것이다.

### Ⅲ. 연구가설

**가설1:**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Myers & Lamn, 1975; Stoner, 1961; Myers, 1975), 중성적인 기분의 상황에 있는 집단, 즉 통제집단은 모순적 선택상황을 수반하는 위험에 닥쳤을 때, 위험선호방향으로 극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2:** 행복한 기분의 집단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극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개인들이 행복한 기분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핵심적인 정보처리를 덜 하는 경향을 보이며, 체계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수행할 능력 또한 저하되게 된다(Bless et al., 1990; Mackie & Worth, 1989). 따라서, 행복한 기분의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속 상황을 철저히 분석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참가자들은 또한 그들이 토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설득적인 논의를 펼칠 수도 없을 것이다.

**가설3:** 슬픈 기분의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더 심한 강도의 위협을 수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슬픈 기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Bless et al., 1990). 슬픈 기분을 가진 개인은 행복함을 느낄 때보다 더욱 업무에 노력을 기울인다(Mackie & Worth, 1989). 따라서, 슬픈 기분의 참가자들은 모순적인 선택상황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처리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초기의 성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초기성향을 더욱 강조하는 논의를 토론 시에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슬픈 기분을 가지는 참가자들은 집단토론 이후에 자신들의 의견을 극화시키게 될 것이다.

## IV. 연구방법

### 4.1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의 2개의 대학에서 184명의 대학생들을 모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참가자들은 2~4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배정되어 모두 62개의 집단을 이루었다. 실험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각 집단 내의 모든 참가자들은 행복한 느낌, 슬픈 느낌, 또는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실험적으로 유도되었다. 특정 기분을 느끼도록 유도된 이후에 참가자들은 앞서 제시된 A씨의 이분법적인 선택상황과 비슷한 모순적인 선택상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참가자들은 먼저 개별적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지시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집단을 이루어 토론한 후 집단으로서의 결정을 내렸다.

### 4.2 연구설계 및 분석 단위

본 연구는 3(기분: 긍정적, 부정적, 중성적) \* 2(의사결정의 차원: 개인, 집단)의 혼합설계로 실행되었다. 기분은 개별 참가자들 간의 차이로



서 측정되었으며, 의사결정은 개인이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 내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의 차이로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세 가지 기분의 집단 중 하나에 배정되었다.

개별 참가자들의 초기 기분과 위험선호 경향이 집단토론이 실시되기 전에 측정되었다. 집단의 위험선호 성향은 집단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평균을 내어 측정되었으며, 집단 간의 위험선호 성향을 비교하는 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집단이 분석의 단위로 이용되었다.

#### 4.3 기분의 실험적 조작

연구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느낌이 배어 나오도록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기술하였다(Schwarz et al., 1991).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생겼던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여 묘사하도록 지시 받았다. 전체 참가자들 중 일부는 행복한 기억을 회상하도록 요청 받았으며, 일부 다른 참가자들은 슬픈 기억을, 그 외의 다른 참가자들은 중성적인 기억을 되살려 묘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15분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회상직후에는 기억해낸 사건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도록 지시 받았다. 설문은 4개의 주관식 항목과 기분조작의 성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1개의 항목, 총 5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기분조작확인 항목은 기분조작의 절차의 타당성과 기억을 기술하고 난 후의 참가자들의 실제 기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모든 답은 9 척도를 기준으로 답하도록 제시되었다.

#### 4.4 연구절차

참가자들은 집단연구의 성격상 3명씩 짝을 이뤄 실험실에 오도록 요청받았다. 연구자는 3명씩 짝을 이룬 참가자들을 원형의 탁자에 앉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연구참가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2개의 모순된 선택 상황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를 나눠주고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다. 참가자들이 해야 할 연구과제는 시나리오 속의 두 가지 선택의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위험도를 선택하여 10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집단을 이루어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 토의를 한 후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다. 연구 과제를 끝마친 후에 참가자들은 간단히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집단을 이루는 개개인이 아닌 집단의 의사결정 반응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모든 통계 분석은 집단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즉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산술적 평균이 집단으로서 내린 결정과 비교되었다.

### 5.1 기분조작 검증

분산분석결과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내린 평가의 결과는  $F(2, 59) = 30.55, p=.001$ 를 나타냄으로써 기분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냈다. 서로 다른 기분을 가지는 개인들의 기분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행복한 기분을 가지도록 유도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중성적이거나 슬픈 기분을 가지도록 유도된 이들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M=7.8$ ). 슬픈 기분을 가지도록 조작된 참가자 ( $M=5.3$ )들 역시 중성적인 기분( $M=6.4$ )을 가지도록 유도된 이들보다 자신의 기분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5.2 기분이 위험선호의 극화에 미치는 영향

기분변인의 3개의 조건들(긍정적, 중성적, 부정적)과 의사결정을 내리

는 주체로서의 2개의 조건들(개인, 집단)의 혼합분산분석이 실행되어 개인의 초기 성향 값과 집단의 의사결정 값이 비교되었다. ANOVA로 검증한 결과  $F(1, 59) = 25.97$ 에 유의수준 .001로서 개인과 집단 대비 의사결정의 주요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집단결정이 개인결정의 평균보다 더욱 위험을 수반함이 밝혀짐으로써 집단토론 이후에는 더욱 위험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기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달하는 어떤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흥미롭게도 기분이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F(2, 59) = 3.25, p=.045$ 을 나타냈다. 슬픈 기분의 참가자들은 행복하거나 중성적인 기분의 참가자들보다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강한 극화경향을 나타냈다. 이들의 의사결정 극화반응의 평균은 개인의 집단토론 전의 의사결정의 평균을 집단토론 이후의 집단의 일원으로서 내린 결정에서 차감함으로써 계산되었다 (Table 1).

Table 1. 실험 조건간 개인 평균 및 집단 의사 결정 값의 비교

	개인 의사 결정 값	집단 의사 결정 값
긍정적	4.7	2.2
중성적	4.2	3.5
부정적	5.0	3.7

기분에 따라 3가지 조건(긍정적, 부정적, 중성적)으로 나뉘어져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행복한 기분의 개인들은 집단토론 이후에 의사결정의 극화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t(21) = -1.64, p=.12$ 로서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슬픈 기분과 중성적인 기분을 가지는 참가자들은 집단토론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극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슬픈 기분을 가진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t(19)=3.4, p=.003$ 을, 중성적인 기분을 가진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t(19)=4.6, p<.001$ 을 나타냈다.

대조분석의 결과 슬픈 기분의 참가자들이 행복한 참가자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큰 폭의 극화경향을 보임이 밝혀졌으며, 이 때  $F(1, 40)=5.10$ ,  $p=.03$ 으로서 슬픈 기분의 사람들이 집단토론 이후에 더욱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 6.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분이 집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가설을 지지했다. 슬픈 기분을 가지는 참가자들은 집단토론을 거치면 자신들의 초기결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욱 극단적으로 의견을 극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개인의 기분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토론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현대사회의 조직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측면으로, 직무 훈련시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적으로 기분이 정보처리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슬픈 기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이루는 내용 중 좀 더 주요한 핵심적인 측면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슬픈 기분은 정보의 심화, 다시 말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당명한 과제와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내적 기제를 일으켜 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집중을 하게 된다(Bless, Bohner, Schwarz & Strack, 1990; Petty & Cacioppo, 1986). 이렇듯 정보처리를 심도 있게 함으로써 슬픈 기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당면 업무와 관련된 더욱 많은 사고를 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집단을 이루어 토론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업무해결방안에 대해 더욱 일관된 방향의 논의를 토론 중에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토론 이후에는 초기의 의사결정과 일관된 것은 물론이고, 더욱 위험스럽거나 또는 더욱 보수적인 한 가지 방향으로 토론 이후의 결정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인 토대로서 기분이 동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다. 슬픈 기분의 사람들은 추동감소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켜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행복한 기분

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기분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정보처리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Janis & Mann, 1977).

본 연구는 집단토론 이후에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의 의사결정 극화를 분석함으로써 집단토론의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에 반하여, 집단토론시의 정보교환이나 설득, 토의의 과정 등이 기분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과제는 슬픈 기분을 가지는 토론의 참가자들이 토론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초기결론과 일치하는 또는 불일치하는 측면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토론의견을 발제할 것인지를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고려한 기분과 집단토론의 결론적인 측면을 넘어서 집단토론 내에서의 의견교류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경시되었던 행복한 기분에 대한 연구도 이후의 연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행복한 기분의 사람들은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노력을 슬픈 기분을 가진 사람들보다 덜 함으로써 행복한 기분의 사람들은 의견을 토론 시에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을 것을 예측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제를 바탕으로 실제 행복한 기분을 가지도록 조작된 참가자들은 집단토론 이후에 의사결정의 극화 경향을 낮게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행복한 기분이 집단토론의 결과론적 측면, 즉 의사결정의 극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후속 연구들은 행복한 기분이 미칠 수 있는 정적인 영향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기분이 정보처리의 과정을 심도 있게 이끄는 반면 한편으로 심도 깊은 정보처리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을 더디게 하여 통합된 결론으로 이르게 하는 데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반면에 행복한 기분은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극화시키는 것에 큰 중점을 두지 않게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과의 협업에 있어서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기분에 따라 집단토론 이후의 개인의 의사가 극화되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들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기

분이 집단전체의 분위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개인의 기분에 의해 유도된 집단의 분위기가 토론의 과정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기분은 지속성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특질에 비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향후의 연구들은 다소 일시적이라고 간주되는 개인의 기분이 개인을 넘어선 상위 개념으로서의 집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를 구분하는 두 개의 큰 사상적 척도 중 하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이다 (Hofstede, 1980).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목표 성취에 가치를 두는 반면, 동북아 문화를 이루는 집단주의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집단의 목표 달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분이 집단 극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집단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타인의 의견에 반하는 의거를 제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면 집단 극화 현상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의 의견에 대한 동의만이 관계의 유지 및 집단의 존립에 중요하다고 간주하기 보다는 우호적 관계의 형성에 필요한 상호적 존중감을 가지고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타인의 의견에 열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Asch, S. E.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 410-416, 1956.
- Bless, H. · Bohner, G., · Schwarz, N. · Strack, F, Mood and persuasion: A cognitive respons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331-345, 1990.
- Bishop, G. D. · Myers, D. G. Information influence in group discus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 », 1974, 12, 92-104, 1974.
- Bower, G. H.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1981.
- Bower, G. H. Mood congruity of social judgments. In J. P. Forgas (Ed.),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pp. 31-53)》. Elmsford, NY: Pergamon, 1991.
- Brehm, S. S. • Kassin, S. M. 《Social Psychology》. Boston, MA: Houghton, 1993.
- Brewer M. • Kramer R, Choice behavior in social dilemmas: Effects of social identity, group size, and decision fram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 67-73, 1986.
- Brown, R. 《Social Psychology》. New York: Free Press, 1965.
- Craik, F. I. M. • Lockhart, R. S.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 Verbal Behavior》, 11, 671-684, 1972.
- Eagly, A. H. • Johnson, Gender and leadership styl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8, 233-256, 1990.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attitudes》. Beverly Hills, CA: Sage, 1980.
- Festinger, L.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1954.
- Forgas, J. P. 《Emotion and social judgments》. Oxford: Pergamon, 1991.
- Forgas, J. P. • Moylan, S. J. After the movies: the effects of transient mood states on social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 478-489, 1987.
- Frijida, N. H.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349-358, 1988.
- Isen, A. M.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decision making and cognitive organiza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534-537, 1984.

- Isen, A. M.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and social behavior. In L. Berk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987.
- Isen, A. M. · Daubman, K. A. The influence of affect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22-1131, 1984.
- Isen, A. M., · Daubman, K. A., · Norwicki, G. P. Positive affect facilitates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1-23, 1987.
- Isen, A. M. · Johnson, M. M. S. · Mertz, E. · Robinson, G. F.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unusualness of word associ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13-1426, 1985.
- Isen, A. M. · Patrick, R. The effect of positive feelings on risk-taking: When the chips are dow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1, 194-202. 1983.
- Isen, A. M., · Shalke, T. · Clark, M. S. · Karp, L.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and behavior: A cognitive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2, 1978.
- Isenberg, D. J. Group polarization: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41-1151, 1986.
- Karau, S. J. · Williams, K. D. Social loafing: A meta-analytic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681-706, 1993.
- Mackie, D. M. · Worth, L. T. Processing deficits and the mediation of positive affect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7-40. 1989.
- Moscovici, S. Foreword. In C. Herzlich, «Health and illnes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London: Academic Press, 1973.
- Myers, D. G. Discussion-induced attitude polarization. «Human



- Relations》, 28, 699-714, 1975.
- Myers, D. G. • Lamm, H. The polarizing effect of group discussion. 《American Scientist》, 63, 297-303, 1975.
- Myers, D. G. • Areson, S. J. Enhancement of dominant risk tendencies in group discussion. 《Psychological Reports》, 30, 615-623, 1972.
- Petty, R. E. • Cacioppo, J. T.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1986.
- Reisenzein, R. • Schonpflug, W. Stumpf s cognitive-evaluative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7, 34-45, 1992.
- Salovey, P. • Rodin, J. Cognitions about the self: Connecting feeling states and social behavio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43-166, 1985.
- Schwarz, N. • Clore, G. L. How do I feel about it? The informative function of mood. In K. Fiedler & J. Forgas (Eds.), 《Affect,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pp. 44-62)》. Toronto: C. J. Hogrefe, 1988.
- Snyder, J. • White, M. Treating impulsively and program noncompliance with self-instruction. In M. Stein & J. Davis (Eds.), 《Therapies for adolescents》. San Francisco: Jossey Bass, 1982.
- Stoner, J. A. F, A comparison of individual and group decisions involving risk, In R Brown (ed.), 《Social Psychology》, New York: Free Press, 1961.
- Thayer, R. E. 《The biopsychology of mood and arousal》.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Triandis, H,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Graw-Hill.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1994.
- Vinokur, A. • Burnstein, E., Effects of partially shared persuasive

- arguments on group induced shifts: A group problem-solv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05-315, 1974.
- Wallach, M. A., • Kogan, N. • Bem, D. J., Group influence on individual risk tak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5, 75-86, 1962.
- Wegener, D. T. • Petty, R. E. Mood-management across affective states: The hedonic contingenc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034-1048, 1994.
- Wyer, R. S. • Frey D. "The effects of feedback about self and others on the recall and judgments of feedback-relevant informa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2nd edition, vol1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3.
- Wyer, R. S. • Srull, T. K. Human behavior in its social context. 《Psychological Review》, 93:322-359, 1986.
- Wyer, R. S. • Srull, T. K. Category accessibility: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nformation.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 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1.
- Zaccaro, S. J. • McCoy, C. The effects of task and interpersonal cohesiveness on performance of a disjunctive group tas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8, 837-851, 1988.

<Abstract>

The effects of moods on group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ollectivistic culture

Wong Eun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ood on group decision-making in terms of polarization. The design of the study was a 3(mood: positive, negative, vs. neutral) \* 2(decision: individual vs. group) mixed design, with mood being a between-subject variable and decision being a within-subject variable. Participants were 184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mood manipulat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describe events that aroused the most happiness or the most sad emotional states from their life experiences. They were then asked to record their decision in terms of risk taking. Through ANOVA, it was found that all three hypotheses were supported in statistical significance. First, groups in the neutral mood condition, when presented with a risk inducing choice dilemma, showed a risky shift in their decisions. Second, groups in the happy mood condition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hift in their decisions. Last, groups in the sad mood condition became riskier than either group of the other two mood conditions. Two major perspectives can account for mood's effects on depth of information processing. One explanation posits that participants in the sad mood condition processed information centrally, that was elaborate and process information relevant to the task at hand.

Happy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are believed to be less capable of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The second explanation, motivational in nature, posits that the shift demonstrated in the sad mood condition is a result of the motivation of sad participants to get out of their negative mood state, whereas happy participants are motivated to maintain their mood and avoid complex information processing.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collectivistic culture including China and East Asia.

**keyword** : mood group polarization group discussion  
decision-making collectivistic culture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 李大钊、陈独秀民主政治思想之异同分析\*

王志立\*\*

### <目 录>

- 一、引 言
- 二、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的发展脉络
- 三、作为激进民主主义者，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之异同
- 四、作为马克思主义者，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之异同
- 五、结 语

### 一、引 言

民主政治源于古希腊城邦国家，在探索、实践，实践、探索的数千年演进发展的历史长河中，对什么是民主政治，虽然依旧存在某种认识偏差，但其基本方面已为人们所认同。何谓民主政治？简言之，民主政治是指体现人民意志，凭借公共权力，和平有效地管理国家事务和社会公共事务，从而使社会健康有序良性发展，实现人民主权、人人平等、个个自由等价值观念的政治运作方式和运行过程。陈独秀、李大钊作为中国共产党的主要创始人，他们又是如何认识和理解民主政治的呢？在这方面，理论界尽管略有涉足，但目前研究者尚未将陈独秀、李大钊的民主政治思想结合起来，进行比较研究。陈独秀、李大钊作为时代的有志志士，有着崇高的历史使命感和高度的社会责任感，即“感于国势之危迫，急思深研政理，求得挽救民国、振奋国群之良策”<sup>1)</sup>，因而拥有共同的理想和信念，就民主政治的内涵等诸多方面，

\* 本论文入选2011年春季“辛亥革命100周年”韩国联合学术大会发表论文集。  
河南行政学院公共管部博士(wzljpi@126.com)

1)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5卷. 人民出版社，2006年版，第226页。

陈独秀、李大钊的思路独特、观点新颖、各具特色，对今天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政治仍不乏有其借鉴价值。

## 二、 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的发展脉络

人思想的变化发展不仅受到特定时代背景的制约，而且与其所受教育及人生阅历息息相关。陈独秀、李大钊二人都生活在19世纪末叶至20世纪前半期，此时正是世界局势变动不居、中国政局风雨飘摇的特定时代，其民主政治思想无不留有时代的印迹。在此大的时代背景下，基于解决中国实际问题的思考及二人在政治素养、知识结构和生活阅历方面的差异，他们的民主政治思想亦同中有异、异中存同。要想全面地系统地认识和把握陈独秀、李大钊的民主政治思想，需要对其民主政治思想的演进发展历程作线型的逻辑考察，以便找准影响其形成发展的复杂因素，进而理清其发展脉络。

陈独秀(1879~1942)民主政治思想演进发展大致经历了三个阶段：戊戌变法失败至1920年春对以“民权自由”为核心的西方民主政治的向往推崇；1920年秋冬至被开除出党籍前对以“劳工专政”为核心的无产阶级民主的探索实践；开除党籍以后至江津病逝对以“制度建构”为核心的大众民主的理想追求。陈独秀出生在安徽怀宁传统儒学文化底蕴深厚的仕宦家庭。在他成长的岁月里，正是东西方思想文化震荡激变、政治派系势力角逐谋权的复杂时期。六岁时，陈独秀开始接受私塾启蒙教育，在此期间，陈独秀囿于中国儒学文化教育的氛围当中，深受孔孟儒学的影响和熏陶，在他的眼中只有“功名利禄”，没有世界政势。1897年，他参加江南乡试，但遗憾的是，没有取得成功。乡试不第使他受到强烈震撼，不仅思想波动起伏，而且对传统儒学产生了质疑，转而以试探的心态去接触西方外来政治文化。而正值此时，深受西学影响的严复和康有为、梁启超等人却强烈主张政治改良，推行君主立宪。康梁维新改良运动对陈独秀而言，无疑是一次思想启蒙运动，促使他的政治思想悄然生变，遂成为一名改良主义者。后来，陈独秀离开故土怀宁，至杭州求是书院接受新式教育。1901年至1903年间，又漂洋过海进入日本东京学堂，接受零星的西式教育。由于受到日本教育理念和西方政治文化的浸染，陈独秀对西方民主政治制度渐感兴趣。通过对中西文化的比较，西方先进文化，特别是政治思想观点在他心中已有一席之地。社会环境的变迁，西

方思想的刺激,使他逐渐认同法国的民主共和政制,政治上开始摆脱维新改良思想的束缚,资产阶级民主革命意识萌生,逐渐成为一名激进民主主义者,积极宣传西方的人民主权、自由平等政治思想。1914年11月他在《爱国心与自觉心》文中写到“人民权利,载在宪章,犬马民众,以奉一人,虽有健者,莫敢出此”<sup>2)</sup>,明确地表达出“民权至上”的政治观点。从文中的字里行间不难猜测,陈独秀对西方民主共和政治是相当推崇的。经长期酝酿之,1915年9月,陈独秀在上海创办了《青年杂志》,在《敬告青年》的发刊词中首次举起“民主”和“科学”两面大旗,高呼人是“自主的,而非奴隶的”。次年,《青年杂志》改名《新青年》,继续高扬“天赋人权”、“主权在民”、“自由平等”等政治理念。从此时至1919年5月,陈独秀撰写了介绍、宣传西方现代政治思想的文章达百篇,极大地增强了国民对西方民主政治的认识和了解。当然,这些思想观点无一例外是以倡导西方“民权自由”为核心的,从性质而言,是资产阶级民主政治思想的范畴。然而,在巴黎和会上,英、法、美等西方列强任意欺压弱小国家,恣意践踏民主、自由的暴行却给陈独秀当头一棒,动摇了他一向对西方民主政治向往推崇的信念,试图在中国推动西方民主政治的希望彻底破灭。正当陈独秀苦闷、彷徨之际,马克思主义传入中国又让他再度看到了希望。马克思主义在与各种政治思潮数次的激烈交锋、碰撞中,无比优越性与旺盛生命力不断彰显,陈独秀也逐渐接受继而积极宣传马克思主义,在批判资产阶级民主政治的同时,以“劳工专政”为核心的无产阶级政治思想在他脑海中萌生。1920年9月,陈独秀在《谈政治》文中写到“若不经阶级战争,若不经劳动阶级占领权力阶级地位底时代,德谟克拉西必然永远是资产阶级底专有物,也就是资产阶级永远把持政权抵制劳动阶级底利器”<sup>3)</sup>,既强调了劳工阶级夺取权力的必要性,又无情地揭露了资产阶级民主政治的实质,同时对资产阶级民主给以最严厉的批判,也标志着陈独秀已经全然抛弃资产阶级民主政治思想。在此文中,陈独秀开始以马克思主义的立场、观点来分析资产阶级民主政治的实质,呼吁以阶级解放代替个性解放,这是当时是难能可贵的。为此,陈独秀积极奔走、呼告。在共产国际的帮助下,在陈独秀、李大钊等人的共同努力下,中国共产党成立,肩负起实现国家独立和人民解放的神圣使命。至国民革命失败前,

2)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版,第67页。

3) 《陈独秀文章选编》:中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版,第9页。

陈独秀亲自担任党的总书记，带领着人民为着社会主义民主的理想而努力奋斗。1927年八七会议陈独秀因犯右倾错误而遭到共产国际和中共中央的指责、批判，被迫离开领导职务，1929年中东路事件又被开除党籍，被迫离开革命工作，逐渐淡出政治。在这种休闲或半休闲的状态下，他通过透视苏联无产阶级民主政治现象，结合自身的境遇和经历，对党内民主进行历史审视并对苏俄经验及斯大林现象进行深刻反思，认为民主是各个阶级集中意见所必须的工具，提出了以制度建构民主，倡导大众民主，主张以民主作为评价社会进步的重要标尺等诸多观点，使其民主政治思想更加丰富。

李大钊(1889~1927)出生于河北乐亭一个普通家庭，自幼父母离世，靠年迈的祖父教养成人。在他成长的日子，中华民族正临苦难危亡之边缘。他幼年在乡村私塾接受启蒙教育，深受“仁政德治”等儒家思想影响。1905年升入永平中学，开始接触新学教育，1907年进入政治气氛甚为浓厚的天津北洋法政专门学校学习，1913年东渡日本，次年入东京早稻田大学接受政治本科教育，在这里给了他更多地了解各种民主思潮和接触西方政治理论的机会，极大地更新了他的知识结构。1916年回国后到北京大学图书馆任职并积极探寻救国救民之路。与陈独秀形成鲜明对比的是，李大钊接受严格的法政学习达九年之久，系法政专业科班出身，不仅具有扎实的专业理论功底，而且对西方政治、历史等学科知识有相当程度的了解。其民主政治思想的演进发展大致经历：1916年回国前是其对民主政治理论与制度的探讨阶段；1916年回国后至1918年《法俄革命之比较观》等文章发表前是其民主政治思想的初步发展阶段；1918年以后是其民主政治思想的丰富实践阶段。早在留日学习期间，他就大量接触了洛克、霍布斯、孟德斯鸠、狄德罗、麦迪逊、汉密尔顿等政治思想家的政治理论观点，同时接受了日本民主政治运动的洗礼。1915年12月他被推举担任《民彝》杂志主编。在这期间，随着他对西方先进政治理论认识的不断深化，陆续发表了《论民权之旁落》、《一元制与两院制》等富有民主政治思想观点的文章，并于回国前在《民彝》上发表了其政治力作《民彝与政治》，奠定了其民主政治思想的理论基础。这些论文，无一例外是对西方民主政治理论与政治制度的探索与思考，表达了他对西方民主政治思想的推崇和在中国推行西方民主政治制度的期待。1916年回国后，军阀割据、拥兵自治的政治乱局，更使他意识到改变中国之命运，惟有推行民主政治之法。为此，他办学会、创刊物，发表了《省治与宪治》、《宪法



与思想自由》等一系列文章，阐释和宣传西方的自由平等、主权在民等政治思想，表达了自己对中国政治的独特见解。十月革命一声炮响，给中国送来了马克思主义，也使李大钊看到了胜利的曙光，对在中国实行民主政治充满信心。此后，他以主要精力研究俄国革命问题，积极宣传俄国十月社会主义革命，并于1918年发表了《法俄革命之比较观》、《庶民的胜利》、《Bolshevism的胜利》，这标志着他开始由激进民主主义者向马克思主义者转变。1919年他在《新青年》第6卷第5号上发表了《我的马克思主义观》一文，开始运用马克思主义的基本观点和根本方法分析中国实际问题，探寻解决中国问题的出路。接受马克思主义的洗礼后，他开始以马克思主义充实、更新自己的思想体系，辩证扬弃资产阶级民主政治思想，这不仅是对其民主政治思想的一次洗涤和重新梳理，也为其民主政治思想注入了马克思主义的理论内核和新的时代内涵。

上述比较不难得出这样的结论：从思想渊源看，中国传统民本思想不可忽略，但域外民主政治思想尤甚，陈独秀更多地受卢梭式法国民主主义的启蒙，侧重平等、民主；李大钊更多地受洛克式英国自由主义的熏陶，侧重自由、宪政，另外两人都约而同地赞成苏俄式的“政党改造”。从影响因素看，复杂多样，前期是中国传统民本思想与西方民主思想的媾合，后期则是苏俄民主兼采西方民主之精华。从发展脉络看，经历推崇西方民主政治——怀疑西方民主政治——实践无产阶级民主政治等演进路径，但陈独秀的民主政治发展脉络相对复杂得多，是多线条的、反复的，大致图示：改良民主（君主立宪）→共和民主（天赋人权）→苏俄民主（劳工专政）→大众民主（制度构建）；而李大钊的则相对简单，基本上是直线式的，大致图示：西式民主（宪政民主、共和民主）→苏俄民主（代表绝大多数人意志和利益的无产阶级民主）。

陈独秀、李大钊的民主政治思想演进发展历经数变，是一个比较复杂的历程。从一定意义上说，他们的民主政治思想前后存在明显差异，甚至可以说存在着质的区别。正如恩格斯所说，“主要人物是一定的阶级和倾向的代表，因而也是他们时代的一定思想的代表，他们的动机不是从琐碎的个人欲望中，而正是从他们所处的历史潮流中得来的。”<sup>4)</sup>比较陈独秀、李大钊的民

4) 《马克思恩格斯选集》：第4卷，人民出版社，1995年版，第343~344页。

主政治思想需要将其放在那个时代的特定背景下来进行深度挖掘，既要纵向审视，又要横向思考。

### 三、作为激进民主主义者，陈独秀、李大钊 民主政治思想之异同

在转变为马克思主义者之前，陈独秀、李大钊都是激进民主主义者，对西方民主政治相当推崇，其民主政治思想是对西方民主政治思想的采撷。因受多种因素的影响和制约，尽管他们在转变的时间上略有差异（陈独秀的转变以1920年9月撰写《谈政治》为标志，李大钊的转变以1919年5月撰写《我的马克思主义观》为标志），但就性质而言，他们的民主政治思想都是资产阶级的。

#### （一）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基本内容

陈独秀素有“新文化运动旗手”的美誉，是西方民主政治思想的积极宣传者和鼓吹者。如果说1914年11月《爱国心与自觉心》一文仅是流露出他对西方民主政治向往的话，那么1915年5月《敬告青年》一文则明确地表达出他对西方民主政治的赞许和推崇。《敬告青年》文中民主政治思想主要涉及：倡民主、兴民权，即“等一人也，各有自主之权，绝无奴隶他人之权利，亦绝无以奴自处之义务”<sup>5)</sup>；破专制、求解放，即“破坏君权，求政治之解放也”；立人格、要平等，即“完其自主自由之人格”、“不以自身为本位，则个人独立平等之人格，消灭无存”<sup>6)</sup>。此后，在转变为马克思主义者以前，他撰写的政论性文章可以说都是围绕上述方面而展开的。

李大钊留学日本，潜心学习政法知识数年，西方政治思想对其产生着潜移默化的影响。《民彝与政治》是他在这一时期最具代表性的政论性文章，其它文章都是以此为立论依据，《省制与宪法》、《宪法与思想自由》等等无不是在“民彝”基础上的展开。《民彝与政治》文中写道：“意念自由，即

5)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版，第74页。

6)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版，第74页。

为生民之秉彝”、“意念自由之重，不必于思想大家乃为不可阙之心德也，其事实生民之秉彝，天即予人人以心矣，虽在常伦，而欲尽其心量者，尤非自由不可”<sup>7)</sup>，强调自主、平等、自由乃个人天生之权，是人之本性。可见，提倡民主自由，反对封建专制；主张民主政治、自由解放，反对传统伦理、孔孟之学是李大钊这一时期民主政治思想的核心。

## (二) 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的相同点

首先，痛斥封建专制，主张民主共和。陈独秀、李大钊学识经历如此相似，受到儒家传统文化的浸染长达十余年，不仅对封建伦理道德感受甚深，而且对承袭两千余年的封建专制制度有切肤之痛。陈独秀在参加乡试前，心中除四书五经外，思想几乎处于“睡眠状态”，一心只求功名仕途、光宗耀祖。然而乡试落第的沉痛打击，使他对仕途之路倍感厌倦。留日深造却极大地开阔了他的眼界，让他沉睡的思想猛然醒来。日本在明治维新后拥有资本主义发展的巨大潜力使他意识到：与封建社会相比，资本主义具有无可比拟的优越性，物质丰富、“精神充实”。在此期间，他结识了章士钊等有识之士，接触到了有机体论、进化论和资产阶级政治学说，使他心中的政治天平日渐倾向民主共和，对封建专制制度的痛斥浮出水面，成为批判封建制度的坚强斗士。与陈独秀略有差异的是，李大钊的家乡是洋务思想、戊戌新学和立宪改制浸润之地，因而李大钊从中受益匪浅，对政治的热忱足见一斑。留学日本期间，不仅积极各种进步社团和爱国政治活动，而且广泛了解资本主义，主动接触西学，特别是具有进步性质的政治思潮，潜心研读政治书籍。他遂意识到改变中国之命运，惟为效法西方，根绝封建专制，建立民主共和国，还权于民。

其次，强调民治，以公民参政为民主政治思想的核心。陈独秀不仅以“主权在民”思想学说对中国沿袭数千年的“主权在君”旧观念以猛烈地抨击，而且高呼民权至上，高于一切。保障公民权利，要将政权分配到公民全体，实行民治。陈独秀所理解的民治主要包括经济的和政治的两大方面，其中经济是基础，是实现民治最重要的方面，“社会经济的问题不解决，政治上的

---

7)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人民出版社，2006年版，第154页。

大问题没有一件能解决<sup>8)</sup>。他还认为，中国没有实现民治的社会环境和经济政治基础，惟有“人民直接的实际的自治与联合”<sup>9)</sup>以设立自治组织，才是实现民治之坚实基础。而李大钊强调推行民主政治要始终尊重公民意愿，保障公民权利。要保障公民权利，使公民充分行使自己的权利，惟有让公民参与政治，实行民治。

再次，启蒙国民思想，唤醒国民自觉。辛亥革命后，虽然建立了资产阶级的民主共和国，然而却是帝制复辟、军阀割据的幕幕闹剧。对民国初年中国政治之乱象，陈独秀加以严厉痛斥“此固不治，锄而去之，国难自己”<sup>10)</sup>。在“民主共和”空有一块招牌的政治格局下，“吾人于共和政体之下，备受专制政治的痛苦。自经此次之实验，国内贤者，宝爱共和之心，因以勃发，厌弃专制之心，因以明确。”<sup>11)</sup>。不仅如此，陈独秀运用自己的政治知识，以西方资本主义民主共和制作为参照系，进一步分析了“民主共和”政治乱象的根本原因。他认为，民主共和政体沦落后到如此地步，民主共和本身没有错，也不能全怪某个政治人物，其根本原因在于国民迷信、愚昧无知，“其民无建设国家之智力故也”<sup>12)</sup>。因此，他认为实行民主共和，必须有国民的觉醒，要进行思想启蒙。在这种思想的支配下，陈独秀情怀满志，揭开了新文化运动的序幕。在此问题上，李大钊与陈独秀如出一辙，“国家为物，既以生存所必需，字以罪恶，未免过当”<sup>13)</sup>。也就是说，“民主共和”的政治乱象，不在民主共和本身的原因。要挽救国家于危难，“惟吾民于此，诚当自觉。自觉之义，即在改进立国之精神<sup>14)</sup>。”李大钊的意图相当明确，要实行真正的民主共和，推行民主政治，必须对着手国民启蒙，除民彝之蔽。

最后，批判儒学文化，宣扬西方文化，主张民主自由、个性解放。陈独秀、李大钊二人都曾到日本留学，接受过西方教育理念和先进思想，对儒学传统文化，特别是对“三纲五常”、“忠孝仁义”等封建伦理道德深恶痛绝。他们将国民思想顽固、愚昧落后，丧失独立人格，以致沦为封建统治者的奴

8) 任建树：《陈独秀著作选》：第2卷，上海人民出版社，1993年版，第29页。

9) 任建树：《陈独秀著作选》：第2卷，上海人民出版社，1993年版，第32页。

10)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版，第70页。

11)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106页，1984年版。

12)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71页，1984年版。

13)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人民出版社，第137页，2006年版。

14)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人民出版社，第137页，2006年版。

隶，归结为封建伦理思想束缚、专制统治禁锢所致，因此要大胆否定封建权威，敢于反对封建迷信。基于此认识，陈独秀在新文化运动中撰写大量文章痛斥孔孟之学为“失灵之偶像，过去的化石”<sup>15)</sup>，号召青年敢于冲突传统思想文化的束缚。李大钊也在《民彝与政治》文中指出“局于古人之成规，堕其自我之本能，……孔之罪人也矣”<sup>16)</sup>，人们冲破思想之禁锢，必须消除对孔孟文化的崇拜，破除旧观念的囹圄。另一方面，他们积极宣扬西方政治制度，用西方先进文化唤醒国民之意识，陈独秀在《敬告青年》文中呼吁青年“破坏君权，求政治之解放也”<sup>17)</sup>，主张“女子参政运动，求男子之解放也”。此外，他还注意到思想自由与个性发展之间的联系，“思想有论之日由，谋个性之发展也”<sup>18)</sup>。李大钊对陈独秀的呼吁做出了积极回应，在《青春》等文中号召和动员广大青年行动起来，赴世界之潮流，追求个性解放、思想言论自由。不仅如此，他特别强调民主制度对个性发展的重要作用，“惟有德谟克拉西的制度，才能使个性自由发展。”<sup>19)</sup> 尽管在此阶段，陈独秀、李大钊二人都是激进民主主义者，民主政治思想惊人相似，然而，细作推敲，又体现出自己的特色。

### (三) 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的相异处

首先，在民主政治基石的理解上，二人虽有异曲同工之妙，但陈独秀多借鉴西方，李大钊善立足本土。与李大钊比较，陈独秀出身于封建氛围浓厚的仕宦家庭，封建民本思想对其影响远胜于李大钊。此外，陈独秀重在对卢梭“开赋人权”思想和英国自由主义思想的采撷，对达尔文进化论合理内核的吸收。因而在他的民主政治思想中特别强调人权和民主。结合自己对时代和中国现状的思考，对人权和民主做出了自己的理解，所谓人权，即人人“各有自主之权，绝无奴隶他人之权利，亦绝无以奴自处之义务”、“独立自主之人格”<sup>20)</sup>。所谓民主，即“法律之前，个人平等也。个人之自由权力，载诸宪

15)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144页，1984年版。

16)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 人民出版社，第166页，2006年版。

17)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版，第74页。

18)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98页，1984年版。

19)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 人民出版社，第2页，2006年版

章，国法不得剥夺之，所谓人权是也。”<sup>21)</sup> 从中不难看出，社会成员有独立人格，相互之间是平等的，人权是民主政治的基石。与此不同的是，李大钊从中国传统出发，侧重于人的本性、本能的研究，提出了与“宗彝”相对立的“民彝”概念。他在《民彝与政治》文中写到“民之秉彝，好是懿德”<sup>22)</sup>，民彝即人生来所具有的平等、自由的本能或本性。在他看来，“民彝者，民宪之基础也”<sup>23)</sup>，民主政治就是要信其民彝，彰显民彝。

其次，陈独秀侧重于人的平等人格，高扬个人自由，而李大钊侧重于广大民众，注重个人与国家的整体把握。在陈独秀看来，民主的核心要素在于个人是否有独立人格，能否获得个性解放、思想自由，“解放云者，脱离夫奴隶之羁绊，以完其自主自由之人格之谓也”、“盖自认为独立自主之人格以上，一切操行，一切权利，一切信仰，唯有听命各自固有之智能，断无盲从隶属他人之理<sup>24)</sup>。”也就是说，每个人都不受任何羁绊之束缚，享有完善个人、追求幸福之自由，拥有独立人格。或者，一定程度上说，陈独秀将民主政治看成是个人价值实现的一种工具。与陈独秀不同的是，李大钊将民主看成是制度性的存在物，民主政治就是一种政治制度。在李大钊看来，每个人个性自由发展，个人能力的充分发挥，恰恰有助于资产阶级共和国的建立，反之亦然，二者关系相辅相成、并行不悖，“政治体由民众的全体构成，不由民众的一部，治者兼为民众的属隶”<sup>25)</sup>。

再次，陈独秀侧重于思想文化的批判与改造，而李大钊倾向于政治制度的改造和革新。对这一点，教育经历或许是他们各有侧重的最根本原因，陈独秀长期浸润在儒家文化的氛围当中，对儒家文化对国民思想禁锢深有体会，而李大钊中学时代就受新学启蒙，开始接触到康有为、梁启超等新学著作，况且他多年研读法政专业知识，政治理论功底远在陈独秀之上。陈独秀认为，要实现国家独立、民族进步，首先要唤醒国民自觉意识，树立民族之革命精神。为此，他批判对象直指封建传统伦理和宗法制度，指出“腐旧思想布满国中，所以我们要诚心巩固共和国体非将这班反对共和的伦理、文学

20)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74页，1984年版。

21)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98页，1984年版。

22)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 人民出版社，第145页，2006年版。

23)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1卷. 人民出版社，第147页，2006年版。

24) 《陈独秀文章选编》：上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74页，1984年版。

25)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4卷，人民出版社，第116页，2006年版。

等等旧思想，完全洗刷得干干净净不可”<sup>26)</sup>，发出打倒孔家店，创立新世界的强烈呼吁。与其形成鲜明对比的是，李大钊凭借其丰富的政治理论知识，透视民国初年政治现象，提出造就新的“中心势力”，以号召国民共同制衡其他政治势力。不仅如此，李大钊还写了大量的文章，对数千年封建统治者无视法律之专断习性和民众淡薄法治之盲从奴性亦是深恶痛绝，认为“此性不除，终难以运用立民主政治治于美满之境”<sup>27)</sup>，强调法制建设对民主政治发展的极端重要性。

此外，他们虽然都认为民主政治的基本组织形式是法治，但陈独秀更加强调整法治对民主政治的保障作用，侧重于法律的执行。他明确指出“所谓民权，所谓自由，莫不以国法上人民之权利为之的解，为之保障<sup>28)</sup>”。但李大钊更侧重于立法规范，特别是国家根本大法宪法的制定规范和程序，以维护宪法的至上性和权威性。

#### 四、作为马克思主义者，陈独秀、李大钊 民主政治思想之异同

1919年至1920年，李大钊、陈独秀先后转变成为一名马克思主义者，开始以马克思主义的立场、观点和方法去思考问题，在民主政治思想方面有了新的认识和突破，注入了马克思主义民主政治观点的鲜活内容，体现出鲜明的时代特色。

##### (一) 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的相同点

首先，抨击资产阶级民主，主张劳工阶级专政。在俄国劳工阶级专政（即无产阶级专政）这种新型的政权结构形式没有产生以前，他们对资产阶级民主是推崇备至的，以积极心态去拥抱资产阶级的“民主自由、平等博爱”等政治思想，强烈主张民主共和。但俄国十月革命后，马克思主义传入中

26)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207页，1984年版。

27)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2卷，人民出版社，第350页，2006年版。

28)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347页，1984年版。

国，俄国劳工阶级专政思想逐渐为陈独秀、李大钊所认识和接受，劳工阶级专政也是人民当家作主的必然形式。对于资产阶级民主，陈独秀进行了无情的揭露，“民主主义是什么？乃是资产阶级在从前拿他来打倒封建制度底武器，在现在拿他来欺骗世人把持政权底诡计”<sup>29)</sup>。在他看来，只要资产阶级掌握国家政权，民主政治、代议政治都是“资本家为自己阶级设立的，与劳动阶级无关，”<sup>30)</sup> 仅是资产阶级欺骗劳工阶级的手段和工具。李大钊在谈到议会政治时，认为它仅是“为中产阶级装潢门面”<sup>31)</sup>，是特殊政治集团的遮羞布。他们在抨击资产阶级民主的同时，认为惟实现劳工阶级专政，才能切实实现人民民主。在《告北京劳动界》文中预言20世纪的民主乃是无产阶级的民主。在对西式民主与俄式民主进行比较分析之后，发出了俄式民主乃当日世界之难觅的感慨，对俄式民主的推崇溢于言表。李大钊在1922年7月1日撰写的《平民政治与工人政治》一文，不仅对平民政治与工人政治进行了严格区分，而且还对工人政治详加阐释，认为将来社会“做事的工人，各尽所能以做工，各取所需以营生。阶级全然消灭……没有治人的意义。这才是真正的工人政治”<sup>32)</sup>，字里行间表达了他对劳工阶级专政的期待和将来社会工人政治的美好向往。

其次，以发展眼光，对社会主义民主充满憧憬和向往。早年留学日本期间，陈独秀已经接受了达尔文进化论学说，认为新陈代谢乃自然现象，不可违背。后来他又接受了马克思主义人类社会发展规律理论，意识到先进的社会制度代替落后的社会制度是不可避免的。他指出：“社会主义要起来代替共和政治，也和当年共和政治起来代替封建制度一样，按诸新陈代谢底公例，都是不可逃的命运<sup>33)</sup>。”不仅如此，他还将民主与社会主义联系起来。基于俄国革命的实践，他认为社会主义代替资本主义是不久以后的事情，在这种制度下，必然以社会主义民主取代资本主义民主，让大多数人真正享有当家作主的权利。可见，在这里，他已经意识到民主不是超阶级的东西，总是为特定阶级所享有，具有鲜明了阶级性。留日期间，李大钊对社会主义

29) 任建树：《陈独秀著作选》：第2卷，上海人民出版社，第219页，1993年版。

30) 任建树：《陈独秀著作选》：第2卷，上海人民出版社，第200~201页，1993年版。

31)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4卷，人民出版社，第86页，2006年版。

32)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4卷，人民出版社，第86页，2006年版。

33) 《陈独秀文章选编》：上册。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第32页，1984年版。



学说已有了解，而俄国十月革命更让他看到了社会主义的希望，认为无产阶级革命建立的社会主义将“统制一切权力，全收于民众之手”<sup>34)</sup>，最广大的民众将成为权力的主人，命运的主宰，未来社会即“社会主义者是要求政府有一种权力，使之伸张，以保障每人享受极大量的平等、自由”<sup>35)</sup>、“德谟克拉西与社会主义，在精神上亦复相同”<sup>36)</sup>。在他看来，资本主义民主是少数人享有的民主，而社会主义民主是劳工阶级及广大人民群众不但在政治上享有选举权，而且在经济、教育、文学上也享有同等机会，这是两者的本质区别。他相信，社会主义民主将是“没有统治者”<sup>37)</sup>，真正民主的社会。

## (二) 陈独秀、李大钊民主政治思想的相异处

首先，就如何实现劳工阶级专政，陈独秀主张劳工阶级“直接行动”，李大钊强调革命政党联合。陈独秀认为，对于中国资产阶级，改良派也好，革命派也罢，都具有软弱性和妥协性，并不具革命的彻底性。资产阶级革命建立了中华民国，但政权却掌握在大地主大资产阶级手中，他们利用国家、政府等国家机关，控制了全国政治资源，劳工阶级根本没有改变被剥削、受压迫的命运。资产阶级不会主动放弃其即得地位，实现劳工阶级专政“非用阶级战争的手段来改革”不可<sup>38)</sup>，以革命暴力对抗反革命暴力。劳工阶级只有通过直接行动才能打倒一切资产阶级，夺得政权，变财产私有为财产公有，消除人与人之间经济、政治上的不平等，建立劳工阶级专政。李大钊对民国建立后的军阀割据、混战之烈的政治局势，痛恨之情无以言表，为改变中国政治现状苦苦思索。俄国十月革命后，让他看到了革命的曙光，并在对俄国革命的宣传中接受了马克思主义。在积极从事马克思主义宣传和建党的革命实践中，在共产国际的指导和帮助下，他对中国革命有了新的认识，并且认为，在敌人力量异常强大的情况下，实现革命之最后胜利，惟为联合革命之各阶级，汇聚革命统一力量。为此，李大钊积极与孙中山联络，亲赴上海与

34)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2卷，人民出版社，第255页，2006年版。

35)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4卷，人民出版社，第195页，2006年版。

36)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4卷，人民出版社，第6页，2006年版。

37)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4卷，人民出版社，第356页，2006年版。

38) 任建树：《陈独秀著作选》：第2卷，上海人民出版社，第170页，1993年版。

其晤面，商讨国共两党合作事宜，致力于国共合作。在两党合作期间，李大钊始终强调共产党的独立性与劳工阶级掌握革命领导权的重要性，以便最终建立社会主义民主国家，实现劳工阶级专政。

其次，就无产阶级民主与无产阶级专政关系认识而言，陈独秀的认识存在模糊、片面，甚至将两者对立起来；李大钊的认识相对清醒，能与时俱进地阐释民主，辩证看待两者关系。其实，就二者关系的认识，存在一个对资产阶级民主“扬”与“弃”的问题。资产阶级民主尽管是少数人享有的民主，富有虚伪性、欺骗性，民主政治不能使人民摆脱压迫，资产阶级民主本质上是少数人享有的民主，但因此而得出民主本身毫无可取之处则是没有道理的。资产阶级民主与民主本身是两个不同的概念，对此需要辩证地看，民主是人类优秀文明成果，是一种社会制度或社会形态，资本主义可以利用，社会主义也同样存在。陈独秀只看到无产阶级专政的一面，而忽视专政对巩固发展民主的进步作用，当然不能正确的理解无产阶级民主的深刻内涵。这种理论认识带到实践中，必然演化为家长制作风，恣意独断专行，讲集中而忽视民主，阻碍无产阶级民主的推进。相反，李大钊却汲取了资产阶级民主之精华，将无产阶级专政与无产阶级民主结合起来，赋予了民主以新的时代内涵，“民主”（Democracy）即平民主义、唯民主主义之意。工人政治’在本质上亦是‘平民政治的一种，“统治与服属”彻底消灭之后，纯正的平民主义便是顺理成章的事。

值得一提的是，陈独秀离开党的领导职务后，个人的复杂经历及不公平待遇的遭遇，苏联斯大林独断及肃反运动等现象，使他们党内民主、党际关系及民主本身等系列问题有了深刻认识。结合自己的不幸，他呼吁重视党内民主，指出，同志间关于理论上政策上意见不同的争论，是党的进步的现象，决不是坏现象；反之，大家都没有什么不同的意见，这正是党之幼稚的表现……便是有意的或无意的阻住了党的进步。这对今天建设学习型政党，推进党内民主建设还是有启发意义的。而他晚年对民主问题的进一步探讨，提出以“制度建构”为核心的大众民主的观点，这与李大钊将民主看作一种政治制度无疑有契合之处。客观地说，尽管陈独秀晚年的民主理论观点有不少偏颇之处，如资产阶级民主与无产阶级民主内容大致相同等观点，但也有诸多观点如以制度建构民主、以民主程度作为评价社会进步的重要标尺等仍不乏有其借鉴意义。

## 五、结 语

不容讳言,陈独秀、李大钊作为夏杂政治局势背景下的显赫政治人物,不可能超越历史时代的局限,其民主政治思想仍有诸多不足取之处。即便如此,历史的烙印丝毫不能遮蔽他们民主政治思想的夺人光芒。他们在民主政治思想方面富有创建性和前瞻性的理论观点,不仅远远超越前人及同时代的其他政治人物,而且时至今日对发展社会主义民主政治仍有重大的参考价值。

### 〈参考文献〉

- 中国李大钊研究会,《李大钊全集》第5卷. 人民出版社,2006年。  
陈独秀,《陈独秀文章选编》上中下册.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4年。  
《马克思恩格斯选集》第4卷. 人民出版社,1995年。  
任建树:《陈独秀著作选》第2卷,上海人民出版社,1993年。  
李大钊全集:第5卷,,北京:人民出版社,2006年,第226页。  
林来梵,《从宪政规范到规范宪法:规范宪法学的一种前言》,北京:法律出版社,2001年。  
周忠瑜,《民彝思想是李大钊早期宪政主张的核心》,青海社会科学,2005(4)。  
陈独秀,《独秀文存》,贵州:教育出版社,1996年。  
中央档案馆编:《中共中央文件选集(1929)》,中共中央党校出版社,第740页,1989年版。

<Abstract>

Comparative Studies on CHEN Duxiu and LI  
Dazhao's Democratic Ideas

Wang zhili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main foun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en Duxiu and Li Dazhao formed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 democratic thoughts on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which were based on the need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of China, and combined with their cultural backgrounds, experiences as well as the judgments about China's political situation, in the environment of the changing world and the turbulent politics of China. Toda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do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ir democratic political thoughts at the important moment of developing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and promot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Keywords** : Chen Duxiu Li Dazhao democracy labor  
dictatorship political development

<中文摘要>

20世纪初,在世界局势变动不居、中国政局风雨飘摇的时代背景下,陈独秀、李大钊作为中国共产党的主要创始人,基于解决中国实际问题的需要,结合自己的知识背景和对中国政局的判断,就中国政治发展有着独特的见解和思路,形成了各具特色的民主政治思想。今天,在发展社会主义民主政治、推进党内民主建设的重要时刻,对他们的民主政治思想进行比较研究尤显必要。

**关键词：**陈独秀 李大钊 民主政治 劳工专政 政治发展

투 고 일 : 2011.6.27

심 사 일 : 2011.7.10~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中国人自杀研究的现状及未来研究课题

陈楠\*·金昌庆\*\*

### <目 录>

1. 研究背景
2. 中国人自杀研究现状
  - 2.1. 自杀研究的遴选方法及文献回顾
  - 2.2. 自杀研究的内容和局限
  - 2.3. 自杀研究的热点和趋势
3. 中国人自杀研究的总结和未来课题

### 1. 研究背景

据国际卫生组织年发布的自杀预防报告 (SUPRE) 估算,在最近45年中全球的自杀率提升至60%,2000年世界范围内大约有100万人口死于自杀,自杀的平均全球致死率为16名/10万名。进入2000年后,自杀在一些国家中成了15-44岁人口的前三大死亡要素。在全球范围内自杀主要集中在东北亚和欧洲大部分地区,这些地区每10万名中有超过13名的人口死于自杀 (WHO, 2009)。在自杀日渐成为全世界重要的公共卫生问题时,有研究指出亚洲地区特别是其中几个人口大国的自杀率在世界自杀率中占有较大比重 (Hendin, 2008)。

Phillips et al.(1999)的研究利用中国疾病监督据点系统 (NDSP) 提供的数据预测出中国在1990年到1994年期间,每年发生30万例自杀事件,由此得出了中国是世界上自杀率最高的国家之一,自杀成为了中国人死亡原因中

---

\* 第1作者(F.A.) 高神大学 中国学系

\*\* 责任作者(C.A.) 釜庆大学 国际地域学部

最重要要素之一的结论。由于自杀问题的严峻性,近年来特别是进入到2000年以后,针对中国独特的自杀率变化趋势和流行病学特征,学术界对中国人自杀相关主题的研究也日趋增多。这些研究主要是围绕精神医学、心理卫生、社会人口学这几个领域对自杀问题展开分析和研究,其研究热点和研究趋势也随着国内对自杀关注度的增高而逐渐升温。因此本文的研究目的在于对近10年来中国人自杀研究内容进行系统梳理,在探讨这些研究的特点并揭示其局限的同时分析其研究的热点和变化趋势,为未来自杀研究的方向和课题提供前瞻性依据。

## 2. 中国人自杀研究现况

### 2.1. 自杀研究的遴选方法及文献回顾

由于本文研究的时间跨度较长、涉及的学科领域较广,为了提高研究效率,文本将只对中国最大的专业学术数据平台-中国知网2000年到2010年科学引文数据库、人文社会科学引文数据库中的中文核心期刊<sup>1)</sup>论文进行分析研究。本文按照以下方法来选择核心期刊和其中的代表文献。首先,本文所选定核心期刊是从1992到2008年都被《中国核心期刊要目总览》中收录的期刊。其次,按照这些期刊中自杀研究的多寡和研究领域的相似性而确定了十种期刊。再次,把每种期刊自杀研究的总量加权平均,计算出各种期刊可以选定的文献百分比。最后,考虑期刊中各文献的引文次数,选定了其中的39篇代表研究。另外,国外文献中也有涉及到中国人自杀的研究主题,作为对国内中国人自杀研究的对比和补充,本文也收录了其中的11篇代表研究。

---

1) 中文核心期刊是中华人民共和国期刊中学术水平较高的刊物,是中国学术评价体系的一个重要组成部分。中文核心期刊主要体现在学术水平的确认方面,分为国家级、省级、市级等级别。目前中国国内有7大核心期刊遴选体系,它们是北京大学图书馆“中文核心期刊”;南京大学“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来源期刊”;中国科学技术信息研究所“中国科技论文统计源期刊”;中国社会科学院文献信息中心“中国人文社会科学核心期刊”;中国科学院文献情报中心“中国科学引文数据库(CSCD)来源期刊”;中国人文社会科学学报学会“中国人文社会科学核心期刊”;万方数据股份有限公司正在建设中的“中国核心期刊遴选数据库”。通常所说的中文核心期刊,是指被北大每年出版的《中国核心期刊要目总览》中收录的期刊(互动百科,检索日期:2011.06.19)<http://www.hudong.com/wiki/>



因此本文最终选定了50篇论文,作为10年来中国人自杀研究的代表文献用于分析。〈表一〉中依此显示出了各选定文献的发表时间、论文题目、登载刊物和第一作者,其中〈中国心理卫生杂志〉8篇,占研究总篇数的17%。〈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5篇,占10%。〈中国公共卫生〉4篇,占8%。〈中华流行病学杂志〉、〈青年研究〉、〈社会学研究〉和〈社会科学研究〉各2篇,各占4%。〈西北人口〉和〈人口研究〉各3篇,各占6%。〈中国学校卫生〉8篇,占17%。国外文献共有11篇,占研究总篇数的23%。

〈表一〉 2000年-2010年中国人自杀研究代表文献

发表时间	论文题目	登载刊物	第一作者
2010	军人自杀意念及影响因素分析	中国公共卫生	王志忠
	近21年我国自杀人口的性别差异	西北人口	黄润龙
	自杀未遂者出院18个月应对方式与社会支持的病例对照研究	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	徐东
	Economic Growth and Suicide Rate Changes: A Case in China	European Psychiatry	Zhang Jie
	Marriage and Suicide among Chinese Rural Young Women	Social Forces	Zhang Jie
2009	代际关系变动与老年人自杀——对湖北山农村的实证研究	社会学研究	陈柏峰
	城乡居民对自杀的接受程度及其与自杀意念和行为的关系	中国心理卫生杂志	李献云
	Suicide among the Elderly in Mainland China	Psychogeriatrics	Li X
	中学生自杀行为流行现状及其与心理-情绪障碍的关联	中国学校卫生	季成叶
	青少年亚健康对自杀心理行为的预测作用	中国学校卫生	万宇辉
2008	不同地域女性自杀死亡率差异的经济原因分析	西北人口	曹彦婷
	负性生活事件与自杀行为研究	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	李献云
	医学生心理—社会因素与自杀意念的相	中国学校卫生	范引光

	关性研究		
	领悟社会支持及安全感与大学生自杀态度的相关分析	中国学校卫生	李彦牛
2007	青少年学生自杀意愿和行为的家庭阶层特征差异研究	西北人口	彭国胜
	论'过日子'	社会学研究	吴飞
	合肥市男男性行为者自杀行为与社会特征关系	中国公共卫生	张洪波
2006	深圳市青少年自杀意念及其影响因素分析	中国学校卫生	袁碧涛
	抑郁障碍青少年自伤行为、自杀观念相关因素剖析	中国心理卫生杂志	唐记华
2005	Suicide Rates in China during a Decade of Rapid Social Changes	Soc. Psych. and Psych. Epide.	Yip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Biomed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Yang, G. H
	农村自杀者心理解剖条件 Logistic回归分析	中国心理卫生杂志	胡冬梅
	Suicide in Developing Countries: Risk Factors	Crisis Inter.& Sui. Pre.	Vijaya kumar
	乡村严重自杀未遂者的特征	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	李献云
	育龄妇女自杀危险因素分析	人口研究	黄飞
2004	中国的自杀现状及未来的工作方向	中华流行病学杂志	费立鹏
	为什么女性自杀未遂率显著高于男性	中国心理卫生杂志	李献云
	中南大学大学生自杀意念及其危险因素研究	中华流行病学杂志	徐慧兰
	自杀与其它伤害死亡全国性对照研究	中国心理卫生杂志	张艳萍
	父母教养方式与中学生自杀意念的相关研究	中国学校卫生	张志群
	Culture, risk factors and suicide in rural China: a psychological autopsy case control study	Acta Psychia. Scandinavica	Zhang Jie
2003	自杀危险因素及预防研究的现状与趋势	中国公共卫生	崔树伟

	冲动性与非冲动性自杀未遂的比较	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	李献云
	广州市高校大学生自杀意念发生的危险因素	中国学校卫生	荆春霞
	中学生自杀意念的相关因素研究	中国心理卫生杂志	张志群
	社会转型期老年人自杀现象研究	人口研究	颜廷健
2002	中国青少年自杀意念	青年研究	屈坚定
	抑郁症自杀行为的相关危险因素研究	中国神经精神疾病	王东波
	Rebellion and Revenge: the Meaning of Suicide of Women in Rural China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Liu M
	Risk factors for suicide in China: a national case-contro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The Lancet	Phillips
	农村地区综合医院诊治的自杀未遂病人的特征	中国心理卫生杂志	李献云
	自杀轨迹模式研究	社会科学研究	库少雄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Acta Psychia. Scandinavica	Qin P
	Suicide in Contemporary China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Ji J
2001	1998年我国生育年龄段人群中自杀的死因分析	中国公共卫生	李献云
	青少年自杀的原因、征兆与介入策略	社会科学研究	库少雄
	自杀意念中学生的心理健康水平及家庭环境因素研究	中国学校卫生	徐勇
	大学生自杀行为的预防和干预	青年研究	姚月红
	湖南省城乡老年人口自杀流行病学研究	中国心理卫生杂志	徐慧兰
2000	中国育龄妇女自杀死亡分析	人口研究	杨俊峰

## 2.2. 自杀研究的内容和局限

纵观这10年来中国国内的自杀研究, 不仅涉及到了心理卫生、神经精神疾病、公共卫生和流行病学等卫生和精神医学领域, 而且还涵盖了青年、人口和社会等社会学领域, 由此可知自杀行为是一个跨众多学科领域的复杂主

題。各个学术刊物由于对自杀研究的视角不同，其研究的侧重点和研究内容也不尽相同。卫生和精神医学领域学术刊物中的自杀研究主要是从心理医学的角度探讨个人自杀行为的特征、发生要因及影响要素，所涉及的研究对象一般为精神障碍人群、自杀未遂人群或自杀死亡人群，同时也覆盖了一些特殊年龄(青少年、老人)及性别(女性)的人口。社会学领域学术刊物中的自杀文献主要是从个人生活的外部环境来剖析自杀危险因素和自杀的特征，所涉及的研究对象主要是青少年学生、农村青年妇女和老人。国外文献大部分是针对中国特殊的自杀人口学特征，分析比较了一定时期内特殊人群自杀流行性特征及原因。

〈表二〉 部分核心刊物中自杀相关文献的研究内容

刊物	研究目的	研究对象	研究方法	研究变量
中国心理卫生杂志	揭示特殊困境下自杀行为的接受程度	部分省、市属城乡居民2021例	问卷调查	人口学变量
	影响抑郁青少年自伤行为的因素	75例门诊内抑郁障碍青少年患者	问卷调查	精神医学变量 人口学变量 社会学变量
	了解自杀与其他伤害死亡的现状特征	全国疾病检测点内895例自杀和701例其他伤害死亡	心理解剖调查法 <sup>2)</sup>	精神医学变量 人口学变量 社会学变量
	描述老年人口自杀的流行病学特征	1990-1998部分城乡自杀老年人口	卫生厅统计资料分析	人口学变量 社会学变量
	探讨农村自杀的危险因素	自杀死亡者66例	心理解剖调查法	精神医学变量 社会支持
	了解农村地区医院自杀未遂病人特征	市县级医院的326例自杀未遂病人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了解中学生自杀意念的相关因素	市属1421名中学生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精神医学变量
	了解女性自杀未遂率高于男性的原因	综合医院326例自杀未遂病人	问卷调查	人口学变量 社会学变量 精神医学变量

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	探讨自杀未遂者自杀发生后18个月时的应对方式	111例自杀未遂者 111例自然人	问卷调查	社会支持 精神医学变量 心理学变量
	了解负性生活事件在自杀行为发生中的影响机制	926例自杀死亡 756例其他伤害死亡案例和570例自杀未遂者本人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心理学变量
	比较冲动性与非冲动性自杀未遂特征	市县级综合医院 306例自杀未遂者	问卷调查	精神医学变量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研究抑郁症自杀行为的危险因素	207例住院的抑郁症病人	问卷调查	精神医学变量 负性生活事件 心理学变量
	了解乡村严重自杀未遂者的特征	县级综合医院的 326例自杀未遂者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心理学变量
中国公共卫生	分析影响军人自杀意念的相关因素	军队现役官兵 1400名	对面访谈	精神医学变量 人口学变量 社会学变量
	探讨自杀危险因素及预防研究现状	2000-2003年自杀死亡率	文献研究	精神医学变量
	了解男男性行为者自杀行为与社会特征的关系	228名男同性恋者	对面访谈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心理学变量
	了解1998年育龄男女自杀状况	15岁到44岁的中国育龄自杀男女	卫生统计年报资料	人口学变量
中华流行病学杂志	探讨中国的自杀现状及预防策略	1990-2005年自杀人口	文献研究	人口学变量
	揭示大学生自杀意念的主要危险因素	在校大学生623名	问卷调查	心理学变量 社会支持
青年研究	确定中学生压抑与自杀之间的关系	中学在校生987名	问卷调查	精神医学变量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探讨自杀预防和危	大学生	文献研究	人口学变量

	机干预的途径			
社会学研究	揭示代际关系变动与老年人自杀关系	自然村1980-2009年206起自杀案	质性调研	代际关系 人口学变量
	寻求解释中国自杀问题的理论框架	自然村自杀村民	质性调研	权利平衡 委屈
社会科学研究	对自杀轨迹模式进行探讨	一般自然人	文献研究	社会学变量 精神医学变量
	讨论青年人自杀的原因和介入策略	一般青少年	文献研究	人口学变量
西北人口	分析不同地域女性自杀死亡率差异的经济原因	女性自杀死亡人口	数据资料分析	经济学变量 社会学变量
	分析青少年学生自杀意念与家庭阶层特征的差异	省属大、中小学的1775名学生	实证调研	家庭声望 家庭权力
	分析了近21年间自杀人口性别差异	1987-2007中国历年自杀人口	中国卫生统计年报	人口学变量 社会学变量
人口研究	分析中国育龄妇女自杀死亡特征	中国和国外自杀女性	数据资料分析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分析20世纪90年代中国老年人自杀趋势和原因	1990,1995和2000年老年自杀人口	国家卫生年报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心理学变量
	分析育龄妇女的自杀危险因素	西部地区县属36名自杀未遂女性	定量调查 定性调查	心理学变量 社会学变量
中国学校卫生	了解大学生自杀意念发生的危险因素	6所市属大学生2143名	问卷调查	心理学变量
	探讨心理健康家庭环境和自杀的关系	自杀意念青少年;一般青少年	问卷调查	心理学变量 社会学变量
	探索教养方式与自杀意念的相关性	市属1421名中学生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了解青少年自杀意念及其影响因素	市属大、中学生4000名	问卷调查	心理学变量 社会学变量
	分析自杀行为与心理障碍的关系	中学生181832名	数据资料分析	心理学变量
	探讨自杀意念与社	省属医学院大学生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会心理支持的关系	2160名		心理学变量
	评价亚健康对自杀心理行为预测作用	8个市属大、中学生17622名	定群问卷调查	心理学变量
	探讨安全感社会支持与自杀态度关系	市属3588名大学生	问卷调查	社会学变量 心理学变量
国外文献	揭示经济增长和自杀率变化的关系	1982-2005年省属自杀死亡人口	统计年鉴	社会学变量 经济学变量
	研究农村女性婚姻和自杀的关系	168例女性自杀死亡人口;211例一般女性人口	心理解剖调查法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探索农村女性的自杀意义	农村自杀女性	质性调研	社会孤立 反抗和报复
	描述和对比中国自杀与西方不同特征	1987-1994中国自杀人口,丹麦自杀人口	世界卫生组织年鉴 / 丹麦死亡登记记录	经济地位 政治环境 社会力量
	描述中国大陆老年自杀的人口学特征	1990-2004中国老人自杀人口	文献研究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以社会文化的视角揭示中国自杀的人口学特征	1988.1990.1992年中国自杀人口	卫生统计年鉴	人口学变量 文化变量
	探究社会转型期自杀率的特征	1991-2000年中国自杀人口	卫生统计年鉴	人口学变量
	比较四个主要人口组合的自杀特征	23个代表性地区895例自杀死亡者	心理解剖调查法	社会学变量 精神医学变量
	测试主要危险因素和独特的文化特征与农村自杀的关系	自然村66例自杀人口;66例自然人	心理解剖调查法	精神医学变量 社会学变量 经济学变量
	揭示中国人自杀的危险因素	519例自杀人口的亲属;536例其他伤亡人口	心理解剖调查法	精神医学变量 人际冲突
	比较发展中国家和发达国家的自杀危险因素	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自杀人口	文献研究	社会学变量 人口学变量 自杀方式

<表二>把这10年来部分核心刊物中自杀文献的研究内容分为研究目的、研究对象、研究方法和研究变量四大项来列举。核心刊物中有关自杀文献的研究目的主要包括‘自杀行为的现状及特征’(23篇) 占总研究篇数的46%、‘自杀意念及影响因素’(17篇) 占34%、‘影响自杀行为的危险要素’(9篇) 占18%、‘自杀未遂的应对方式和特征’(8篇) 占16%、‘自杀的危机干预与预防策略’(4篇)<sup>3)</sup>占8%。其中自杀意念及影响因素主要包括家庭抚养方式、学校教育模式、物质滥用、精神障碍史(抑郁症)和社会支持,影响自杀行为的危险要素主要包括家庭矛盾、负性生活事件、精神疾病、人际关系冲突和久病厌世。由此可知中国人自杀的文献偏重于对自杀行为特征以及对自杀意念的研究,而对自杀的干预与预防策略的研究有明显的不足。最近一项研究指出自杀是中国15-34岁年轻人的首要致死原因,中国女性的自杀死亡人口超过了男性,农村的自杀率是城市的3倍。中国人口大部分居住在农村,所以农村妇女的自杀死亡率与中国每年的高自杀率有密切关系(Wang et al., 2008)。可见中国具有与他国相比较为特殊的自杀人口学特征,对于这些‘危险人群’进行提前的危机干预,并制定相应的预防策略是降低中国每年高自杀率的前提条件,因此今后需要特别加强对特殊危险人群的自杀危机预防研究。

其次,核心刊物中有关自杀文献的研究对象主要包括‘一般自杀人口’(17篇) 占34%、‘青少年人口’(14篇) 占28%、‘一般人口’(10篇) 占20%、‘自杀未遂人口’(6篇) 占12%、‘女性自杀人口’(5篇) 占10%、‘老年自杀人口’(4篇) 占8%、‘忧郁及精神障碍患者’(2篇) 占4%。由以上的分析可知一般自杀人口、青少年人口是中国人自杀文献中的主要研究对象,而对女性、老人等特殊自杀人口的研究有限,对忧郁及精神障碍患者的研究微乎其微。有研究指出中国的自杀人口中有超过35%的人没有精神疾病,这与西方90%的自杀人口患有精神疾病形成鲜明的对比(Philips et al., 2002)。由此可以了解到在中国不仅患有抑郁症等精神疾病的人具有较高的自

2) 根据施耐德曼(Shneidman, 1981)的定义,心理解剖是指对自杀死亡者生命历程进行回溯性重构,力求更好地理解其死因。

3) 有些自杀文献研究目的包括其中两项或多项,本文对此都做了多项统计,以下类同。



杀死亡率,而且一般正常人口的自杀死亡率也呈较高趋势。因此今后要同时加大对于抑郁症人口和一般人口自杀危险要素的考察,提前做好预防干预工作。近年来随着中国老龄化进程的加剧,今后老年人口自杀的绝对数量将持续增加,因此对老龄人口自杀危险要素的分析和预防策略的研究也迫在眉睫。

再次、核心刊物中有关自杀文献的研究方法主要包括‘问卷调查’(15篇)占30%、‘质性&心理解剖调查法’(12篇)占24%、‘统计资料分析’(11篇)占22%、‘文献研究’(10篇)占20%。由以上数据可知,中国自杀研究中主要是以问卷调查和质性研究分析方法为主,其他如统计资料分析和文献研究法的研究篇数也占有一定比重。现在中国国内对自杀率的统计工作主要是由卫生部主管的死亡登记系统(样本约为总人口的1/10)和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主管的疾病监测点系统(样本约占总人口的1/100)来进行的(费立鹏,2004)。因为各部门对自杀率统计的覆盖面积、标本大小及抽样方法的不同,学术界对自杀率和自杀的绝对数字一直有争议,这就使用统计资料来研究自杀率方法的研究结果具有一定的局限性。刘燕舞(2010)的研究指出中国的自杀者不仅具有巨大的性别差异、年龄差异、城乡差异,而且还具有巨大的区域差异。因此在今后的自杀研究工作中应结合质性调研和量化研究的长处,揭示中国本土自杀的规律和特征。

最后、核心刊物中有关自杀文献的研究变量主要包括‘社会学变量’(39篇)占78%、‘人口学变量’(26篇)占52%、‘心理学变量’(17篇)占34%、‘精神医学变量’(15篇)占30%、‘经济学变量’(4篇)占8%、‘其它’(2篇)占4%。社会学变量中不仅包括养育方式、家庭纠纷、家庭亲密度、同学关系等中观要素,而且包括代际变动、社会支持、社会孤立、经济地位、权力平等宏观要素。人口学变量包括性别、年龄、教育年限、居住地、人均收入等变量。同时一部分文献不局限于只研究单个领域的变量,而是把个人生态要因与社会要因和人口要因相结合,使研究结果据有了更广泛的解释力(徐东,2010;李献云,2008;徐慧兰,2004)。虽然国内文献在研究自杀问题时做了多领域要素相结合的尝试,但是从宏观领域对影响自杀行为的研究还极其有限。有学者在研究中国社会变迁和自杀率的关系时曾设计出决定中国人自杀的多元要素模型,此模型显示出自杀和自杀未遂行为是由宏观、中观和微观变量共同作用的结果(Phillips et al., 1999)。可见自杀行为是

由多层次视角和领域的变数共同决定的，因此要想弄清楚其决定要素和各要素间的内部关联性，就需要扩充现存文献对自杀行为的研究局限，从多重角度对自杀行为做全方位考察。

### 2.3. 自杀研究的热点及趋势

关键词代表着文献的主要研究内容，高频率的关键词可以显示出一个主题的研究热点。对于一段时期内关键词标引次数的考察，可以了解到学者们对某一主题的研究趋势。因此，本研究对1990到2010年中文核心期刊中有关自杀研究的关键词做以统计，以此来考察近20年来中国自杀研究的热点及趋势。〈表三〉中显示出了各年度关键词的标引次数，其中以‘自杀行为’、‘青少年’和‘自杀未遂’为关键词的文献分别占总研究篇数的30%、12%和11%，可以称得上是这一时期的研究热点。随着自杀开始在中国成为重要的公共卫生问题，可以预见今后对自杀问题的研究将会保持上升趋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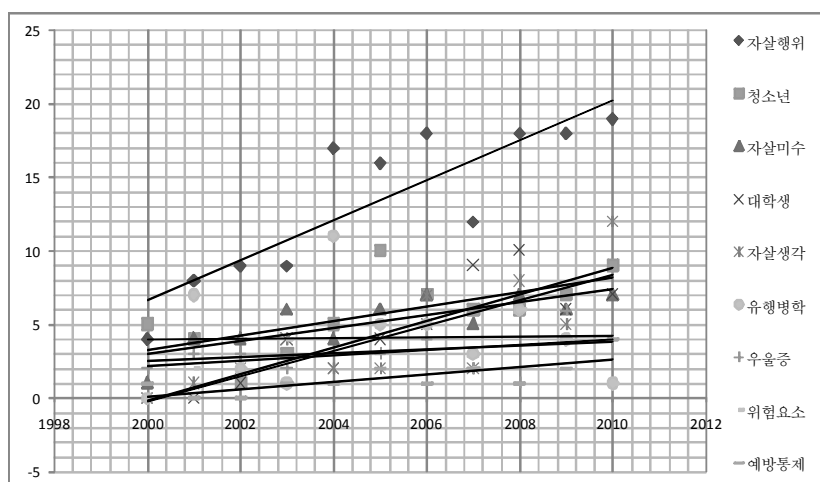
〈表三〉 1990-2010年中文核心期刊自杀研究的关键词标引次数

关键词	各年度关键词标引次数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90
自杀行为(167)	19	18	18	12	18	16	17	9	9	8	4	19
青少年(68)	9	7	6	6	7	10	5	3	1	4	5	5
自杀未遂(63)	7	6	7	5	7	6	4	6	4	4	1	6
大学生(60)	8	12	10	9	5	4	2	4	1	0	0	6
自杀意念(54)	12	9	8	5	7	2	2	4	2	1	0	2
流行病学(50)	1	4	6	3	5	5	11	1	2	7	0	5
抑郁症(46)	4	6	1	2	4	3	5	2	3	3	2	11
危险因素(41)	1	4	6	2	5	5	1	4	4	2	0	7
预防控制(21)	4	2	1	2	1	2	1	1	0	0	1	6

〈图一〉显示出了从2000到2010年中文核心刊物中自杀研究关键词的变动趋势，可以看到近10年间关键词‘自杀行为’变化的倾斜度较大，随着时间的推移从2004年开始其相关研究开始猛增，成为中国学术界的热点，2010年

的研究总量达19篇。而‘青少年’和‘自杀未遂’关键词的倾斜度较为平缓，随着时间的推移研究篇数量的变化不大。从图中可以看到，对青少年自杀和自杀未遂的研究从2000年开始一直保持均衡增长，说明今后学术界对两主题的关注度也将保持此趋势。这一时期关键词‘大学生’和‘自杀意念’的研究文献从2006年开始呈增长趋势，可以预见未来对两主题的研究还会持续升温。与研究篇数呈持续增长的关键词相比‘流行病学’和‘危险因素’等关键词的研究却成下降趋势，而对关键词‘抑郁症’和‘预防控制’的研究随时间变化不明显，始终没有形成一定的变化规律。

<图一> 2000-2010年核心刊物中自杀研究关键词变化趋势



### 3. 中国人自杀研究的总结和未来课题

以上对近10年来中国人自杀研究核心文献的内容、热点及趋势进行总结分析后，可以了解到近些年来大量学者从不同研究视角和研究方法上对中国自杀现象的研究进行了尝试。这些文献中的研究目的主要是探讨自杀的现状和特征以及自杀意念的影响要素，对自杀的预防干预和策略的研究不足。研究的主要对象是一般自杀人口和青少年人口，对特殊自杀高危人口和精神障

碍患者的研究不足。研究的方法主要使用了以问卷调查为代表的量性研究和以心理解剖为代表的质性研究，但考虑到决定自杀行为的多重内外因素，还需要开发适合研究本土自杀问题的新型研究方法。大部分文献使用了社会学和人口学变量来解释自杀行为，同时有些研究还使用了精神医学、社会心理学等多种跨学科变量，增强了研究结果的解释力。但现存文献对经济学变量和文化变量的使用有限，从而缺乏对自杀现象的全面解释力。关键词‘自杀行为’、‘青少年’和‘自杀未遂’可以称得上是这一时期的三大研究热点，今后对关键词‘自杀行为’、‘大学生’和‘自杀意念’的研究趋势还将持续升温。

针对现在中国人自杀研究的局限和不足，本文提出了以下几点今后自杀研究需要专注的方向和课题。第一、近10年来学术界始终偏重于从心理卫生和精神病学的角度来研究中国人自杀行为的相关要素，研究的出发点基本上都是把自杀当作个人的生理生态问题来研究，而忽略了自杀是由个人、家庭、社区和社会共同作用的结果这一事实。同时有部分研究探讨了以家庭、学校为主的中观变量和以个人为主的微观变量之间的交互作用对自杀行为产生的影响，而以整个社会为分析视角，探讨社会变迁对个人外部生存环境的影响而导致个人自杀行为的研究却微乎其微（陈柏峰，2009；景军等，2010）。以研究个体为主轴的自杀研究，研究的解释力只限于研究个体，其研究结论无法解释中国各地域、各时期的自杀现象，更无法建立全面的动态自杀预防策略。因此今后应以中国改革开放，特别是20世纪90年代中后期，市场经济理论全面实施后的特定历史时期为中心，探讨社会环境的剧烈变迁对个人周边生态环境的影响，全方位考察自杀的成因。

第二、中国目前还没有统一的全国性死亡登记系统，每年自杀死亡人口的统计主要是由国家疾病监督据点（NDSP）系统提供的，但是此数据只覆盖了全国1%的人口，其对中国13亿人口特别是卫生情况较为落后地区自杀率的解释力有限。作为发展中国家的中国，有其独特的地域特征和文化特质。今后要全面理解中国人自杀行为的特征，就需要结合量性和质性方法的长处，结合各地域的文化特征和社会环境要素，分别进行地区性专项研究，才能较为明确地把握中国人自杀行为的全景。第三、大部分现存研究主要致力于使用一次性问卷方式来研究一定时间、地域人口的自杀流行特征，这对从局部上解释中国人的自杀现象有一定帮助，但研究结果仅限于揭示自杀的特征和危险要素，对于今后如何防止自杀行为的增加，却没有提出较为具体

的对策方案,更没有涉及到这些对策方案实施效果的研究。同时现存文献倾向于以性别、年龄、居住地域和心理疾病有无为主比较并识别自杀率较高的‘危险人口’,而忽视了以文化和经济资源占有寡而区分的‘危险人口’,对‘危险人口’的概念范围、对策干预的制定也具有片面性。现在以美国和英国为代表的发达国家已实施了全国性的自杀预防计划,因此制定出以高危人群为主覆盖全国的自杀预防计划,并对这些预防计划的有效性进行检测,是今后中国建立高福祉国家的必备措施。

#### <参考文献>

- 刘燕舞,〈自杀研究:困境表述、理论检视与进路转换〉,《中国农业大学学报》27:3(2010)
- 李献云,费立鹏,杨少杰,王志青,张艳萍,李诚,〈城乡居民对自杀的接受程度及其与自杀意念和行为的关系〉,《中国心理卫生杂志》10期(2009)
- 唐记华,王高华,王晓萍,白雪光,翁深宏,刘忠纯,〈抑郁障碍青少年自伤行为、自杀观念相关因素剖析〉,《中国心理卫生杂志》08期(2005)
- 张艳萍,李献云,王黎君,赵云霞,孟梅,张凤刚,彭俊,沈明华,刘亦慈,焦在库,杨功焕,费立鹏,〈自杀与其它伤害死亡全国性对照研究〉,《中国心理卫生杂志》12期(2004)
- 徐慧兰,肖水源,陈继萍,刘连忠,〈湖南省城乡部分老年人口自杀流行病学研究〉,《中国心理卫生杂志》02期(2000)
- 胡冬梅,姜潮,刘启贵,孙月吉,贾树华,周莉,张杰,〈农村自杀者心理解剖条件 Logistic回归分析〉,《中国心理卫生杂志》02期(2005)
- 李献云,许永臣,王玉萍,杨荣山,张 迟,及惠郁,卞清涛,马振武,何凤生,费立鹏,〈农村地区综合医院诊治的自杀未遂病人的特征〉,《中国心理卫生杂志》10期(2002)
- 张志群,郭兰婷,〈中学生自杀意念的相关因素研究〉,《中国心理卫生杂志》12期(2003)
- 李献云,费立鹏,及惠郁,许永臣,何凤生,〈为什么女性自杀未遂率显著高于男性〉,《中国心理卫生杂志》03期(2004)
- 徐 东,张学立,李献云,费立鹏,曹孔敬,张艳萍,杨甫德,许永臣,〈自杀未遂者出

- 院18个月应对方式与社会支持的病例对照研究>,《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03期(2010)
- 李献云,费立鹏,张艳萍,<负性生活事件与自杀行为研究>,《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03期(2008)
- 李献云,费立鹏,王玉萍,杨荣山,张迟,及惠郁,卞清涛,许永臣,马振武,何凤生,<冲动性与非冲动性自杀未遂的比较>,《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01期(2003)
- 王东波,赖根祥,夏朝云,<抑郁症自杀行为的相关危险因素研究>,《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02期(2002)
- 李献云,费立鹏,及惠郁,许永臣,卞清涛,何凤生,<乡村严重自杀未遂者的特征>,《中国神经精神疾病杂志》04期(2005)
- 王志忠,王波,张磊,陈云春,王化宁,谭庆荣,<军人自杀意念及影响因素分析>,《中国公共卫生》02期(2010)
- 张洪波,王坚杰,郑迎军,许娟,王君,吴红花,朱义彬,柯文鸿,胡中旺,<合肥市男男性行为者自杀行为与社会特征关系>,《中国公共卫生》09期(2007)
- 崔树伟,<自杀危险因素及预防研究的现状与趋势>,《中国公共卫生》01期(2003)
- 李献云,费立鹏,<1998年我国生育年龄段人群中自杀的死因分析>,《中国公共卫生》07期(2001)
- 费立鹏,<中国的自杀现状及未来的工作方向>,《中华流行病学杂志》04期(2004)
- 徐慧兰,肖水源,冯姗姗,陈希希,<中南大学大学生自杀意念及其危险因素研究>,《中华流行病学杂志》04期(2004)
- 屈坚定,高伟娜,余星池,<中国青少年自杀意念>,《青年研究》06期(2002)
- 姚月红,<大学生自杀行为的预防和干预>,《青年研究》02期(2000)
- 陈柏峰,<代际关系变动与老年人自杀—对湖北京山农村的实证研究>,《社会学研究》04期(2009)
- 吴飞,<论‘过日子’>,《社会学研究》06期(2007)
- 曹彦婷,卢晓慧,<不同地域女性自杀死亡率差异的经济原因分析—基于城乡差距的视角>,《西北人口》03期(2008)
- 彭国胜,肖汉仕,<青少年学生自杀意愿和行为的家庭阶层特征差异研究—以

- 对湖南省的调研为例》,《西北人口》06期(2007)
- 黄润龙,〈近21年我国自杀人口的性别差异〉,《西北人口》01期(2011)
- 杨俊峰,安琳,王绍贤,〈中国育龄妇女自杀死亡分析〉,《人口研究》06期(2000)
- 颜廷健,〈社会转型期老年人自杀现象研究〉,《人口研究》05期(2003)
- 黄飞,安琳,王燕,〈育龄妇女自杀危险因素分析〉,《人口研究》02期(2005)
- 库少雄,〈自杀轨迹模式研究〉,《社会科学研究》06期(2002)
- 库少雄,〈青少年自杀的原因、征兆与介入策略〉,《社会科学研究》06期(2001)
- 荆春霞,王声湧,吴赤蓬,林汉生,池桂波,〈广州市高校大学生自杀意念发生的危险因素〉,《中国学校卫生》05期(2003)
- 徐勇,〈自杀意念中学生的心理健康水平及家庭环境因素研究〉,《中国学校卫生》05期(2001)
- 张志群,郭兰婷,〈父母教养方式与中学生自杀意念的相关研究〉,《中国学校卫生》03期(2004)
- 袁碧涛,杨建明,周丽,黄广文,〈深圳市青少年自杀意念及其影响因素分析〉,《中国学校卫生》08期(2006)
- 季成叶,陈天娇,〈中学生自杀行为流行现状及其与心理-情绪障碍的关联〉,《中国学校卫生》02期(2009)
- 范引光,肖琴,李文先,宋玉梅,叶倩龄,叶冬青,〈医学生心理-社会因素与自杀意念的相关性研究〉,《中国学校卫生》04期(2008)
- 万宇辉,陶芳标,胡传来,袁长江,齐秀玉,邢超,〈青少年亚健康对自杀心理行为的预测作用〉,《中国学校卫生》04期(2009)
- 李彦牛,王艳芝,〈领悟社会支持及安全感与大学生自杀态度的相关分析〉,《中国学校卫生》02期(2008)
- 景军,吴学雅,张杰,〈农村女性的迁移与中国自杀率的下降〉,《中国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04期(2010)
- WHO, SUPRE: Information leaflet. (research time:2011/04/24)  
[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http://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
- Yang GH, Phillips MR, Zhou MG, Wang LJ, Zhang YP, Xu D.,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nationa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Biomedical and

- Environmental Sciences, 18(2005)
- Xia LI, Zeping Xiao and Shifu Xiao, Suicide among the Elderly in Mainland China, Japanese Psychogeriatrics Society, 9(2009)
- Michael R. Phillips, Huaqing Liu and Yanping Zhang, Suicide and Social Change in China”,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23(1999)
- Phillips, Michael R., Conghuan Yang, Yanping Zhang, L. Wang, H. Ji and M. Zhou, Risk Factors for Suicide in China: A National Case-Contro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The Lancet, 360:9347(2002)
- J. Zhang, J. Ma, C. Jia, J. Sun, X. Guo, A. Xu, W. Li, Economic Growth and Suicide Rate Changes: A Case in China from 1982 to 2005, European Psychiatry, 25(2010)
- Zhang, J.,Conwell, Y.,Zhou, L.,Jiang, C., Culture, risk factors and suicide in rural China: a psychological autopsy case control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0:6(2004)
- Vijayakumar, Lakshmi; John, Sujit; Pirkis, Jane; Whiteford, Harvey, Suicide in Developing Countries,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6:3(2005)
- Liu Meng, Rebellion and Revenge: the Meaning of Suicide of Women in Rural China,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2(2002)
- Ping Qin, Preben Bo Mortensen,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3(2001)
- Jianlin Ji, Kleinman, Anne E. Becker, Suicide in Contemporary China: A Review of China's Distinctive Suicide Demographics in Their Sociocultural Context, Harvard Review Psychiatry, January/February (2001)
- Wang, Shengyong, Y. Li, G. Chi, Shuiyuan Xiao, J. Ozanne-Smith, M. Stevenson and Michael Phillips, Injury-Related Fatalities in China:An Under-Recognised Public-Health Problem, The Lancet, 372:9651(2008)



Herbert Hendin et al.,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in Asia, World Health Organization(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2008

Paul S. F. Yip . Ka Y. Liu . Jianping Hu . X. M. Song, Suicide rates in China during a decade of rapid social changes, Social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40(2005)

### <한국어요약>

산업화 및 세계화에 따른 자살문제가 점차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 자살은 중국의 사망원인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살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중국인의 독특한 자살률 추세와 유행병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에 학술계에서 중국인의 자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핵심간행물에 등재된 39편 중국문헌과 11편 외국문헌을 분석하여 그동안 중국인의 자살연구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최근의 핵심 이슈와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의 자살연구 과제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목적에서는 자살의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지만 자살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연구대상에서는 일반인 및 청소년에 편중하였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기타 인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조사와 심리부검조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중국인 자살 행위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연구변인에서는 사회학과 인구학요인을 사용하였고 경제와 문화요인의 사용은 부족하였다. 키워드 ‘자살위해’, ‘청소년’과 ‘자살미수’가 자살연구의 핵심 이슈로 꼽혔고 키워드 ‘자살행위’, ‘대학생’과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중국사회 환경이 변천함에 따라 개인 삶의 환경이 함께 변화하는 상호작용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거시적인 각도로 자살문제를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질적과 양적 연구방법의 장점을 결합하고

중국 각 지역의 문화특징과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살 위험인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살 위험인구를 비롯하여 전인구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동시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효율성도 함께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중국인 자살연구 현황 자살연구 핵심이슈  
자살연구 추세 미래과제

투 고 일 : 2011.6.25
심 사 일 : 2011.6.29~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중국 경진기(京津冀)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광역 거버넌스\*

이권호\*\*

< 목 차 >

1. 서론
2. 경진기 광역 거버넌스 전략의 등장배경
3. 京津冀 광역 거버넌스 구축 논의의 전개와 특징
4. 지역혁신(발전) 추진체계와 광역 거버넌스
5. 결론: 정책적 시사점

### 1.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이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거버넌스 형성에 매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광역경제권은 지역경제권 중에서도 권역의 공간적 범위가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경우로서 개별 지방정부의 기존 행정경계 구역을 넘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또는 중앙-지방정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적 활동 영역을 의미한다(한국행정학회, 2008: 12). 한편 광역 거버넌스 개념은 주로 지역 차원의 산업경제 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 이 논문은 박재욱·정해용(2010)의 사례지역 중 하나인 경진기(京津冀) 광역권 논의를 보완·발전시킨 것임.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해용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신라대학교 글로벌센터 연구교수(nbsc\_r@silla.ac.kr)

간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정책협의와 지역발전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행위나 도시행정적 차원에서 도시기능의 조정 및 협력, 생활권 편의성 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용웅, 1997).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의 핵심은 바로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의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선진화를 추구하는 광역경제권 정책에 있다.<sup>1)</sup>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광역 거버넌스 창출의 배경에는 이미 1990년대에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도시성장의 한계라는 위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대안 체제로 제시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간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기극복을 위해 각 대도시나 광역권들이 수립하고 추진 중인 발전전략의 구성과정과 내용들은 광역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들 대도시나 광역권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혁신 전략과 광역 거버넌스 유형이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전략에 따라 정책과 제도 개혁도 다르게 나타났다(박재욱, 정해용, 2010).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진기(京津冀; 北京-天津-河北) 광역경제권의 지역혁신 체제와 정부 간 거버넌스(governance)의 고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경진기 광역경제권 개념의 등장배경을 보면 1980년대 초반, 중국 국가계획위원회(國家計劃委員會)와 베이징시가 주도하여 인근의 탕산시(唐山市), 랑팡시(廊坊市)를 포함하는 ‘수도권’ 혹은 ‘경진당(京津唐)’ 광역경제권의 발전계획을 제기하여 상호협력 전개한 바 있었다. 그 후 2001년 건설부(建設部)가 주관하고 청화대학(淸華大學) 우량용(吳良鏞) 교수팀이 완성한 “베이징-톈진-허베이 북부의 도농 공간발전 계획연구(京津冀北城乡空间发展规划研究)”가 발표된 이후 경진기 광역경제권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인 국무원(國務院)이 경진기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킴에

1)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획득하게 되었다(于刃刚, 戴宏伟, 2006: 11).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경진기 광역경제권의 범위를 보면, 이는 경진기북(京津冀北) 광역경제권에서 확장된 것이다. 경진기북(京津冀北) 광역경제권은 1996년 베이징시 과학위원회가 <베이징시 경제발전전략 연구보고>에서 수도권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외에 탕산(唐山), 바오딩(保定), 랑팡(廊坊), 창저우(沧州), 친황다오(秦皇島), 청더(承德), 장자커우(张家口) 등 9개 도시, 총면적 16.8만km<sup>2</sup>로 제시한 이래 이러한 범위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欧阳文安, 1997).<sup>2)</sup> 이러한 설정은 광역경제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간발전과 지역협력의 여지를 높였지만, 행정권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허베이성(河北省) 정부소재지인 스자좡(石家庄)을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각 행정주체간의 협력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비해 경진기 광역경제권 범위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8개 도시를 포함한다. 즉 이러한 범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는데, 먼저 스자좡이 허베이성의 다른 7개 도시에 대해 행정적, 경제적 중심 도시 역할을 함으로써 성 내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스자좡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며, 베이징과는 공간적 거리가 비교적 멀지만 편리한 교통조건으로 인해 매우 밀접한 사회경제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이 베이징과 톈진이라는 거대도시를 갖고 있지만 다른 주변도시들은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써 도시군(都市群)의 구조가 불합리하다. 그러나 스자좡은 대형도시로서 비교적 큰 경제력을 갖추므로써 수도권의 도시군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권역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2000년 북경대학의 탄청원(谭成文) 등은 수도권의 역사와 계량적 모형을 통해 지역간 경제적 연계의 정도를 분석하고 상술한 9개 도시를 수도권으로 설정했고(谭成文, 杨开忠, 谭遂, 2000), 건설부가 주관한 청화대학 우량용(吴良镛) 교수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9개 도시에 대해 경진기북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사용했다(吴良镛, 2001).

## 2. 경진기 광역 거버넌스 전략의 등장배경

### 2-1. 역사제도적 배경: 전통적인 협력체제의 와해와 경진(京津) 양극화(兩極化) 현상

베이징과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의 양대 핵심도시로서 주변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은 베이징과 톈진을 둘러싸고 정치,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각자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근대 이후 톈진은 수도권의 경제중심이면서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의 행정관리중심의 역할을 하였다. 요(遼)나라 이후 베이징의 지위가 부단히 상승하여 중국의 수도이자 전국 최대의 소비도시로 성장했으며, 당(唐)나라 중반 이후 중국의 경제중심이 남쪽의 장강 유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베이징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물자는 주로 남방 각지에서 공급되고 이들 대부분이 운하나 해상을 통해 톈진을 거쳐 베이징에 공급됨으로써 톈진지역에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베이징과 톈진은 명확한 분업체계를 갖춘 자매도시로 성장하였고, 베이징은 줄곧 정치와 문화의 중심, 톈진은 경제중심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860년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로 톈진이 통상항구로 개항되어 무역, 금융, 공업이 신속히 발전, 중국 북방의 경제중심이자 전국에서 상하이 다음의 2대 상공업도시로 성장했다(张召堂, 2005: 92~95).

건국이후 베이징은 신중국의 수도로서 중국의 정치, 문화중심일 뿐 아니라 경제중심으로서의 발전도 시작되었다. 1-2차 5개년 기간 베이징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변화”라는 정책방침에 따라 톈진이라는 인근의 대규모 상공업도시의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공업, 특히 중공업을 크게 발전시켜 수도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이 기간 베이징의 공업투자액은 1949년 전체 공업 고정자산의 40배로서 거의 200여개 대중형 국유기업이 설립되었다. 1962년 베이징의 공업 총생산액은 42억 위안(元)으로 1949년의 26.7배, 10년간 매년 평균

28.8% 증가했고, 공업 총생산액이 농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9년의 55%에서 92%로 증가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증가속도는 완화되었지만 공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1970~1979년 사이 중공업이 전체 공업투자의 89.5%를 차지하여 화공, 기계, 야금의 3대 산업이 신속히 발전했다(鄔翊光, 况鸿章, 1988: 47-48).

반면에 텐진은 건국이후 행정적, 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텐진은 1958년까지 직할시로서 경제중심의 역할을 유지했고, 8년간 공업 총생산액이 매년 24.6% 성장했으나, 이 기간 중앙정부의 텐진에 대한 공업투자가 매우 적었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전국 156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텐진은 하나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8년에서 1967년 사이 텐진은 중앙 직할시에서 허베이성 직할시이자 성정부 소재지로 행정적 지위가 하락했다. 1958~1965년 사이 전국의 공업총생산 증가율이 8.9%였으나 텐진은 5.8%였고, 텐진의 공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7년의 5.56%에서 1961년의 4.8%로 하락했으며, 상품유통 기능도 약화되어 상품소매총액이 1952~1957년 사이 매년 8.3% 증가하던 데에서 1963-1965년 사이 0.4%로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聂璧初, 2002: 56; 赵亮, 2006: 67).

이처럼 건국이후 베이징과 텐진의 위상이 변화한 것은 계획경제 체제의 제도적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즉 계획경제 시기 자원배분과 산업입지 등 제반 경제적 요인이 중앙정부의 행정명령과 계획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각 지역 간에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사회적 연계가 단절된 것이다. 특히 건국 초기 중앙당국은 전쟁준비를 위해 연해지역의 공업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각 성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지방정부간 수평적 경제협력의 약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지역간 분업체계가 와해되고, 특히 상호보완적이었던 베이징과 텐진의 관계가 양극화된 체제로 전환되었다.

베이징과 텐진의 양극화 현상은 구체적으로 먼저 행정구역의 양극화에서 드러났다. 건국 초기 베이징과 텐진의 행정 관할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건국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20여 년간 그 관할면적이 베이징은 4차례의 주요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16,800km<sup>2</sup>, 텐진은 3차

례의 조정을 통해 12,000km<sup>2</sup>로 확대되었다. 원래 허베이성에 속해 있었던 따싱(大興), 순의(順義), 미윈(密雲) 등 10여개 현이 베이징과 톈진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1958년 도시주민들의 채소, 부식, 수자원 등의 공급을 위해 국무원은 베이징과 톈진에 일찍부터 ‘시(市)가 현(縣)을 관리하는(市管縣)’ 체제를 시행하여 두 도시가 내부적으로 공업, 농업, 주민들의 생활수요 등 모든 방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전환되었다(趙亮, 2006: 65).

두 도시의 경제발전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었는데, 먼저 건국 이후 개혁개방 때까지 베이징은 전통적인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전환되었고, 공업의 신속한 발전으로 톈진의 발전을 능가했다. 반면 톈진은 대외무역 기능의 약화와 공업발전 속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건국 이전 화북지역 경제중심 도시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다음으로 두 도시의 산업구조의 동일화가 가속되어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호보완 관계가 종결되고 경쟁관계로 돌입했다. 톈진은 원래 공업기능이 집중되고 산업구조가 완비되어 있었는데, 베이징도 1953년 <베이징시의 개조와 확장을 위한 계획초안 요점(改建與擴建北京市規劃草案要點)>에 따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중심으로 육성되고, 특히 중국의 강력한 공업기지와 과학기술 중심으로 만들 것이 천명되었다(趙亮, 2006: 65).

개혁개방 이후 베이징과 톈진을 중심으로 경진기 지역에도 지역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 분권화 전략이 초래한 지방보호주의의 확대와 중앙정부의 거시적 조정능력의 결핍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지역적으로 베이징이 여전히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지속하였고, 톈진이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성과가 저조한 요인 등에서 기인했다.

베이징의 독자적인 경제발전 추구는 개혁개방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베이징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대해 사회질서, 공공안전, 사회적 분위기와 도덕성 등의 영역이 우월해야 하고, 청결과 위생, 도시환경에 있어 세계의 최고도시가 되어야 하고, 과학, 문화, 기술, 교육에 있어 최고수준이 되어야 하며, 베이징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4가지 지시를 하달했다. 이는 베이징이 여행업, 서비스, 음식업, 경공업 등을 받



전시키고, 중공업은 더 이상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제시였다. 그러나 베이징 개혁지도부는 여전히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성장지향적 발전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도외시켰다(박재욱, 2007).

톈진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은 과거 경제발전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톈진은 발전을 위한 초기조건과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즉 국유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앙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했고, 자율적인 발전공간이 부족했으며, 공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인 조건도 톈진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톈진이 1984년 14개 연해개방도시의 하나로 지정되었지만 그 자체가 톈진의 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개혁기 상당 기간 동안 국유기업의 적자, 전국 평균을 밀도는 성장률 등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에 시달렸으며, 1979~1992년 GDP 성장률이 6.5%로 연해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9.1%보다 크게 낮았다. 1978~1990년 사이 전국의 GDP와 지방재정에서 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에서 1.7%, 3.5%에서 1.5%로 하락했다(정환우, 2005; Hendrischke, 1999, Cheung, 1999).

이처럼 두 도시의 양극화 현상은 새로운 양대 핵심(双核)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오랫동안 베이징과 톈진 두 도시는 각자의 이익과 기반, 발전단계에 근거해 독자적인 역할과 발전전략을 제시했지만, 이는 경진기 권역, 나아가 중국 북방지역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 것이었다. 두 지역의 양극화는 베이징의 도시기능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톈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그 동안 베이징과 톈진, 그리고 기타 도시간의 기형적인 경쟁, 산업구조의 동일화, 산업의 낮은 집적도, 합리적인 분업과 협력의 결여 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베이징이 경제중심의 역할을 포기할 수 있을지, 톈진이 새롭게 북방의 경제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두 도시의 양극화 발전이 양대 핵심의 발전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등이 지역발전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 2-2. 지정학적 배경: 제3의 성장거점의 필요성

중국에서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은 개혁개방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주지하듯이 1980년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경제권은 이러한 전략의 탐색단계였고, 1990년대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경제권 개발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였으며, 2000년대 경진기 경제권 개발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먼저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경우 광저우(广州)를 핵심으로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门), 경제특구인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이 연합하여 개혁개방의 최전선을 형성하였다. 탐색단계였던 주강삼각주의 발전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특혜 등의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고, 홍콩이 이웃한 지리적 특성과 당시 국제적인 산업이전에 힘입어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규모 유입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유동성이 강하고 기술력이 낮아 지역 발전에 병목현상을 낳았으며, 따라서 광둥성(广东省)은 양호한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寇建平, 宁方朋, 2005).

개혁개방 이후 홍콩의 제조업과 선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 지역은 이른바 ‘전방상점, 후방공장(前店後廠)’ 모델을 통해 두 지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 하에서 홍콩의 경우 제조업의 중국진출로 축적된 자본이 하이테크 산업 등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중국의 WTO 가입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권역에서는 새로운 도시간 협력과 지역통합 모델을 모색하였다. 가령 1998년 처음 가동된 ‘홍콩·광둥 협력 연석회의(港粵合作联席会议)’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정부간 협의체는 재계, 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범주강삼각주 지역통합’ 담론을 형성하면서 지역간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통합을 가속화하였다(장영석, 2007).<sup>3)</sup>

3) 범주강삼각주 구상은 2003년 11월 3일 장더장(张德江)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가 ‘2003 광둥 경제발전 국제 자문회(2003广东经济发展国际咨询会)’에서

장강삼각주 경제권은 상하이 푸둥(浦东)지역 개발을 시작으로 장수성(江苏省)과 저장성(浙江省)의 16개 도시들로 구성되며 비록 이들 지역의 면적은 10만 km<sup>2</sup>에 지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현(縣)의 거의 절반이, 그리고 공업생산액이 100억 위안을 넘는 산업단지 100여개가 밀집해 있다. 장강삼각주의 발전은 개발초기부터 단순한 가공방식을 뛰어넘어 외국자본이 현지에서 부화할 수 있는 완결된 생산방식을 갖추으로써 주강삼각주를 능가하는 발전 잠재력을 갖게 되었고, 그 중심도시인 상하이(上海)에는 세계 다국적기업 대부분이 진출했다. 그러나 그 동안 상하이는 자기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본토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이 취약하며, 나아가 광역경제권 발전도 행정구역이 중심이 되어 도시간 전략적 동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많은 산업기반들이 분할되고 도시간의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령 이 지역 16개 도시의 전략산업 가운데 통신이 12개 도시, 자동차가 11개 도시, 석유화학이 8개 도시이며, 수쨈우(苏州), 우시(无锡), 창쨈우(常州) 3개 도시에서는 5개 산업이 완전히 동일했다(寇建平, 宁方朋, 2005).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 촉진 장강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상하이 시와 장쑤성의 8개 도시, 저장성 7개 도시 등 16개 도시를 묶어 세계 6대 메갈로폴리스(거대 도시군)로 육성한다는 장강삼각주 일체화 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계획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도시간 불필요한 경쟁 대신 통합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목표였다. 가령 해저터널 공사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장강삼각주 일체화 계획’의 하나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반경 300km 이내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쿤산(昆山), 송장(松江) 같은 장강 하류 삼각주 일대의 16개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계획이었다. 이 대통합 작업으로 기

---

광둥, 푸젠, 장시, 광시, 하이난, 후난, 쓰촨, 윈난, 구이저우 9개 성과 홍콩, 마카오가 참여하는 ‘범주강삼각주 구상(일명 9+2 구상)’을 제기하면서 표면화되었다. 9+2 구상은 주강삼각주 지역 내 단일시장의 형성과 자본, 상품, 서비스, 인재 등의 자유로운 유동을 목표로 하였다. 2004년 7월 广州에서 제 1차 ‘범주강삼각주 지역 경제무역 협력 교섭회(泛珠江三角洲区域经贸合作洽谈会)’가 개최되고, ‘범주강삼각주 지역협력구조 협의(泛珠江三角洲区域合作框架协议, 일명 9+2 협의)’가 체결되었다.

존 상하이 면적(6,340km<sup>2</sup>)의 34배인 21만km<sup>2</sup>, 인구는 현재(1,700만명)의 8배인 1억3,800만명 규모의 '신(新) 상하이'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계획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은 2006년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5개년 계획'이 통과된 이후이며, 그에 앞서 항저우 등 16개 도시 시장들은 상하이 엑스포 때까지 장강 삼각주 일체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협력하는 '상하이 판 도원결의(桃園結義)'에 합의했었다.

상술한 두 지역 외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제3의 성장거점이 필요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각 지역의 동시발전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비균형 발전전략이 불가피했다. 개혁개방 이후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경제권은 성장거점의 모습을 갖추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과급효과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 그러나 중국 전체로 보면 남방과 동부의 2개 성장거점으로는 부족하며, 북방과 서부지역 등에 새로운 성장거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동안 중국 북부지역의 광역경제권은 환발해경제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는 지리적 개념에 불과하고 권역내의 경제협력은 낮은 수준에서 배회했으며, 지역의 경제발전이 활력을 결여했고, 중국 북부지역의 성장거점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성장거점의 결여가 중국 북부지역에서 경제발전이 지체된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제3의 성장거점 핵심지역은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의 개발이었으며, 중국은 기존의 성장거점과 마찬가지로 경진기 경제권의 개발에서도 동일한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즉 주강삼각주 개발에서는 선전(深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장강삼각주에서는 푸둥(浦东)에 용머리(龙头) 역할을 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진기 경제권에서는 톈진의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원래 빈하이신구는 1994년 3월 톈진 시당국에 의해 개발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중앙정부에 의해 성장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 그 후 원자바오(温家宝) 총리에 의해 빈하이의 개발이 11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 지시되고, 아시아-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고, 상하이 푸둥에 이어 2번째로 '국가종합개혁 시범지역(国家综合改革试验区)' 방안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건설부의 현지조사와 국가 지역발전전략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일련의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기존 성장거점 개발시기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거의 진전되었고, 따라서 정책적 특혜에 의존한 개발은 이제 한계가 직면하게 되며, 이른바 ‘특혜 없는 특구(特区不特)’가 만들어진 것이다(卢卫, 2007).

### 2-3. 경제적 배경: 산업구조 조정과 합리적 자원배분의 필요성

경진기 지역 광역 거버넌스 등장의 경제적 배경으로는 지역간 상호보완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합리적 자원배분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제가 발전된 베이징, 톈진의 두 거대도시와 허베이 사이에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상호협력을 요구하였다(于刃刚, 戴宏伟, 2006: 7-8). 이러한 협력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베이징과 톈진의 허베이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서는 먼저 허베이의 수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수요를 들 수 있다. 이는 베이징과 톈진 두 도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생태와 환경에 압력이 날로 가증되었다. 둘째 허베이의 우수한 녹색식품과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들 수 있는데, 거대도시에 인접한 허베이는 과일, 채소, 육류 등 상품에 대한 신선한 공급이 가능하다. 셋째 허베이의 기초가 튼튼하고 완전한 공업체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베이징은 이미 경제중심의 발전을 포기하고 기존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허베이의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며, 톈진도 점차 허베이와 산업구조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허베이의 풍부한 노동력 수요, 잠재력이 큰 소비재시장 수요, 기초 시설, 가령 교통, 물류, 전력 등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고, 비교적 양호한 정치 환경과 치안 상태가 베이징과 톈진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

허베이의 베이징, 톈진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첫째 과학기술 자원에 대한 수요로서 특히 베이징은 과학기술 수준이 가장 선진적이고 그 자

원이 집중된 지역인 반면, 허베이는 그것이 결핍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용하느냐가 허베이의 장기적인 과제였다. 둘째 산업이전에 대한 수요로서 베이징과 톈진은 도시발전 전략의 변화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일부 산업을 외부로 이전했으며, 이와는 상대적으로 허베이는 산업구조가 낮은 단계이며, 주변산업의 흡수를 통한 경제발전이 필요했다. 셋째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로서 부족한 인적자원의 수와 불합리한 구조가 줄곧 허베이 경제발전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인 반면 베이징과 톈진은 인적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실정이었다. 넷째 거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수요로서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징과 톈진은 허베이의 거대한 소비시장이다. 다섯째 자본에 대한 수요로서 대형 프로젝트의 허베이 경제에 대한 견인능력이 크며, 베이징과 톈진은 외자 이외에 허베이의 중요한 자본의 원천이다.

경진기 광역권 내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2-1'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권역 내 각 도시간의 산업구조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전국 평균수준과 비교해 본 광역권은 GDP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고, 2차, 3차 산업이 90%를 넘어섰으며,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도 우위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1차, 3차 산업이 접하는 비중이 차이가 명확하며,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청더(承德)가 19.10%, 가장 낮은 베이징(北京)이 3.05%로 6배의 차이가 났다.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베이징(北京)은 62.20%, 가장 낮은 랑팡(廊坊)은 30.73%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베이징, 톈진, 친황다오(秦皇島), 장자커우(張家口) 이외의 기타 6개 도시는 3차 산업 비중이 모두 40% 이하로 전형적인 이원구조의 형태였다. 이를 다른 광역권과 비교하면 장강삼각주 16개 도시의 경우 14개 도시가 '2-3-1'의 구조를 보이며, 15개 도시에서 2차 산업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광역권 전체의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張召堂, 2005: 127).

<표-1> 京津冀 광역권 내 각 도시의 산업구조 비교

구분	취업(%)			GDP(%)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全國	50.00	21.40	28.60	15.38	51.09	33.53
京津冀	37.52	28.95	33.53	9.30	43.84	46.86
北京	8.49	30.84	60.67	3.05	34.75	62.19
天津	20.22	38.50	41.28	4.10	48.85	47.06
石家庄	36.33	34.14	29.54	13.14	47.14	39.72
承德	62.10	16.82	21.08	19.10	43.33	37.57
張家口	59.09	19.27	21.64	12.81	43.54	43.65
秦皇島	51.78	20.63	27.59	12.43	36.86	50.71
唐山	45.16	30.52	24.32	16.97	51.74	31.29
廊坊	48.57	27.84	23.59	15.09	54.19	30.73
保定	56.47	25.40	18.13	18.30	45.29	36.41
滄州	51.90	26.25	21.85	16.26	49.22	34.52

출처: 《中國统计年鉴2003》, pp. 53, 63, 124, 125; 《河北经济年鉴2003》, pp. 405, 408.

이들 세 지역의 취업자 비중에 따른 산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첫째 베이징, 톈진의 1차 산업 비중이 20% 이하이고, 허베이 각 도시의 1차 산업 비중은 대부분이 50% 이상이며, 그 중 청더의 비중이 62.1%로 제일 높고, 쓰자좡(石家庄)의 비중이 36.3%로 가장 낮다. 둘째 베이징, 톈진, 쓰자좡, 탕산의 2차 산업 비중이 30% 이상이고, 허베이 각 도시의 2차 산업 비중은 대부분 30% 이하이고, 그 중 청더의 비중이 16.8%로 가장 낮다. 셋째 베이징, 톈진의 3차 산업 비중은 40% 이상이고, 그 중 베이징이 60.7%이고, 허베이 각 도시의 비중은 모두 30% 이하이며 그 중 바오딩이 18.1%로 가장 낮다.

경진기 광역권 내 각 도시의 산업구조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각 도시간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이 그 이유이다. 2002년 베이징과 톈진의 1인당 GDP가 각각 28,449위안(元)과 22,380위안인 반면, 허베이 8개 도시 가운데 4개 도시가 1만위안 이상, 나머지 4개 도시가 1만위안 이하였다. 그리고 도시화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도시화는

공업화에 수반되는 현상이며, 공업화 수준이 낮은 허베이 지역은 도시화 수준도 낮다. 2002년 베이징과 톈진의 도시화율이 각각 71.01%, 58.87%인 반면 허베이 8개 도시 가운데 탕산과 친황다오만이 30% 수준에 도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20%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각 도시의 발전목표와 전략, 경제발전 조건에서도 차이가 난다. 베이징은 전국의 정치 및 문화의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수도의 특징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산업과 3차 산업에 집중되고, 톈진은 중국의 현대적 공업의 발상지이며 북방의 중요한 경제중심으로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나머지 도시들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낮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판아이원(范爱文, 1999)은 베이징이 인재와 기술 방면에서 풍부한 장점을 갖고, 톈진이 공업부문의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으며, 허베이 각 도시들은 풍부한 토지자원과 광산자원, 저렴한 노동력 등을 가졌으며, 따라서 이들 각 도시들의 장점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협력과 분업체계의 확립을 주장한 바 있다. 탄청원 등(谭成文等, 2001)은 허베이를 채굴업과 가공중공업의 우위를 지닌 자원형(资源型) 지역으로, 톈진을 비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중공업에 우위를 지닌 가공형(加工型) 지역으로, 베이징을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산업 등에 우위를 지닌 지식형(知识型)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간에 경제기술협력과 물자교류가 활성화되는 분업구조가 필요함을 주장했다.<sup>4)</sup> 그리고 이는 과거 경진의 외곽도시가 경진을 지원하고 톈진이 베이징을 지원하는 일방적 방향에서 도시 상호간 전략적 협력을 하는 전방위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4) 장샤오탕(张召堂, 2005)도 각 지역의 자원부존, 비교우위, 산업분업 등에 따라 베이징은 정치, 문화, 국내외교류, 높은 단계의 산업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여 첨단기술 산업, 교육문화 산업 등에 우위를 갖게 하고, 톈진은 광역권의 제조, 물류, 외향형 경제의 기능을 담당하여 비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공업에 우위를 갖게 하고, 베이징 8개 도시는 자연자원과 노동력 공급, 가공과 생태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 채굴업, 가공공업, 농부산물 생산 등에 우위를 갖게 할 것을 주장했다.



## 2-4. 기존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기존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한계로는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계획과 조정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경진기 경제권은 다른 2개의 성장거점 지역과 달리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적인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 주장삼각주 지역은 광둥성에 국한되어 행정구역에 따른 장애가 비교적 적고, 장강삼각주 지역도 상하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경제적 보완성이 강한 반면, 경진기 경제권은 3개의 성급 행정단위인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을 포함함으로써 행정구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중앙당국이 나서서 통일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협력관계를 조정해야만 비로소 상이한 행정권의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무질서한 경쟁과 중복건설을 극복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 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에 따른 한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1983년 베이징과 톈진은 각각 정부 내에 횡적 경제협력을 주관할 부서로 베이징시경제기술협력판공실(北京市经济技术协作办公室), 톈진시경제협력판공실(天津市经济协作办公室)을 설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간 협력조직인 ‘화북지역경제기술협력회의(华北地区经济技术协作会)’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개혁개방 초기 지역간 물자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농부산물과 원자재의 공급을 위한 협력에서 시작하여 점차 소규모 지역간, 기업간 협력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1988년 베이징과 허베이 6개 도시간에 ‘환베이징경제협력구(環北经济协作区)’와 시장·전문가 연석회의 제도 및 일상사무 기구가 설립되었으나, 1992년 이후 이러한 협력체제는 점차 사라졌다. 결국 1981년에서 1990년 사이 화북지역경제기술협력회의(华北地区经济技术协作会)는 7차례의 회의 이후 사라졌으며, 환베이징경제협력구(環北经济协作区)의 기능도 1994년 이후 중단되고, 이처럼 지역협력 체제의 와해로 기업간, 지방정부간 무질서한 경쟁과 중복건설이 날로 확대되었다(国务院发展研究中心信息网, 2004. 6. 14).

그 과정을 보면 초기 협력체제의 제한된 설립 목적으로 인해 상호간의 공동적인 이해관계가 부족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어려웠으며, 조

직위상의 한계로 산업계획과 정책협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협력체제의 응집력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상호간에 협력의 내재적인 동인을 찾고 광범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내 경제협력부서의 주도적인 작용과 교량역할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 지역간 획적인 경제협력의 주된 목적과 경제협력부서의 역할은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유제 기업이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는 각 기업들이 지역, 업종, 소속부서, 소유제 성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자재 생산과 가공업체와의 연합, 제조업체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합, 민간기업과 군수기업과의 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을 필요로 했다(国务院, 1986).

잡은 정부기구개혁은 경제협력부서의 역할정립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베이징의 경제기술협력관공실은 2000년 기구개혁을 통해 조직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경제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다른 도시들과 달리 톈진의 경제협력관공실은 계속해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여전히 조직이 유지되었다. 톈진 경제협력관공실의 전반적인 업무는 국내 투자자본의 유치, 시정부의 외지 사무소 관리, 다른 지역의 톈진주재 사무소 관리, 창구(対口) 제도에 따른 간수(甘肅), 산샤(三峽), 시장(西藏) 등지의 빈곤퇴치 지원사업 관리 등의 업무와 특히 환발해지역경제협력시장연석회의(環渤海地区经济联合市长联席会)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였다. 이 연석회의는 1986년 톈진의 발의에 의해 환발해 16개 지역으로 구성된 느슨한 형태의 지역간 경제협력 조직으로 시작되었으며, 의장(議長)도시는 줄곧 톈진이 맡았고,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사무처가 톈진에 설치되었다<sup>5)</sup>(张召堂, 2005: 214-216; 王辉, 万新平, 1996: 229).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광역행정 담당부서의 역할을 종합해 볼 때 경진기 경제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

한 사례로 수도계획건설위원회(首都规划建设委员会)의 제한된 역할을

5) 개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1986년에서 1991년 사이 톈진과 환발해 지역 각 도시간에 경제기술협력이 1,000여개 항목, 총투자액이 4억여 위안(元)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지적할 수 있다. 경진기 광역권은 중국의 수도권으로서 통일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결여, 각 행정주체의 지방보호주의적인 행태와 조정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경험으로 볼 때 수도권의 발전과 건설이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도하는 수도권 거버넌스 기구를 가졌다. 중국에도 수도권의 관리를 위해 국무원 의사협력기구로 ‘수도건설계획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그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 위원회가 수도권의 광역 거버넌스 주체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는 그 권한의 범위가 수도권 베이징에만 국한되고 광역권으로서의 수도권 범위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경진기 3개 정부의 도시계획에는 모두 수도권의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통일된 거버넌스 주체의 결여로 3개 정부가 각자의 이익에 따라 도시규모, 도시입지, 기능정립, 산업분업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호갈등과 중복건설의 문제를 야기하고 수도권 광역경제의 협력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진기 각 정부의 도시계획 시행과정에서 기존 계획과 배치되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했으며, 가령 베이징은 도시종합계획에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제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욕구로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규모를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취지를 벗어났다(張召堂, 2005: 212-214).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개혁기 베이징과 톈진의 협력부재를 들 수 있다. 개혁기 베이징과 톈진 사이에는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내부적인 낭비를 초래했다. 그 예로 과거 중앙당국은 화북 지역에 45만 톤 규모의 에틸렌(乙炔)생산 프로젝트를 계획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 지역이 연합하여 톈진에 이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국가계획위원회의 승인 하에 톈진에 건설을 시작했지만, 베이징과 허베이의 반대로 각자가 14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을 계획했다. 또 다른 예로 톈진 항구는 원래 베이징과 톈진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당한 지리적 조건을 가졌으나, 이 항구가 행정구역상 톈진에 속하고 베이징은 이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에 부딪히면서 다른 항구를 모색했으며, 먼저 친황따오(秦皇島)와 연합을 시도하다가 다시 탕산(唐

山)과 연합하여 왕탄싱(王滩兴)에 경당대항구(京唐大港)를 건설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외부연계에 대한 입지의 불경제, 텐진 항구의 화물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두 도시의 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sup>6)</sup> (张召堂, 2005: 99).

### 3. 京津冀 광역 거버넌스 구축 논의의 전개와 특징

광역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은 주로 행정권과 경제권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행정권의 의미는 국가가 정치적 통치 및 행정 관리의 필요에 의해 관할하는 국토를 등급과 규모가 상이한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경제권의 의미는 사회적 생산을 위한 지역간 분업의 특징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영토를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방향과 경제구조의 특징을 제시하고, 생산입지, 지역 경제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편성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거시적 경제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경제권은 일반적으로 행정권을 뛰어넘어 하나의 경제권에 다수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행정권이 병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진 이익주체로서의 행정권이 각자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이익주체가 아니라 경제법칙과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권의 발전과 상호 모순과 갈등을 야기하며, 이를 통상 ‘행정권 경제(行政区经济)’로 부르고 있다(周克瑜, 1999: 38-45).

경진기 광역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행정권과 경제권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논의의 범주는 전국적인 수준의 행정권과 경제권의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경진기 지역에 적용하는 차원과 보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특화된 논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진기 광

6) 그 외에도 베이징은 일찍이 텐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청허농장(清河农场)에서 해변에 이르는 몇 십 km의 항구를 만들려했으나 텐진이 그 소식을 알고 이를 좌절시키기도 했다. 또한 수도철강(首都钢铁)이 곤경에 빠진 텐진의 764공장을 합병하려 할 때, 텐진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으로 여겨 이를 무산시킨 바도 있다

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크게 대행정권 설립방안, 대경제권 설립방안, 지역협력기구 설립방안, 행정구역 합병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1. 대행정권 설립방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각 지역 간 중복건설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동일화, 자원낭비와 지나친 경쟁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동일화는 주로 성(省)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가령 9차 5개년 기간 동안 자동차 산업을 자신의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지역이 20여개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국 전역을 8-10개의 ‘도시권(都市圈)’으로 나누어 이들 도시권 사이에 합리적인 분업과 산업입지를 배분하며, 각 도시권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되, 도시권 내부에서는 분업과 협력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필요한 중복건설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양지엔룽(杨建荣, 1995)은 8대 도시권의 구상을 제기하여 이를 상하이 도시권(上海, 南京, 杭州), 주장삼각주 도시권(广州, 香港), 환발해 도시권(北京, 天津), 동북 도시권(沈阳, 大连, 哈尔滨, 长春), 장강중류 도시권(武汉), 장강상류 도시권(重庆, 成都), 관중(關中)평원 도시권(西安), 귀주고원 도시권(贵阳) 등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소(国家计委经济研究所课题组)도 2010년까지 중국에 9대 도시권을 설립하는 구상을 제기한 바 있다.

대행정권 설립방안은 저우커위(周克瑜, 2000)가 처음 제기했으며, 그는 상술한 도시권 구상에 근거하여 중앙과 성 정부 사이에 도시권에 따른 하나의 행정권을 설치하여 현재의 성급 정부를 2급 정부로 전환하고, 기존의 성 정부에 소속된 경제권한을 선택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도시권 정부가 상당한 계획, 건설, 관리권한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존 성급의 경제관리 권한을 점차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그 기능을 농업, 기초시설, 문화, 교육, 위생 등의 관리로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는 도시간 경계를 넘는 광역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도시권 연합정부와 이를 보조하는 일정 수의 비정부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저우커위의 관점을 경진기 권역에 적용하면 권

역내 각 주체의 현행 행정관할 범위가 변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하나의 초성급(超省级)의 대행정구를 설립하여 수도권의 각종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각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방안은 중국의 행정구역 개혁과 도시권 건설의 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현재의 행정권과 경제권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초성급(超省级) 행정권의 설립은 또한 그 동안 ‘행정권 경제’가 수도권 지역경제의 발전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각 지방정부가 가진 기존의 지역경제 협력에 관한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동원하는 데 불리하며, 중국은 이미 1950년대에 6개의 대행정구(大行政区)를 설치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그 효과가 좋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张召堂, 2005: 217).

### 3-2. 대경제권 설립방안

대경제권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경제의 횡적연대를 위해 1980년대에 이미 자발적으로 조직된 성을 뛰어넘는 광역 경제권이 출현하였다. 이는 성간 물자, 자금, 기술, 인재, 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취지로 하는 경제협력구(华北经济协作区, 淮海经济区, 晋陕豫黄河三角经济协作区 등)의 형태도 있고, 중심도시의 역할을 통해 도시간, 도농간 협력을 취지로 하는 도시경제구(武汉经济区, 南京经济区 등)의 형태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협조회(经济协调会), 혹은 시장연석회의(市长联席会议) 등의 느슨한 조직형태를 띠고 시장조절과 상호협력에 주력했지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계획과 협력은 미약했다. 또한 국무원은 중앙과출기구로 상해경제구(上海经济区)와 동북경제구(东北经济区)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는 관계가 밀접한 성들로 구성되고 그 상설기구인 경제구계획관공실(经济区规划办公室)이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비교적 긴밀하고 종합적인 광역경제권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이 일정 정도 행정권의 관리 색채를 띠에 따라 대부분의 성 정부는 상층의 또 다른 관리주체가 생기는 것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2개의 경제권 조직은 모두 폐지되었다(胡序威, 1994: 17).

대경제권 조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기능의 전환과 국가의 광역권역 계획에 대한 협력을 위해 자발(自願), 평등(平等), 호혜(互利)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참가하는 지역연합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며 과거의 대행정권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형태에 있어서는 현재의 일반적인 성간 경제협력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며, 각 성의 책임자가 참가하는 계획협력위원회(規劃协调委员会)와 그 산하에 상설기구인 계획협력관공실(規劃协调办公室)을 설립하고, 그 위원회 주석과 관공실 주임은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순환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경제권이 현재의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협력연합 조직과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의 지도와 거시적 통제를 수용하며 비교적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대경제권의 운영에 있어 계획의 수립은 민주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지역이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의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상호감독이 필요하다(胡序威, 1994: 18).

<표-2> 중국 대경제권 획정과 지역간 연합방안

구분	1차 구성원 지역	2차 구성원 지역
동북경제권	遼寧, 吉林, 黑龍江	內蒙古(東部)
화북경제권	北京, 天津, 河北, 山西, 內蒙古, 山東, 河南	遼寧, 陝西, 江蘇(北部), 安徽(北部)
서북경제권	陝西, 甘肅, 寧夏, 青海, 新疆	西藏, 內蒙古(西部)
동중경제권	上海, 江蘇, 浙江, 安徽, 江西, 湖北, 湖南	河南, 陝西(南部), 四川(東南)
서남경제권	四川, 雲南, 貴州, 西藏	桂林, 海南, 廣東(西部)
화남경제권	廣東, 福建, 廣西, 海南	湖南, 江西, 香港, 마카오, 대만

출처: 胡序威, 1993, 201; 1994: 19.

대경제권 설립과 지역간 연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이 필

요하다. 먼저 지역간 합리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고, 각종 대외경제 창구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기에 유리한가? 둘째 지역간 호혜와 분업을 촉진하고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며 불필요한 중복건설을 감소시켜 지역 주력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기에 유리한가? 셋째 지역간 경계를 넘는 중대한 기초시설의 건설, 자원개발, 환경정비 사업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에 유리한가? 넷째 주요 중심도시와 경제가 비교적 발전된 핵심지대 사이에 경제적 연계와 기술 확산을 통해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에 유리한가? 다섯째 현존하거나 미래에 발생가능한 지역간 경제기술협력 연합조직이나 기업집단에 대해 계획지도와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기에 유리한지의 원칙이다(胡序威, 1994: 18-19).

대경제권 방안을 강력히 제기한 후쉬웨이(胡序威, 1993, 1994)의 제안에 따라 전국을 6대 경제권으로 나눌 때 경진기 지역은 화북(华北) 대경제권에 포함되며, 이러한 대경제권 설립방안은 지역간 경제적 연계를 강조하여 광역 거버넌스의 행정권역 모델을 뛰어 넘음으로써 수도권 거버넌스 체제의 구상에 커다란 함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인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대경제권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하나의 경제권에 불과하여 지역간 협력의 합법적 권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경제권의 권위가 강력하게 보장된다면 이는 오히려 그 권한이 지나치게 팽창함으로써 명목상의 대경제권이 실제적인 대행정권으로 전환됨으로써 초성급(超省级) 행정권의 설립방안과 차별성이 없어진다. 또한 중국이 과거 설립한 적이 있는 경제협력구의 경험에서도 그 효과가 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张召堂, 2005: 218).

### 3-3. 지역협력기구 설립방안

이러한 방안의 예로는 먼저 경진계획협력위원회(京津规划协调委员会)의 설립 제안을 들 수 있다. 취엔샤오홍과 양카이중(权晓虹, 杨开忠, 1999)은 건국 이래 베이징을 생산도시로 건설하려는 정책이 수도발전에 부적합한 공업의 비중을 높였고, 텐진과의 관계에서 대량의 중복건



설과 중복생산, 불합리한 분업체계, 유사한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했다. 베이징과 톈진은 서로 간에 경제적 상호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며, 반드시 지방보호주의적인 행정적 통제를 극복하고 광역 경제권으로서의 일체화되고 협력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정부주도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줄이고 각 경제주체들의 시장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조건 하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이익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장치로서의 경진계획협력위원회(京津規劃协调委员会)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구의 중요한 기능은 기초시설 방면에서의 총체적인 계획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며, 가령 이를 통해 베이징은 톈진의 항구와 비행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톈진은 세관을 베이징으로 확대하여 행정적,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다른 예로는 수도권계획건설위원회(首都圈規劃建設委员会) 설립 제안이 있다. 장샤오탕(张召堂, 2005: 219)은 일본이 <수도권정비법(首都圈整備法, 1956년)>에 따라 광역 거버넌스 주체인 수도권정비위원회(首都圈整備委员会)를 설치한 사례를 들어 중국에서도 <수도권계획건설법(首都圈規劃建設法)>의 제정과 수도권계획건설위원회(首都圈規劃建設委员会)의 설립을 제안했다. 동 위원회의 주임은 국무원 부총리가 담당하고, 위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의 장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의 시장과 성장으로 구성토록 했다. 동 위원회의 권한은 전체 수도권에 걸쳐 수도권 발전계획의 제정, 조정, 시행 등을 책임지며, 권역 내 각 도시의 총체적인 도시 계획과 중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와 시행, 그리고 수도권 건설과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 등으로 할 수 있다.

<표-3> 수도권계획건설위원회(首都圈規劃建設委員會)와 일반 행정조직과의 비교

구분		일반 행정조직	수도권계획건설위원회
일반적 성격		기계적 폐쇄조직: 안정적, 확정적 / 고정되고 명확한 경계	유기적 개방조직: 불안정, 비확정적 / 고정되고 명확한 경계의 부재
조직 목표	일반특징	효율적 활동, 안정성과 연속성	효과적 문제해결, 혁신과 성장
	목표설계	명확히 구분된 단일목표	다양한 이익주체의 제약, 다원적 목표
	파급범위	관리적 계층구조(하향적)	광범위한 참여(하향적/상향적)
목표구조		단일목표	탐색, 적응, 학습의 체계 / 다원적 목표와 기대의 지속적 조정
권력구조		집중적, 계층적	분산적, 네트워크적
일반적 가치관		효율, 예측가능성, 안정, 위험회피	효율, 적응성, 민감성, 위험수용
조직규범화정도		높음	낮음
조직지위		정식적 계층구조로 명확히 정의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기초로 함
계획과정		중복적, 고정적, 구체적 계획	변동적, 탄력적, 일반적 계획
통제구조		계층적, 구체적 외부통제	상호작용적, 성원의 자기통제

출처: 杨开忠, 1993: 257; 张召堂, 2005: 220

이러한 방안의 중요한 특징은 각 지역주체가 통일된 행정관할 범위 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구역 상황에 입각하여 각 정부간의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은 후술하는 행정구역 합병방안에서도 과도기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만, 후술하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행정구역의 권한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4. 행정구역 합병방안

#### 1) 행정력에 의한 통합안

1990년대 당시 민진당(民進黨) 텐진시위원회 부주임이자 시정부 계획국 총공정사였던 무쉬에밍(穆學明)이 전 베이징시정부 관리에게 베이징과 텐진의 협력문제를 논의하였을 때 “베이징의 화장장 정도는 텐진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그는 중국의 도시계획에서 오랫동안 광역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베이징과 텐진의 협력만이 두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 후 무쉬에밍은 전국정협 위원이 되면서 2001년 3월 전국정협 제9기 4차 회의에서 두 도시의 합병과 5-10년 동안의 계획적인 건설을 통해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의 구상은 베이징과 텐진을 각각 특구(特區)로 지정하고 기존의 행정직급은 변하지 않으면서 2개의 특구 위에 ‘대구정부(大区政府)’를 설치하고 행정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자는 것이었다(人民网-市场报, 2002. 4. 26; 经济日报, 2002. 6. 10).

대구정부의 신설주장은 인구나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행정직급이 같은 두 도시의 자의적인 통합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무쉬에밍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최초의 베이징, 텐진 합병제안으로 도시간 합병 논쟁의 단초가 되었지만, 허베이성이 배제되고 즉흥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진경, 최병현, 2005). 행정구역의 합병은 일정 정도 이 지역 각 정부 주체간의 분업과 협력을 위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실현은 반드시 기존 행정구역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격하시킴으로써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이는 각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은 이미 1958년에서 1965년 사이 중앙에 의해 텐진과 허베이성을 합병한 경험이 있지만, 이는 두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張召堂, 2005: 217).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대수도특구(大首都特區) 창설 제안을 들 수 있는데, 탄웨이허(譚卫和) 농공민주당(農工民主黨) 연구원은 경진기 지역 경제발전에 대해 대수도특구, 혹은 베이징대구(北京大区), 국무원화북행정직속관리구(國務院華北行政直屬管理區)의 구상을 제기한 바 있다. 베이징, 톈진, 탕산, 바오명, 량팡 등 대도시들이 인근의 장자커우(張家口), 청더(承德) 등의 도시들과 결합하여 서부대개발, 빈곤퇴치사업 등에 참여하고, 황사방지, 수자원개발, 조정사업 등을 진행하고, 국가의 특별정책을 통해 대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대도시권 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이를 통해 범화북지역 전체의 자원과 산업입지 등의 재조정을 통해 조속히 환발해 중심지대에 중국 동부 연안의 세 번째 국제화된 대도시지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웨이허(譚卫和)는 특히 이러한 대수도특구에서 베이징과 톈진의 합병을 범화북지역 5차 환형(環形) 복합동심원의 핵심권역이 되어 외부로 방사형의 파급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소통”과 “집중”에 의한 대도시 합병안

2001년 10월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청화대학 교수인 우량용(吳良鏞)의 책임하에 진행된 이른바 ‘대베이징 계획(大北京規劃)’이라고 불리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북부지역 도시농촌 공간발전 계획연구(京滬冀北城鄉空間發展規劃研究)>가 건설부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연구는 1999년 10월에 시작되었고, 참가한 기관은 베이징시 계획위원회, 톈진시 계획·국토자원국, 허베이성 건설청,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와 생태환경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센터, 중국도시계획설계연구원, 탕산(唐山), 바오명(保定), 량팡(廊坊), 청더(承德) 등 도시의 건설위원회와 계획국, 청화대학 등이었으며, 100여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 8개의 연구팀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베이징 계획’의 기본목표는 베이징과 톈진 2개의 핵(雙核)과 탕산과 바오명 2개의 날개로 대도시 기능의 활성화, 산업입지의 조정, 중등

도시의 발전, 도시 밀집도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베이징 지역의 도시조합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중 베이징과 톈진의 양대 축에 대해 분업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교통운수 네트워크를 '단일중심의 방사형'에서 '이중중심의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도시를 지역간 교통축에 따라 포도송이 모양으로 발전시켜 생태녹지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지역간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지역 전체의 협력 원칙 하에 각 지역의 기존 발전전략을 새롭게 조정하며, 세계도시 건설의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人民网-市场报, 2002. 4. 26).

대베이징 지역 도시통합의 단계별 구상을 보면(김진경, 최병헌, 2005), 첫 번째 단계는 지역간 협력기구의 구성으로 중앙정부 관련부서인 수도계획건설위원회, 국가계획발전위원회, 건설부, 국토자원부 등이 주축이 되어 지역간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베이징과 톈진의 도시공동체 구성으로 베이징과 톈진은 각각 한정된 공간에 도시기능이 밀집해 있고 분산된 농촌의 기능은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두 도시의 집중된 도시기능을 분산하고 흩어진 농촌의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 연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북부지역의 합병을 위한 조정 작업이다. 이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 세 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을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해결가능한 문제와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분류,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세 지역의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계획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통신 및 교통망 확충, 공항확대,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은 세 지역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요구하는 항목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베이징 계획은 행정체제의 한계가 있으며, 전통적인 중국의 행정체제가 수직적으로 강한 집권체제를 유지하지만 수평적으로 매우 약한 응집성과 경쟁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베이징 주변도시들의 산업구조와 전략산업이 각기 상이하며 대베이징 통합을 실현하고자 할 때 대규모 산업구조의 조정과 자본수요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도시경제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도시경제권이 인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

라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핵심도시도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간 자원배분과 협력의 문제라는 점이다. 투자환경에서는 도시간 자금유동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조건이 좋은 도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도시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다. 문화환경에서는 모든 도시가 화북(华北) 지역에 위치하지만 사실상 문화 환경상의 차이가 크며 문화적 통합은 10여년의 시간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책환경에서 각지의 행정체제에 따른 정책의 차이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발전의 목표에 있어서는 해안 도시는 관광을, 내륙도시는 철강을 각 도시의 발전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목표의 차이가 크고 단기간에 이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中国经营报, 2004. 7. 2). 따라서 베이징과 톈진의 통합문제가 2000년대 들어 언론과 시민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이 연구를 주관한 건설부는 도시간 통합의 문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천명했다(经济日报, 2002. 6. 10).

#### 4. 지역혁신(발전) 추진체제와 광역 거버넌스

##### 4-1. 광역 거버넌스의 공간범주

경진기 광역 거버넌스의 공간범주와 관련해 청화대학 우량용(吳良鏞) 교수팀은 경진기 공간발전연구의 2기 보고서에서 이 지역의 공간발전 구상을 ‘하나의 축, 세 개의 벨트(一軸三帶)’로 제시한 바 있다(吳良鏞等, 2006). 이는 베이징과 톈진을 핵심으로 하는 경진발전축(京津發展軸), 환발해만의 ‘대빈하이신구(大濱海新區)’를 중심으로 한 신흥발전벨트, 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발전벨트, 경진(京津)을 둘러싼 연산(燕山)과 타이항(太行)산맥을 잇는 생태문화벨트를 의미한다. 그 중 경진발전축(京津發展軸)은 베이징과 톈진의 전반적인 장점들을 살려 이 지역을 세계도시로 함께 발전시키는 한편 다핵적인 공간체계를 형성하고, 량팡(廊坊)의 입지와 자원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베이징과 톈진 주변의 기존 중소도시를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주변지역

의 성장거점으로 삼는다. 신흥발전벨트(新兴发展带)는 경진기 광역권의 전략적 중점인 빈하이지역의 공간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항구간 협력과 연해대로의 건설을 통해 항만산업 집적과 항구도시 발전을 도모한다. 전통발전벨트(传统发展带)는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도시들 가운데 징광(京广)철도와 징친(京秦)철도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이 주도하고 기초산업과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면서 서비스산업을 전면 발전시키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벨트를 육성하는 한편 전통적인 자원형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생태문화벨트(生态文化带)는 장자커우(张家口) 지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허베이 서북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청더(承德) 지역의 문화·생태자원을 발굴하여 허베이 동북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바오딩(保定) 지역의 문화·생태자원을 발굴하여 베이징 남부의 발전을 도모한다.

경진기 광역권의 공간구조에 관한 총체적인 구상인 ‘점(點)과 축(軸)’의 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점(點)’의 구체적인 발전구상은 경진기 광역권을 ‘2+8+4’의 도시구조로 발전시키며, 여기서 2는 베이징과 톈진의 두 핵심도시를, 8은 허베이의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바오딩(保定), 친황다오(秦皇岛), 랑팡(廊坊), 창저우(沧州), 청더(承德), 장자커우(张家口)의 부중심도시를, 4는 빈하이신구(滨海新区), 통저우(通州), 순의(顺义), 탕산항(唐山港)의 신흥도시를 각각 의미한다. ‘축’의 구체적인 발전구상은 각 도시들간의 주요 교통선과 이를 따라 분포하는 산업벨트, 도시벨트로 구성하며, 특히 중관춘(中关村) 과학기술단지와 빈하이신구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통저우, 랑팡, 빈하이신구를 잇는 도시축이 발전하고 있고, 빈하이의 중화학공업단지와 발해만(渤海湾) 5대 항구를 핵심으로 친황다오, 탕산, 톈진, 창저우를 잇는 연해지역 도시벨트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다시 각 지역별 공간발전 전략을 통해 살펴보면, 베이징의 공간발전 전략은 <베이징 도시종합계획(北京城市总体规划): 2004-2020년>에 따라 그 동안 추구해 왔던 ‘경제중심’으로서의 발전전략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국가수도(国家首都), 세계도시(国际城市), 문화도시(文化名城), 살기좋은 도시(宜居城市)의 네 가지 목

표를 명확히 했다. 베이징은 2020년까지 도시공간을 ‘두 개의 축, 두 개의 벨트, 여러 개의 중심(兩軸, 兩帶, 多中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여, 그 중 동부발전벨트는 순의(順義), 이좡(亦莊), 퉁저우(通州)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서부생태벨트는 창핑(昌平)과 하이디엔(海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환경보호 산업을 발전시키며, 수도철강이 이전해 간 쓰징산(石景山) 지역은 문화레저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공간전략의 의의는 베이징의 발전이 동쪽 지역으로 편향됨으로써 허베이, 텐진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한편, 그 동안 베이징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 ‘단일중심+순환도로(單中心+環線)’의 공간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 도시공간의 단일중심 모델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에 크레믈린궁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전된 모스크바의 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베이징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5차 순환도로까지 건설되고, 현재 6차 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 등 지나친 방사형 발전으로 말미암아 도시교통과 환경문제 등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베이징이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을 위해서는 특히 동부지역 도시들과의 협력 및 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 필연적이다(人民網, 2006. 5. 8).

텐진의 공간발전 전략은 <텐진시 도시종합계획(天津市城市總體規劃): 2005~2020년>에서 텐진이 환발해 지역의 경제중심으로 국제적인 항구도시, 북방의 경제중심이자 생태도시로 건설할 것을 확정했다. 미래의 텐진은 도심지와 빈하이신구를 함께 주요한 발전의 요충지로 삼아 서로 협력하며, 11개의 신도시, 30개의 중심지, 빈하이신구 등으로 ‘하나의 축, 두 개의 벨트, 세 개의 구역(一軸, 兩帶 三區)’으로 된 공간구조를 발전시킬 것을 결정했다. 여기에서 하나의 축은 빈하이신구에서 베이징까지 징진탕(京津唐)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중심축, 두 개의 벨트는 한구신구(漢沽新區), 빈하이신구, 따항신구(大港新區)를 잇는 해안벨트와 지현(薊縣), 바오디(寶坻), 도심을 잇는 내륙벨트를, 세 개의 구역은 북부, 중부, 남부의 생태환경 및 습지보호 구역 등을 의미한다. 이 <계획>이 갖는 의의는 먼저 미래의 텐진 발전은 주변지역과의 협력적 발전을 중시해야 하며, 이에 관해 국무원(國務院, 2006)은 <계획>의 승인과정에서 “텐진시의 건설계획은 경진기 지역발전 계획과 협력적이어야 하고,



광역적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산업구조의 조정과 자원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베이징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와 환발해, 북방지역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무원이 빈하이신구를 '종합개혁실험지역(综合改革试验区)'로 지정함으로써 빈하이신구의 개발·개방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국가전략에 포함되며, 빈하이신구는 단순히 톈진의 빈하이신구가 아니라 이미 베이징과 허베이의 빈하이신구가 되었다.

허베이의 공간발전 전략은 2005년에 지역간 지리적 위치, 자원부존, 경제기반 등에 기초하여 ‘하나의 선, 두 개의 블록(一线两厢)’이라는 도시공간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 중 쓰자좡, 바오딩, 랑팡, 탕산, 친황다오의 5개 도시로 이어지는 '중간일선(中间一线)'은 성 전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벨트로 삼고, 한단(邯郸), 싱타이(邢台) 등지의 ‘남부블록(南厢)’은 신속히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을 육성하며, 장자커우, 청더의 ‘북부블록(北厢)’은 경제발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근거하여 바오딩, 랑팡, 탕산, 친황다오, 장자커우 등 각 도시의 기존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작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허베이성 도시체계계획(河北省城镇体系规划): 2006~2020년>이 국무원의 승인을 획득했다.

## 4-2. 광역 거버넌스의 정책(사업)과제

### 1) 광역혁신체계 및 클러스터 지원체계 구축

베이징과 톈진이라는 양대 거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경진기 광역권은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적지 않은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대표적으로 중관춘과학기술단지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정보산업의 R&D·무역·생산기지로 발전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기술 인력이 고도로 밀집해 있다. 톈진개발구는 환발해 연해지역에서 활력이 가장 넘치고 발전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IT제조업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의 전자통신설비, 액정브라운관 등의 생산기지가 되었다. 허베이의 랑팡경제개발구는 베이징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전자정보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에 주강삼각주의 선전(深圳)이나 장강삼각주의 푸둥(浦东)과 같이 텐진의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성장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있다.

빈하이신구(滨海新区)의 개발과정을 보면, 2006년 5월 26일 국무원(国务院, 2006)은 <텐진 빈하이신구의 개발·개방 추진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天津滨海新区开发开放有关问题的意见)>을 공포하여, 경진기 광역권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동력으로 삼고자 했다.<sup>7)</sup> <의견>에 따르면 빈하이신구의 발전목표는 경진기에 의존하고, 환발해를 지원하며, ‘삼북(三北: 华北, 东北, 西北)’에 발전을 파급시키고, 동북아로 나아가는 중국 북방지역 대외개방의 문호, 현대제조업과 R&D의 산업화 기지, 북방의 국제운송·물류 중심을 건설하고, 번영된 경제,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생태형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선진제조업단지, 첨단기술산업단지, 석유화학공업단지, 항공산업단지, 비즈니스상업단지, 통상물류단지, 해양레저관광단지 등을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빈하이신구의 GDP를 2010년까지 연평균 17%의 증가율로 3,200억 위안을, 2020년까지 1만억 위안을 달성할 계획을 제시했었다(皮黔生, 2006: 19).

빈하이신구(滨海新区)의 개발은 중국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中国政府网, 2006. 7. 25). 먼저 개혁개방의 경험이 새롭게 확대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20여 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이론과 현실에서 현저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일련의 심각한 모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혁을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대외적인 개방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는 것이 당면한 중대한 과제였다. 둘째, 경진기와 환발해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빈하이신구는 환발해지역의 중심에

7) 빈하이신구는 텐진 동부 연해지구에 위치하고 총면적은 2,270km<sup>2</sup>에 이르며, 1994-2005년 빈하이신구의 GDP 증가율이 20.6%에 달하여 2005년 GDP가 1,608.63억 원(상하이 푸둥의 76%), 외자도입의 누계가 187억 달러였고,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70여개가 이 지역에 투자하였다(中国政府网, 2006. 7. 25).

서 베이징과 톈진을 등에 업고, ‘삼북(三北)’에 과급효과를 지니며, 동북아로 나아가는 중국 북방대륙의 중요한 해상출구이자 경진기 광역권의 해상문호이며, 내륙의 배후가 광활하고, 입지의 장점이 명확하고, 산업적 기초가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거대하다. 셋째, 빈하이신구의 개발·개방은 경진기 광역권과 환발해 지역의 발전을 통해 연해지역의 특화된 개발을 촉진하고 중서부 지역의 신속한 발전을 견인해 지역경제의 협력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빈하이신구의 개발·개방은 WTO 체제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톈진과 빈하이신구의 고유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빈하이신구는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교통시설이 완비되고, 토지와 인근의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비교적 풍부함으로써 특유의 장점을 구비하고 있다. 톈진은 환발해 지역의 핵심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다.

## 2) 광역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

경진기 광역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발전목표는 2010년까지는 지역 내 도시화 수준의 점진적 제고, 핵심도시의 주변도시에 대한 과급효과 강화, 신도시 발전구조의 기본적인 형성, 지역혁신 능력의 확고한 제고, 기초시설 일체화의 가속화, 다핵도시군 구조의 초보적인 형성, 광역권의 전체 경쟁력의 제고, 광역권의 국제적 영향력의 기반 확립 등에 있었다. 향후 2020년까지의 발전목표는 기초시설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뛰어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 입지체계와 기능이 합리적이고, 커다란 국제적 영향력과 국내 발전의 선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대화된 세계적인 대도시군을 확립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화 수준을 선진국에 근접한 68% 정도로 제고하며, 광역권 주요도시에 대한 2시간 교통권을 확립하며, 북방의 경제중심 역할 확립과 광역권 경제에 대한 복사 및 과급효과를 제고하며, 베이징과 톈진의 2대 핵심을 중심으로 허베이 각 도시를 연계하는 도시체계를 확립하며, 2대 핵심도시의 경제세계화 과정에서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梁义等, 2007: 107-108).

경진기 광역권은 지역간 산업이전과 광역권 내 새로운 산업벨트의 형

성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牛凤瑞, 盛广耀, 2006: 385-387). 이 지역은 이미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일부 산업, 특히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중화학공업들을 베이징에서 주변의 허베이 도시들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광역권의 도시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철강의 200만톤 철강생산 공장이 허베이성 첸안(迁安)으로 이전됨으로서 첸안의 세수가 7억여 위안 증가하였고, 이는 재정수입 측면에서 하나의 첸안이 새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 경진기 광역권의 새로운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발전모형은 베이징과 톈진의 산업발전이 주변 지역 관련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선도하며, 산업체인의 쌍방향적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sup>9)</sup>

나아가 광역권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는 광역권의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도로교통 네트워크의 개선으로 징진탕(京津唐) 고속도로의 복선 확충과 동시에 징탕(京唐), 징바오(京保), 징장(京张) 고속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베이징을 기점으로 하는 방사형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기초 위에서 중앙당국의 '경진기 광역권 지역계획(京津冀都市圈区域规划)'의 편성을 계기로 광역권 내 남북과 동서를 관통하는 네트워크형 도로망과 관광노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로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베이징-톈진간 도시고속철도를 원활하게 하고, 베이징 수도공항의 확충과 톈진 빈하이공항의 개선으로 수도공항이 주축이 된 광역권 항공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 항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는 동시에 새롭게 개조되는 톈진신항을 핵심으로 친황다오항(秦皇島港), 징탕항(京唐港), 자오지띠엔항(曹妃甸港) 등을 발전시키고, 징진탕 화물고속도로 복선과 환발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선으로 새로운 해양운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8) 지역간 산업이전의 자세한 내용은 戴宏伟(2003)을 참고.

9) 이는 기존 베이징과 톈진지역에서 산업체인의 말단에 놓인 기업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 주변지역 기업이 R&D, 영업, 본부 등이 베이징과 톈진으로 이전함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제고

중국의 도시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함의는 먼저 경제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균형적 패도 위에서 운영되는가의 문제이다. 중국에서 이는 첫째 도시내부에서, 그리고 도시간에 어떻게 분업체계를 확립하고 그 발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둘째 초기 경제성장 과정의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방식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셋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지표의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총체적인 발전, 즉 도시주민의 복리수준이 점차 제고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공동체에서 이러한 사회적 복지는 도시주민의 복지수준, 공공재정의 지출수준, 실업수준과 사회적 안정, 사회적 공평의 실현, 도시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발전과 사회진보 외에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어떻게 환경문제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를 연계할 것인지, 어떻게 환경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인지는 이미 중국 도시발전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张耘, 王勇, 2007: 32-46).

경진기 광역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당면한 주요문제로는 먼저 광역권 내 경제발전의 격차와 심각한 빈곤현상을 꼽을 수 있다. 경진기 북부지역에 빈곤현상이 두드러지며, 장자커우, 청더의 전체 현과 바오딩의 이현(易县), 라이쉐이(涞水), 라이위엔(涞源) 등 24개 현이 경제가 특히 낙후된 빈곤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2003년 빈곤벨트의 24개 현 가운데 중앙과 정부가 지정한 빈곤퇴치 중점현(重点县)이 21개, 중점촌(重点村)이 2,730개, 빈곤인구가 182만 명이었으며, 이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서부지역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태환경의 악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중 심각한 토양침식과 사막화로 인해 장자커우의 사막화 면적이 99.53ha로 전체 토지면적의 27%에 이르고, 빠상(坝上) 4개 현(縣)의 사막화 면적은 54%에 이른다. 수토유실도 심

각하여 장베이현(張北縣) 수토유실 면적은 총 면적의 83%로 매년 평균 유실면적이 10km<sup>2</sup>이고, 구위엔현(沽源縣) 수토유실 면적은 총 면적의 73%로 매년 유실량이 500만 톤 이상에 달한다. 가뭄과 수자원 부족의 심화되고 있으며, 허베이 북부지역은 전국적으로 수자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의 하나로 강수량이 적고 가뭄발생률이 빈번하며, 용딩허(永定河), 차오바이허(潮白河)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1980년대 이전에 약 12억m<sup>3</sup>에서 1980년대 이후 5억m<sup>3</sup> 이하로 감소했다. 자연자원도 지나친 개발로 고갈이 심해졌으며, 베이징 북부의 4대 수원의 지표수 개발·이용도가 95%에 이른다(羅靜, 2006).

따라서 경진기 광역권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우선 산맥, 경작지, 해양 등의 공간체계에 근거한 종합적인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권 내의 산맥, 평원, 수계 등을 근간으로 도시 공간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 공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sup>10)</sup> 둘째 다양한 방식을 통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종합적 이용이 필요하다. 수자원 부족은 경진기 광역권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며, 이 지역의 수자원 부족은 평원지역의 댐 기능을 통한 지표수의 합리적 이용, 빗물을 통한 지하수 보충과 지속적인 지하수위 하락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절수 중시, 오수처리율과 수자원 중복이용률 제고, 도시녹화와 생태용수에 대한 중수(中水) 이용, 연해지역 중화학공업과 철강산업 냉각수에 대한 해수(海水) 이용, 해수의 담수화 중점기지 육성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생태환경에 관한 전략적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 거버넌스를 추진하여 핵심생태보호구역, 중요생태보호구역, 일반생태보호구역 등을 구분하고 각 분류에 따른 발전과 개발,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하천과 그 지류는 산간 삼림생태와 연해 습지생태의 주요 통로이자 광역권 내 경관체계의 골격이며, 이에 대한 토지개발의 통제와 오염물질 유입방지 계획이 필요하다. 연해지역은 습지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생

10) 이러한 공간체계는 이른바 ‘두 개의 고리와 세 개의 벨트(兩環三帶)’ 구조를 통해 가능하며, 이 구조는 타이항산맥(太行山脈)과 옌산(燕山)으로 이루어진 산간내륙 외곽과 해안의 습지외곽, 따칭허(大清河), 용딩허(永定河), 차오바이허(潮白河)로 이루어진 세 개의 하천 벨트를 의미한다.

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로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경진기 광역권의 중심도시는 대부분 평원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지형변화가 심하지 않고, 도시건설이 평면적으로 확장되는 방식이며, 따라서 도시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吳良鏞 等, 2006: 141-146).

#### 4-3. 광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

##### 1) 광역 거버넌스 지원체계를 위한 상설조직 및 협의체 구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하에 2007년 5월에 완성된 <빈하이신구와 경진기 산업협력 연구보고(滨海新区与京津冀产业协作研究报告)>에서 경진기 광역권의 거버넌스 지원체제에 대한 2가지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 내 경진기 협력발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구상으로 이는 국무원의 동북관공실(东北办), 중부관공실(中部办)과 같은 지역 개발에 관한 거시적인 관리 기구를 의미하며,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제정한 <경진기 도시권 계획(京津冀都市圈规划)>에도 유사한 구상이 제시되었다. 동북관공실은 ‘동북지역 등 구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영도소조 관공실(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领导小组办公室)’의 약칭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장관급(正部级) 기구로 주요 기능은 동북지역 등 구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국무원 관련부서와 각 성 지역을 총괄한 공업진흥 전략·정책의 연구 및 건의, 각 성 지역 경제발전 상황의 종합과 진흥계획의 제안 등이었다. 중부관공실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2007년에 설립한 ‘국가 중부지역 발전촉진 업무 관공실(国家促进中部地区崛起工作办公室)’의 약칭으로, 중부지역 발전전략·계획·시책의 연구와 제안, 중부지역 발전촉진과 관련된 업무의 협력과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다른 구상으로는 경진기 시장 연석회의 체도가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역경제 협력발전을 위한 관리체제이며, 이 연석회의는 경진기 각 도시의 시장으로 구성된 정기적, 부정기적 고위급 회의제도

로서 각 도시 발전전략의 조정, 기초시설·산업발전·공간입지·환경보호·오염처리 등 중대사항의 협력적 해결, 광역적 건설 프로젝트의 결정, 공동발전 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각 도시 발전개혁 부문이 연석회의 결정사항의 구체적인 집행자이며,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개최, 관련정보의 교류, 협력과정의 갈등해결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톈진은 적극적인 반면 베이징은 그렇지 않으며, 그 동안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구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베이징의 이러한 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과 허베이는 2006년 말 <베이징과 허베이 경제·사회발전 비망록(京冀经济和社会发展备忘录)>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두 지역간 수자원 보호, 에너지 개발, 산업 이전 등 9개 항목에 관해 심도 있게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톈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2006년 3월 톈진에서 ‘환발해 경제연합 시장연석회의(環渤海经济联合市长联席会议)’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는 이미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었다. 그 성원은 범환발해 지역의 32개 도시로 확대되어 산시(山西), 내이멍구(内蒙古) 등 내륙지역의 도시도 포함되었으나, 베이징은 줄곧 성원이 아닌 참관도시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는데 그쳤다(经济观察网讯, 2007. 5. 21).

## 2) 중앙정부 내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처의 역할

중앙정부 내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부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이며, 동 위원회는 상술한 바처럼 경진기 광역권의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상설조직 및 협의체 구상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경진기 광역권의 거버넌스 체제를 위해 2004년 이른바 ‘량광합의(廊坊共识)’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량광합의(廊坊共识)’ 도출과정을 보면, 2004년 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허베이성(河北省) 량광시(廊坊市)에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경제 발전전략 세미나(京津冀区域经济发展战略研讨会)”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세 지역의 정부관계자들은 이른바 ‘량광합의(廊坊共识)’를 도출하



여, 첫째 경진기 지역의 공동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지역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진척시킬 수 있는 필연적 선택임을 천명했다. 둘째 경진기 지역의 경제발전은 반드시 시장주도 하에 정부가 촉진하는 원칙에 따라 평등호혜, 상호보완, 전면적 협력, 다원적 발전의 기초 위에서 선순환적이고 협력적인 경쟁에 의한 지역발전 구조를 형성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경진기 정부내 지역개발 담당부서의 정기적인 협력제도 구축, 정보소통의 강화, 지역경제 발전이 당면한 주요문제의 연구와 대책건의, 조직 협력의 적극적 기능 등이 필요하며, 경진기 정부 최고책임자의 정기적인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중요사항의 협력논의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정책을 제정하며, 상호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임무를 시행했다. 그리고 경진기 지역발전의 총체적인 계획과 중점적인 개발계획의 편성을 통하여 도농체계와 기초시설 건설, 산업입지, 자원개발과 이용, 생태환경 보호 등 관련문제를 협력했으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쉬운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을 전개했다(王红茹, 2004).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4년말부터 경진기 광역권의 계획입안 작업에 정식으로 돌입하여 각 지역 도시발전에 관한 계획을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베이징에 대해 <베이징 도시종합계획(北京城市总体规划): 2004-2020년>에서 경제중심 전략을 의식적으로 약화시키고 광역행정권 내의 산업이전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는 톈진과 허베이의 도시공간 발전전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2006년 6월에 ‘경진기 지역개발업무 좌담회(京津冀区域规划工作座谈会)’를 개최하여, 지역개발연구와 계획입안을 위한 교류 및 각 지방정부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으며, 이는 경진기 광역권의 개발업무가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단계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또한 2006년 6월에 ‘경진기 광역권 수자원·토지자원 개발 및 생태환경 관련 조사연구 좌담회(京津冀都市圈规划水土资源和生态环境专题调研座谈会)’ 개최하였고, 2006년 7월에 ‘경진기 에너지개발 좌담회(京津冀能源规划座谈会)’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3) 정부조직의 사업프로젝트별 광역 거버넌스 구축사례

구체적인 사례로 먼저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들 수 있다. 2005년 6월에 국무원 인사부와 경진기 3개 정부의 인사 부서가 ‘경진기 인재개발 일체화 세미나(京津冀人才开发一體化研讨会)’를 개최하고 <경진기 인재개발 일체화 협력 협의서(京津冀人才开发一體化合作协议书)>를 체결했다. 이 협의는 첫째 ‘인재개발 일체화 연석회의’를 설립하여 인적자원 영역의 협력사항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둘째 3개 정부 인사관련 부서의 처·실 등을 일치시키고 협의내용이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며, 셋째 3개 정부의 인적자원 관련정책을 연구하여 협력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인적자원의 교류에 불리한 ‘벽목’정책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결정했다.<sup>11)</sup>

두 번째 사례로는 관광산업 일체화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들 수 있다. 경진기 3개 지역은 <지역관광종합계획(区域旅游总体规划)>을 공동으로 편성하고, 정부의 주관부서가 주도적으로 관광업협회(旅游行业协会)를 조직하여 관광노선과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했다. 정부와 협회의 주관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시장수요 조사, 관광노선의 연계와 관광교통의 네트워크화, 광역권 내 여행상품의 재구성을 통한 공동판매, 관광분야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강화와 지역간 상호인정과 교류를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의 향상, 해변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관광기지의 건설 등을 추진했다. 2005년 8월에는 ‘베이징·톈진·허베이-홍콩·마카오·대만 관광협력대회(京津冀-港澳台(3+3)旅游合作大会)’를 개최하여 6개 지역 관광부서와 협회가 <협력선언(合作宣言)>을

11) 2006년 12월에는 ‘제1차 인재개발 일체화 연석회의’가 톈진에서 개최되고 3개의 세부 협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 즉 <경진기 인재교류 협력협의서(京津冀人才交流合作协议书)>를 통해 대규모 인재채용 박람회나 다양한 인적교류를 위한 활동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경진기 인사대리·인재파견 협력협의서(京津冀人事代理、人才派遣合作协议书)>를 통해 3개 정부가 상대 지역에 인사대리, 인사파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경진기 인재네트워크 협력협의서(京津冀人才网站合作协议书)>를 통해 3개 정부가 인재정보의 공유를 목표로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사이버 인재박람회 등을 진행했다(中央政府门户网站, 2006. 12. 7).

채택하기도 했다(廊坊日报, 2005. 8. 27).

또 다른 사례로는 지역협력 공동연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들 수 있다. 2006년 3월 3개 지역 정부연구실(政府研究室)이 공동으로 ‘경진기 지역발전 협력연구 연석회의(京津冀区域发展合作研究联席会议)’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부간 공동연구는 상호교류를 위해 필요한 밑거름이자 준비단계이며, 지역협력의 확대, 윈윈전략의 실현, 경제 일체화를 위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3개 정부는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며, 공동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경제 발전의 기본요인과 각 요인의 영향, 경진기 광역권 경제발전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인과 특성, 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광역권의 발전현황과 발전요인의 특징, 경진기 광역권과 다른 광역권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의 분석, 현행 조건에서 경진기 광역권에 적합한 발전모형, 정부역할의 방식과 경로 등의 탐색 등을 포함했다(廊坊市商务之窗, 2006. 4. 3).

#### 4) 정부조직 외의 다양한 광역 거버넌스 구축사례

이 사례로는 공청단(共青团)과 청년기업가협회 공동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가 있다. 경진기 청년기업가 협력 연례회의(首届京津冀青年企业家合作年会)는 경진기 3개 지역의 공산주의 청년단과 청년기업가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2005년 4월에 제1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기업가 150여명이 참가하고, 2006년 12월에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연례회의의 취지는 대화, 교류, 협력, 친목의 장을 통해 장기적, 규범적, 개방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3개 지역 청년기업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진기 경제의 통합과 상호개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결출한 청년기업가 협력포럼(杰出青年企业家合作论坛)”은 동일한 주체인 경진기 3개 지역 공청단과 청년기업가협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5년 12월에 ‘지역협력 촉진과 조화로운 발전의 실현(促进区域合作, 实现和谐共赢)’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으며, 3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가 30여명이 참가했다.

다른 사례로는 정치협상회의(政治协商会议, 政協으로 약칭) 경제위원회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꼽을 수 있다. 경진기 3개 지역 정협 경제

위원회는 ‘지역경제발전포럼(区域经济发展论坛)’을 설립하여 2004년 10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했다. 가령 제1차 회의에 따르면 경진기 광역권 경제협력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강삼각주나 주장삼각주과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남으로 광역권 경제의 협력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속히 실현해야 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경진기 광역권 협력기제의 확립과 조속한 실질적 협력단계로의 진입, 3개 지역 협력시범사업과 ‘경진당 첨단기술 산업벨트’의 건설, 11차 5개년 계획입안을 계기로 3개 지역 발전계획의 협력과 연계, 광역권 내의 부족한 자원조달 기제의 확립,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심층적 연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北京日报, 2004. 10. 22).

## 5. 결론: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중국 경진기 광역권의 거버넌스 체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선 광역권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는 광역권 협력을 위한 지역간 합의의 도출, 지역간 산업이전과 분업적 협력체제의 구축, 사업 프로젝트별 협력의 활성화 등 제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개혁초기의 분권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인해 초래된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재정 기능의 연성적 집권화를 추진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분권화된 체제가 광역권의 협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의 경우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의 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모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광역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양하고 활성화된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만들며,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새로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부 영역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지방정부간의 상이한 관점은 중앙차원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의한 지역간 명확한 분업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경진기 광역권은 과거 도시간의 기형적 경쟁, 산업구조의 동일화, 산업의 낮은 집적도, 합리적인 분업과 협력의 결여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새로운 협력적 발전전략에 따라 지역간 산업이전이 활성화되고 명확한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조정자 역할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합리적인 목표설정에도 의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지역간 분업체계의 확립은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며, 분권화된 지역구조에서는 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사업 프로젝트별 광역 거버넌스 체제가 활성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진기 광역권은 시장(市長) 연석회의와 같은 고위급 협력기제와 더불어 정부조직 내의 세부적인 사업프로젝트별 광역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예로는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 협력, 관광산업 일체화 협력, 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연구의 추진 등의 예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제시한 협력체제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 <참고문헌>

- 김용웅(1997), “광역권 개발계획의 도입배경과 발전방향”, 『국토연구』, 26.
- 김진경, 최병현(2005), “북경-천진-하북성 경제일체화(합병) 논의”, 『월간한중』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제3호.
- 박재욱(2007), “세계화 시대 중국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北京市의 사

- 레”, 『지방정부연구』, 10/4: 261-282.
- 박재욱, 정해용(2010), “동북아 광역경제권 형성과 정부간 광역 거버넌스 비교연구: 중국 경진기 광역권과 일본 관서 광역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1.
- 장영석(2007), “홍콩-선전 관계의 변화: ‘전방상점 후방공장’ 모델에서 ‘지역통합’ 모델로의 전환”, 『중소연구』, 30/4: 39-62.
- 정환우(2005), “텐진시: 발전과 쇠퇴, 그리고 재도약을 위한 모색”, 『월간한중』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제2호.
- 한국행정학회(2008), 「광역경제권 매뉴얼 작성」.
- 戴宏伟(2003), 『区域产业转移研究: 以‘大北京’经济圈为例』, 北京: 中国物价出版社.
- 范爱文(1999), “首都圈城市协调发展问题的分析”, 『徐州师范大学学报(自然科学版)』, 第17卷 第1期.
- 国务院(1986), “关于进一步推动横向经济联合若干问题的决定”, 3月 23日.
- 國務院(2006), “关于天津城市总体规划的批复”, 国函62号, 7月 27日.
- 胡序威(1993), “论中国经济区的类型與组织”, 『地理学报』, 第48卷 第3期.
- 胡序威(1994), “组织大经济区和加强省区间规划协调”, 『地理研究』, 第13卷 第1期.
- 寇建平, 宁方册(2005), “激情渤海岸(上): 成长的激情”, 『新远见』, 第8期.
- 梁义 等(2007), “京津冀城市群发展研究”, 景體华, 陈孟平 主编, 『2006-2007年: 中国区域经济发展报告』,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卢卫(2007), “天津滨海新区的优势、不足與战略切入点的选择”, 景體华, 陈孟平 主编, 『2006-2007年: 中国区域经济发展报告』.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罗静(2006), “京津冀北区域协调发展问题探讨”, 『社会科学论坛』, 第6期.
- 聂璧初(2002), 『认识天津 振兴天津』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牛凤瑞, 盛广耀(2006), 『三大都市密集区: 中国现代化的引擎』,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欧阳文安(1997), 『北京: 跨世纪的发展思路—1996—2010年北京市经济发展战略研究(上下册)』,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皮黔生(2006), “创新管理模式 促进区域经济发展”, 『国家行政学院学报』, 第5期.
- 权晓虹, 杨开忠(1999), “论京津协调发展”, 『经济地理』, 第19卷 第2期.
- 谭成文, 杨开忠, 谭遂(2000), “中国首都圈的概念與劃分”, 『地理学與国土研究』, 第16卷 第4期.
- 谭成文, 李国平, 杨开忠(2001), “中国首都圈发展的三大战略”, 『地理科学』, 第21卷 第1期.
- 王红茹(2004), “突破区域壁垒走向真正联合: 京津冀‘三角恋’”, 『中国经济周刊』, 第7期.
- 王辉, 万新平(1996), 『環渤海经济圈(天津卷)』,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郭翊光, 况鸿章(1988), 『北京市经济地理』, 北京: 新华出版社.
- 吴良鏞(2001), 『京津冀北(大北京地区)城乡空间发展规划研究(總報告)』, 9月.
- 吴良鏞 等(2006), 『京津冀地区城乡空间发展规划研究(二期报告)』,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 杨建荣(1995), “论中国崛起世界级大城市的条件與構想”, 『财经研究』, 第6期.
- 杨开忠(1993), 『迈向空间一體化』,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 于刃刚, 戴宏伟(2006), 『京津冀区域经济协作與发展: 基于河北视角的研究』, 北京: 中国市场出版社.
- 张召堂(2005), 『中国首都圈发展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张耘, 王勇(2007), 『首都可持续发展战略资源研究』, 北京: 中国经济出版社.
- 赵亮(2006), “京津关系发展历程及未来趋势”, 『北京规划建设』, 第2期.
- 周克瑜(1999), 『走向市场经济: 中国行政区與经济区的关系及其整合』,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 周克瑜(2000), “‘都市圈’建设模式與中国空间经济组织创新”, 『战略與管理』, 第2期.

- “将天津北京两市合并 政协委员提案建设‘大北京’”，人民网-市场报，2002. 4. 26
- “建设部有关负责人：京津合并一无方案更无时间表”，经济日报，2002. 6. 10
- “首都圈区域经济合作问题與对策”，国务院发展研究中心信息网，2004. 6. 14
- “分析：大北京一个梦幻式的规划”，中国经营报，2004. 7. 2
- “京津冀三省市政协区域经济发展论坛举行”，北京日报，2004. 10. 22
- “京津冀-港澳台旅游合作大会发表〈合作宣言〉”，廊坊日报，2005. 8. 27
- “京津冀区域发展合作研究全面启动”，廊坊市商务之窗，2006. 4. 3
- “大北京城市规划影响深远：2020年北京向东”，人民网，2006. 5. 8
- “国家发改委就推进天津滨海新区开发开放答记者问”，中国政府网，2006. 7. 25
- “京津冀人才开发一體化联席会议举行 签三项协议”，中央政府门户网站，2006. 12. 7
- “京津冀市长联席会议制度破茧”，经济观察网讯，2007. 5. 21

Cheung, Peter T. Y.(1999), "Guangzhou and Tianjin: the struggle for development in two Chinese cities", Jae Ho Chung (ed.), *Cities in China: Recip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form era*, London & New York: Routledge.

Hendrischke, Hans(1999), "Tianjin: quiet achiever?", Hans Hendrischke & Feng Chongyi,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s Provinces: comparative and competitive advanta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he Formation and the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in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g-Jin-Ji* in China

**Lee Kwon Ho**

### <Abstract>

This thesis is mainly concerns about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of *Jing-jin-ji* in China. For that, I have studied the background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jin-ji* in China, in terms of historical system, geography, and economy and pointed out the limitation and problems of present regional developing system. To get to know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g-jin-ji*, I have looked at how the discussions had proceeded about formation of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in *Jing-jin-ji*,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bout it. Also, regard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I have mainly studied spatial category, policy issues, status of real operation, etc. All those kind of discussions about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of China show lots of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Key Words** : Metropolitan Economic Zones *Jing-Jin-Ji* in  
China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Regional Developing  
System Formation and Operation

266 · 中國學 第39輯(2011.8)

투 고 일 : 2011.6.25
심 사 일 : 2011.6.29~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조세윤리의식에 관한 국제간 비교 - 한국·중국·일본 대학생을 중심으로 -

정우성\*

< 목 차 >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 3.1 가설설정
  - 3.2 연구방법 및 변수의 측정
4. 분석결과와 해석
  - 4.1 조세의식과 조세지식의 비교
  - 4.2 세법교육에 따른 조세윤리의식의 변화
5. 결 론

### 1. 서 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sup>1)</sup>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

\*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회계세무행정학부 교수(wsjung@pufs.ac.kr)

1)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조세로 국방, 치안, 행정,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국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하게 되므로, 조세의 대가는 개인에게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공재로부터 받는 편익이 간접적·무형적·비금전적이며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담'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sup>2)</sup>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에 대하여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의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선·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세금은 과세당국인 정부의 납세자에 대한 일방적 부과 성격의 가지므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는 피하기 힘든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성실성(tax compliance)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미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사에 의하면 조세회피로 인한 납세불성실성 금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1992년 일본 국세청의 자료에서는 조세범칙조사건수가 219건, 금액은 647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도의 경우 조세범(조세포탈범과 자료상 포함) 고발건수가 3,765건이었으며, 조세범칙조사건수가 383건으로 금액은 7,0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3)</sup> 정경유착 및 관료들의 고질적인 부패, 관치금융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과 조세회피에 직접 관련되는 지하경제<sup>4)</sup>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sup>5)</sup> 우리나라

2) OECD에서도 세금을 'Taxes are compulsory, unrequited payments to general government'로 정의하고 있다.

3)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지능적인 조세포탈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이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건수는 2004년 347건, 2006년 399건, 2007년 554건, 2008년 5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383건으로 줄었다. 《2010 국세통계연보》(국세청)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4) 마약, 무허가 영업활동, 장물의 취득, 밀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 및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탈루소득 뿐만 아니라 사채나 일용노동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5)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는 200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6%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3위권인데 지하경제규모가 27.6%라는 것은 OECD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크다. GDP 규모가 한참 적은 터키(33.3%), 멕시코(31.7%), 포르투갈(28.2%)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9.9.8)

의 조세회피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세회피로 인한 세수감소는 정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소득재분배정책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납세자의 조세회피는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과거의 많은 연구자들이 납세성실성에 대하여 연구해왔다.

전통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왔으며, 이들 연구는 회계학, 경제학, 의사결정과학, 범죄심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많은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추론의 명료성이나 측정상의 주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가치있는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때문에 조세의식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연구는 분석적(analytic) 혹은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최적감사(optimum audit)와 적발확률(penalty rates)과 같은 문제를 검증하는 계량경제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대상도 일반납세자 혹은 세무전문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미래의 주된 납세자가 될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국가 간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을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조세의식을 파악함으로써 납세의무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세윤리의식의 정도를 조사하고, 세법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그 정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 국가의 대학생간의 조세의식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조세윤리의식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조세의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연구를 설계하며,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 2.1 이론적 배경

조세의식은 조세에 대한 의식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납세행태의 근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의식이란 광의의 의미로 조세윤리(tax ethics)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는 납세성실성(tax compliance)<sup>6)</sup>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조세의식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유지해야할 가장 기초적인 도덕의식으로서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조세의식이 고양되면 다양한 사회계층간의 화합이 용이하며 국가와 국민간의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즉 조세의식이 선진화된다는 것은 납세성실성이 제고되어 조세의 징수비용이 절감되고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며 투명한 조세행정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조세윤리의식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조세윤리 또는 조세도의는 개인의 인격, 양심 및 윤리와 직결되고 있는 일반적인 도의와는 다르다(최임수, 1999).

조세도의는 일반도의보다는 하위에 있는 세속적인 수준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 사회에 지배적인 조세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는 행동규범이며 특히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의라기보다 집단도의의 특성을 지닌다. 즉,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납세의무와 책임이행, 과세표준신고의 정직성의 정도 등을 준거로 삼아 개인이 조세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6) 납세성실성이란 납세자들이 적절한 시점에 모든 필요한 과세소득(tax returns)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A.D.Witte.저 《Taxpayer Compliance: Vol.1, An agenda for resea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9), 2쪽.

7) Song, Y.D. and T.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8.9-10), 443쪽.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극히 적은 금액의 조세회피인 경우에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세법 등의 규정을 납세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변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납세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직성을 모호하게 정의해버리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태도는 납세회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납세회피가 도덕적으로 나쁜지에 대해 특히 금액이 적을 때에 도덕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Grasmick and Scott는 이러한 조세의식이 납세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조사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sup>8)</sup> Mason and Calvin는 조세윤리의식과 납세회피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이 외에도 이필우, Song and Yarbrough, Jackson and Milliron 등의 관련연구들도 대부분 납세자의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측면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10)</sup>

세율과 같은 조세제도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율이 높으면 납세순응정도가 감소하고,<sup>11)</sup> 세법이 복잡할수록 납세순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sup>12)</sup> 과세당국이 활동수준의 강

8) Grasmick, H. and W. Scott,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982), 218쪽.

9) Mason, R and L. D. Calvin,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7(1984). 85쪽.

10) 이필우 <조세부담과 과세의 한계 : 그 사회심리학적 이해를 위하여>, 《한국조세연구》 1(1985), 46쪽

Song, Y.D. and T.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8.9-10). 450쪽.

Jackson, B.R. and V.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1986). 160쪽.

11)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4(1993). 58쪽.

12)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1974.12), 510쪽.

도를 높일 때 납세자를 납세순응측면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3)</sup>

납세심리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세의 제1원칙인 공평성은 납세자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자신에게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납세순응측면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납세자는 제도적 제재와 비제도적 제재에 대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일반적으로 제재가 심하다고 느끼면 납세자는 조세를 순응하려고 하며,<sup>14)</sup>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할 경우 받게 되는 사회적 비난이나 죄의식의 위협은 납세회피를 크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지식수준은 조세행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조세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6)</sup>

사회문화적 요인을 검증한 연구에 의하면 납세자는 납세회피가 만연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납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르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일 경우 납세자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납세행위를 결정하지만 납세자가 속한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고 도덕성이 결핍되었을 때는 납세행위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sup>17)</sup>

13) Witte, A.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1985.3), 10쪽.

14) Beck, P.J. and W.O. Jung, <Taxpayers' Reporting Decisions and Auditing Under Information Asymmetry>, 《The Accounting Review》64:3 (1989.7), 482쪽.

15) Grasmick, H. and W. Scott,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1982), 218쪽.

16) Witte, A.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1985.3), 11쪽.

17) Kaplan, S. and P. Reck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ments>, 《National Tax Journal》(1985.3), 99쪽.



이와 같이 납세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넓게는 사회문화 혹은 역사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좁게는 나이,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교육, 소득수준, 소득원천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및 조세제도의 복잡성, 적발확률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관점에서의 조세윤리 즉, 납세성실성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주도적인 납세자가 될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조세윤리 의식을 측정하고 교육을 통해 조세윤리의식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한 기초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세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세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후 국가별로 조세윤리의식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2 가설설정

조세의식은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의미하며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조세의식이 고양된다는 것은 과세당국과의 관계에서 납세자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조세부과 및 납부에 대한 인식이 윤리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조세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므로 단적으로 분류하기 힘들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하여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sup>18)</sup>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 거래투명성의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과세의 누락이 많았고 세제가 고도 경제성장을 지원하도록 운용되어 옴에 따라 공평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지

18) 2008년도 국제수입실적은 212조 7천억 원으로써 GDP 대비 조세부담율이 20.7%였다. 이 수치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다(일본 18.0%, 독일 23.1%, 중국 20.3%, 프랑스 27.1%, 이탈리아 29.8%, 영국 28.8%).

적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불만이 상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역사적인 교차점이 상존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이들 세국가의 문화적 혹은 사회적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주로 한·중·일을 동아시아국가(east asia)로 분류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조사결과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 및 도덕성(social morality)이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가치관에 있어서도 상이한 점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예: Schwartz and Bilsky, 1990 등).<sup>19)</sup>

일본의 경우는 사회적 투명성이나 거래의 투명성이 높은 대표적인 선진국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다는 점과 국가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높다는 점에서 낮은 조세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0)</sup> 또한 중국인의 1인당 소득 대비 납세부담이 세계 2위에 기록될 정도로 과중하며,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세금 지불을 거절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 및 탈세한 경우에

19) Schwartz and Bilsky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평판(reputation)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가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혈연 이외의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자발적인 결사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일본은 비친족공동체라는 점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고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Schwartz and Bilsky,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 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990), 885쪽.

20)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경제가 무역규모로는 세계10위권 안팎이지만 투명성이나 부패지수(CPI)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최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08년 기준 한국 39위, 일본 17위, 중국 79위).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10/results](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10/results)

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혹한 처벌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세부과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측면을 통해서 볼 때 한·중·일 국가별 조세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sup>21)</sup> 즉 한국인의 조세의식은 일본에 비해 낮을 것이며 세 국가 중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조세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별히 미래의 사회 원동력이 되며 또한 주도적인 납세자가 될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증분석의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한국·중국·일본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조세행동에 대해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Witte and Woodbury(1985)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조세순응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조세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이 조세순응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세법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순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조세 지식수준은 조세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조세행동은 조세윤리의

21) 한 사회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변용환, 1998). 납세자의 조세행동은 납세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와 관련이 높다. 납세자가 정부를 신뢰할수록,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을수록 납세자는 조세순응측면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전태영, 1990).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팽배하고 정의가 자리잡고 있지 못한 사회 속에서 납세자는 조세순응과는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Kaplan and Peckers(1985)는 조세회피가 만연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임수, 1999).

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일본 대학생의 조세지식의 정도를 평가하여 한·중·일 대학생들의 조세지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세지식과 조세윤리의식 관계에 있어서 한·중·일 세 국가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한국·중국·일본 대학생의 조세지식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 조세지식과 조세윤리의식의 관계정도는 한·중·일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조세지식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조세윤리의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다.

개인의 태도나 신념, 그리고 지각이나 행동에 대한 교육의 일반적인 효과는 주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연구되어왔다(Ajzen and Fishbein, 1980; Festinger 1957; Fishbein 1967; Katz 1960).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타인이나 특정의 사상에 대한 인지(cognition)는 매일 매일의 경험에 의해 조직화되고 통합되어서 어떤 형태를 갖춘 하나의 안정된 개념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면 개인의 조직화된 개념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뚫으면서 부조화(disharmony)나 불일치(inconsistency)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의한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나 Rosenberg and Hovland(1960)의 균형모형에 의한 균형회복과정, 그리고 Osgood and Tannenbaum(1955)의 일치모형에 의한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등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Katz(1960)은 개인의 태도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지식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식은 특정 상황에 대해 이해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추구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은 세법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세법교육을 통한 새로운 지식에 의해 조세윤리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지를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세법교육에 따른 조세윤리의식의 변화에 한·중·일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설계

#### 3.1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한·중·일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모집단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대학생이며, 2009년 8월 현재 중국 上海市 소재 C 대학의 학생과 일본 くまもと縣 소재 K 대학 중 세법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것 중 국가별로 각 60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동일한 성격으로 분류되는 P 대학교의 대학생 중 60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응답자의 구성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연구목적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미래의 납세자가 될 대학생의 납세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학생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들 세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국과 일본 및 한국대학생 간에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세금에 관한 조세지식의 차이 및 납세교육차원의 차이 때문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7개 단계로 나눈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7개정도의 계급구간이라면 응답자의 반응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당신은 가능하다면 비록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적게 내도록 노력하겠는가?
- 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면 어떠한 불법이라도 행하겠다.

- ②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라면 탈세사실의 적발위험이 있더라도 탈세하려 할 것이다.
- ③ 탈세사실이 적발되지 않는다면 탈세금액과 상관없이 불법적인 방법도 행할 것이다.
- ④ 고민은 하겠지만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⑤ 납부할 세액이 적다면 탈세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갈등을 할 것이다.
- ⑥ 가급적 불법적인 방법은 행하지 않겠다.
- ⑦ 절대로 불법적인 방법은 행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조세지식에 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 문항에 대하여 답하도록 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 ②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 ③ 신문, 방송, 인터넷, 책 등을 통해 세법관련 지식을 얻은 바 있다.
  - ④ 개략적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 ⑤ 세법에 대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거나 세법관련 시험을 준비 중이다.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항목은 성별과 학년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나 학력 등과 같은 기타의 다른 변수들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또한 세법을 수강한 학생들은 분석대상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표 3-1> 응답자의 구성

	총인원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학생	여학생
한국	60	1	25	29	5	27	33
중국	60	4	20	21	15	42	18
일본	60	2	33	18	7	39	21
총계	180	7	78	68	27	108	72

## 4. 분석결과와 해석

### 4.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다음의 <표 4-1>은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sup>22)</sup> 먼저 조세윤리의식의 경우 평균이 한국은 3.05, 중국은 5.3167 그리고 일본은 4.6667로 나타났으며 중위수가 한국은 3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5로 나타났다(Panel A).

조세지식의 평균은 한국대학생이 2.2833, 중국은 1.95, 일본은 1.9였으며 중위수와 최대치 및 최소치는 3개 국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Panel B).

22) 설문문항들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alpha$  Test를 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각 설문문항 당 각각의 가설이 설정되어 있기에 신뢰성 검정은 적합하지 않으며 설문문항의 타당함을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 5개 중 가설검정과 관련되는 문항은 3개로 각 국가 간의 설문답안은 9개의 변수가 된다.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Factor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요인의 고유값이 2.3031, 2.0238, 1.9895로 나타나 서로 비슷하게 중요한 문항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로 묶인 것은 조세윤리의식 한국, 중국, 일본이며, 요인2는 세법교육 후의 조세윤리의식 한국, 중국, 일본이며, 요인3은 조세지식 한국, 중국, 일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lt;표 4-1&gt;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의 기술통계

Panel A: 조세윤리의식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평 균	5.3167	4.6667	3.0500
표준편차	0.9999	1.2166	1.1849
중 위 수	5	5	3
최 소 치	3	2	1
최 대 치	7	7	6

Panel B: 조세지식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평 균	1.9500	1.9000	2.2833
표준편차	0.9816	0.9863	1.1945
중 위 수	2	2	2
최 소 치	1	1	1
최 대 치	5	5	5

<표 4-2>은 조사대상자 국가별 각 60명의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panel A, 조세윤리의식의 경우 7개 척도로 나누어 응답토록 한 것인데, 한국대학생은 3번과 4번 즉, '탈세사실이 적발되지 않는다면 탈세금액과 상관없이 불법적인 방법도 행할 것이다'와 '고민은 하겠지만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의 응답비율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표 4-2>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의 빈도수 및 백분율

Panel A: 조세윤리의식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1	0	0.00%	0	0.00%	7	11.67%
2	0	0.00%	1	1.67%	12	20.00%
3	3	5.00%	12	20.00%	18	30.00%
4	7	11.67%	12	20.00%	18	30.00%
5	25	41.67%	19	31.67%	4	6.67%
6	18	30.00%	13	21.67%	1	1.67%
7	7	11.67%	3	5.00%	0	0.00%
계	60	100.0%	60	100.0%	60	100.0%

Panel B: 조세지식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1	22	36.67%	24	40.00%	16	26.67%
2	26	43.33%	25	41.67%	26	43.33%
3	6	10.00%	5	8.33%	8	13.33%
4	5	8.33%	5	8.33%	5	8.33%
5	1	1.67%	1	1.67%	5	8.33%
계	60	100.0%	60	100.0%	60	100.0%

그러나 중국과 일본대학생의 경우는 5번 응답 즉, '납부할 세액이 적다면 탈세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같등을 할 것이다'가 각각 41.67%와 31.67%로 가장 많았고 6번이 중국은 30%, 일본은 21.67%로 나타나 단순비교로 볼 때 한국대학생보다는 중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가장 조세윤리의식이 낮은 항목인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면 어떠한 불법이라도 행하겠다'에 응답한 대학생이 중국과 일본은 한 명도 없으나 한국의 경우는 11.67%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반대로 가장 높은 조세윤리의식을 가진 학생의 빈도수가 한국은 없으나 중국과 일본은 각각 7명(11.67%)과 3명(5%)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은 경우라면 탈세사실의 적발위험이 있더라도 탈세하려할 것이다’에 응답한 중국학생은 없으며 일본도 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무려 12명(20%)이나 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조세지식에 대한 응답(panel B)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전혀 알지 못한다’와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에 응답한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조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임을 알 수 있다.

#### 4.2 가설의 검정

다음의 <표 4-3>은 본 연구의 목적인 한·중·일 대학생간의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즉, 국가 간 조세윤리의식을 측정하여 이들 순위를 이용,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는 Friedman 검증과 Kruskal-Wallis 검증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chi^2$ 와 F값이 각각 61.33과 43.25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다(panel A).

<표 4-3> 조세윤리의식의 국제비교

panel A. 한·중·일 전체비교				
구 분	평 균	Kruskal-Wallis 검증의 $\chi^2$	Friedman 검증의 F	
중 국	5.3167	61.33*** (0.0001)	43.25*** (0.0001)	
일 본	4.6667			
한 국	3.0500			

panel B. 짝을 이룬 국가 간 비교				
구 분	평균차	t-stat(p-value)	Z-stat(p-value)	
중국-한국	2.2667	10.109***(0.0001)	8.3417***(0.0001)	
일본-한국	1.6167	8.023***(0.0001)	6.8711***(0.0001)	
중국-일본	0.6500	2.831** (0.0210)	2.8021** (0.0298)	

주1) t-stat는 t-검증의 통계량, Z-stat는 Wilcoxon 검증의 통계량을 나타냄.

주2)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panel B에서는 조세윤리의식수준의 국가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한 짝을 이룬 국가 간 다중비교 t-검증통계량과 Wilcoxon검증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간의 국제비교에서는 모수검증결과인 t값이 각각 10.109와 8.023, 비모수검증결과인 Z값은 8.3417과 6.8711로 모두 1%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 간의 비교에서는 t값이 2.831, z값은 2.802로 5%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수준이 ‘중국>일본>한국’ 순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한국대학생들이 세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조세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국대학생들의 높은 조세윤리의식은 중국의 부패지수가 매우 높고 조세부담율이 세계최고수준이며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환경에 비추어 낮은 조세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의 주된 납세자이며 사회의 원동력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결과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이 검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4-4>의 panel A는 <가설 2> 즉, 한·중·일대학생의 조세지식에 대하여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중국과 일본 및 한국 세 국가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Kruskal-Wallis 검증통계량  $\chi^2$ 가 2.9011(p=0.2337)이고 Friedman 검증통계량 F값은 1.8389(p=0.1637)로 나타나 세 국가 간 전체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가설 2>는 지지되지 않음). 그러나 짝을 이룬 국가 간 비교에서는 ‘중국-한국’이 t=1.677, z=1.512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본-한국’은 t=1.869, z=1.7903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조세지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대학생은 중국과 일본의 학생보다 조세지식의 보유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세 국가의 조세구조와 경제 환경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과 IMF 경제위기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TV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간접학습 경험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지난 30여 년간 경제침체와 저금리 등 경제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세제는 20목의 국세와 23목에 달하는 道府縣稅 및 市町村稅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sup>23)</sup> 한국에 비하여 세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조세지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 및 일본과는 다른 정치적 상황과 정보의 공개 및 공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경 그리고 일천한 개방경제의 역사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4-4> 조세지식의 국제비교

panel A. 한·중·일 전체비교

구 분	평 균	Kruskal-Wallis 검증의 $\chi^2$	Friedman 검증의 F
중 국	1.9500	2.9011	1.8389
일 본	1.9000	(0.2337)	(0.1637)
한 국	2.2833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23) 일본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해당하는 道府縣稅와 市町村稅로 區分된다. 국세는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贈與稅, 地價稅, 酒稅, 消費稅, 揮發油稅, 石油가스稅, 航空機燃料稅, 石油稅, 담배세, 地方道路稅, 田園開發促進稅, 特別噸稅, 登錄免許稅, 印紙稅, 自動車重量稅, 日本銀行券發行稅, 돈稅 등 20稅目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세로는 道府縣稅(道府縣民稅, 事業稅, 固定資産稅, 自動車稅, 鑛區稅, 狩獵者登錄稅, 地方消費稅, 골프장利用稅, 特別地方消費稅, 不動産取得稅, 水利地益稅, 自動車取得稅, 輕油去來稅, 入獵稅)와 市町村稅(市町村民稅, 鑛山稅, 輕自動車稅, 鑛山稅, 特別土地保有稅, 共同施設稅, 國民健康保險稅, 都市計劃稅, 入湯稅, 宅地開發稅)가 있다.

panel B. 짝을 이룬 국가 간 비교

구 분	평균차	t-stat(p-value)	Z-stat(p-value)
중국-한국	-0.3333	-1.677*(0.0833)	1.5121 (0.0911)
일본-한국	-0.3833	-1.869*(0.0637)	1.7903**(0.0561)
중국-일본	0.0500	0.401(0.7894)	0.4341 (0.7798)

주1) t-stat는 t-검증의 통계량, Z-stat는 Wilcoxon 검증의 통계량을 나타냄.

주2)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다음의 <표 4-5>는 <가설 3>검정을 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납세준응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Kaplan and Reckers, 1985; Grasmick et al., 1991; wenzel, 2004) 자발적 납세준응도는 곧 조세윤리의식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의 상관관계(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표 4-5>는 조세지식과 조세윤리의식은 한국의 경우 34.54%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국은 22.78%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대학생의 경우는 조세에 대한 지식정도와 조세윤리의식 수준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가설 3>은 일부 지지됨).<sup>24)</sup>

24) 참고로, 성별차이에 따른 조세윤리의식의 차이의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정도가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였다. 성별은 많은 연구에서 조세회피 관련변수로 사용된 것으로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자 0, 여자 1을 부여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다.

구 분	조세윤리의식		
	중 국	일 본	한 국
성별 상관관계(p value)	0.1108 (0.4498)	0.0901(0.4177)	0.0713 (0.8881)

&lt;표 4-5&gt;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의 상관관계

구 분		조세윤리의식		
		중 국	일 본	한 국
조세지식	상관계수 (p=.)	0.2278* (0.0891)	0.0272 (0.7871)	0.3454** (0.0108)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대학생의 경우 중국과 일본 대학생에 비해 조세지식은 더 높으나 조세윤리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국대학생들의 조세에 대한 지식수준과 조세윤리의식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법지식수준이 낮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서비스라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은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sup>25)</sup>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조세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조세윤리의식이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조세윤리의식이 교육에 의해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설 4>의 검정을 위한 것이다. 앞의 조세윤리의식 및 조세지식의 설문을 조사한 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세법관련과목을 수강한 후 조세윤리의식에 관한 동일한 설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세법교육전후의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4-6>은 한·중·일 대학생들이 세법과목을 수강하기 전과 수강 후에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25)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34:2 (1979), 254쪽.

<표 4-6> 세법교육전후 조세윤리의식의 비교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전	교육 후
평 균	5.3167	5.4333	4.6667	5.0333	3.0500	4.9167
최 소 치	3	3	2	3	1	3
최 대 치	7	7	7	7	6	6
평 균 차	0.1166		0.3666		1.8667	
t-stat(p-value)	0.5386(0.5612)		1.5901(0.1201)		8.8320***(0.0001)	
Z-stat(p-value)	0.5017(0.5879)		1.4878(0.1587)		7.0011***(0.0001)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표 4-6>에 의하면 한국대학생의 경우 세법과목 수강 전 조세윤리의식 평균이 3.05에서 세법교육 후에는 4.9167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세법과목 강의시작 전 응답에서는 조세윤리의식 평균이 5.3167과 4.6667이었던 것이 세법교육 후에는 5.4333과 5.0333로 역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각 동일 집단의 세법교육 전과 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한 결과, t통계량이 한국은 8.832(Z=7.0011)로서 유의수준 1%미만의 수준에서 평균차(average difference)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법교육으로 인하여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이 한국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은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가설 4>는 일부 지지 됨).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이 중국이나 일본의 대학생들에 비하여 낮으나 세법교육으로 인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세법교육이 납세자의 조세윤리의식의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 4.3 추가분석

다음은 추가적으로 국가 간 조세지식이 조세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7>에 나타나 있다.

&lt;표 4-7&gt; 조세지식이 조세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ETH = \alpha_0 + b_1KNW + b_2NAD + \mu$$

구분	중국	일본	한국	전체
$\alpha_0$	5.322*** (18.04)	4.898*** (14.22)	2.259*** (7.20)	2.787*** (11.72)
$b_1$	0.2302* (1.72)	0.1219 (0.76)	0.3462*** (2.84)	0.175* (1.74)
$b_2$				포함 <sup>26)</sup>
Adj- $R^2$	0.117	0.073	0.2067	0.4130
F값	3.01***	2.57***	8.05***	42.97***
표본 수	60	60	60	180

주1) 변수정의: ETH:조세윤리의식, KNW:조세지식, NAD: 국가더미

주2)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 )의 값은 t통계량임.

각 국가의 조세지식이 조세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고, 전체표본을 이용한 경우는 국가 간에 통제를 위하여 국가더미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지식의 정도는 조세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은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체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조세지식이 조세윤리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국가 간의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 6.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및 일본의 대학생과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세윤리의식과 조세지식에 국가 간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고, 세법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전·후의 조세윤리의식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26) 국가더미의 계수(t값)이 2.3165\*\*\*(11.02), 1.6607\*\*\*(7.93)로 나타나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각 변수간의 다중공선성검정 결과 VIF값은 1.0~1.37이었다.



분석하였다.

조세윤리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며 상호신뢰와 공동체 의식으로서 공동체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맥락에서 미래의 주된 납세자인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 수준을 조사하고, 조세교육에 따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납세의식과 조세윤리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학생은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보다 조세지식의 보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또한 조세윤리의식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학생이 가장 높은 조세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중·일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설 1)’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세 국가 중 중국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유의해 보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른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납세회피정도가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세지식과 조세윤리의식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이러한 결과는 조세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조세윤리의식이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법교육전후의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설 4), 세법교육으로 인하여 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이 한국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조세윤리의식이 중국과 일본대학생에 비하여 낮으나 세법교육으로 인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세법교육이 납세자의 조세윤리의식의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점과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표본추출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문지를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데 따른 응답상의 편향(bias)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 일련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조세윤리의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조세윤리의식정도를 평가하는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향후 주도적인 납세자로 성장할 대학생들의 조세윤리의식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국세행정개혁과 조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및 일본, 한국 등의 상호비교를 통한 연구결과이므로 국가 간 상대적인 조세윤리의식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대학에서의 교육이 조세윤리의식 고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교육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러시아 등 상대적으로 하위의 경제수준을 보이는 국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확보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해본다면 조세윤리의식과 사회문화적 변수와의 관계를 실증검증해보는 추가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이종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분석을 통한 납세성실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4 (1993)
- 이필우, <조세부담과 과세의 한계 : 그 사회심리학적 이해를 위하여>, 《한국조세연구》 1 (1985)
- 최임수, <조세회피요인에 대한 납세자 의식의 지역간 비교>, 《세무학연구》 13 (1999).
- Ajzen, I., and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on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1980).
- Allingham, M.G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1972)
- Beck, P.J. and W.O. Jung, <Taxpayers' Reporting Decisions and Auditing Under Information Asymmetry>, 《The Accounting Review》 64:3 (198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Row Peterson & Co.,
- Fischer, C.M., M. Wartick and M.M. Mark,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1 (1992)
- Fishbein, M. 1967. A Behavior Theory Approach to the Relation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e Object: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Wiley.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8)
- Grasmick, H. and W. Scott,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982)
- Jackson, B.R. and V.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1986)
- Kaplan, S. and P. Reck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ments>, 《National Tax Journal》 (1985)
-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pp.163~204.
-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34:2 (1979)
- Mason, R and L. D. Calvin,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7 (1984)
- Osgood, C. E. and P. H. Tannenbaum. 1955. The Principle of Congruity in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Review. pp.42~55.
- Rosenberg D. and C. I. Hovland. 1960. An Analysis of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in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Yale University Press.

- Roth, J.A., J.T. Schoolz and A.D.Witte, 《Taxpayer Compliance: Vol.1, An agenda for resea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9)
- Schwartz and Bilsky,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 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990)
- Song, Y.D. and T.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8)
- Spicer, M.W. and S.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1976)
-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1974)
- Witte, A.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1985)

<英文提要>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Tax Ethics  
-A comparison wi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sixty (N=60) Korean university students, sixt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sixty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Compared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Korean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tax law. However,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tax ethics. This results tell that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as not rejected.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xual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The additional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improved through the tax lecture or cours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could be affected by the education of tax law.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Tax Ethics Knowledge about Tax Law Education  
of Tax Law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투 고 일 : 2011.6.25
심 사 일 : 2011.6.29~7.31
게재확정일 : 2011.8.10



## 《中國學》 발행 규정

###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3회로 한다.

###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년 3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4월	8월	12월
원고마감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
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大韓中國學會 會則

### 第1章 總 則

####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 第2章 會 員

####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

-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 第3章 任 員

####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の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5) 其他 必要한 事項

####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理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理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會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構成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研究理事,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한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研究理事를 겸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研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 第5章 財 政

####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 편집위원회 규정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 논문심사 규정

###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잘 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 논문심사 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제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적합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논문투고 규정

###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5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심사절차 및 일정

-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목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한자	바탕 SimSun	바탕 SimSun	바탕 SimSun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 (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

##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



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 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 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

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年三刊 中國學 第 39 輯

---

2011년 8월 25일 인쇄  
2011년 8월 31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李 在 夏  
發行處：釜山市 南區 大淵3洞 (☎ 608-736)  
慶星大學校 中國大學 內  
TEL : (051) 663-4264  
H.P. : 010-9366-7478  
E-mail : whahum@ks.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 424-9977

---

ISSN 1229-9618

이 학술지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